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제46회 정기학술대회

주제 : 챗 GPT의 목회 활용법
(설교, 예배, 교육)

일시: 2024년 05월 18일(토) 오전 10시~오후 2시

장소: 소망교회

(경기도 시흥시 배곧 4로 42 / 031-431-4817)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KOREAN SOCIETY OF EVANGELICAL PRACTICAL THEOLOGY

목 차

·일정표-----	4
·알리는 말씀-----	5
·예배 순서-----	6
[주제발표] “챗 GPT의 목회 활용법” (설교, 예배, 교육)	
발표/ 박현신 교수 -----	7
[자유발표 전반]	
·자유발표1: "영적 생명력 증진을 위한 설교 목표 제안"	
발표 / 임도균 교수 -----	41
논평 / 김대혁 교수 -----	59
·자유발표2: “설교자의 의사소통적이고 효과적인 설교를 위한 설교 작성 방법연구”	
발표 / 황종석 교수 -----	62
논평 / 주종훈 교수 -----	77
·자유발표3: “헤르만 바빙크의 『웅변술』에 담긴 설교학적 함의”	
발표 / 박태현 교수 -----	80
논평 / 이승진 교수 -----	98
[자유발표 후반]	
·자유발표4: “증인 모티프로 본 요한계시록 설교를 위한 제언: 기독론과 교회론을 중심으로	
발표 / 이우제 교수 -----	102
논평 / 박성한 교수 -----	125
·자유발표5 “타로 카드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이해와 목회신학적 비평”	
발표 / 김용민 교수 -----	128
논평 / 최승근 교수 -----	144
·자유발표6 “장르 이해를 적용한 시편 설교 방법”	
발표 / 최광희 박사 -----	146
논평 / 이재형 교수 -----	166

일 정 표

시간/ 내용/ 제목/ 담당	장소
10:00 - 10:35 [예배] / 감사패 전달 / 신진학자 우수 박사학위논문 시상	
■ 개회예배 사 회: 신성욱 목사(아신대) 기 도: 박성환 목사(성서대) 설 교: 이정현 목사(소망교회) 축 도: 박태현 목사(총신대) 광 고: 김대혁 목사(총신대)	소망교회 요한 홀(2층)
10:40 - 11:30 [주제발표] / 사회: 신성욱 교수(아신대) / 50분 발표	
■ 주제발표: 박현신 교수(총신대) “챗 GPT의 목회 활용법” (설교, 예배, 교육)	소망교회 요한 홀(2층)
11:30 - 11:50 [질의응답] / 사회: 신성욱 교수(아신대) / 20분 질의응답	
11:50 - 12:00 [기념촬영, 분반이동]	
12:00 - 12:35 [분반 자유발표 전반 / 발표 20분, 논평 5분, 질의응답 10분 예정]	
■ 발표1: 임도균 교수(침신대) “영적 생명력 증진을 위한 설교 목표 제안” 좌장: 박성환 교수(성서대) / 논평: 김대혁 교수(총신대)	소망교회 요한 홀 (2층)
■ 발표2: 황종석 교수(백석대) “설교자의 의사 소통적이고 효과적인 설교를 위한 설교 작성 방법연구” 좌장: 신성욱 교수(아신대) / 논평: 주종훈 교수(총신대)	소망교회 새가족실 식당 (3층)
■ 발표3: 박태현 교수(총신대) “헤르만 바빙크의 『양변술』에 담긴 설교학적 함의” 좌장: 김순환 교수(서울신대) / 논평: 이승진 교수(합신대)	소망교회 찬양대 실 (3층)
12:40 - 13:15 [분반 자유발표(후반) / 발표 20분, 논평 5분, 질의응답 10분 예정]	
■ 발표4: 이우제 교수(백석대) “증인 모티프로 본 요한계시록 설교를 위한 제안: 기독론과 교회론을 중심으로” 좌장: 양병모 교수(침신대) / 논평: 박성환 교수(성서대)	소망교회 요한 홀 (2층)
■ 발표5: 김용민 교수(침신대) “타로 카드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이해와 목회신학적 비평” 좌장: 이승진 교수(합신대) / 논평: 최승근 교수(장신대)	소망교회 새가족실 식당 (3층)
■ 발표6: 최광희 박사(행복한 교회) “장르 이해를 적용한 시편 설교 방법” 좌장: 오현철 교수(성결대) / 논평: 이재형 교수(침신대)	소망교회 찬양대 실 (3층)
13:20 - 14:00 [중식 및 교제]	소망교회 식당 (3층)

• 알리는 말씀

1.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제46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2. 오늘 정기학술대회의 예배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과 각 발표와 좌장, 그리고 논평을 맡아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 오늘 학회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의 회원 여러분들과 여러 목회자분들, 그리고 대학원 원우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4. 이번 정기학술대회를 위해 장소를 제공해 주신 소망교회 이정현 담임목사님과 교우님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5. 주제 발표를 마친 후, 그 자리에서 전체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6. 기념 촬영 후 전·후반 3개 분반으로 이동해 자유 발표 시간이 이어집니다. 발표 주제와 분반 장소는 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자유 발표를 마친 후, 오후 1시 20분부터 중식 시간을 가집니다. 중식은 소망교회 3층 식당에서 합니다. 금일 식사는 소망교회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8.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의 논문집, 「복음과 실천신학」 제71권이 발행되었습니다. 본 학술지에 관심을 가지고 논문을 투고해 주신 분들과 논문집 발간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9. 「복음과 실천신학」 제72권에 투고하실 분들은 **06월02일(주일)**까지 논문투고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공식 이메일(kept1997mail@naver.com)로 보내주시고, **06월30일(주일)**까지 홈페이지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하여 논문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음과 실천신학」에 대한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10. 본 광고를 마치고 감사패 전달식과 신진학자 우수 학위 논문에 대한 시상이 있습니다.(감사패: 양병모 교수 / 우수 학위 논문 시상: 이재형 박사, 이승민 박사)

개회 예배

인도: 신성욱 목사(아신대)

- 예배선언: 인도자
찬 송: 200장[통235]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기 도: 박성환 목사(성서대)
성경봉독: 사도행전 18:24-28 / 인도자
설 교: 아볼로 같은 사역자 / 이정현 목사(소망교회)
광 고: 김대혁 목사(총신대)
찬 송: 93장[통93] “예수는 나의 힘이요”
축 도: 박태현 목사(총신대)

▷ 찬송가 200장[통235] “달고 오묘한 그 말씀”

- 1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 2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 3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맘에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후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 설교 본문/ 사도행전 18:24-28

- 24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 25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 26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 27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 28 이는 성경으로써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 이러라

▷ 찬송가 93장[통93] “예수는 나의 힘이요”

- 1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실 이 주 예수
- 2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 3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 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
- 4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주제발표]

ChatGPT의 목회 활용 방법 (설교, 예배, 교육)



박현신 교수(충신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면서 여러 학자들이 예측한 대로 인공지능 혁명이 더욱 가속화되어 사회 곳곳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 2020년 초 시작된 코로나 19 팬데믹 (Covid 19 pandemic)은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시대를 더욱 ‘가속화’시키며, 사회가 인공지능과 디지털 혁명 등을 급속하게 받아들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¹⁾ 코로나 19 기간 동안 국민들의 70%가 4차 산업혁명을 생활 속에서 체감하고 있을 정도이며, ‘4차 산업혁명’ 하면 떠오르는 연상 이미지는 2020년에 인공지능, AI, 데이터, 로봇 등이었고, 2021년은 메타버스, 플랫폼, 헬스케어, 경제 등이었다.²⁾ 최근 ChatGPT(이하 챗GPT)의 충격파를 통해 인공지능 혁명 (Artificial Intelligence Revolution, 이하 AIR)이 실생활 안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현실로 체감하고 있다. 챗GPT의 도전에 교회가 응전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및 인공지능 혁명에 대한 인문학적, 실천신학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³⁾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맞이한 시점인 2023년 초부터 오픈AI(OpenAI)가 선보인 초거대 생성 인공지능 챗GPT(ChatGPT)가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2015년 비영리 회사로 설립된 오픈AI는 2020년 심층학습(딥러닝) 기반으로 하여 사용자 질문에 가장 최적의 답변을 하도록 설계하여 발전시킨 GPT-3 모델을 본격적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는 2022년 11월에 선보였다. 누구나 등록만 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유료화 서비스도 제공) 대화형 인공지능인 ChatGPT 모델이 공개

1) Linda Hantrais, Allin P, Kritikos M. et al. “Covid-19 and the digital revolution. Contemporary Social Science,” *Journal of the Academy of Social Sciences* 16/2 (2021): 256-7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코로나 이후 시대,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디지털 전환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18758>>.

2) “4차산업혁명 체감도, 코로나 사태 전 52%→후 73%,” <<https://www.yna.co.kr/view/AKR20220106087900017>>.

3) 박현신, “인공지능 혁명(AIR)에 대한 교회의 대응에 관한 연구: 설교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복음과 실천신학』 57 (2020): 82-116. (<https://doi.org/10.25309/kept.2020.11.15.082>)

된지 두 달 만에 ‘월간 사용자 1억 명’을 달성하여 역대 최단 기록을 세울 정도로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화제이다. IT업계에서는 챗GPT가 1994년 웹브라우저, 1998년 구글 검색엔진, 2007년 아이폰에 이어 판도를 완전히 바꿀 게임체임저(game changer)가 되리라고 전망한다. 이러한 전망을 방증이라도 하듯 챗GPT가 출시된지 3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아서, 언론, 인터넷 기사, 유튜브, 서점 등에서 이와 관련된 국내외 기사와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다.⁴⁾

그러나 한국의 학계에서 챗GPT에 대한 연구논문과 전공 서적을 소수의 학자들이 내놓긴 했으나,⁵⁾ 아직 학문적인 논의를 분석하고 종합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기독교 학자들의 논의는 최근 여러 매체를 통해 제시되었지만, 기독교 세계관 관점에서 챗GPT에 대한 학자들의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행히도 한국의 여러 학계와 기독교 학회들이 챗GPT에 대한 학회와 발표회를 진행하고 있기에 학문적인 결과들이 어떻게 도출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챗GPT를 활용한 설교에 대한 논란이 들불처럼 번져가는 상황 속에서 이에 대한 설교학적 차원의 학술 논문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도래와 함께 교회가 직면한 총체적인 위기에 대한 실천신학적 조망과 설교학적 대응방향에 관한 연구도 아직 부족한 상태 속에서⁷⁾ 챗GPT라는 이슈가 갑작스럽게 등장한 형국이다. 이처럼 챗GPT와 설교에 대한 학술적 논문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본 고에서 학술적 논의를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나온 온라인 학술자료, 영미권 자료, 인터넷 자료 등 최대한 활용해서 본 연구자의 논의를 실천신학적 관점에서 전개할 것이며, 실제 챗GPT와의 대화를 통해 얻은 설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설교학적 비평과 함의의 지평을 여는 것이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서, 본고는 다섯 가지 핵심 질문의 나침반을 통

4) “ChatGPT, ‘월간 사용자 1억’ 두 달 만에 달성…역대 최단 기록,”

<<https://www.techtub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59>>.

5) 2023년 5월 현재 KISS 논문 검색에는 챗GPT 관련 학술논문은 3편 정도뿐이다. 정한민, 박정훈, “ChatGPT를 이용한 문헌 작성 설계 및 이슈,”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기술논문지」 18 (2023): 31-40. (<https://doi.org/10.34163/jkits.2023.18.1.004>); 장성민, “챗GPT가 바꾸어 놓은 작문교육의 미래: 인공지능 시대, 작문교육의 대응을 중심으로,” 한국작문학회, 「작문연구회」 56 (2023): 7-34. (<https://doi.org/10.31565/korrow.2023..56.001>); 이숙연, “인공지능 관련 규범 수립의 국내외 현황과 과제,” 법조협회, 「법조」 72 (2023): 442-88. (<https://doi.org/10.17007/klaj.2023.72.1.014>). 최근 국내 미래학자가 발표한 책이 출판된 바 있다.

안종배, 『챗GPT-4 인공지능 미래세상』 (서울: 광문각, 2023).

6) 한국기독교언론포럼과 문화선교연구원, “AI가 묻고 한국교회가 답하다,” (2023년 4월 개최된 세미나); 예정 통합 총회 한국교회연구원, “챗GPT의 목회적 도전,” (2023년 4월 개최된 세미나); 기독교 학문연구회, “기독교인, ChatGPT를 어떻게 볼 것인가?” (2023년 6월 개최된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 학술대회).

7) 박현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위기와 교회의 대응 방향: 실천신학적 조망을 중심으로,”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복음과 실천신학」 55 (2022): 263-65.

<<https://doi.org/10.25309/kept.2022.11.15.261>>.

해 챗GPT에 대한 실천신학적 논의와 설교학적 연구의 기본 방향성을 설정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챗GPT의 주요 흐름과 실제적 개념이 무엇인가이다. 둘째는 챗GPT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요 평가와 전망은 어떠한가이다. 셋째, 챗GPT에 대한 실천신학적 논의에 기초한 한국교회의 대응방향은 무엇이며, 챗GPT 설교에 대한 목회자들 대상의 통계분석과 주요 함의는 무엇인가이다. 넷째, 챗GPT 설교에 대한 설교신학적 평가의 핵심은 무엇인가이다. 다섯째, 실제 챗GPT를 활용한 설교에 대한 설교학적 비평과 통찰은 무엇인가이다. 본 소고의 중심 논지는 챗GPT에 대한 인문학적 이해와 평가를 인식하면서 챗GPT에 대한 실천신학적 대응방향과 설교학적 비평을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 제시하는 것이다.

II. 펴는 글

1. 챗GPT의 주요 흐름과 실제적 개념

2022년 연말에 출시되어 전 사회적으로 게임체인저로 급부상한 오픈AI의 ‘챗GPT’로 인해 상대적으로 급속히 유행이 급강하한 것 중 하나가 2021년 차세대 핵심으로 주목받았던 메타버스(Metaverse)이다.⁸⁾ 그러나 로열 오브라이언(Royal O'Brien)의 오픈 메타버스 재단(Open Metaverse Foundation)은 오히려 메타버스가 오픈소스 및 인공지능과 결합하여 본격적인 구축 단계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전망한다.⁹⁾ 현재 출시된 챗GPT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만능 인공지능은 아니지만, 메타버스 기술과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등과 결합한다면 영화 <아이언맨>에서 등장하는 인공지능 ‘자비스(Jarvis)’와 같은 비서 로봇이 등장할 가능성이 일부 학자들에 의해 언급할 정도로 엄청난 파급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향후 챗GPT 기술은 메타버스와 연결되어 가상 세계에서 비서와 같이 필요한 도움을 주고, 메타버스에서 부족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메타버스의 영향력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즉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게임체인저는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챗GPT가 결합될 때라고 할

8) 가상 혹은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우주 혹은 현실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가 메타버스(Metaverse)이며, 이는 현실을 초월한 가상의 세계 혹은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경계를 허문 융합된 세계를 의미한다. 김상균, 『메타버스』 (서울: 플랜비, 2020), 23; 송원철, 정동훈, “메타버스 해석과 합리적 개념화,” *Informatization Policy* 28 (2021): 5.
(<https://doi.org/10.22693/NIAIP.2021.28.3.003>)

9) “챗GPT에 가려진 ‘메타버스’, 오픈소스와 결합으로 도약 할 것.” <http://m.ddaily.co.kr/m/m_article/?no=259238>. ASF(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와 여러 학자들은 메타버스를 내-외재적 요소와 증강-시뮬레이션이 교차하는 영역에 따라 가상세계(virtual worlds),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라이프로그(Lifelogging), 거울세계(Mirror Worlds)라는 네 가지 범주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 김상균, 『메타버스』, 23; 송원철, 정동훈, “메타버스 해석과 합리적 개념화,” 6-7; 이준복, “미래세대를 위한 메타버스(Metaverse)의 실효성과 법적 쟁점에 관한 논의,” 『홍익법학』 22/3 (2021): 57-58.

(<http://dx.doi.org/10.16960/jhhr.22.3.202109.49>)

수 있다.¹⁰⁾

챗GPT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는 2023년 2월에 전 세계사용자 2억 명을 돌파하여 역대 가장 빠르게 성장한 인터넷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위협을 느낀 검색엔진 1위 구글(google)은 코드레드를 선언하였고, 구글의 CEO 순다르 피차이(Sundar Pichai)는 챗GPT의 대항마인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바드(BARD) 출시를 공개하면서 빅테크 AI 전쟁을 시작하였다. 구글의 언어 모델인 LaMDA(Language Model for Dialogue Applications)를 기반으로 구축된 바드는 챗GPT처럼 크고 작은 질문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제시해 주고 검색결과도 연결해주는 대화형 AI다.¹¹⁾ 최근 구글은 2023년 5월 오픈AI의 GPT-3 모델보다 뛰어난 새로운 대형언어모델(LLM)인 ‘팜2(PaLM 2)’ 모델을 전세계 180개국에 출시하였고(100개 이상의 언어를 지원), 5300억개의 파라미터를 기초로 과학과 수학에서 추론과 코딩 작업도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¹²⁾ 구글에 검색시장을 완전히 빼앗겼던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는 오픈AI와 100억 달러(약 12조 7,05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고(인공지능(AGI)을 만들어 내려는 OpenAI를 지원함), 오피스(Office)와 검색엔진 Bing(Bing)에 IT영역의 게임체인저라 불리는 챗GPT(Bing Chat)를 탑재하였다. 최근 Copilot이라는 진화된 모델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챗GPT는 2023년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수십 년 전부터 진행되어 온 연구와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 속에서 선보인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챗GPT의 주요 흐름을 요약해 본다면, 1980~1990년대 순환신경, 2017년 트랜스포머(구글이 개발함), 2018~2019년 GPT-1 모델(1억 1700만 개의 매개변수로 학습)과 GPT-2 모델(GPT-1보다 10배 성능이 발전), 2020년 대형 언어모델인 GPT-3 모델(1750억 개의 매개변수로 학습), 2022년 1월 인스트럭트 GPT를 거쳐, 2022년 12월 챗GPT(GPT-3 모델의 개선판인 GPT-3.5)가 선보였고, 2023년 3월 GPT-4모델이 출시되었다.¹³⁾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의 Bing과 연동된 Chat GPT(Bing Chat/Copilot)와 구글의 바드(BARD: 최근 Gemini라는 진화된 모델이 등장함)가 등장하였다.

거대 AI 챗봇인 ‘ChatGPT’는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투자한 인공지능 연구소 오픈AI(OpenAI)가 내놓은 새로운 언어모델로서 GPT라는 명칭은 생성적 사전학습

10) “챗GPT가 열어가는 新메타버스.”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605080>>; “챗GPT는 토니 스타크의 ‘자비스’가 될 수 있을까?.” <<https://www.ttimes.co.kr/article/2023021418147729797>>.

11) ““ChatGPT 게 쫓겨라” 구글, 대화형 AI 서비스 바드 공개.”

<<https://www.itworld.co.kr/news/276349#csidx61686890b99240691486ec408b456fe>>.

12) “구글, AI 챗봇 ‘바드’ 진화시켜 180개국에 동시 출시!... ‘PaLM 2’ 기반, 고급 수학 및 추론과 코딩도 잘한다.” <<https://www.ae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28000>>.

13) 상세한 챗GPT 역사를 위해서는, Will D. Heaven, “ChatGPT is everywhere. Here’s where it came from.”

<<https://www.technologyreview.kr/chatgpt-is-everywhere-heres-where-it-came-from/>>를 참조하라.

변환기(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를 의미한다. GPT 3의 기반으로서 ‘트랜스포머’(transformer)라는 딥러닝 체계는 이미 구글이 발전시켜 놓은 것이었지만, 오픈AI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도학습과 강화학습을 모두 사용하는 챗GPT 모델로 발전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¹⁴⁾

1966년 MIT AI연구소에서 챗봇 ‘ELIZA’를 개발한 후, 2011년 애플의 시리(Siri) 출시로 챗봇서비스가 본격화되었고,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KT 등도 스마트 챗봇 서비스를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챗GPT는 기존 AI 챗봇과는 달리 3000억 개가 넘는 문장 토큰과 그 사이의 확률적 상호관계를 학습한 언어모델 인공지능이다. 즉 챗GPT는 다음 단어 예측기능(Next Word Prediction)을 통해 문장을 완성하는 일종의 자연어 처리기능의 기반이 되는 ‘조건부 확률 예측 도구’로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를 활용하여 정확도를 높이는 모델인 LLM(Large Language Model)을 사용하여 확률적으로 가장 적합한 문장을 즉각적으로 생성하고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생성형 AI라고 할 수 있다.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ChatGPT’라는 초거대 인공지능의 능력은 충격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지금까지 그 어떤 기계도 ‘튜링 테스트(turing test)’를 통과한 적이 없지만 인간과 대화가 가능한 챗GPT가 머지 않은 미래에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¹⁵⁾ 정한민과 박정훈은 챗GPT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망한다.

사용자가 질문을 통해 원하는 답변을 얻는 방식으로, 자료를 검색하거나, 자연어를 코딩으로 변환하거나, 시를 쓰거나, 문헌을 분석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사용자와 인공지능 간 상호작용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습득하고, 더 나아가서 답변들을 종합 분석하여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 습득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¹⁶⁾

김대식 KAIST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한 달 동안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ChatGPT)와 사랑·정의·죽음·신 등을 형이상학적 주제로 대화한 후, “챗GPT는 미래 생성인공지능 시대의 모습을 먼저 살짝 보여주는 예고편으로서 인류의 생각과 문장을 반사하는 존재적 메아리이자 거울”이라고 평가했다.¹⁷⁾ 챗GPT의 등장으로 인

14) “GPT 모델의 발전 과정 그리고 한계.”

<<https://medium.com/ai-networkkr/gpt-%EB%AA%A8%EB%8D%B8%EC%9D%98-%EB%B0%9C%EC%A0%84-%EA%B3%BC%EC%A0%95-%EA%B7%B8%EB%A6%AC%EA%B3%A0-%ED%95%9C%EA%B3%84-81cea353200c>>.

15) “[김대식의 메타버스 사피엔스] [19] 인간과 대화 가능한 기계”
<https://www.chosun.com/opinion/specialist_column/2022/12/20/5RO63SVH5JE6RGZ4H7SV6CJDLI/>.

16) 정한민, 박정훈, “ChatGPT를 이용한 문헌 작성 설계 및 이슈,” 31-40.

17) 김대식, 『챗GPT에게 묻는 인류의 미래』 (서울: 동아시아, 2023); “‘챗GPT에게 묻는 인류의 미래’.”
<<http://www.aifnlif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42>>.

해 구글 중심의 인터넷 검색의 시대가 끝나고, 과거 기계학습을 넘어 심층학습을 통해 새롭게 등장한 대화형 인공지능으로 인해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챗GPT를 이해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은 인간이 생성해 놓은 데이터를 심층학습한 인공지능 모델이라는 점, 인간의 피드백을 자기강화 학습을 통해 발전하는 인공지능이라는 점, 챗GPT를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질문’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이다.¹⁸⁾

현재 소개된 챗GPT는 인간과 대화할 수 있는 챗봇(ChatBot) 범주(예: 애플의 시리, 아마존의 알렉사, 삼성의 빅스비 등)에 들어가는 일종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챗GPT(GPT-3)가 스마트 보이는 이유는 1,750억개에 달하는 인공지능의 매개변수(고등생물 뇌세포의 시냅스와 유사한 신경망 알고리즘) 때문이다. 거대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의 하나인 챗GPT(GPT-3) 인공지능의 매개변수가 계속 증가할수록 챗GPT는 더 똑똑해지며, GPT-4 모델의 매개변수는 1조 개에 달한다고 한다. OpenAI의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 RLHF)을 통해 GPT-3보다 업그레이드된 GPT-3.5가 나왔고, 최근 선보인 GPT 4.0 모델이 상용화 될 것으로 전망한다.¹⁹⁾ 한양대 인공지능학과 교수인 정우환에 의하면, 챗GPT는 과거 챗봇 모델들과 달리 강화학습을 통한 대화 기능을 갖추어(대화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상을 주는 방식 활용) 인간과 자연스럽게 질문과 답변을 통해 사람처럼 대화하는 인공지능 모델이라고 평가한다.²⁰⁾

한편, 2023년 1월에 출간된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시대에 챗GPT와 기타 챗봇을 위한 1,337개 용례』라는 저술에 의하면 챗GPT를 활용한 기술이 1,337개나 있다고 한다.²¹⁾ 챗GPT에게 활용분야는 고객 서비스와 지원, 요약 및 보고서 생성, 지능형 챗봇, 번역, 감성 분석, 글 쓰기 지원, 사용자 선호도 분석, 질의응답, 문법 오류 정정,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다양한 기능, 키워드 추출 등이라 할 수 있으며, 향후 급속도로 챗GPT와 인공지능, 메타버스가 융합하면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교육과 의료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²²⁾ 챗GPT를 앞서 연구한 김대식은 현 챗GPT 모델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방대한 자료와 연구결과들을 몇 초안에 핵심을 요약해 주는 작업, 언어모델을 활용한 언어학습과 첨삭(교정), 글의 주제와 구조를 만드는 작업, 픽션(소설, 영화, 드라마 등)을 인간과 함께 창작하

18)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 (1부): ‘인공지능 시대에 애플의 움직임이 없는 이유’ 처음 듣는 챗GPT 이야기”, <https://www.youtube.com/watch?v=eCKS_etvZyl>.

19) 윤기영, “챗GPT의 한계와 가능성.” <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53233>.

20) “초거대 AI 챗봇 ‘ChatGPT’ 열풍, 기대와 우려의 시선들.” <<https://www.newshyu.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8874>>.

21) Florin Badita, *1337 Use Cases for ChatGPT & other Chatbots in the AI-Driven Era* (Googlebooks, 2023).

22) 윤기영, “챗GPT의 한계와 가능성.” <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53233>.

는 작업, 전문영역의 브레인스토밍 등으로 제시한다.²³⁾ 이러한 챗GPT의 주요 흐름과 개념을 기본적으로 인식한 다음, 챗GPT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2. 챗GPT에 대한 평가: 한계와 문제점

챗GPT에 대한 엄청난 유행과 관심 속에서도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은 챗GPT와 거대언어모델이 가진 문제점과 한계를 냉철하게 직시하는 태도가 필요하며, 지나치게 부정적인 관점과 낙관적인 관점을 모두 경계해야 한다.²⁴⁾ 먼저 아직 보완할 점이 많은 챗GPT에 대하여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비판과 국가들의 신중한 접근에 대해서 잘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미국의 인공지능 및 디지털정책센터(Center for AI and Digital Policy, CAIDP)는 챗GPT(GPT-4)가 편향성과 속임수 등으로 AI 윤리 기준을 위반하였고 개인정보보호와 공공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챗GPT의 추가적 배포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연방거래위원회(US Federal Trade Commission, FTC)에 제소한 바 있다.²⁵⁾ 유럽은 이탈리아와 독일처럼 챗GPT 사용을 차단하거나, AI의 저작권 침해와 개인정보 무단 사용을 막기 위한 데이터의 출처와 저작권 등을 공개를 의무화한 규제안 마련을 검토 중이다.²⁶⁾ 한국 정부산하 과기정통부는 초거대 생성 AI 확산에 대비한 윤리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산업계, 법조계, 교육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윤리정책 포럼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고, ‘인공지능 윤리기준 실천을 위한 자율점검표(안)(챗봇, 작문, 영상 분야)’ 및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안내서(안)(일반, 공공사회, 의료, 자율주행 분야)’를 발표하였다.²⁷⁾ 한편, 노암 촘스키(Noam Chomsky)는 최근 뉴욕타임지 기고문에서 챗GPT의 거짓 약속과 언어적 무능력, 비윤리성을 비판하면서, 법률적 제약과 창의성의 균형을 유지할 수 없고 “과도하게 생성하거나(진실과 거짓을 모두 생산하고, 윤리적 결정과 비윤리적 결정을 모두 지지함) 또는 과소 생성(모든 결정에 헌신하지 않고 결과에 무관심함을 나타냄)한다”고 경고한다.²⁸⁾

23)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 (2부): ‘챗GPT는 더 강력한 인공지능의 티저,’ 처음 듣는 챗GPT 이야기.” <<https://www.youtube.com/watch?v=-BOI9k5sXSs>>.

24) 김건희, “How Does ChatGPT Answer My Questions? From Its Birth to Its Mechanism,” <<https://www.youtube.com/watch?v=lu8YkQqn8Qk>>.

25) “'윤리 위반' 도마에 오른 GPT-4...미 단체 '인공지능 기준 위반했다' 오픈AI 고발,” <<https://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136835>>.

26) “'챗GPT 차단' 유럽 확산되나? 독일·프랑스도 규제카드 만지작”,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40414073144918>>; “EU '챗GPT 사용 데이터 저작권 공개해야'...AI 첫 규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8792#home>>.

27) “챗GPT 등 생성 AI 윤리 이슈... 사회적 논의 시작, 정부 세심히 살펴야!”, <<https://www.ai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27738>>.

28) Noam Chomsky, “The False Promise of ChatGPT,” <<https://www.nytimes.com/2023/03/08/opinion/noam-chomsky-chatgpt-ai.html>>.

이러한 우려와 경고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챗GPT에 대한 기독교적 평가 이전에 전문가들의 핵심적인 평가들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챗GPT가 거대언어모델로서 언어를 잘 조합하여 방대한 자료를 몇 초만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데는 탁월하지만, 모든 이슈와 문제들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만능 인공지능이 아니며, 오류가 있는 정보를 모두 완벽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다는 점이다.²⁹⁾ 김대식도 지적한 것처럼, 지난 수십 년간 인터넷과 검색을 통해 인간이 남긴 자료와 데이터들을 자기강화 학습과 심층학습을 통해 챗GPT가 수 초안에 대화를 하는 장점은 있지만, 인간이 남겨놓은 잘못된 혹은 편향된 정보와 거짓된 지식을 활용하여(걸러내지 못하고) 해답을 제시하는 한계와 위험이 있을 수 있다.³⁰⁾ 정우환은 현재 공개된 챗GPT가 확률적 통계에 근거해서 ‘편향된 발언’을 할 수 있고, 이는 자체적으로 검증할 능력이 없고, 기술적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한다.³¹⁾

둘째, 챗GPT가 사회와 인간이 가진 복잡다단한 문제들에 관해 인간과 대화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며, 인간만이 가진 영혼, 감정, 직관, 관계성 등을 파악하면서 대화와 답변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챗GPT가 뛰어난 인공지능의 매개변수를 1,750억개 가지고 있어도 인간의 두뇌에 있는 시냅스는 약 100조개(500배 이상)가 넘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될 수 없으며, 인간이 가진 본질적인 특징을 존중하면서 인간만이 소유한 강점을 먼저 잘 인식하고 개발하며 챗GPT를 도구로 한정하여 활용하는 차원을 모색해야 한다.³²⁾

셋째, 챗GPT는 교육영역에 큰 혼란과 학생들의 부정행위와 심각한 표절 문제를 등을 초래할 수 있다.³³⁾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최근 챗GPT를 활용한 연구결과와 저자인정 여부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57.7%(2,085명)는 반대, 36.9%(1,335명)는 찬성했다고 한다.³⁴⁾ 촘스키는 챗GPT가 “근본적으로 하이테크 표절”이며 교육과 배움을 회피하게 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한다.³⁵⁾ 이에 여러 나라와 학교에서는 챗GPT 사용을 금

29) “챗GPT가 열어가게는 新메타버스.”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605080>>.

30) 김대식, “인간과 기계의 공존: 챗GPT와 함께하는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https://www.youtube.com/watch?v=bPXHOoy9NXU>>.

31) “초거대 AI 챗봇 ‘ChatGPT’ 열풍, 기대와 우려의 시선들,”

<<https://www.newshyu.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8874>>.

32) 윤기영, “챗GPT의 한계와 가능성.”

<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53233>.

33) “국내 국제학교 학생들, 챗GPT로 과제 대필… ‘전원 0점’,”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209/117801590/1>>;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 (3부): 챗GPT가 쓴 저작물의 표절을 가려낼 수 있을까?,”

<<https://www.youtube.com/watch?v=JUyCg6bXOAY>>.

34) “MBA도, 변호사도, 의사도 비켜”…인공지능 ‘챗GPT3’ 광풍,”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12711520000519>>.

35) Colin Marshall, “Noam Chomsky on ChatGPT: It’s “Basically High-Tech Plagiarism” and “a Way of Avoiding Learning”,”

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 스탠포드 대학 등에서 챗GPT를 활용한 시험과 과제 등을 검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챗GPT로 작성한 과제물을 파악하게 해 주는 애플리케이션 ‘GPT제로’를 사용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다.³⁶⁾

넷째, 다양한 사회윤리적 측면의 문제를 대비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와 법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다.³⁷⁾ 챗GPT의 여러 가지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드러난 한계와 위험성을 인식하면서 윤리적 기준 마련과 사회적 준비가 필요하다.³⁸⁾ 김대식은 챗GPT와 관련된 한계와 위험성에 대하여 비전문가들과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전문가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남용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프롬프트 해킹, 미래에 대한 전망 한계 등을 지적하였다.³⁹⁾

다섯째, 챗GPT의 한계는 구체적으로 “실시간 학습 불가, 논리력 부족,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구분 불가, 환각, 기억력 한계, 저작권 침해, 편향, 복잡성, 지식의 독재의 위험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⁴⁰⁾ 그러나 중요한 점은 챗GPT로 인한 저작권 문제, 편향적인 인식과 표현의 문제, 복잡한 것에 대한 인식과 분석 한계의 문제, 지식과 정보를 독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과 재정적 투자가 있어도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 현 챗GPT 모델은 2021년까지의 데이터만 학습을 했기에 잘못된 인식과 정보를 줄 수 있다. 물론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의 Bing과 연동된 챗GPT는 출처와 실시간 검색, 대화 스타일 제안, 프롬프트 제안을 통해 이러한 점을 보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현 챗GPT 모델은 실시간 학습과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한계가 있기에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을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대체하는 것은 어렵고, 기억력의 한계(3천 단어)와 함께 거대한 단어와 문장의 미로에서 미시적 통계로 길을 잃은 ‘환각’(Hallucination)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거대언어모델의 용량을 올려도 환각의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이기가 어려움).⁴¹⁾

일곱째, ‘확률적 앵무새’라는 비판을 받는 챗GPT가 통계와 확률로 분석해 낼 수

<<https://www.openculture.com/2023/02/noam-chomsky-on-chatgpt.html>>.

36) “챗GPT 히스테리,” <<https://higoodday.com/opinion/985279>>. 국민대에서는 국내대학 최초로 챗GPT 윤리 강령을 공포하였다. “국민대, 국내 대학 최초 ‘챗GPT’ 윤리 강령 선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1625.html>.

37) “신뢰할 수 있는 챗GPT 중요…제도적 뒷받침必,”

<<https://zdnet.co.kr/view/?no=20230314175142>>.

38) Jason Thacker, “ChatGPT and Christian Ethics: An Interview With Technology Ethicist,” <<https://churchleaders.com/news/444825-chatgpt-and-christian-ethics-an-interview-with-technology-ethicist-jason-thacker.html>>.

39) “카이트 김대식 교수 | (2부) “챗GPT는 더 강력한 인공지능의 티저” 처음 듣는 챗GPT 이야기”, <<https://www.youtube.com/watch?v=-BOI9k5sXSs>>.

40) 윤기영, “챗GPT의 한계와 가능성,”

<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53233>.

41) “카이트 김대식 교수 (2부): “챗GPT는 더 강력한 인공지능의 티저” 처음 듣는 챗GPT 이야기”,

<<https://www.youtube.com/watch?v=-BOI9k5sXSs>>.

없는 지식과 통전적인 시각과 철학과 세계관, 예측할 수 없는 일, 미래에 대한 전망 등에 대해 통찰력을 가지기는 한계가 있다. 아직 챗GPT는 귀납, 연역 및 유비추론을 지식과 대화를 해 논리성에 한계가 있으며, 이론과 정보를 논리적으로 비판적으로 통찰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 윤기영은 결론적으로 챗GPT의 여러 한계들은 온전히 극복하기는 어렵지만 향후 많은 자원과 시간을 들여 챗GPT를 발전시켜 나간다면 어느 정도 해결점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동시에 챗GPT가 앞으로 더욱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면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한계들이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한다.⁴²⁾ 정우환은 지나치게 챗GPT 유행에 휩쓸리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다양한 분야와 전문 영역에서 기초적인 실력과 지식을 깊이 있게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인터넷 검색을 통한 정보 수집이 아닌 대화형 인공지능을 통한 정보수집 도구를 새롭게 가지게 되었기에 무조건 부정적으로 막기보다는 올바른 연구윤리 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본다.⁴³⁾

이러한 챗GPT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와 전문가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장점과 한계 및 문제점들을 냉철하게 인식해야 한다. 이를 너무 과대평가도 과소평가도 하지 않고, 균형 잡힌 견해를 가지고 교회와 목회자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기독교 전문가들과 학자들이 챗GPT에 관해 더욱 연구에 박차를 가하여 교회의 대응방향을 제시해야 할 때이다.

3. 챗GPT(ChatGPT)에 대한 교회의 대응방향: 실천신학적 조망

챗GPT에 대해 교회와 목회자들이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과 정확한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앞서 챗GPT에 대한 핵심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챗GPT에 대한 교회의 전략과 목회적 활용을 고민하고 논의하기 이전에, 성경적 세계관 관점에서의 분석과 개혁주의 신학적 비평적 논의가 먼저 구축되어야 한다. 챗GPT에 대한 찬반 논쟁의 무용론을 제기하면서 기준을 세우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주장⁴⁴⁾은 일리가 있지만, 소모적 논쟁차원이 아닌 신학자들의 건설적인 비평과 윤리적 기준을 어느 정도 세운 다음 매우 신중하게 챗GPT이 목회적 활용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성경적인 기초와 신학적인 견해 위에서 챗GPT에 대한 실천신학적 대응과 설교학적인 대안을 전개하고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42) 윤기영, “챗GPT의 한계와 가능성.”

<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53233>.

43) “초거대 AI 챗봇 ‘ChatGPT’ 열풍, 기대와 우려의 시선들,”

<<https://www.newshyu.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8874>>.

44) 김동환, “챗GPT 시대 목회, 그리고 교회의 과제,” 한국기독교언론포럼·문화선교연구원 공동주최 문화 포럼(“AI가 묻고, 한국교회가 답하다”) (2023): 27-28.

1) 챗GPT의 도전에 대한 실천신학적 대응방향

첫째, 챗GPT의 열풍이 사회 전반에 급부상하면서 서서히 대두되는 ‘윤리적 이슈’와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윤리 기준과 적용이 필요하다.⁴⁵⁾ 인공지능과 챗GPT를 책임있게 사용하기 위한 윤리적 기준을 분별하고 성경의 창조질서와 정의와 윤리관에 입각한 규범을 세워야 한다.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신학자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성경적 규범과 기준이 관련 영역에 실질적으로 적용하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기준 위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돕기 위한 의료, 환경, 복지, 교육, 노동, 안전, 연구 개발 등의 영역에서 창조 질서와 일반은총 차원에서 지혜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⁴⁶⁾ 결국 AI를 만드는 것은 인간이기에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전문가들이 성경적 윤리와 가치를 학습시키고 데이터를 입력하는 적극적인 대처도 필요하다.⁴⁷⁾ 나아가 챗GPT와 관련된 윤리적 가이드라인은 인공지능에 대한 개혁주의 윤리관을 마련하는 차원과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챗GPT를 통한 교육과 상담 영역에서의 활용은 개혁주의 입장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인공지능과 챗GPT기술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초점보다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 창조된 인간이 본질적으로 다른 점(독특성)이 무엇인가라는 존재론적인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한다.⁴⁸⁾ 인간이 만든 챗GPT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과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이며, 인간만이 가진 지혜, 관계, 섬김 등을 대체할 수 없다는 신학적인 기초 위에서 인공지능과 챗GPT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아직 챗GPT가 깊은 신학적 문제와 영적인 이슈에 대하여 본질적인 해답을 주기는 어려워보이며, “절대적 가치보다 상대적이고 개인적 가치가 녹아든 답변”과 “정서적 공감보단 해결 방안에 초점을 맞춘 대답”이 주를 이루고 있다.⁴⁹⁾ 따라서 성경적인 경건과 영성,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 가진 영혼 및 지성의, 인격적 교제를 할 수가 없는 챗GPT를 통한 교육과 상담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 챗GPT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만능AI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챗GPT가 제시하는 내용은 출처가 불분명하고, 편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식적인 정보를 요약해 전달해

45) “[AI의 습격, 교회는]① 챗GPT 열풍에 ‘AI 윤리’ 수면 위로.”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16358>>; “챗GPT, 목회 활용 ‘신중해야’”, <<http://m.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488>>.

46) Schuurman, “ChatGPT and the Rise of AI,”

<<https://christianscholars.com/chatgpt-and-the-rise-of-ai/>>.

47) 박민서, “쉽게 풀어보는 인공지능,” 한국기독교언론포럼·문화선교연구원 공동주최 문화 포럼(“AI가 묻고, 한국교회가 답하다”), 7.

48) Thacker, “ChatGPT and Christian Ethics: An Interview With Technology Ethicist,”

<<https://churchleaders.com/news/444825-chatgpt-and-christian-ethics-an-interview-with-technology-ethicist-jason-thacker.html>>.

49) Schuurman, “ChatGPT and the Rise of AI,”

<<https://christianscholars.com/chatgpt-and-the-rise-of-ai/>>.

주는 차원으로 학습자와 내담자에게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신앙적 교육과 상담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⁵⁰⁾

셋째, 챗GPT에 대한 인문학적 비평과 실천신학적인 비판을 견지하면서, 설교, 예배, 교육, 상담, 전도, 심방, 훈련, 소그룹, 주일학교, 선교 사역 등 교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챗GPT를 어떻게 신중하고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전문가들과 학자들의 실천적 연구와 실전 매뉴얼이 필요하다. 교단과 신학교에서도 미래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을 위한 인공지능과 챗GPT 활용에 대한 실천신학적 교육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2) 챗GPT를 활용한 설교에 대한 목회자들의 인식에 대한 통계와 함의

챗GPT를 활용한 설교에 대한 개혁주의 설교신학적 대응이 시급히 필요하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2023년 3월 조사에 의하면(675명 응답자), 챗GPT 사용에 대한 한국 교회 목회자들의 인식과 실태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⁵¹⁾ 먼저 목회자 중 47%가 챗GPT를 이미 이용한 경험이 있고 챗GPT를 활용하는 목회자들은 한 달 평균 6.5회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목회자들 75%가 “챗GPT 설교문 작성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힐 정도로 목회자들의 생각이 챗GPT에 긍정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태도가 다수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자들의 다음과 같은 통계결과는 실천신학적 비평 및 대응 방향 제시가 매우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챗GPT를 활용한 설교에 대한 설교신학적 비평을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아직 신학적인 검토와 전문가들의 가이드라인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목회자들이 ‘챗GPT 결과 신뢰한다’는 대답이 81%나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챗GPT가 오류가 없이 전반적으로 정확하다는 생각은 위험한 판단이며, 챗GPT가 참고하는 데이터와 제시하는 내용은 여전히 문제가 있으며 편협된 시각 혹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엉뚱한 대화를 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이다.⁵²⁾ 또한 정확한 출처가 없거나 불명확하며 이를 검증하거나 수정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을 설교자들은 인식해야 한다. 최근 등장한 Microsoft edge의 Copilot이나 Google Gemini를 통한 보완은 어느정도 가능하다.

둘째, 챗GPT 사용 경험 목회자 중 거의 절반(46%)이 다른 목회자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목회자들에게 지나치게 챗GPT가 빨리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젊은 설교자들일수록 챗GPT를 더 많이 활용하고 의존함으로 생겨날 수 있는

50) “챗GPT에 신앙의 주제를 묻다.”

<https://ny.kukminusa.com/news/view.php?gisa_id=0924289401>.

51) 목회데이터연구소, “챗GPT에 대한 목회자의 인식과 사용 실태 조사 결과 발표,” 『Numbers』 186 (2023): 1-11.

52) Thacker, “ChatGPT and Christian Ethics: An Interview With Technology Ethicist,” <<https://churchleaders.com/news/444825-chatgpt-and-christian-ethics-an-interview-with-technology-ethicist-jason-thacker.html>>.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인터넷과 미디어에 익숙한 MZ세대에 속하는 신학생(목회자후보생), 부교역자, 젊은 설교자들이 성경해석(주해)과 설교학을 계속 공부해 가면서 목회현장에서 자신의 설교실력을 쌓아가야 하는 과정에서 챗GPT, Bing과 구글 등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한 설교준비를 경험하게 된다면 참된 설교자로 성장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챗GPT에 대한 유경험자인 목회자들이 챗GPT를 주로 ‘설교 또는 강의 준비를 위한 자료 획득’(87%)과 ‘설교문 작성’(29%)을 위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매우 심각하고 광범위한 ‘설교 표절과 윤리’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설교학자들의 시의적절한 논의와 방향 제시가 긴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넷째, 구체적으로 설교 준비를 위해 설교자들은 챗GPT를 통해 ‘설교 주제와 개요를 위한 아이디어 창출’(60%), ‘설교에 필요한 배경지식 얻음’(45%)이 가장 유익하다고 답변하였다. 이를 통해 설교자가 기도와 연구를 통해 성령의 조명과 부으심의 역사를 통해 깊은 기도와 묵상 가운데 발견해야 할 설교준비 영역까지 챗GPT 설교로 쉽게 대체하려는 유혹과 설교 편의주의의 함정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의 본질과 공동체성, 설교자의 필수적인 준비과정, 성령의 역할 등을 간과하고 소위 ‘인스턴트 설교’의 함정(pitfall)에 빠질 위험성이 높은 챗GPT 활용은 극히 제한적이어야 하며⁵³⁾ 성경적 설교의 기준에 비추어 보조적으로 활용되어야만 한다.

다섯째, 챗GPT를 활용해 설교준비를 했다는 것을 ‘회중에게 공유했다’는 비율이 33%에 그치고 있다는 점과 설교 준비에 챗GPT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윤리적으로 적절하다는 답변(34%) 윤리적으로 ‘부적절하다’(33%)는 답변보다 높다는 점은 설교자의 윤리적 문제가 매우 혼란하고 위험한 상황으로 급속히 악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며, 더욱이 챗GPT를 사용하는 목회자들조차 교인들이 챗GPT를 활용한 설교준비(설교문 작성)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비율이 높았다(54%). 아울러 조사 표본이 적긴 하지만(360명), ‘목회자가 챗GPT를 통해 생성된 설교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성도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받아들일 수 있다’(30%)는 의견보다 ‘받아들이기 어렵다’(60%)는 부정적인 의견이 두 배나 높았다.⁵⁴⁾

여섯째, 챗GPT를 작성한 설교문에 대한 표절 질문에 대하여서는 ‘일부만 사용한다면 표절이 아니다’(58%)는 의견이 가장 높았고 ‘전체를 사용해도 표절이 아니다’ 의견(5%)도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60%가 넘는 목회자가 챗GPT를 활용해 설교문을 작성해도 윤리적 문제가 없고 표절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 사회나 교육 영역에서도 챗GPT를 활용한 과제나 보고서, 시험, 논문, 발표

53) “‘진격의 챗GPT’ 3분 만에 설교문 똑딱… 목회 사역에도 충격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85950&code=23111111&sid1=al>>.

54) “챗GPT를 통한 설교문, 성도들은 받아들일까?.” <<https://kcnp.com/news/view.php?no=7717>>.

등을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보면서 아예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또한 한국 사회와 교회 청중들이 기대하는 목회자와 설교의 윤리 기준을 생각해 볼 때 이는 매우 위험한 인식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이와 관련된 설교 윤리 기준과 챗GPT 설교 표절에 대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도 문제이기에, 설교학자들이 ‘설교 윤리 가이드’ 혹은 ‘인공지능, 챗GPT 설교 표절 기준’ 등을 개혁주의 윤리에 기초하여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성경적 설교의 본질적 측면에서 볼 때도 챗GPT를 활용한 설교 준비는 매우 신중해야 하며 가능한 수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물론 챗GPT를 활용한 설교문에 대한 불만족 의견이 41%로 ‘만족’한다는 비율 33%보다 높고, 자신의 설교보다 수준이 못하다는 의견(67%)이 다수를 차지한 것을 다행스러운 일이며, 챗GPT를 활용한 설교준비와 작성은 ‘개인적인 묵상과 연구가 줄어들’(51%)과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 부족’(32%)의 문제가 있다는 올바른 문제의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 것은 긍정적인 반응이다.

여덟째, 향후 목회자 가운데 대다수(79%) 다른 교회 목회자들은 설교 준비에 챗GPT를 사용할 것이라고 전망한 반면, 본인은 챗GPT를 설교준비에 사용할 것이라고 대답한 목회자는 46%로서 차이가 있다. 또한 향후 교회가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비율(56%)이 높다는 점(설교 준비에 활용하고 있는 목회자일수록 긍정적인 비율이 81%나 될 정도로 높다)과 대부분의 목회자는 ‘인공지능 설교자가 출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85%)는 점이다. 이러한 통계들은 챗GPT로 촉발된 인공지능 혁명의 도전에 교회와 목회자가 어떻게 응전할 것인지 대안적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4. 챗GPT 설교에 대한 설교신학적 평가

첫째, 향후 교회와 목회자가 인공지능과 챗GPT를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처럼 거부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천신학적인 냉철한 검토와 평가를 거친 다음 목회와 설교의 도구로서 창조적인 활용 방안을 찾는 방법을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모색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탄이 챗GPT의 상용화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목회와 설교에서 없어서는 안될 도구로 자리잡은 것처럼, 인공지능과 챗GPT가 빠르게 목회의 도구로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물론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 기존 인터넷 검색을 통한 정보 획득 차원에서 챗GPT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목회현장에 필요한 정보들을 더욱 빠르게 얻어 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이 있을 수 있다.⁵⁵⁾

또한 방대한 자료들을 검색하여 정보들을 하기보다 설교에 필요한 자료들을 챗GPT를 통해 몇 초 만에 얻게 됨으로 목회자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는

55) [챗GPT 기획 ②] “챗GPT의 장단점과 한국교회에 미칠 영향”.

<<https://www.nocutnews.co.kr/news/5907500>>.

장점이 있다.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는 필수적인 과정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설교 준비를 위한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 주제 정하기나 사전적 자료조사, 본문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 복잡하고 어려운 자료 등을 요약하여 빠르게 습득하기 등의 기능을 위해 챗GPT를 제한적인 도구로 활용하는 긍정적인 방향도 고려해 볼 수 있다.⁵⁶⁾

실제로 챗GPT를 사용하여 설교에 관한 리서치와 설교 준비를 해 본 전문가(경험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챗GPT가 성경과 당시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배경과 관련된 자료조사, 관주본문 비교, 본문과 관련된 설교 주제와 언어, 주요 키워드 찾기, 설교문 작성과 교정, 설교 전달을 위한 조언, 청중에게 더욱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피드백과 연결점 제시 등을 찾는데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다.⁵⁷⁾ 특히 설교 본문과 시리즈 설교의 주제와 본문의 예를 기획하는데 예증적인 도움이 된다.

실제적으로 챗GPT를 목회와 설교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방대한 자료와 연구결과들을 몇 초안에 핵심을 요약해 주는 작업, 영문 자료 번역작업, 인문학 자료 요약 작업, 언어모델을 활용한 언어학습과 첨삭(교정), 설교 이후 피드백, 글의 주제와 구조를 만드는 작업, 픽션(소설, 영화, 드라마 등)을 인간과 함께 창작하는 작업, 설교에 필요한 그림 넣기, 전문영역의 브레인스토밍, 설교문 요약, 설교 영상 활용한 Youtube 영상 및 자막 생성, shorts, 전도 영상 만들기, 설교 Preview/Review 영상 만들기, DALL-E 활용한 성경 배경 그림 등.

그러나 이러한 챗GPT의 활용은 매우 신중한 검토와 지혜를 가지고 접근해야 하며, 목회자가 책임있게 감당해야 할 준비의 영역을 쉽게 챗GPT를 통해 쉽게 결과만 얻어내려는 유혹을 조심해야 한다.⁵⁸⁾

둘째, 아직 챗GPT에 대한 전문가들의 연구와 학자들의 신학적이며 윤리적인 검토가 아직 깊이 있게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목회자들과 교회가 이를 지나치게 서둘러 활용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특히 챗GPT를 활용한 설교 준비와 설교 작성은 매우 위험한 요소와 윤리적 문제 및 설교 표절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에 한국교회와 설교학자들이 이에 대한 방향 제시를 시급하게 제시해야 하는 시점이다.

챗GPT가 제공하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편향적인 경우, 이로 인한 심각한 설교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실제로 본 연구자가 챗GPT에게 설교의 출처를 질문하자, ‘자신은 인공지능 언어모델로서 원 자료에 접근할 수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기독교 설교와 가르침을 기초로(자료로 학습한 후) 자신의 지식과 이해에 근거하여 본문의 주제와 해석을 제시한다’고 대답하였다. 문제는 어떤 기독교 설교 자료를

56) 우병훈, “챗지피티(ChatGPT) 시대의 목회와 설교,”

<<https://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24379>>.

57) Jim Erwins, “Using ChatGPT in Sermon Preparation,” <<https://www.patheos.com/blogs/jimerwin/2023/02/11/using-chatgpt-in-sermon-preparation/>>.

58) Thacker, “ChatGPT and Christian Ethics: An Interview With Technology Ethicist,” <<https://churchleaders.com/news/444825-chatgpt-and-christian-ethics-an-interview-with-technology-ethicist-jason-thacker.html>>.

출처로 하여 설교문을 제시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챗GPT가 제시한 설교는 그 출처를 알 수가 없다는 데에 반해, Bing(Copilot)에 탑재된 ChatGPT와의 대화를 통해 얻게 된 설교는 참고 자료를 알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그러나 설교의 출처들을 하나씩 검증해 본 결과, 영문 자료 출처가 한글 자료 출처보다는 질적으로 더 나은 것이었지만 대체적으로 여러 설교자들의 설교문 자료로서 표절의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설교문, 개인 블로그에 공유된 다른 설교자들의 설교, 여러 설교자들의 설교자료를 제시하는 단체 홈페이지 등이 설교 자료 출처인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자료들이 역시 챗GPT를 통해 재가공되어 나타났지만, 설교자가 윤리적 문제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일부 자료 출처는 강해설교가 아닌 성경연구와 묵상 자료이다. 게다가 어떤 자료 출처는 이단 단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설교 내용인 것을 알 수 있다(챗GPT가 분별하지 못함).

셋째, 특히 인터넷 검색을 통한 설교 준비로 인해 설교표절의 문제가 발생해 왔는데, 챗GPT를 통한 설교 준비는 다른 차원의 심각한 설교표절과 설교 상품화 등과 같은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목회자들은 인식해야 한다. 뉴욕 포스트(New York Post) 등 여러 언론에서는 설교자들이 챗GPT를 설교 준비에 남용할 경우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⁵⁹⁾ 목회윤리적 차원에서 챗GPT가 생성한 설교도 출처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설교자가 챗GPT를 통해 얻은 설교 내용이라고 성도들에게 출처를 ‘인용’(설명)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기에, 챗GPT 설교의 활용은 설교 표절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⁶⁰⁾ 따라서 한국교회와 설교학자들은 인공지능과 챗GPT 설교 표절에 대한 윤리적인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학자들과 다양한 전문가들이 제시한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선언’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⁶¹⁾

넷째, 본격적인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와 챗GPT는 목회와 설교 환경에 엄청난 변화와 도전을 줄 것임에는 분명하기에 이에 대한 교회의 대비가 필요하며 설교학자들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시점이다. 특히 챗GPT 설교자와 챗GPT와 관련된 인공지능 목회자 혹은 설교로봇이 등장하고 있다.⁶²⁾ 이미 챗봇 사이트 ‘프레가닷오

59) “ChatGPT AI robots writing church sermons causing hell for pastors,” <<https://nypost.com/2023/02/17/chatgpt-ai-robots-writing-sermons-causing-hell-for-pastors/>>.

60) “AI도 인간이 만드는 것, 두려워할 필요 없어”,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810>>.

61) The Ethics and Religious Liberty Commission (ERLC), “Artificial Intelligence: An Evangelical Statement of Principles.” <<https://erlc.com/resource-library/statements/artificial-intelligence-an-evangelical-statement-of-principles>>.

62) Michael Junkroski, “Rise of the Preacherbots”, <<https://medium.com/pastor-michaels-intersect/rise-of-the-preacherbots-cf1431e1fb8c>>.

그'(prega.org)에는 챗GPT를 기반으로 구동되는 AI 챗봇에게 고해성사와 기도, 신앙적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이탈리아 성인 성(聖) 비오(1887~1968)를 등장하였고⁶³⁾, 향후 다양한 챗GPT 설교자와 AI 설교자 등이 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최근 독일 바이레른주의 성바울교회에서 300명 참석한 가운데 챗GPT 목사가 40분동안 설교, 기도, 찬송 예배를 인도하였다.

먼저 교회는 이러한 AI 목회자, 설교자의 등장을 실천신학적으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을 보인다. 나아가 설교자의 소명과 전령(herald), 스토리텔러(storyteller), 증인(witness), 청지기(steward) 및 아버지(father)로서 설교자상을 목회자들이 더욱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⁶⁴⁾ 특히 설교자들은 챗GPT에 의존한 편의주의적이며 기계적인 설교를 지양하고, 거룩한 말씀의 전령과 증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⁶⁵⁾

이러한 챗GPT 등장으로 인해 목회자가 필요 없는 시대, 설교자 무용론이 등장할 수도 있다는 부정적 예측도 나오고 있을 정도로 인공지능 혁명과 챗GPT의 등장은 목회와 설교의 주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단순히 성경과 신앙에 관한 정리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의 설교(원래 좁은 의미에서 성경적 강해설교로 간주될 수 없는 설교)는 챗GPT의 등장으로 인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 설교자의 역할을 대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섯째, 성경적인 목회와 설교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챗GPT와 인공지능 로봇은 진정한 설교자가 될 수 없으며, 결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회자와 설교자를 대체할 수는 없다. 많은 이유를 제시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주요한 이유를 간략히 정리해 볼 수 있다. 가장 먼저 챗GPT가 참된 강해 설교자를 대체할 수 없는 것은 챗GPT를 비롯한 인공지능 로봇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영혼(soul)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허셀 요크(Hershael York)는 챗GPT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에 예배의 핵심인 설교의 영적 기능을 대체할 수 없으며, 게으른 설교자에게는 유혹이 될 수 있겠지만 진정한 목자로서 청중들과 설교를 사랑하는 설교자는 챗GPT를 활용하여 설교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⁶⁶⁾

63) "AI에게 기도하고 죄도 고백해...가톨릭성인 챗봇", 등장,"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303051949001>>.

64) D. Martyn Lloyd-Jones, *Preaching and Preachers* (Grand Rapids: Zondervan, 2011), 113-30; Thomas G. Long, *The Witness of Preaching*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89), 23-47; John R. W. Stott, *The Preacher's Portrait: Some New Testament Word Studies*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 Co, 1988), 9-100.

65) 퍼킨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설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라고 한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대언하는 것이다." William Perkins, *The Art of Prophesying & The Calling of the Ministry*, 채천석 역, 『설교의 기술과 목사의 소명』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6), 13.

66) "ChatGPT AI robots writing church sermons causing hell for pastors," <<https://nypost.com/2023/02/17/chatgpt-ai-robots-writing-sermons-causing-hell-for-pastor>>

챗GPT는 인간의 마음을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청중이 가진 감정, 고통, 슬픔, 절망 등의 감정을 공감하고 공흥히 여기는 마음을 품을 수 없다.⁶⁷⁾ 챗GPT는 매우 똑똑한 기능을 할 수는 있지만, 공흥과 사랑을 인간처럼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과 마음(감정)을 공감하기는 어려우며 공동체와 관계를 세워갈 수가 없다.⁶⁸⁾ 따라서 챗GPT는 참된 설교자처럼 청중 주해(exegeting audience)⁶⁹⁾를 통해 청중들의 영적 상태와 관계, 언어와 문화(내러티브), 영적 이상과 세계관 등을 분석하여 설교의 적용과 연결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중에 대한 분석과 적용 이전에 먼저 해야 할 설교자 자신에 대한 주해(exegeting preacher)와 적용⁷⁰⁾을 챗GPT는 수행할 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챗GPT 인공지능이 성경과 관련된 정보를 회중를 제공하거나 심지어 직접 대화하고 가르칠 수(teach)도 있으나, 설교할 수(preach)는 없다.⁷¹⁾ 목회자들은 설교와 신앙교육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이 참여하는 변혁의 차원임을 기억해야만 한다.⁷²⁾

챗GPT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설교준비를 통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설교를 만들 수 없고 목회자와 설교자로 역할을 수행할 수도 없다. 알리슨 거버(Alison Gerber)는 챗GPT 전문가와 함께 실제적인 챗GPT 실험을 한 후에, 챗GPT가 아무리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어도 선지자적인 설교의 본질, 설교자의 창조성을 활용한 다양한 방식과 구조의 설교, 설교자의 깊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미래에 관한 설교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런다음 Gerber는 챗GPT가 결코 진정한 의미의 설교사역을 대체할 수가 없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한다.

ChatGPT는 오직 이전에 있었던 것을 검색하고 조합할 수 있습니다.

s/>.

67) Deena Theresa, "Pastor ChatGPT delivers fine sermons but is no 'real preacher'," <<https://interestingengineering.com/innovation/pastor-chatgpt-delivers-fine-sermons>>.

68) "ChatGPT AI robots writing church sermons causing hell for pastors," <<https://nypost.com/2023/02/17/chatgpt-ai-robots-writing-sermons-causing-hell-for-pastors/>>.

69) Michael Milco, "Exegeting Your Congregation," in *The Moody Handbook of Preaching*, (Chicago, IL: Moody Pub., 2008), 405-15; Matthew Kim, *Preaching with Cultural Intelligence: Understanding the People Who Hear Our Sermon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63-215.

70) Kim, *Preaching with Cultural Intelligence*, 73.

71) Russel Moore, "AI Might Teach, But It Can't Preach," <<https://www.christianitytoday.com/ct/2023/january-web-only/chatgpt-artificial-intelligence-ai-preach-sermons-church.html>>.

72) Thacker, "ChatGPT and Christian Ethics: An Interview With Technology Ethicist," <<https://churchleaders.com/news/444825-chatgpt-and-christian-ethics-an-interview-with-technology-ethicist-jason-thacker.html>>.

ChatGPT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지자적 설교, 창조적 설교, 기도적 설교 등 미래를 생각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실하고 미래지향적인 설교자분들, 이것이 당신의 설교 사역이라면 안심하세요. ChatGPT는 당신의 설교 강단에 미래가 없습니다.⁷³⁾

챗GPT 설교가 설교 사역을 대체할 수 없는 이유는, 설교가 단순한 지식적인 정보 전달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강해 설교의 본질적 목적은 성령의 능력주심(empowerment)의 역사를 통해 설교자에게 담대함, 깨달음(조명), 사랑, 효과적인 언어와 소통이 이루어짐으로 회중들의 영혼 안에 회개, 깨달음, 감동, 결단이 일어나게 하고 삶이 변화되게 하는 것⁷⁴⁾이기 때문에 챗GPT 설교는 강해설교의 미래가 될 수 없다.

여섯째, 포스트 팬데믹 뉴노멀 시대와 챗GPT의 도전에 설교자가 응전하기 위해서는 강해설교의 본질과 철학을 더욱 회복하고 강화해야 한다. 현대 강해설교학의 아버지인 해돈 로빈슨(Haddon Robinson)에 따르면, 성경적 강해설교란 “한 본문을 주어진 정황 속에서 역사적, 문법적, 문학적 연구를 통해 얻어낸 성경적 개념을 전달하는 것으로서, 먼저 성령께서 설교자의 인격과 경험에 적용하게 하시고 설교자로부터 청중에게 적용하는 것”이다.⁷⁵⁾ 성경적 강해설교는 본문이 이끄는 설교(text-driven) 즉 “본문의 의미를 설명하고 예를 들며 적용함으로 본문을 발전시키고,” “본문의 본질(substance), 본문의 구조(structure), 본문의 감정(spirit)을 전달”하는 것이다.⁷⁶⁾ 한마디로 말해 철저히 성경 본문 중심적(text-centered) 설교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청중에게 초점을 맞춘(audience-focused) 설교를 지향해야 한다.

일곱째, 챗GPT 설교의 도전 앞에서 설교자들은 개혁주의 경험적 설교와 ‘개혁주의 영성’(reformed spirituality)을 회복함으로 대응해야 한다. 챗GPT 시대에 목회자는 “합리적 사고력, 영적 권위, 도덕성”과 함께 깊은 영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⁷⁷⁾ 강해설교는 단순한 지성적 정보 전달 차원이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질을 갖춘 설교자(qualified preacher)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할 때 하나님과의 ‘영적 만남’(encountering)이 일어나게 한다.⁷⁸⁾ 따라서 설교자들은 챗GPT 설교의 유행에 따르다가 인공지능 혁명의 물결에 떠내려갈 것이 아니라 성경시대와 교회사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 말씀의 본질과 개혁주의 영성을 가지고 진

73) Alison Gerber, “ChatGPT Has No Future in the Pulpit,”

<<https://www.preachingtoday.com/skills/2023/chatgpt-has-no-future-in-pulpit.html>>.

74) Jim Orrick, Ryan Fullerton, and Brian Payne, *Encountering God through Expository Preaching* (Nashville, TN: B&H Academic, 2017), 87-106.

75) Haddon W. Robinson, *Biblical Preaching* 2nd. ed. (Grand Rapids: Baker, 2003), 21.

76) Daniel L. Akin, David L. Allen, and Ned L. Matthews, eds., *Text-Driven Preaching* (Nashville: B&H, 2010), 8.

77) 김동환, “챗GPT 시대 목회, 그리고 교회의 과제,” 29-30.

78) Orrick, Fullerton, and Payne, *Encountering God through Expository Preaching*, 16-24.

정한 설교자로 쓰임 받은 설교자들의 전통을 이 시대에 회복해야 한다. 특히 설교자는 열정과 기도, 진정성과 영적 성장, 거룩한 경건과 목회 리더십의 회복과 함께 개혁주의 영성을 추구하면서, 성경신학에 근거한 본문의 절대 진리를 참 신자에게 선포할 때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만남과 영적 양식을 경험하고 실천하게 하는 ‘개혁주의 경험 설교’(reformed experiential preaching)⁷⁹⁾가 인공지능 챗GPT 시대의 대안이다. 성경적 목회와 설교의 본질을 회복할 때, 인공지능 시대 챗GPT로 인해 청중들은 성령으로 충만하며 말씀에 사로잡힌 참된 설교자를 더욱 고대할 것이며,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영혼이 채워지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길 더욱 간절히 소망할 것이다.

5. 챗GPT를 활용한 실제 설교에 대한 설교학적 비평

지금까지 챗GPT에 대한 설교학적 비평에 앞서 챗GPT의 실체와 개념을 정리한 다음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와 전망을 살펴보았다. 그런 다음 챗GPT에 대한 실천신학적 조망과 목회자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실제 챗GPT-4/Copilot/Gemini를 활용한 설교를 영어로 실제 대화하고 결과물을 생성해 보았다.⁸⁰⁾

챗GPT에게 설교를 생성해 줄 것을 질문(요청)하면 특별한 절차나 복잡한 과정도 없이 약 30초 만에 3~4대지로 정리된 한 페이지 분량의 무료 설교 요약문을 만들어 바로 제시해 준다. 구약과 신약에서 10개 정도의 본문을 임의로 정하여 챗GPT에게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만들어줘’라고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주로 ‘서론-본론(3~4대지)-결론’으로 구성된 간결한 설교 아웃라인을 만들어 준다. 1-2번의 질문으로 챗GPT가 만들어낸 열 편의 설교는 대략적인 분석을 시도하였고, 두 편의 본문(에스라 6장, 고린도후서 4장)은 챗GPT와 필수적인 설교 준비 10단계를 따라 연속적인 질문을 통해 심도있는 대화를 기초로 심층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즉 구약과 신약 두 편의 설교를 주해 과정, 신학화 과정, 적실성 과정, 변혁 과정(10 단계)의 기준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와 챗GPT가 만든 열 편의 설교를 포괄적으로 분석한 후 얻은 함의와 비평적 논의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챗GPT를 통한 설교 준비가 설교자에게 줄 수 있는 긍정적 측면과 유익이 무엇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설교 아웃라인과 설교문을 작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주해와 원리화 과정 및 청중분석과 적용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챗GPT는 한 번의 프롬프트 명령만 하면 5분 정도 분량의 설교 요약문을 제시해 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챗GPT의 능력은 인공지능 혁명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어느 정도 경험하게 해 준다. 목회 사역으로 바쁜 한국교회 설교자들에게 설교 준비 초기 단계에서 설교 캘린

79) Joel R. Beeke, *Reformed Preaching: Proclaiming God's Word from the Heart of the Preacher to the Heart of His People* (Wheaton, IL: Crossway, 2018), 24-41, 58-93.

80) <<https://chat.openai.com/>>.

더 및 설교 시리즈 기획, 본문 선정, 설교 주제 찾기, 설교 본문 개관적 이해, 본문의 기본적인 아웃라인, 학문적 자료의 요약 및 영문 자료의 번역 등에 대한 챗GPT와의 다양한 질문과 대화를 통해 설교 작성에 대한 브레인스토밍하는데 제한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인문학 작품(문학, 역사, 철학 서적 등)을 개별적으로 질문하면 요약해 주는 장점이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챗GPT가 제시한 설교는 설교문이라기보다는 주석적 아웃라인과 귀납적 성경연구나 목상 요약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으며, 기본적인 설교의 구조인 제목, 서론, 본문, 결론을 논리적으로 갖추고 있다. 또한 본문과 관련된 설교의 핵심 포인트를 3가지(많게는 5개)로 제시해 주고 있다. 물론 처음 제시된 설교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프롬프트’를 더욱 심층적으로 질문(대화)하게 된다면 더욱 상세한 설교 콘텐츠를 얻을 수는 있다.

*** 고린도후서 4:1-18 설교 아웃라인(ChatGPT)**

제목: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The Treasure in Earthen Vessels)

서론: 그리스도인으로서 직면하는 삶의 위기와 도전. 이로 인한 낙심과 절망의 경험함. 그러나 본문의 바울은 우리가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다고 일깨워줌. 일시적인 고난과 시험과 위기 가운데서도 영원한 소망을 품고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음.

본론:

1. 새언약의 사역(4:1-6),
2. 질그릇 안 보배(4:7-12)
3. 일시성과 영원성(4:13-18)

결론: 그리스도인은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은 자들임을 기억해야 함.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보배되신 그리스도(복음)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음. 따라서 새언약의 일꾼으로서 부름받은 우리는 위기와 도전에 맞서 신실해야 함. 고난은 잠시이며 소망을 영원하기에 우리의 초점을 보이지 않는 것에 맞추어야 함.

*** 에스라 6:1-12 설교 아웃라인(ChatGPT)**

제목: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과 우리의 순종(God's Sovereign Plan and Our Obedience)

1. 서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실까라는 의문,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가에 대한 질문이 생기기도 함. 본문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있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행하는 순종을 통해 그 계획을 어떻게 성취하는지 보게 하심.

2. 본문:

- 1)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1-5)
- 2)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 (6-10)
- 3) 기도와 도고의 능력 (11-12)

3. 결론: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순종을 통해 어떻게 그분의 약속이 성취되고 축복이 임하는지 보여줌. 따라서 우리의 순종과 기도에 대해 과소평가해서는 안됨.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우리 삶 가운데 성취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말씀에 순종해야 함.

Copilot을 통해 만든 실제 설교 아웃라인 예

고린도전서 4:1-10:

I. 서론

고린도후서 4:1-10의 문맥에 대한 간략한 개요.

역경에 직면한 인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1) 2)

II. 참된 위로의 원천 (고후 4:1)

바울은 우리가 우월한 언약의 사역자가 될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특권을 주셨음을 인정함1).

새 언약 사역의 영광은 폐지된 옛 언약과 달리 여전히 남아 있음1).

III. 삶의 연약함 (고린도후서 4:8-9)

"쓰러지지만 쓰러지지 않는" 현실1)

삶의 연약함과 회복의 힘1)

IV. 진리의 힘 (고린도후서 4:2)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성공을 고려할 때 우리는 수치스러운 교묘함과 속임수에 의지할 필요가 없음.1)

바울은 성령께서 진리에 관해 깨우쳐 주시고 그들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청중을 속일 필요가 없었습니다.1)

V. 부인할 수 없는 승리자의 표지(고린도후서 4장)

승자가 되려면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3.

포기하고 싶을 때 계속할 수 있는 의지력입니다3)

결단력, 인내력, 끈기, 집념 등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부르든,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챔피언의 표식입니다3).

VI. 결론

주요 요점을 요약합니다.

회중이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찾고 역경에 맞서 인내하도록 격려합니다.

#

참고자료:

<<https://www.studylight.org/commentaries/eng/dcc/2-corinthians-4.html>>

<<https://www.studylight.org/commentaries/eng/dcc/2-corinthians-4.html>>;

<

<https://www.lifeway.com/en/articles/sermon-endurance-give-up-perseverance-2-corinthians-4>>;

<
<https://www.biblegateway.com/passage/?search=2%20Corinthians%204%3A1-10&version=KJV> ;
 <
<https://www.sermoncentral.com/sermons/sermons-about-2-corinthians-4-1-10/?searchPhrase=2%20corinthians%204%201%2010&searchPhrase=2%20corinthians%204%201%2010>>.
 그외; <https://biblehub.com/sermons/2_corinthians/4-10.htm>

Gemini를 통해 만든 실제 설교 아웃라인 예

질그릇에 담긴 보물(Treasures in Clay Jars)
 고린도후서 4:1-10

서론

인생은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 때문에 낙담과 거절, 심지어 핍박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1-10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을 위한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힘이 빛난다는 강력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이 구절을 통해 인간의 연약함 속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해 보세요.

1. 어려움에 굴하지 않음(1-2절)

본문은 바울의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입어 이 사역을 받았으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역을 맡은 바울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받은 '자비'는 자신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그의 인내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사역에서 '교활함'이나 조작을 피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진실과 열린 소통을 기반으로 합니다.

2. 우리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를 선포하기(3-5절)

바울은 "우리의 복음이 가려진 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니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라고 자신의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일부 사람들에게 거부당할 수 있지만, 그 책임은 진리에 눈을 멀게 하는 사탄의 영향력에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선포하고 예수를 위해 우리 자신을 너희의 종으로 선포한다"고 강조합니다.

초점은 바울이나 인간 리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3. 우리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를 선포하기(3-5절)

바울은 "우리의 복음이 가려진 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니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함이라..." 라고 자신의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스도

의 메시지는 일부 사람들에게 거부당할 수 있지만, 그 책임은 진리에 눈을 멀게 하는 사탄의 영향력에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선포하고 예수를 위해 우리 자신을 너희의 종으로 선포한다"고 강조합니다. 초점은 바울이나 인간 리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물(6-7절)

이제 강력한 비유가 나옵니다: "'어둠에 빛을 비취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세계에 어둠에서 빛을 가져오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그리스도의 지식의 빛을 가져오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담아 두었으니, 이는 그 탁월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 '보물'은 복음, 즉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메신저인 우리는 약하고 깨지기 쉬운 그릇인 '질그릇'에 비유됩니다. 이는 메시지의 효과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질그릇에 담긴 능력(6-7절)

"이는 '어둠에 빛이 비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입니다."라는 강력한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세계에 어둠에서 빛을 가져오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그리스도의 지식의 빛을 가져오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역설적 진리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담아 두었으니, 이는 그 탁월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 '보물'은 복음, 즉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메신저인 우리는 약하고 깨지기 쉬운 그릇인 '질그릇'에 비유됩니다. 이는 메시지의 효과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믿음의 역설(8-10절)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역설에 대해 "우리가 여러 가지로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싸이지 않고, 우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절망에 빠지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도전에 직면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우리는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핍박을 받을 수 있지만 결코 혼자입니다. 우리는 좌절을 경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패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을 반영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 예

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드러납니다.

결론

이 구절은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가 나약하고 낙담할 때, 하나님의 힘은 우리의 한계를 통해 가장 밝게 빛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귀중한 보물을 담은 항아리와 같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의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통해 빛나게 하소서.

적용

우리의 약점을 어떻게 하나님의 힘이 드러나는 기회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보다 주님께 더 집중하여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탱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어려움 가운데서 용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출처>

<https://equip.sbts.edu/article/9-truths-need-better-evangelism/>

<https://spu.edu/depts/uc/response/new/2014-summer/features/let-light-shine-out-of-darkness.asp>

<https://www.cornerstonecascade.com/sermons/psalm-10>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en/letters/2020/documents/papa-francesco_20200531_lettera-sacerdoti.html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면, ChatGPT에서 만든 설교는 출처를 제시하지 않지만, Copilot, Gemini 등에서 만든 설교는 출처를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Copilot, Gemini 등을 활용해 설교 준비 작업을 할 때 출처를 확인, 검증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는 ChatGPT, Copilot, Gemini를 활용하여 설교를 만들기 위한 검색이나 설교 준비 과정과 관련된 검색을 할 때 ‘영어’로 프롬프트 작업을 할 때 ‘한글’ 프롬프트 작업보다 설교학적으로 더욱 질적으로 좋은 자료들이 제시되는 경향이 있으며 세 가지를 설교학적으로 비교하고 비평할 필요가 있다. - 만약 설교 준비 초기 과정에서 제한된 활용을 할 경우에도, 설교자가 얼마나 설교학적인 실력을 가지고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ChatGPT, Copilot, Gemini와 ‘대화’를 심층적으로 나눌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 즉 설교자가 본질에 충실하면서 실력을 갖춘다음 설교과정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고민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둘째, 강해설교의 철학과 본질에 근거하여 챗GPT 설교에 대한 비평이 필요하다. 먼저 강해설교의 정의에 대해 질문하자 챗GPT는 “강해설교는 본문 단락과 구절을 분석하여 저자의 본래 의도와 문맥을 이해함으로 신학적, 실천적 함의를 현대 청중에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정의는 해돈 로빈슨의 정의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좋은 정의라고 할 수 있다. 강해설교의 가장 중요한 전제이자 철학의 핵심은 설

교의 해석과 주해를 통해 성경 본문의 저자가 원 청중(original audience)에게 전하고자 의도한 의미(author-intended meaning)와 원 적용(signification)을 다리놓기를 통해 현대 청중들에게 재적용(reapplication)되도록 하는 것이다.⁸¹⁾

그러나 실제 챗GPT의 설교과정과 설교문을 분석해 볼 때, 이러한 정의에 충실한 설교 방법론과 단계를 거쳐서 설교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주해적 분석이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저자가 의도한 원 적용을 현대 청중에 적용하는 영역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현대 강해설교의 본질적 특성을 챗GPT가 실제 설교작성을 통해 일관성 있게 살려낼 해석학적, 설교학적 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강해 설교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성경 저자가 의도한 의미와 적용을 찾기 위한 주제질문과 답변, 이에 기초한 빅 아이디어, 보조 아이디어를 챗GPT 설교과정과 설교문은 거의 제시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약점이 있다. 또한 챗GPT 설교는 논리적 대지 구성을 위한 육하원칙 활용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모든 대지를 포괄하는 중심사상이 불명확하기에 유기적 연결성과 역동적 발전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 이뿐 아니라, 본문 각 절에 대한 주해 부족과 본문의 각 구절을 대지로 나누어 연결하는 보조 아이디어를 유기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 때문에 강해설교가 아닌 주제설교나 대지설교의 경향을 내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설교 전체가 1페이지 미만으로 5분 정도의 설교 요약에 불과하여 충실한 강해설교의 내용을 담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강해설교의 철학에 비추어 볼 때 챗GPT 설교는 강해설교라고 보기 어렵다.

셋째, 강해설교의 방법론과 형식(구조) 차원에서 챗GPT 설교에 관한 비평이 필요하다. 강해설교는 철학에 근거한 체계적인 방법론과 형식(form)을 갖추어야 한다. 단편적으로 볼 때 챗GPT 설교의 전반적인 구조는 기본적인 주석적 아웃라인 혹은 귀납적 성경연구와 목상에 근거한 본문 개요 수준의 설교 구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챗GPT 설교는 현대 강해설교학에서 비판받아온 천편일률적인 3대지 혹은 대지 설교의 약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챗GPT 설교는 철저한 주해에 근거한 설교라기보다는 주제형 혹은 제목 설교와 유사한 점이 있다. 이는 챗GPT가 학습한 인간 설교자가 만들어 놓은 설교의 한계와 약점과 연결성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서론, 본론, 결론으로 정형화된 챗GPT 설교의 구조는 다양한 설교 형식(variety forms)을 활용한 설교 구조화가 근본적으로 부족하다. 챗GPT 설교의 전체적인 구성은 통일성과 논리성, 역동성과 움직임(movement), 전진성(목표를 향한 초점), 다양성(연역, 귀납, 혼합 등), 적용 지향적 구조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81) Grant Osborne, *The Hermeneutical Spiral*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1991), 354-57; William W. Klein, Craig L. Blomberg, and Robert L. Hubbard, *Introduction Biblical Interpretation* (Nashville, TN: Thomas Nelson, 2004), 483-503; Akin, Allen, and Mathews eds, *Text-driven Preaching*, 271-72; Robinson, *Biblical Preaching*, 89-95; Hershanel W. York and Bert Decker, *Preaching with Bold Assurance* (Nashville, TN: Broadman & Holman Publishers, 2003), 77-78.

챗GPT 설교의 서론은 청중의 흥미와 필요, 질문과 평정깨기, 최근 이슈의 통찰, 인문학 예화, 인클루지오(inclusio), 삶의 적용과 연결(relevance), 전환 등의 요소가 결합되어 있다. 챗GPT 설교의 본론도 메인 아이디어(main idea), 보조 아이디어(complement ideas), 대지 간의 전환, 수사학적 질문, 스토리텔링, 각 대지의 예화와 적용 등이 부족하다. 결론부에서 설득과 감동, 도전과 변화 촉구, 핵심 포인트 강조, 강력한 예화와 적용, 수사학적 질문, 목회적 기도와 찬송(예배와의 연결)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넷째, 강해설교를 위한 필수적 과정인 적용적 주해와 해석학에 근거한 챗GPT 설교에 대한 비평이 필요하다. 적용지향적 강해설교의 각 필수 단계들⁸²⁾에 대한 챗GPT 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비평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설교 준비 단계에 대한 GPT 대답은 다음과 같다: 1) 1단계: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혜, 영감을 구하기 (기도), 2) 2단계: 설교 본문 정하기, 3) 3단계: 원문과 다양한 번역본을 참고로 한 본문 연구, 4) 4 단계: 본문의 역사적, 문화적, 신학적 분석과 주석들과 다른 자료들 참조한 리서치, 5) 5단계: 연구와 리서치를 기초로 한 설교의 중심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기, 6) 6단계: 설교의 핵심 아이디어와 보조 아이디어를 정하고 설교 아웃라인 만들기, 7) 7단계: 예화와 개인적 경험을 활용한 설교문 작성하기, 8) 8단계: 설교문 교정과 수정, 9) 9단계: 설교 전달 연습, 10단계: 기도.

이러한 챗 GPT 의 설교 정의와 단계 자체는 현대 강해설교의 단계와 큰 차이점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챗 GPT 와의 대화 가운데 각 설교 단계에 대해 어떻게 답을 하는지를 통해 평가해보아야만 한다. 나아가 설교자들은 챗 GPT 설교를 의존하는 편의주의를 거부하고, 강해설교의 철학을 실제 설교에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를 철저히 밟아나가는 헌신과 성실함이 있어야 한다. McDill 은 강해설교의 준비단계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동시에 설교자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임을 강조하면서, 설교의 준비과정은 예술(art)이전에 과학(science)이기에 설교자의 자유보다 철저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이를 위해서는 설교자가 새로운 유행이나 방법을 거부하고 오랜 설교의 전통과 유산을 따라 객관적인 설교 방법과 단계를 거치기 위한 필수적인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⁸³⁾

강해설교의 심장인 주해 과정에서 해석학적 '질문 능력'이 필수적으로 중요한 것처럼, 챗 GPT 를 통한 설교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챗 GPT 가 내놓은 설교 결과만을 취할 것이 아니라 해석학적 대화를 통해 챗 GPT 설교를 분석하고 비평할 수 있는 '질문 능력'이 필수적이다. 즉 설교자가 지속적으로 챗 GPT 에게 주해 요소들(원어, 문법, 역사, 문화, 배경, 인물 등)에 관한 질문을 해나가면 조금 더 질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질문과 대화를 위한 실력이 필수적이지만, 챗 GPT 와의 대화에

82) 박현신, 『포브릿지 프리칭』 (서울: CLC, 2017), 446-62를 참조하라.

83) Wayne McDill, *The 12 Essential Skills for Great Preaching*, 2nd ed. (Nashville, TN: Thomas Nelson, 2006), 19-20.

집중하기보다 ‘조명된 소통’(illuminated communication)과 ‘언약적 소통’을 통해 본문과의 대화, 성령 하나님과 청중과의 해석학적 삼중적 대화(trialogue)⁸⁴⁾에 집중해야 한다.

본문 저자가 의도한 의미와 원 적용을 찾기 위해 필수적인 언어, 문법, 문예, 역사, 정경(구속사)적 분석의 차원에서 챗GPT의 설교와 주해를 간략히 비평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원어(히브리어, 헬라어)를 이해하면서 기본적인 사전적 의미는 제시하지만, 원문 사건의 입체적이고 풍성한 의미를 드러내는데 한계, 2) 원어의 문법에 대한 초급 수준의 기본적인 분석(인칭, 시제, 태)은 제공하지만, 중급이상의 문법 분석과 구문분석의 한계, 3) 문예적 분석과 문학적 구조 분석은 거의 인지하지 못하는 한계, 4) 역사적, 사회문화적 분석은 주해 요소 중 상대적으로 가장 뛰어난 영역이지만, 기존의 성경 문화배경 사전보다 학문적 깊이가 부족한 한계, 5) 구속사적, 정경적 분석은 거의 드러나지 않으며, 언약적 통일성 및 구약과 신약의 연결성과 관주 제시의 부족 등 설교문 가운데 통전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 6) 다섯 가지 주해의 필수적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연결하여 저자의 의도를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 첨언하자면, 본문의 해석과 주해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의 출처가 없다는 문제와 함께 권위있는 주석가들과 검증된 주석을 참고하지 않으며, 기존의 잘못된 성경해석과 주석을 검증하고 교정할 해석학적 능력은 아직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챗GPT 설교를 성경의 다양한 장르의 관점에서 비평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약내러티브 본문에 대한 설교 과정과 설교문을 질문한 결과, 챗GPT는 성경의 내러티브 장르의 플롯, 인물, 배경, 관점 등을 살린 본문 개요와 플롯을 살린 설교 구조에 분명한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신약의 비유 본문에 대한 챗GPT 설교도 내러티브와 유사한 비유 장르의 특성과 예수님과 바울의 설교 문학적 특성과 언어를 설교에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성경의 율법, 시편, 잠언, 서신서, 묵시 본문에 담긴 다양한 장르적 특성을 살린 설교(genre-sensitive preaching)⁸⁵⁾를 제시하지는 못한다.

여섯째, 강해설교의 신학적 원리화 관점에서 챗GPT 설교에 대한 분별과 비평이 필요하다. 즉 본문에 근거한 그리스도 중심적 관점, 언약중심적 구속사적 해석이 약할 뿐 아니라 원 청중과 현 청중 사이에 있는 해석학적 간격(hermeneutical gap)을 건너기 위해 필수적인 원리화 다리놓기(principlizing bridge)⁸⁶⁾가 부실함으로 인해

84) Kevin J. Vanhoozer, *Is There a Meaning in This Text?* (Grand Rapids: Zondervan, 1998), 32-33; Brian A. DeVries, “The Evangelistic Triologue: Gospel Communication with the Holy Spirit,” *Calvin Theological Journal* 44 no.1 (2009): 49-73.

85) 성경의 내러티브, 시, 지혜서, 예언서, 묵시, 비유, 서신서 장르에 대한 상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Jeffrey Arthurs, *Preaching with Variety: How to Re-create the Dynamics of Biblical Genres* (Grand Rapids: Kregel, 2007), 38-198; Terry G. Carter, J. Scott Duvall, J. Daniel Hays, *Preaching God’s Word: A Hands-On Approach to Preparing, Developing, and Delivering the Sermon*, 2nd ed. (Grand Rapids: Zondervan Academic, 2018), 167-281; Osborne, *The Hermeneutical Spiral*, 153-259.

도덕적 적용이나 알레고리적 해석과 적용이 나올 위험성이 있다. 특히 빙챗(Bing Chat) 설교가 참조한 출처를 조사해 본 결과, 정통 신학과 교리에 대한 몰이해와 비성경적인 신학과 이단적 교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설교에 담아낼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문에서 나온 신학적 원리의 기준(theological criteria)이 모호할 뿐 아니라 적실성으로 연결하는 과정이 불명확해 보이며, 신학적 보편적 원리를 거쳐 현대적 적용으로 트랜스퍼링(transferring)하는 과정⁸⁷⁾도 해석학적 한계가 있다. 챗GPT 설교 가운데 일반적이며 기초적인 신학 개념을 본문과 연결시켜 제시하는 장점을 종종 보이기도 하지만, 칼빈주의 신학을 정확하게 표현하거나 조직신학의 주요 영역의 세부적 논의에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일곱째, 강해설교의 주해와 신학 영역 뿐 아니라 필수적인 청중 주해와 청중 적용의 관점에서 챗GPT 설교를 비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먼저 현 챗GPT 모델에게 기본적인 사회통계학적 분석에 대해 질문해 본 결과, 기본적인 청중분석도 명확히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현 청중과 연결(engaging) 및 관계형성을 통한 청중 분석 능력은 거의 없어 보이며 청중 분석표를 통해 한 명의 청중을 깊이 있게 주해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강해설교의 청중주해를 위해 필요한 청중의 심리와 마음 분석, 문화와 세계관, 청중의 영적 상태, 청중의 영적 이상에 대한 분석⁸⁸⁾에 대해서 현 챗GPT 설교는 가장 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설교자가 챗GPT 설교를 활용할 경우 강해설교의 본질적 요소 중 하나인 청중분석과 수사학적 적용의 요소는 배제하게 되는 위험성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덟째, 강해설교의 적실성 과정(relevance process)과 현대적 적용의 관점에서 챗GPT 설교를 비평할 필요가 있다. 열 편 이상의 챗GPT 설교를 분석해 본 결과, 청중 분석과 연결된 적실성 범주(개인, 가정, 교회 공동체, 직장, 사회, 문화, 윤리, 국가, 종교, 세계)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이 제시되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또한 챗GPT 설교는 설교자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지 못하는 약점, 적절한 예화를 거의 제시하지 못하는 약점, 지성적 연결과 저명한 학자들의 저술과 인용을 통해 설득과 변증적 기능을 활용하기 어려운 약점, 설교의 목적인 청중의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 변혁적 요소의 약점 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청중분석과 적실성 과정이 챗GPT 설

86) 본 연구자의 관점은 카이저의 원리화 모델(principlizing model), 도리아니의 구속역사 모델(redemptive-historical model), 벤후저의 구속의 드라마 모델(drama of redemption), 오스본의 해석학적 모델 등을 혼합한 구속사적 원리화 관점을 취하고 있다. 원리화 다리놓기에 대한 상세한 논의와 다양한 모델들의 상호 비교를 위해서는 Gary T. Meadors ed., *Four Views on Moving beyond the Bible to Theology* (Grand Rapids: Zondervan, 2009), 19-269; Osborne, *The Hermeneutical Spiral*, 263-316.

87) 해석학적, 설교학적 트랜스퍼링 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예를 위해서는 Klein, Blomberg, and Hubbard, *Introduction Biblical Interpretation*, 483-504; Daniel M. Doriani, *Getting the Message* (Phillipsburg, NJ: P&R, 1996), 144-48; Orrick, Fullerton, and Payne, *Encountering God through Expository Preaching*, 142-43.

88) 박현신, 『포브릿지 프리칭』, 360-77. 포스트 에브리팅 청중의 마음과 영적 상태, 심층적인 영적 이상 분석에 대해서는 박현신, 『가스펠 프리칭』 (서울: 솔로몬, 2021), 159-61, 177-79.

교가 가진 가장 현저하게 드러난 한계와 약점이라고 볼 수 있다.

아홉째, 설교의 작성과 전달 요소의 관점에서 본 챗GPT 설교의 비평이 필요하다. 설교자들에게 강해설교의 작성과 전달의 원리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⁸⁹⁾ 설교자들은 강해설교의 철학에 입각한 철저한 설교단계를 거쳐 얻은 결과물을 가지고 자신이 직접 설교원고를 작성하면서 깊은 기도와 목상을 통해 ‘내면화’(internalization)해야 하고, 원고의 탈고 작업까지 철저히 완수한 다음 설교 요약 아웃라인만 가지고 원고 없이 설교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설교의 준비단계에서부터 챗GPT를 의존하게 되면 설교의 준비단계가 부실하거나 생략될 수 있고, 설교원고를 작성해야 할 필요성 자체가 없어질 수가 있다. 또한 챗GPT 설교가 설교 작성과 전달을 대체하게 된다면, 강해설교의 청중의 마음을 향한 설교(preaching to the heart)를 접근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 설교자의 영혼과 감정을 담아 진정성(authenticity)을 가지고 전달하지 못하는 한계, 설교의 언어적 요소뿐 아니라 설교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한 비언어적요소인 설교자의 얼굴, 눈, 목소리, 몸, 제스처 등을 통해 전달되기 어려운 한계, 설교의 목적인 변화된 삶을 위한 도전과 결단을 촉구하는 파토스적 요소의 한계, 개혁주의 예배적 요소(찬양, 기도, 고백 등)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예배로서의 설교(preaching as worship)의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

열 번째, 강해설교의 모든 과정을 주도하시는 성령의 역할을 고려하면서 챗GPT 설교를 비평할 필요가 있다. 챗GPT에 의존한 설교 준비과정과 달리, 설교자는 설교 준비단계에서부터 기도 가운데 성령의 ‘부어주심’(unction)의 역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강해설교의 주해화, 신학화, 적실성 과정에서 성령의 ‘조명하심’(illumination)의 역사가운데 설교를 해석, 적용, 작성하고 성령의 ‘나타남’(demonstration) 가운데 효과적으로 설득하고 전달해야 한다. 나아가 설교의 목적인 청중의 변화된 삶의 열매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영광이 사회의 전 영역에 나타나도록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시는 역사를 추구해야 한다.⁹⁰⁾ 챗GPT 설교는 성령충만한 설교자가 준비하고 전달하는 설교를 결코 대신할 수 없다. 챗GPT 설교의 도전 앞에 설교자들이 추구해야 할 강해설교의 본질은 성령의 역사 안에서, 주해적, 신학(교리)적, 적실성, 변혁적 다리놓기(bridge-building) 과정을 통해 설교자와 청중에게 저자가 의도한 메시지를 적용함으로 공동체를 변화되도록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89) 강해설교 작성과 전달의 원리를 위해서는 Jerry Vines and Jim Shaddix, *Progress in the Pulpit* (Chicago: Moody Pub., 2017), 110-90; Donald Sunukjian, *Invitation to Biblical Preaching*, (Grand Rapids: Kregel, 2007), 255-99; Robinson, *Biblical Preaching*, 183-98; Akin, Curtis, and Rummage, *Engaging Exposition*, 232-98; Orrick, Fullerton, and Payne, *Encountering God through Expository Preaching*, 108-85.

90) Greg Heisler, *Spirit-Led Preaching* (Nashville, TN: B&H Academic, 2007), 7-153; 박현신, “변혁적 설교의 전(全) 과정에서 성령의 다차원적 역할,” 개혁신학회, 『개혁논총』 42 (2017): 201-46.

Ⅲ. 나가는 글

본격적인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초지능, 초연결, 초융합의 인공지능 혁명이 가속화되면서 등장한 챗GPT는 현대 사회와 교회로 하여금 엄청난 위기의 파도에 직면하게 했다. 그러나 챗GPT에 대한 기독교적 학술 연구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며, 특히 실천신학적 논문과 설교학적 비평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개혁주의 실천신학자들과 설교학자들의 시의적절한 연구와 방향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챗GPT 설교의 거대한 도전 앞에 목회자들은 매우 신중하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서론에서 제기한 다섯 가지 핵심 질문에 대한 논증적 답변을 통해 실천신학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챗GPT가 어떠한 흐름 속에서 등장했는지에 대한 배경과 핵심 개념을 고찰한 다음 챗GPT에 대한 일반학자들의 평가와 전망을 요약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챗GPT의 도전에 맞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하며, 특히 챗GPT 설교와 관련된 목회자들의 인식을 분석한 주요 통계를 실천신학 관점에서 분석한 다음 설교학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나아가 본 고의 핵심적 연구 의의를 담은 챗GPT 설교에 대한 설교신학적 평가와 함께 실제 챗GPT가 생성한 설교에 대한 설교학적 비평을 열 가지로 나누어 진술하였다. 이를 통해 본 소고는 챗GPT에 대한 인문학적 이해의 지평과 챗GPT에 대한 실천신학적 조망의 지평을 융합하여 챗GPT 설교에 대한 설교학적 비평과 대안을 한국교회와 설교자들을 위해 제안하고자 하였다. 향후 인공지능과 챗GPT에 대한 신학자들의 연구와 더불어 챗GPT 설교에 대한 설교학자들의 더욱 발전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목회자들과 교회사역을 위한 범교단적 지침서와 설교자들을 위한 윤리적 가이드라인도 시급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Akin, Daniel L. David L. Allen, Ned Mathews eds, *Text-driven Preaching*. Grand Rapids: B&H Academic, 2010.
- Arthurs, Jeffrey. *Preaching with Variety: How to Re-create the Dynamics of Biblical Genres*. Grand Rapids: Kregel, 2007.
- Associated Press, "ChatGPT AI robots writing church sermons causing hell for pastors."
<<https://nypost.com/2023/02/17/chatgpt-ai-robots-writing-sermons-causing-hell-for-pastors/>>.
- Badita, Florin. *1337 Use Cases for ChatGPT & other Chatbots in the AI-Driven Era*. Googlebooks, 2023.
- Beeke, Joel R. *Reformed Preaching: Proclaiming God's Word from the Heart of the Preacher to the Heart of His People*. Wheaton, IL: Crossway, 2018.
- Chapell, Bryan. *Christ-centered Preaching*.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8.
- Carter, Terry G. J. Scott Duvall, J. Daniel Hays, *Preaching God's Word: A Hands-On Approach to Preparing, Developing, and Delivering the Sermon*, 2nd ed. Grand Rapids: Zondervan Academic, 2018.
- Chomsky, Noam. "The False Promise of ChatGPT".
<<https://www.nytimes.com/2023/03/08/opinion/noam-chomsky-chatgpt-ai.html>>.
----- "Noam Chomsky on ChatGPT: It's "Basically High-Tech Plagiarism" and "a Way of Avoiding Learning."
<<https://www.openculture.com/2023/02/noam-chomsky-on-chatgpt.html>>.
- DeVries, Brian A. "The Evangelistic Trialogue: Gospel Communication with the Holy Spirit." *Calvin Theological Journal* 44 no.1 (2009): 49-73.
- Doriani, Daniel M. *Getting the Message*. Phillipsburg, NJ: P&R, 1996.
- Erwin, Jim. "Using ChatGPT in Sermon Preparation."
<<https://www.patheos.com/blogs/jimerwin/2023/02/11/using-chatgpt-in-sermon-preparation/>>.
- Gerber, Alison. "ChatGPT Has No Future in the Pulpit."
<<https://www.preachingtoday.com/skills/2023/chatgpt-has-no-future-in-pulpit.html>>.
- Hantrais L, Allin P, Kritikos M. et al. "Covid-19 and the digital revolution. Contemporary Social Science." *Journal of the Academy of Social Sciences* 16/2 (2021): 256-70.
- Heisler, Greg. *Spirit-Led Preaching*. Nashville, TN: B&H Academic, 2007.
- Kim, Matthew. *Preaching with Cultural Intelligence: Understanding the People Who Hear Our Sermon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 Klein, William W. Craig L. Blomberg, and Robert L. Hubbard, *Introduction Biblical Interpretation*. Nashville, TN: Thomas Nelson, 2004.
- McDill, Wayne. *The 12 Essential Skills for Great Preaching*, 2nd ed. Nashville, TN: Thomas Nelson, 2006.
- Meadors, Gary T. ed. *Four Views on Moving beyond the Bible to Theology*. Grand Rapids: Zondervan, 2009.
- Orrick, Jim. Ryan Fullerton, and Brian Payne. *Encountering God through Expository*

- Preaching*. Nashville, TN: B&H Academic, 2017.
- Osborne, Grant. *The Hermeneutical Spiral*.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1991.
- Robinson, Haddon W. *Biblical Preaching*, 2nd ed. Grand Rapids: Baker, 2003.
- Heaven, Will Douglas. "ChatGPT is everywhere. Here's where it came from".
<<https://www.technologyreview.kr/chatgpt-is-everywhere-heres-where-it-came-from/>>.
- Junkroski, Michael. "Rise of the Preacherbots".
<<https://medium.com/pastor-michaels-intersect/rise-of-the-preacherbots-cf1431e1fb8c>>.
- Marshall, Colin. "Noam Chomsky on ChatGPT: It's "Basically High-Tech Plagiarism" and "a Way of Avoiding Learning".
<<https://www.openculture.com/2023/02/noam-chomsky-on-chatgpt.html>>.
- Milco, Michael. "Exegeting Your Congregation." In *The Moody Handbook of Preaching*. Chicago, IL: Moody Pub., 2008. 405-15.
- Moore, Russel. "AI Might Teach, But It Can't Preach".
<<https://www.christianitytoday.com/ct/2023/january-web-only/chatgpt-artificial-intelligence-ai-preach-sermons-church.html>>.
- Paul, James. "Meet The 'Church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Worships AI As God!"
<<https://in.mashable.com/tech/34870/meet-the-church-of-artificial-intelligence-that-worships-ai-as-god>>.
- Perkins, William. *The Art of Prophesying & The Calling of the Ministry*. 채천석 역. 『설교의 기술과 목사의 소명』.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6.
- Schuurman, Derek C. "ChatGPT and the Rise of AI."
<<https://christianscholars.com/chatgpt-and-the-rise-of-ai/>>.
- Sunukijian, Donald. *Invitation to Biblical Preaching*. Grand Rapids: Kregel, 2007.
- Theresa, Deena. "Pastor ChatGPT delivers fine sermons but is no 'real preacher'".
<<https://interestingengineering.com/innovation/pastor-chatgpt-delivers-fine-sermons>>.
- Thacker, Jason. "ChatGPT and Christian Ethics: An Interview With Technology Ethicist."
<<https://churchleaders.com/news/444825-chatgpt-and-christian-ethics-an-interview-with-technology-ethicist-jason-thacker.html>>.
- The Ethics and Religious Liberty Commission (ERLC), "Artificial Intelligence: An Evangelical Statement of Principles." <<https://erlc.com/resource-library/statements/artificial-intelligence-an-evangelical-statement-of-principles>>.
- Vanhoozer, Kevin J. *Is There a Meaning in This Text?*. Grand Rapids: Zondervan, 1998.
- Veith, Gene. "Robot Pastors."
<<https://www.patheos.com/blogs/geneveith/2020/01/robot-pastors/>>.
- Vines, Jerry and Jim Shaddix, *Progress in the Pulpit*. Chicago: Moody Pub., 2017.
- York Hershael W. and Bert Decker, *Preaching with Bold Assurance*.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2003.

- 고선영, 정한균, 김종인, 신용태. “메타버스의 개념과 발전 방향.” 한국정보처리학회. 「정보처리학회지」 28/1 (2021): 7-1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코로나 이후 시대,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디지털 전환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18758>>.
- 김대식. 『챗GPT에게 묻는 인류의 미래』. 서울: 동아시야, 2023.
-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 (1부): ‘인공지능 시대에 애플의 움직임이 없는 이유’ 처음 듣는 챗GPT 이야기.” <https://www.youtube.com/watch?v=eCKS_etvZyI>.
-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 (2부) ‘챗GPT는 더 강력한 인공지능의 티저,’ 처음 듣는 챗GPT 이야기.” <<https://www.youtube.com/watch?v=-BOI9k5sXSs>>.
-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 (3부): 챗GPT가 쓴 창작물의 표절을 가려낼 수 있을까?.” <<https://www.youtube.com/watch?v=JUyCg6bXOAY>>.

[자유발표1]

영적 생명력 증진을 위한 설교 목표 제안: 본문이 이끄는 설교를 중심으로



임도균 교수(침신대)

I. 들어가는 글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은 일의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고 효율을 높이는 데 있어서 그 필요성이 크다.¹⁾ 목적을 분명히 할 때 집중력이 더욱 높아지고 일을 성취하는 동력이 된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²⁾ 릭 워렌(Rick Warren)목사는 목적이 이끄는 교회(purpose-driven church)를 통하여 교회와 삶에서 건강한 목적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였다.³⁾ 그렇다면 교회의 존재 목적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성경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교회에서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무엇보다 먼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에서는 성경에서 증언하는 예수의 삶을 통하여 교회 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찾을 필요가 있다. 또한, 신앙 공동체가 성경에서 안내하는 방향과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설교이다. 설교를 통하여 공동체가 지향하는 방향을 효과적이면서 분명하게 안내할 수 있다. 따라서 설교자는 설교마다 목적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이해해야 한다.

설교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인 설교학(homiletics)에서 설교 작성과 전달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는 많은 진보를 이루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설교의 목적 자체에 관한 연구는 충분치 않았다. 신학적 입장과 전제에 따라 설교 목적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데, 복음주의 진영의 설교학에서는 성경 본문이 설교 목적을 제시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된다. 그러므로 성경을 중요시하는 교회와 교단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성경 본문의 메시지를 충실히 전달하려 한다. 강해설교(expository preaching)는 성경 본문을 충실히 설교하려는 설교 철학을 가지고 실행되는 설교 형

1) Dan Pontefract, 「목적의 힘: 성공하는 사람들의 작지만 위대한 습관」, 김지현 역 (서울: KMAC, 2016), 22.

2) Thom S. Rainer and Eric Geiger, *Simple Church* (Nashville: B&H, 2011), 70.

3) Rick Warren, *The Purpose Driven Church* (Grand Rapids: Zondervan, 1995), 95-109.

태이다. 하지만 강해설교에는 매우 폭넓고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마다 본문에 충실하기 위한 접근방법에도 각기 차이점들이 있다. 특히 근래에 성경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 더욱 구체적인 설교 방법론으로 발전되고 있는 설교운동이 있다. 미국 남침례교단(SBC)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점차 한국교회에서도 소개되고 있는 “본문이 이끄는 설교(text-driven preaching)”이다.

본문이 이끄는 설교는 큰 범주에서 강해설교이다. 하지만 성경 본문에 더욱 충실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발전되고 있는 설교유형이다. 본문이 이끄는 설교는 본문의 내용, 목적, 구조, 감성을 설교 안에 충실히 반영하려 한다. 본문이 담고 있는 움직임과 영적 생명력을 최대한 현대의 청중에게 재현하려 한다.

본문에 충실한 설교를 위해서 무엇보다 본문의 목적을 분명히 파악하고 설교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본문이 이끄는 설교의 목적이 무엇인가?’ 또한, ‘구체적으로 설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에 관해 논하려 한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앙의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 생명력을 증진시키는 설교의 목적을 제시하려 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 먼저 본문이 이끄는 설교의 특성을 이해하고, 몇몇 대표적인 설교학자들의 설교 목적을 고찰하여,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하나님의 영광)과 설교의 구체적인 목적(영혼 구원, 영적 성숙)을 제안하려 한다. 또한, 이러한 구체적인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매설교 준비 때마다 설교의 목적을 점검할 수 있는 세부 점검항목도 제시하려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설교자들이 설교의 동력인 설교의 목적을 분명하게 세우고, 설교를 준비하는 현장에서 설교의 목적을 실천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방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펴는 글

1. 본문이 이끄는 설교란?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영적 행위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요 17:17). 설교에 관하여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를 찾고 설교를 형성하는 방법에는 다양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복음주의 신앙은 하나님께서는 계시하는 하나님 이시고, 영감받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다(시 119:96; 딤후 3:16; 뵤후 1:20-21).⁴⁾ 성경 66권의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보존되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검증되고 인증하여 정경으로 받아들인다.⁵⁾ 복음주의

4) Millard J. Erickson, *Christian Theology* (Grand Rapids: Baker, 2003), 284-5.

설교학에는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한 설교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설교에서 성경 본문을 대하는 접근과 태도에는 매우 다양한 접근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성경 본문을 설교에 반영하는 접근과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1) 설교의 종류

설교를 작성하고 전달하는 과정 중에 성경 본문을 설교에 반영하는 접근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설교의 유형이 있다. 첫 번째는 주제설교(topical preaching)이다. 주제설교는 설교자가 설교의 주제와 중심메시지를 정하고, 전체 성경에서 자유롭게 여러 본문을 인용하며 전달하는 설교이다.⁶⁾ 설교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성경 본문의 인용 및 설명을 통하여 전달한다. 주제설교에서 주제는 설교자가 정한다. 그러므로 설교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비교적 자유롭게 구성하여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⁷⁾ 특히 교리적 가르침을 전달하는 설교로 이러한 유형의 설교가 강점이 있다.⁸⁾ 하지만 본문을 오용할 수 있고, 한 본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유형의 설교는 본문설교(textual preaching)이다. 본문 설교는 설교자가 설교할 하나의 본문을 정하고 하나의 본문에서 하나의 중심메시지를 찾아 설교에 반영한다. 하지만 설교의 대지와 소대지를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설교자는 성경 본문의 구조나 메시지를 느슨하게 따른다. 본문의 대지와 소대지를 따르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설교자가 본문의 구조를 따르지 않고 설교자가 비교적 자유롭게 설교의 대지를 구성하기도 한다.⁹⁾ 설교하는 본문 외에 다른 성경에서 통찰력이나 설교의 대지로 추가하기도 한다. 본문설교는 본문의 중심메시지를 설교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데 있어서 주제설교에 비해 본문에 보다 더 충실하려 한다. 하지만 설교의 대지를 설교자가 비교적 자유롭게 구성하면서 본문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잘못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문을 통하여 설교하므로 설교자가 본문의 권위를 자신의 권위로 사용하는 가운데 자신이 추가한 대지에서 성경의 권위를 오용할 가능성도 있다.

세 번째 유형의 설교는 강해설교(expository preaching)이다. 설교학자에 따라 강해설교의 정의와 이해에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¹⁰⁾ 하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강해

5) Wayne Grudem,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Zondervan, 1994), 68-69.

6) Francis C. Rossow, "Topical Preaching", in *Contemporary Preaching*, ed. Michael Duduit (Nashville: Broadman, 1992), 84-91.

7) 주제설교의 다양한 형태에 관하여 다음의 자료를 참조할 수 있다. Ronald J. Allen, *Preaching the Topical Sermon* (Kentucky: Westminster/John Knox, 1992), 1-18.

8) Jerry Vines and Jim Shaddix, *Power in the Pulpit* (Chicago: Moody, 1999), 29.

9) Al Fasol, "Textual Preaching", in *Contemporary Preaching*, ed. Michael Duduit (Nashville: Broadman, 1992), 77-82.

10) 학자에 따른 강해설교에 대한 정의에 관하여 다양성이 존재한다. 여러 설교학들의 강해설교의 정의에 관한 연구는 다음의 자료를 참조할 수 있다. Haddon W. Robinson, *Biblical Preaching* (Grand Rapids: Baker, 2001), 31-32.

설교는 봉독된 설교 본문에서 본문의 중심메시지가 설교의 중심메시지를 형성하고, 본문의 움직임(구조)이 설교의 구조(대지)가 되도록 하는 설교이다.¹¹⁾ 강해설교는 본문설교와 비교할 때 봉독된 설교 본문에 더욱 충실하도록 접근하는 설교라 할 수 있다. 강해설교는 본문에서 중심메시지와 대지를 찾아 설교에 반영하므로 본문에서 나오는 권위와 힘을 설교에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강해설교자들이 본문의 교리와 이성적인 가르침에 치우치는 경향도 있었다. 본문이 담고 있는 감성적인 요소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네 번째 유형의 설교는 본문이 이끄는 설교(text-driven preaching)이다. 본문이 이끄는 설교는 크게 본다면 강해설교의 범주 안에 포함이 된다. 본문이 이끄는 설교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성에 신학적 뿌리를 두고 있다.¹²⁾ 또한, 기록된 말씀인 성경의 영감성(the inspiration of the Bible)과 성경의 충분성(the sufficiency of the Bible)이 신학적 기초이다.¹³⁾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영감 받은 계시의 말씀으로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고, 성숙한 성도로 안내하는 데 충분하다는 신학적 기초에 기반한다. 따라서 본문이 이끄는 설교는 설교 작성과 전달에서 성경 본문에 더욱 충실해지려 한다. 이러한 신학적 기초는 강해설교와도 동일하다. 하지만 강해설교라는 용어가 광범위하므로 사용되므로 강해설교자들 안에서 성경 본문에 충실해지려는 설교 작성법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본문이 이끄는 설교는 성경에 충실하게 설교하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 강해설교라 할 수 있다. 스티븐 스미스(Steven Smith) 박사는 “본문이 이끄는 설교는 본문의 내용과 구조, 역동성을 다시 표현하는 설교로 성경 본문의 해석과 의사소통이다”라고 정의한다.¹⁴⁾

본문이 이끄는 설교는 큰 범주에서 강해설교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성경 본문에 충실하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개한 설교유형이라 할 수 있다. 가령 본문이 이끄는 설교에서는 설교 본문에서 본문의 중심메시지와 목적이 나오며, 본문의 구조를 반영하며, 본문이 가지고 있는 감성적인 어조도 설교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 한다. 본문이 이끄는 설교는 본문의 메시지(message)와 본문 자체의 의사소통 효과(impact)를 더욱 충실히 반영하도록 힘쓰는 설교 접근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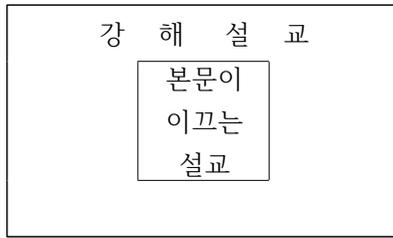
〈도표 1: 본문이 이끄는 설교와 강해설교의 포함 관계〉

11) Paul Borden, “Expository Preaching”, in *Contemporary Preaching*, ed. Michael Duduit (Nashville: Broadman, 1992), 63-64; Bryan Chapell, *Christ-centered Preaching* (Grand Rapids: Baker, 1994), 128; Vines and Shaddix, *Power in the Pulpit*, 29.

12) David L. Allen, “설교 준비 과정”, 『본문이 이끄는 설교』, 김대혁, 임도균 역 (서울: 아가페, 2020), 127.

13) David L. Allen, “본문이 이끄는 설교의 신학”, 『간추린 본문이 이끄는 설교』, 김대혁, 임도균 역 (서울: 아가페, 2016), 18.

14) Steven Smith and Robert Gallaty, *Essential for Text-Driven Preaching* (Nashville: B&H, 2018), 25.



2) 본문이 이끄는 설교의 3요소

본문이 이끄는 설교는 예배 중 봉독된 설교 본문에 따라 본문의 내용과 목적과 본문의 감성이 반영되게 하고 청중에게 본문이 살아나도록 전달되도록 힘쓰는 설교이다. 그렇다면 본문이 이끄는 설교를 구별되게 하는 요소는 무엇일까? 본문이 이끄는 설교의 구성요소는 '3S'로 축약될 수 있다. 본문의 내용(substance), 구조(structure), 역동성/감성(spirit)이다.

(1) 본문의 내용(the substance of the text)

본문이 이끄는 설교는 본문의 중심메시지를 명확히 파악하고, 본문이 지향하는 고유한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문의 중심메시지와 목적은 본문이 이끄는 설교의 동력과 같다.¹⁵⁾ 본문이 이끄는 설교는 본문의 중심메시지를 찾고 설교에 효과적으로 반영한다, 또한, 본문 연구를 통하여 본문의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설교에 반영한다. 따라서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 본문의 내용과 목적이 선명하게 청중에게 전달되도록 한다. 청중의 상황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본문이 이끄는 설교는 설교 작성과 전달과정 중 다른 형태의 설교에 비하여 본문 설명을 좀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2) 본문의 구조(the structure of the text)

본문이 이끄는 설교는 성경 본문의 구조를 설교에 최대한 반영하려 한다. 이러한 입장은 성경 저자가 본문을 통하여 소통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한다. 성경 본문이 소통하는 구조와 방식을 최대한 살릴 때 본문의 원저자가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더욱 순전하게 전달될 수 있다. 성경 저자가 본문을 통하여 독자와 청중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온전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구조도 존중되어야 한다. 본문이 이끄는 설교는 성경 저자가 소통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최대한 순전하게 재현성화하도록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¹⁶⁾ 이러한 구조에 관한 관심은 성경의 장르를 중요시한다. 성경의 장르에 따라 본문의 움직임이 다르다. 이 때문에 본문이

15) Steven W. Smith, “본문이 이끄는 설교의 필수 요소,” 『간추린 본문이 이끄는 설교』, 21.

16) Steven W. Smith, 『본문이 이끄는 장르별 설교』, 김대혁, 임도균 역 (서울: 아가페북스, 2016), 51.

이끄는 설교는 본문의 장르 사용에 주목한다. 본문이 이끄는 설교는 세 개의 큰 성경 장르에 집중한다(서신, 내러티브, 시).¹⁷⁾

(3) 본문의 감성(the spirit of the text)

본문의 감성을 설교에 반영하려는 접근이 본문이 이끄는 설교의 가장 독특한 점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전의 여러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직간접적으로 감성적인 요인들을 논하였다. 하지만 본문이 이끄는 설교는 본문의 감성과 어조를 파악하여 설교에도 본문의 감성적인 어조를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하려 한다. 전통적인 강해설교자들이 본문의 신학적 메시지와 교리에 집중하여 이성적인 설명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비해 본문이 이끄는 강해자는 본문의신학적 메시지와 교리적 교훈과 같은 이성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본문에 담겨 있는 감성적인 요인에도 집중하여 놓치지 않으려 한다. 본문의 역동성은 성경 저자가 성경 본문을 기록할 때 의도한 감성적인 어조이다.¹⁸⁾ 본문이 이끄는 설교의 세 개의 요소는 다음의 도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요소가 설교화 과정에 반영되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구분	본문 연구 과정	설교화 과정
본문의 내용	본문의 중심메시지, 본문의 목적	설교의 중심메시지, 설교의 목적
본문의 구조	본문의 움직임, 본문의 구조	설교의 움직임, 설교 아웃라인
본문의 감성	본문의 감성, 본문의 어조	설교의 감성, 설교의 어조

〈도표 2: 본문이 이끄는 설교의 3요소와 설교화 과정〉

17) 서신서는 성경 저자가 특정한 청중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본문의 구성이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설교에서도 논리적 움직임이 설교에 구조에 반영되도록 힘쓴다. 내러티브는 이야기로 하나의 줄거리로 연결된 형태의 의사소통 방법이다.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각각의 장면을 묘사하여 읽는 이로 하여금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리게 하여 감동과 감흥을 준다. 따라서 내러티브 장르에서는 본문의 장면을 설교의 구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시는 성경 저자의 감성적인 흐름을 고백적 형식으로 전달하는 장르이다. 마치 노래와 같이 성경 저자가 전달하는 메시지와 함께 감성적인 상태를 전달하는 데 특화된 장르이다. 그러므로 시편과 같이 시로 기록된 성경에는 서신서와 같이 정보전달에 집중이 된 본문과 다른 방법으로 본문을 이해해야 한다. 본문의 감성적인 흐름이 설교에 반영이 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시편 본문의 감성을 반영한 설교형태와 전달에 관하여 다음의 자료를 참조할 수 있다. 임도균, “본문의 감성이 전달되는 시편설교”, 『복음과 실천신학』, 68권(2023): 197-222; 임도균, “본문의 감성이 전달되는 시편설교”, 『복음과 실천신학』, 68권(2023): 197-222; 권호, “본문이 이끄는 시편 설교법”, 『복음과 실천신학』, 61권(2021): 132-68.

18) Smith, 「본문이 이끄는 장르별 설교」, 52.

2. 설교의 목적에 관한 대표적인 설교학자들의 견해

신학적 입장과 교단적 배경에 따라 설교의 목적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몇몇 대표적인 설교학자들의 설교 목적에 대한 견해를 비평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존 스토틀(John R. W. Stott)는 복음주의 신학자이자 설교자이다. 그는 *Between Two Worlds*라는 책에서 설교자는 성경의 세상과 현재의 세계를 연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성경의 시대와 현대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연구를 통하여 “본문의 지배적 사상(dominant thought)”을 찾아야 함을 강조한다. 본문의 지배 사상이 중요한 이유는 설교는 강연과 달리 본문의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¹⁹⁾ 하지만 스토틀은 설교의 목적으로 성경에서 명제적인 교훈을 찾아 현대의 청중과 연결하여 전달하는 지적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스토틀은 복음주의 설교자로 본문의 메시지를 현대와 연결하는 해석학적 생각의 틀을 제공한 부분에서는 공헌하였다. 하지만 스토틀의 설교 목적은 구체적이지 않고 이성적이고 교훈적인 가르침의 영역에 중점을 두고 있다.

프레드 크래독(Fred B. Craddock)은 성경 본문의 목적이 곧 설교의 목적이 되어야 함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프레독은 본문이 의사를 전달하고 움직이므로 본문을 통하여 교회에 살아 있는 목소리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²⁰⁾ 크래독은 성경과 복음이 실제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활력을 가지는 것을 설교의 목적으로 할 것을 주장한다. 단순한 정보전달보다는 청중에게 본문이 살아서 와닿는 메시지로 소통하는 부분을 강조한 점은 듣는 청중을 고려한 부분이다. 하지만 설교의 구체적인 목적을 제시하는 데는 여전히 미흡했다.

하돈 로빈슨(Haddon W. Robinson)은 빅 아이디어(big idea) 설교를 통하여 설교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메시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중심 생각은 설교의 목적과 연관이 있다. 로빈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아무리 유능한 전달력이 있는 설교자라 할지라도 설교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을 때 설교의 명료성이 떨어진다.²¹⁾ 로빈슨은 강해설교의 전통에서 의사소통(communication)의 요소를 더욱 강조한다. 설교가 분명한 소통이 되기 위해서 설교의 목적이 분명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로빈슨은 설교 목적은 도덕적 행동을 행하게 함이라고 주장한다.²²⁾ 즉, 설교 목적은 삶에서 실천함으로 도덕적으로 변화하는 결실이다.

이렇게 설교의 목적을 지적, 정서적 영역을 넘어 삶과 행동의 변화까지 강조한 부분은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데 발전된 접근이다. 하지만 설교의 목적이 윤리적으로 행동의 변화에만 집중된 부분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메시지를 온전히 전달하는 데는 한계점을 보인다.

19) John R. W. Stott, *Between Two Worlds* (Grand Rapids: Michigan, 1985), 224.

20) Fred B. Craddock, *Preaching* (Nashville: Abingdon, 1985), 28.

21) Robinson, *Biblical Preaching*, 106.

22) Robinson, *Biblical Preaching*, 107.

브라이언 채플(Bryan Chapell)은 설교의 목적은 자신의 웅변적인 기술로가 아니라 선포된 말씀의 능력을 이루는 데 있다고 강조한다.²³⁾ 나아가 설교의 목적을 좀더 신학적인 의미를 통하여 세분화하여 구원(salvation)과 성화(sanctification)에 목적이 있음을 제시한다.²⁴⁾ 채플은 자아 중심의 의(self-justification) 또는 자아 중심의 성화(self-sanctification)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해야 함을 강조한다.²⁵⁾ 채플은 설교의 목적을 성경 본문의 메시지를 신학적으로 보다 구체화하여 구원과 성화로 제시한다. 또한, 성경의 목적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관점을 통한 연결점을 제시한다. 본문의 주해화와 신학적 해석을 연결한 부분은 크게 공헌한 부분이다. 그리고 목적을 구원과 성화로 나누어 말한 부분은 더욱 구체화된 방법을 제시한 점에서 공헌한 부분이다. 하지만 이러한 구체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절차와 자세한 설명은 미흡한 점이다.

3. 본문이 이끄는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성도 및 세상과 소통하는 영적 행위이다. 본문이 이끄는 설교는 예배중 설교할 성경 봉독이 되는 본문에 집중하여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청중과 소통하도록 집중한다.²⁶⁾ 본문이 이끄는 설교는 설교의 메시지를 설교자가 스스로 창조하기보다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활성화하여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²⁷⁾ 그렇다면 본문에 충실한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과 구체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1) 인류의 궁극적인 목적(the ultimate goal): 하나님의 영광

성경에서는 인류의 목적을 무엇이라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the glory of God)이다.²⁸⁾ 인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사 43:7; 엡 1:3-14; 요 7:18; 계 4:11). 이방인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야 한다(빌 2:11; 롬 11:36; 롬 15:9; 시 96:3).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기를 원치 않으신다(사 48:10-11).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신다(시 106:8; 사 48:9-11; 대상 16:29).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야 한다(고전 10:31). 또한, 주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참여하게 된다(살후 1:9-10). 이처럼 성경은 거듭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한다. 그렇다면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23) Bryan Chapell, *Christ-centred Preaching* (Grand Rapids: Baker, 1994), 18.

24) Chapell, *Christ-centred Preaching*, 18.

25) Chapell, *Christ-centred Preaching*, 289.

26) 예배에서 성경 봉독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하여 다음의 글을 참조할 수 있다. 임도균, “본문이 살아나는 성경 봉독법”, 『복음과 실천신학』, 56권(2020): 83-107.

27) Smith, 「본문이 이끄는 장르별 설교」, 13.

28) Millard J. Erickson, *Christian Theology* (Grand Rapids: Baker Books, 2003), 379.

개혁주의 설교자 존 파이퍼(John Piper)는 설교의 최고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강조한다. 파이퍼는 설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인간이 스스로 복종하는 것임을 강조한다.²⁹⁾ 성경이 일관되게 증거하는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한다. 성경에 충실한 설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설교이다.³⁰⁾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청중은 바로 하나님이다.³¹⁾ 설교를 통하여 영광 받으셔야 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본문을 중요시하는 본문이 이끄는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2) 하나님의 영광으로 안내하는 유일한 길(the way for the glory of God):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인정하는 부분일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은 각자의 견해에 따라 다르게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본문이 이끄는 설교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설교를 할 수 있는가? 본문이 이끄는 설교를 주장한 주요한 학자인 스티븐 스미스(Steven Smith)는 설교 중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너머에 있는 것, 즉 그분은 성육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분께 귀 기울여야 한다. 그리스도는 단순히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을 정확히 다시 보여주신 분이다.³²⁾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보이시고 그분의 뜻을 분명히 알려 주시는 분이다. 데이빗 알렌(David Allen)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를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자신의 최종적인 말씀을 하셨다(히 1:1-2)”³³⁾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임재이시고 하나님의 형상(골 1:15; 고후 4장)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³⁴⁾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위해서이다(요 12:27-28, 13:31, 17:1-5; 벰전 4:10-11).³⁵⁾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리셨던 예수의 삶을 통하여 설교의 구체적인

29) John Piper, *The Supremacy of God in Preaching* (Grand Rapids: Baker, 1990), 27.

30) Tony Merida, *The Christ-Centered Expositor* (Nashville: H&H, 2016), 128.

31) Sidney Greidanus, *The Modern Preacher and the Ancient Text* (Grand Rapids: Eerdmans, 2003), 120.

32) Smith, 「본문이 이끄는 장르별 설교」, 38.

33) David L. Allen, “서론”, 「본문이 이끄는 설교」, 김대혁, 임도균 역 (서울: 아가페, 2020), 14.

34) Smith, 「본문이 이끄는 장르별 설교」, 37.

35) Gary L. McIntosh, *Biblical Church Growth* (Grand Rapids: Baker Books, 2003), 52-53.

목적은 찾아볼 수 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매 맺기 원하셨던 것은 무엇인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목적으로 하셨다고 주장하는가? 이에 따라 본문이 이끄는 설교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 드리기 위해서 달성해야 하는 구체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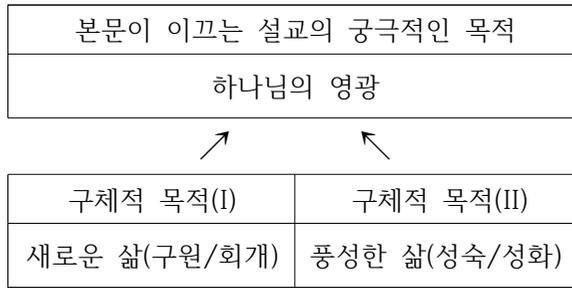
4. 본문이 이끄는 설교의 구체적인 목적

요한복음 10장 9-10절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간략하게 알려 주는 본문이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0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의 지상 사역을 축약해서 보여주는 말씀이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꼴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새로운 삶(구원)을 얻게 하시고, 구원 이후에도 풍성한 삶(성숙)을 살도록 하는 데 있다. 예수께서는 영적 생명을 잃은 자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생명을 증진하기 위해서 힘쓰셨다.³⁶⁾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예수와 같이 새로운 삶(영혼 구원)과 풍성한 삶(영적 성숙)을 살아가는 것을 구체적인 삶의 지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설교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영적 공동체가 이러한 구체적인 목적을 성취하도록 하는 안내자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³⁷⁾ 성경에 충실한 설교를 통해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날마다 더욱 성숙해지며, 더욱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³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적인 생명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설교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설교의 구체적인 목적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 새로운 삶(구원/회개), 2) 풍성한 삶(성숙/성화). 새로운 삶은 케리그마(kerygma)로 복음을 전하는 데 중점이 된 설교이고, 풍성한 삶은 디다케(didache)로 성도의 영적 성숙을 위해 가르치는 설교라 할 수 있다.

36) H. C. Brown, H. Gordon Clinard, Jesse J. Northcutt, *Steps to the Sermon* (Nashville: Broadman, 1963), 16.

37) 임도균, “본문이 살아나는 본문연구”, 『본문이 살아있는 설교 플랫폼』 (서울: 아가페, 2023), 90-1.

38) Vines and Shaddix, *Power in the Pulpit*, 57. 본문성이 존중되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설교의 방법론에 관하여 다음의 자료를 참조하면 된다. 김대혁, “본문성이 드러나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에 대한 제안”, 『복음과 실천신학』, 42권(2017): 9-47.



〈도표 3: 본문이 이끄는 설교의 목적〉

1) 구체적인 목적: 새로운 삶(new life, 구원/회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영적 생명(요 6:68)이 있으므로, 불신자가 회개할 수 있도록 촉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마 4:17, 11:20-21; 막 6:12; 눅 5:32, 13:3, 5, 15:7, 10, 24:47; 행 2:38, 3:19, 11:18, 17:30, 20:21; 고후 7:9-10; 딤후 2:25).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로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없다면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징계하는 의로만 작용하지만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영혼을 살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³⁹⁾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한 새로운 삶의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

그렇다면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새로운 영적인 삶을 소개할 것인가? 교회 성장학자인 탐 레이너(Thom Rainer)는 영혼 구원의 결실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들을 조사한 결과 성경의 권위에 의지하고 본문의 메시지에 충실한 설교가 선포되는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영혼 구원의 결실이 풍성하게 맺힌다고 주장한다.⁴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로 안내한다(요 5:3-9, 14:6; 행 4:12; 딤후 3:15). 본문에 충실한 설교는 성경 자체가 전달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므로 자연스럽게 새로운 삶(구원/회개)의 결과가 산출된다. 따라서 본문에 충실하려는 본문이 이끄는 설교는 자연스럽게 본문 자체가 목적으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를 전파하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게 된다.⁴¹⁾

하지만 설교자는 청중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면서 청중에게 영적 생명을 가져다줄 수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복음의 메시지를 설교할 때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가 청중의 상태이다. 설교자가 속한 교단과 신학적 입장에 따라 중생의 형태와 세부적인 이해에 관하여 다양성이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청중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최종적으로 중생

39) Piper, *The Supremacy of God in Preaching*, 32.

40) Thom Rainer, *Effective Evangelistic Churches* (Nashville: H&H Publishers, 1996), 55-56.

41) 전도설교에 관한 논의는 다음의 글을 참조할 수 있다. 박태현, “로이드 존스의 전도설교 연구”, 『복음과 실천신학』, 58권(2021): 75-115; 박현신, “전도설교에 대한 개혁주의 설교학적 고찰”, 『복음과 실천신학』, 39권(2020): 102-43.

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인증하여 주실 것이다. 하지만 현장의 설교자는 영적 공동체를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섬기다 보면 청중의 영적인 상태를 느낄 수 있다. 설교자가 목자의 심정으로 공동체를 품으면서 영적인 상태를 면밀하게 파악해야 한다. 다음의 네 가지 불신자 대상에 관하여 청중의 영적인 상태를 고려하여 복음 제시가 이루어져야 한다.⁴²⁾

(1) 복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대상(remote from gospel)

복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대상에게는 복음을 전달하기 전에 최대한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한다.⁴³⁾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과 예수를 믿는 삶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여 설교해야 한다. 추운 겨울 단단히 얼어 있는 땅을 파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듯이 불신자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따뜻하게 품어 녹이는 노력이 설교 중에 드러나야 한다.⁴⁴⁾

(2) 복음에 관심이 있는 대상(curious in gospel)

복음에 관심이 있는 청중은 아직 중생의 경험을 하지 않았지만, 기독교와 복음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들은 성경의 진리에 관하여 서서히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대상이다. 하지만 아직 복음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지 않는 단계이다. 땅에 씨앗을 뿌리고 싹이 나기까지 꾸준히 물을 주고 온도와 습도를 관리하듯이 목양적으로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며 복음의 진리를 그들의 귀에 들리도록 전해야 하는 단계이다.⁴⁵⁾

(3) 복음에 마음이 열리는 대상(open-mind to gospel)

인간의 죄, 십자가를 통한 속죄와 부활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거부반응이 없고, 영적인 관심이 증폭되는 단계이다. 더욱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본인도 경험하는 가운데 영적인 생명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단계이다.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이 열린 상태이다.⁴⁶⁾

(4)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대상(ready to accept gospel)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하는 단계이다.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는 모든 과정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지만, 특히

42) 임도균, “청중분석”, 『최상의 설교』, (서울: 아가페, 2023), 77-78.

43) Rick Richardson, “Cross-Cultural Preaching”, in *The Art & Craft of Biblical Preaching*, ed. Haddon Robinson and Craig B. Larson (Grand Rapids: Zondervan, 2005), 171-73.

44) Calvin Miller, *The Empowered Communicator* (Nashville: H&H Publishers, 1994), 43-47.

45) Craig A. Loscalzo, *Evangelistic Preaching that connects* (Downers Grove: InterVarsity, 1995), 26.

46) Mark Galli and Craig B. Larson, *Preaching that connects* (Grand Rapids: Zondervan, 1994), 13-22.

성령의 도우심을 통한 중생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이다. 설교자는 성령을 의지함으로 정확하게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설교 시 초청(invitation)을 통하여 결단을 촉구하거나 결신 카드를 작성하게 하고 이후 목양적 상담을 통하여 새로운 삶(중생/회개)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안내한다.⁴⁷⁾ 본문이 이끄는 설교는 실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위의 청중의 네 가지 상태를 파악하여 새로운 삶(구원/회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밀하게 접근할 때 복음이 보다 효과적으로 들리게 할 수 있다.

2) 구체적인 목적: 풍성한 삶(plentiful life, 성숙/성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되게 하는 삶이 필요하다.⁴⁸⁾ 구원 이후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뒤따라야 한다(고전 6:11; 골 3:9-10; 살전 5:23-24; 롬12:2; 고후 7:1; 엡 2:24; 히 12:14; 벧전 1:15-16).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살기보다 예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해야 한다(마 24:14, 28:18-19; 막 16:15; 행 1:8, 20:24). 그리스도인의 삶은 중생을 체험하고 중지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성장(엡 4:13-16; 골 1:28; 벧전 2:2; 벧후 3:18; 요일 2:12-14)을 통하여 풍성한 영적 생명력을 경험해야 한다. 영적 성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롬 8:29; 엡 4:13; 벧후 1:4) 것이다. 성경은 성도가 충분히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며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가도록 안내한다.⁴⁹⁾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를 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⁵⁰⁾ 따라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성장을 경험케 해야 한다. 본문이 이끄는 설교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충실히 들리지게 함으로써 성경 본문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도록 구체적으로 인도한다.

예수를 닮는 영적 성숙은 제자 양육을 통해 도울 수 있다. 제자 양육을 위한 영력 있는 수단이 설교이다. 설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영적 성장을 돕게 된다. 예수를 닮고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서는 영적 성장을 위한 세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영적으로 풍성한 삶이 되기 위해서 다음의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예배적 삶, 진리적 삶, 윤리적 삶, 회복적 삶. 매번의 본문이 이러한 영역 중 어떠한 부분과 연관되어 있는가를 파악하고 영적 성장을 위해서 본문이 강조하는 영역을 설교에서 충실히 드러내야 한다.

47) Loscalzo, *Evangelistic Preaching that connects*, 73.

48) Smith and Gally, *Essential for Text-Driven Preaching*, 16.

49) Tony Merida, *Faithful Preaching* (Nashville: H&H, 2009), 38-39.

50) Smith and Gally, *Essential for Text-Driven Preaching*, 16.

(1) 예배적 삶(worshiping life)

성경 본문에 충실히 설교하다 보면 공적 예배와 사적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 예배의 의미와 참여 방법과 태도에 대한 설교를 통하여 공적인 예배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안내한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예배의 삶이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 기도, 말씀 묵상, 헌신(헌금), 섬김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을 정하고 설교를 통하여 영적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2) 진리적 삶(truthful life)

이단의 공격과 거짓된 가르침이 홍수와 같이 몰려드는 시대에는 성도들도 더욱 강하게 진리로 무장이 되어 건강한 영적 삶으로 훈련되어야 한다. 성경 본문 중에 기독교의 본질적인 교리적인 내용(창조, 인간의 타락, 죄, 성육신, 십자가의 대죄, 부활, 재림 등)을 잘 이해되도록 세심하게 설명하고 가르쳐야 한다. 반면에 기독교의 가르침에 반하는 죄와 이단적 사상에 대해서는 본문을 통하여 경고하고 멀리하는 설교를 통하여 가르쳐야 한다.

(3) 윤리적 삶(ethical life)

기독교 신앙은 윤리적인 삶을 실천하는 것이다. 성경에 나온 말씀을 순종함으로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마 7:24-26; 약 2:17, 26). 특히 윤리적 실천이 요구되는 영역(개인 생활, 가정, 교회 생활, 사회생활, 국민으로 삶, 세계인으로 삶, 소셜 미디어에서 삶)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제로 실행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안내해야 한다.

(4) 회복적 삶(recovering life)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중요한 사역이 치유와 회복의 사역이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따라서 본문의 내용으로 낙심한 마음이 있는 성도에게 격려와 위로를 전하기도 하고, 내면의 아픔이 있는 성도의 마음의 상태를 다독이고 돌보기도 한다. 또한, 본문이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일 때 육신의 아픔이 있는 자에게 치유의 은혜를 소망하도록 설교할 때 성도가 더욱 힘을 낼 수 있다.

본문이 이끄는 설교는 영적 성숙을 위해서 본문의 세부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풍성한 삶(성화/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설교이다. 실제 현장에서 제자 양육을 촉발하는 목적으로 설교를 할 때는 위의 세 가지 세부적인 실천 방안 중 매 설교가 어떤 범주에 속해 있는지 파악하여 설교 작성과 전달에서 고려해야 한다. 위의 2가지 구체적인 설교 목적과 8가지 세부 설교 점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구체적 목적(I): “새로운 삶(구원/회개)” -복음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설교-	구체적 목적(II): “풍성한 삶(성화/성숙)” -제자 양육을 목적으로 하는 설교-
□ 복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대상: 복음에 관심 유발이 필요함	□ 예배적 삶: 공적 및 사적 예배의 삶(기도, 말씀 묵상, 찬양, 헌신)을 통한 영적 생명력 증진
□ 복음에 관심이 있는 대상: 복음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함	□ 진리적 삶: 바른 교리로 무장된 생명력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성경의 진리로 가르침과 거짓 가르침(이단)에 대한 경고함
□ 복음에 마음이 열리는 대상: 복음을 쉽게 이해하게 함	□ 윤리적 삶: 크리스천으로 삶의 여러 영역(개인 생활, 가정, 교회 생활, 사회생활, 국민으로 삶, 세계인으로 삶)에서 믿음을 윤리적으로 실천하며 살도록 안내함으로 생명력 있는 삶의 영향력이 확장되도록 함
□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대상: 복음을 받아들여 영적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결단하게 함	□ 회복적 삶(전인격적인 회복된 삶): 아픔과 시련이 있을 때 위로, 상담, 치유를 통한 전인격적인 회복으로 생명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안내함

〈도표 4: 본문이 이끄는 설교의 구체적인 목적과 실천 점검 사항〉

III. 나가는 글

조직의 목적을 분명히 할 때 일의 효율을 높이고 일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교회 공동체도 목적을 분명하게 함으로 구성원과 동일한 방향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다. 교회에서 구성원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방법이 설교이다. 복음주의 설교는 성경 본문을 설교에 기초하여 메시지를 전하려 한다. 설교 본문을 설교 중에 반영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종류의 설교유형(주제설교, 본문설교, 강해설교, 본문이 이끄는 설교)으로 나눌 수 있다. 본문이 이끄는 설교는 강해설교이면서 기존의 강해설교보다 좀더 구체적으로 본문에 충실히 설교하는 방법의 설교형

태이다. 또한, 본문이 이끄는 설교는 본문의 메시지와 목적, 본문의 구조와 본문의 감성이 설교화되는 과정에 효과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하는 설교유형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 행위에 있어서도 목적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여러 설교 학자(존 스토티, 프레드 크래독, 하돈 로빈슨, 브라이언 채플)의 설교 목적을 고찰해 본 결과 부분적으로 설교의 목적을 논하였지만, 본문에 충실한 설교의 목적을 구체화하는 데는 충분치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본문에 충실함을 지향하는 본문이 이끄는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하나님의 영광)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하는 중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의 목적을 조명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새로운 삶(영혼 구원)과 풍성한 삶(영적 성숙)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예수의 목적은 전 인격적인 생명력을 증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성경 본문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알려 주는 원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설교자가 본문에 충실히 설교함으로써 영혼을 구원하고, 성도를 성숙하게 하는 설교를 해야 함을 제안했다. 나아가 이러한 설교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점검 사항도 새로운 삶(복음 제시 설교: 복음에서 멀리 있는 대상, 복음에 관심이 있는 대상, 복음에 마음이 열리는 대상,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대상)과 풍성한 삶(제자 양육 설교: 예배적 삶, 진리적 삶, 윤리적 삶, 회복적 삶)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연구가 현장에서 본문에 충실히 설교하는 설교자들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에 이르는 생명력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권호. “본문이 이끄는 시편 설교법”. 『복음과 실천신학』, 61권(2021): 132-68.
- 권호, 임도균. 『최상의 설교』. (서울: 아가페, 2023).
- 김대혁. “본문성이 드러나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에 대한 제안”. 『복음과 실천신학』, 42권 (2017): 9-47.
- 임도균외 4인. “본문이 살아나는 본문연구”. 『본문이 살아있는 설교 플랫폼』 (서울: 아가페, 2023).
- 임도균. “본문의 감성이 전달되는 시편설교”. 『복음과 실천신학』, 68권(2023): 197-222.
- _____. “본문이 살아나는 성경 봉독법”. 『복음과 실천신학』, 56권(2020): 83-107.
- 박현신. “전도설교에 대한 개혁주의 설교학적 고찰”. 『복음과 실천신학』, 39권(2020): 102-43.
- 박태현. “로이드 존스의 전도설교 연구”. 『복음과 실천신학』, 58권(2021): 75-115.
- Allen, David L. et al. 『본문이 이끄는 설교』, 김대혁, 임도균 역 (서울: 아가페, 2020).
- _____. 『간추린 본문이 이끄는 설교』. 김대혁, 임도균 역. 서울: 아가페북스, 2016.
- Allen, Ronald J. *Preaching the Topical Sermon* (Kentucky: Westminster/John Knox, 1992).
- Borden, Paul. “Expository Preaching”. In *Contemporary Preaching*, ed. Michael Duduit (Nashville: Broadman, 1992).
- Brown, H. C. H. Gordon Clinard, Jesse J. Northcutt. *Steps to the Sermon* (Nashville: Broadman, 1963).
- Chapell, Bryan, *Christ-centered Preaching* (Grand Rapids: Baker, 1994).
- Craddock, Fred B. *Preaching* (Nashville: Abingdon, 1985).
- Erickson, Millard J. *Christian Theology* (Grand Rapids: Baker, 2003).
- Fasol, Al. “Textual Preaching”. In *Contemporary Preaching*, ed. Michael Duduit (Nashville: Broadman, 1992).
- Galli, Mark and Craig B. Larson. *Preaching that connects* (Grand Rapids: Zondervan, 1994).
- Greidanus, Sidney. *The Modern Preacher and the Ancient Text* (Grand Rapids: Eerdmans, 2003).
- Grudem, Wayne.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Zondervan, 1994).
- Loscalzo, Craig A. *Evangelistic Preaching that connects* (Downers Grove: InterVarsity, 1995).
- Mcintosh, Gary L. *Biblical Church Growth* (Grand Rapids: Baker Books, 2003).
- Merida, Tony. *The Christ-Centered Expositor* (Nashville: H&H, 2016).
- _____. *Faithful Preaching* (Nashville: H&H, 2009).
- Piper, John. *The Supremacy of God in Preaching* (Grand Rapids: Baker, 1990).

- Miller, Calvin. *The Empowered Communicator* (Nashville: H&H, 1994).
- Pontefract, Dan. 「목적의 힘: 성공하는 사람들의 작지만 위대한 습관」, 김지현 역 (서울: KMAC, 2016).
- Rainer, Thom. *Effective Evangelistic Churches* (Nashville: H&H, 1996).
- Rainer, Thom S. and Eric Geiger. *Simple Church* (Nashville: B&H, 2011).
- Richardson, Rick. “Cross-Cultural Preaching”. In *The Art & Craft of Biblical Preaching*, ed. Haddon Robinson and Craig B. Larson (Grand Rapids: Zondervan, 2005).
- Robinson, Haddon W. *Biblical Preaching* (Grand Rapids: Baker, 2001).
- Rossow, Francis C. “Topical Preaching”. In *Contemporary Preaching*, ed. Michael Duduit (Nashville: Broadman, 1992).
- Smith, Steven W. 「본문이 이끄는 장르별 설교」, 김대혁, 임도균 역 (서울: 아가페북스, 2016).
- Smith, Steven and Robert Gallaty. *Essential for Text-Driven Preaching* (Nashville: B&H, 2018).
- Stott, John R. W. *Between Two Worlds* (Grand Rapids: Michigan, 1985).
- Vines, Jerry and Jim Shaddix. *Power in the Pulpit* (Chicago: Moody, 1999).
- Warren, Rick. *The Purpose Driven Church* (Grand Rapids: Zondervan, 1995).

[논평]

임도균 교수의 논문
**“영적 생명력 증진을 위한 설교 목표 제안:
본문이 이끄는 설교를 중심으로”**에 관한 논평



김대혁 교수(충신대)

[펴는 글]

설교는 “산탄총이 아니라 명중탄”이 되어야 한다고 했던 Haddon Robison의 조언이 실제 설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설교자가 전달해야 할 내용(what to say)과 더불어 그 전달한 내용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무엇을 성취(what to do)하려고 하는지가 선명해야 한다. 즉 설교할 내용만큼이나 설교 목표는 본문 이해와 더불어 설교 전달에 이르기까지 설교자가 유념해 두어야 할 설교 과제이다. Jay E. Adams 지적처럼, 설교의 목적은 본문의 해석과 설교의 효과, 더 나아가 설교의 승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설교(학)자들이 간혹 간과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이런 측면에서 임도균 교수의 논문, “영적 생명력 증진을 위한 설교 목표 제안”은 실제 설교 이론과 더불어 설교 실제에 필수적이며 매우 도움이 연구이다.

[논문의 핵심]

연구자는 우선 설교 작성과 전달에 있어서 목적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별히 기존의 강해설교의 철학은 공유하되 다양한 설교적 실천보다는 더욱 성경의 소통방식(내용, 형식, 효과)을 존중하는 본문이 이끄는 설교의 이론과 방법에 기초한 설교 목표 설정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하는 것으로 논문을 시작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우선 본문이 이끄는 설교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으로부터 논문을 전개하고 있다. 여기에서 연구자는 기존의 다양한 설교 종류(주제, 본문, 강해)를 설명해가면서, 본문이 이끄는 설교의 특징을 본문의 내용, 구조, 효과를 설교에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정리하며, 강해 설교 안에서의 본문이 이끄는 설교의 특징을 드러내고, 이어서 연구자는 이 세 가지 본문이 이끄는 설교의 기본 요소들, 내용, 구조, 역동성/감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이어서 연구자는 기존의 설교의 목적에 관한 대표적인 학자들의 의견을 연구하여 정리하였다. 연구자는 대표적인 강해 설교자인 존 스토틀는 본문의 지배적 사상을 전달하는, 즉 명제적 지적 내용에 초점을 둔 설교적 목적에 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반면 신설교학의 대표주자인 프레드 크레독은 본문의 목적이 생생한 설교의 목적으로 전달되어야 함을 말했지만, 실제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지는 못했다고 평가한다. 현대 강해설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해돈 로빈슨의 설교 목적에 관한 설명은 지정의에 대한 삶과 행동의 변화를 위한 포괄적 설교 목적은 제시하였지만, 신학적 메시지보다는 윤리적 변화에만 집중한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반해 브라이언 채플의 경우는 성경 본문의 메시지를 신학적 의미와 목적에 연계한 점에서 높이 평가하였지만 여전히 구체적 방법론이 부족하다고 평가한다.

기존 설교학자들의 설교 목적에 대한 이해를 평가한 후에, 연구자는 다시 본문이 이끄는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을 다룬다. 연구자는 본문이 이끄는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내하는 유일한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설명한다. 아울러 본문이 이끄는 설교의 구체적인 목적으로 요한복음 10장 9~10절을 설명하며 구원과 회개를 통한 새로운 삶과 성숙과 성화로 이어지는 풍성한 삶으로 요약한다. 특히, 구체적인 목적인 새로운 삶을 위한 설교를 위해서는 청중의 영적 상태를 복음에 대한 반응(부정, 관심, 열린 태도, 준비) 따라서 4개로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청중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목적 달성을 도울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청중의 성숙과 성화를 통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설교의 구체적인 목적을 위해서 예배, 진리, 윤리, 회복의 관점에서 본문이 강조하는 영역을 설교에 충실히 드러낼 수 있다고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자신의 제안들을 목표로 담아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질의할 내용]

1. 연구자는 “성경 본문이 설교 목적을 제시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점에 동의하

면서 특별히 본문이 이끄는 설교의 관점에서 설교의 목표 설정을 강조하고 있다. 특별히 본문이 이끄는 설교가 내용만이 아니라, 본문의 구조와 효과가 설교에 반영이 되는 것을 그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는데, 본문의 구조와 효과가 설교의 목적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연구자의 궁극적인 목표(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와 구체적인 목표(새로운 삶과 풍성한 삶)에 대한 설정은 본문이 이끄는 설교의 세가지 요소 중에서 인지적 영역만으로 구분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연구자의 고견이 궁금하다.

2. 기존 설교학자들의 설교 목적에 대한 연구자의 평가에 대한 근거가 선명하게 제시 되면 더욱 좋을 듯하다. 예를 들면, 해돈 로빈슨의 경우 본문의 무드가 설교의 무드에 반영이 되어야 한 점을 고려할 때, 본문이 이끄는 설교와 맥을 같이하는 부분이 있다. 또한 그에 의하면 적용이 신학적 목적에서 나온다고 한 점을 고려할 때, 그의 설교적 목적이 윤리적 행동의 변화에만 집중된다는 평가는 과도한 평가(overstatement)가 될 수 있기에 보다 세밀한 평가의 근거가 필요해 보인다. 여기에 대한 연구자의 의견도 궁금하다.

3. 더불어 기존의 설교학자들이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실제 성경 본문은 당시 청중을 향한 내용과 목적이 있고, 그 내용과 목적은 여전히 오늘날도 유사한 정황 속에 있는 청중들에게 원리적 내용과 목적이 반영될 수 있다. 동시에 다른 정황 속에 있는 청중들에게는 원리적 내용을 기반으로 본문의 목적과는 다르지만, 충분히 목회적 목적이 반영된 다양한 설교의 부차적 목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즉 본문의 내용과 목적에 충실하면서도, 청중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의의에 기반한 목적들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청중의 구체적인 정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는 설교 목적의 방법론을 구체적인 제시하는 것에는 언제나 이론적인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연구자의 구체적인 방법론 역시도 한계를 지닐 수 있다는 점에 관해서 연구자의 생각이 궁금하다.

[닫는 글]

설교의 목적을 설정하는 것은 설교할 내용을 선정하는 것만큼이나 설교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 더불어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일에는 당시 정황 속에 있는 청중을 향한 본문과 고정된 본문이지만 오늘날 다양한 정황 속에 있는 청중의 환경에 따라서 다층적이며 역동적인 해석적 수고를 요구한다. 이처럼 설교 수행에 있어서 목적 설정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키며, 이 주제에 대한 학문적이며 실제적인 도움을 주신 임도균 교수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설교자의 의사소통적이고 효과적인 설교를 위한 설교작성 방법연구



황종석 교수(백석대)

들어가며

좋은 설교는 본문과 연관된 설교라면 반대로 나쁜 설교는 청중의 필요를 깊이 살펴 연구하지 않은 채 설교자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1) 좋은 설교가 본문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올바른 주해를 통한 본문 이해²⁾라는 본문과의 연관성일 것이다. 이렇게 설교자가 본문을 바르게 주해한다면 그 설교자는 설교를 듣는 청중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를 고민하여야 한다. 그래서 좋은 설교에는 두 가지 설교자의 최선의 준비가 담겨 있어야 한다. 하나는 올바른 주해이고 또 하나는 주해를 효과적이고 의사소통적인 설교 전달을 위한 설교 작성에 녹아내는 것이다.

설교가 전달이라는 의미를 가질 때 설교는 정보의 전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적용을 위한 의미 전달이라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내재된, 기록되어 전승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닌 하나님께서 전달하고 싶은 의미를 지닌 글들이기 때문이다.³⁾ 그래서 성경은 시공간 구조 안에서 언어가 갖는 적절한 의미로 해석될 수

- 1) 토마스 트뢰거 & 레오노라 텡스 티스테일/최영현 옮김, 『귀에 들이는 설교』(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18), 28.
- 2) 정통 개신교에서 그 적법성이 인정된 성경 주해 방법은 문법적이고 역사적이며 신학적 해석법이었다. 하지만 최근 역사 비평주의의 도전과 성경의 내러티브에 대한 이해로 현재 전통 개신교의 주석 방법은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해석법에서 문예적이며 정경적 해석법이 더 하여 졌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게르하르트 마이어/송다니엘, 장해경 옮김, 『성경 해석학』(영음사, 2014), 더글러스 스투어트/박문재 옮김, 『구약 주석 방법론』(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4), 김지찬, 『룻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생명의 말씀사, 2020) 등을 참고하라.
- 3) 성경이 전달하는 의미를 위한 주제적 접근의 가능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이 갖는 정경적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에드워드 클링크 3세 & 대리언 라켓/신윤수 옮김, 『성경신학의 5가지 유형』(부흥과 개혁사, 2015), 195. 에서 정경의 최종 형태가 정통 형성이며 이것은 곧 원래의 자료에 대한 충실성을 유지하는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새로운 환경과 상황에 맞추어 전통 자료들을 적

있게 되어 있다. 이러한 설교에서 의미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이해는 말씀의 의미 전달을 위한 좋은 설교 구조의 이해로 필연 연결된다. 설교가 구조를 갖는다는 것은 설교문 작성을 위한, 설교가 잘 전달되도록 설교가 계획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구조는 설교에서 어떤 내용이 전개될 것인가, 또 어떤 순서로 말해질 것인가를 보여 주되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을 위한 설교자의 전달 의도가 들어가는 설교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⁴⁾

그래서 설교가 청중들에게 들려지도록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은 바로 효과적이고 의사소통적인 설교 구조 이해를 통한 설교문을 작성한다는 것이다. ⁵⁾

본 말

설교는 공적 예배를 통해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주제들을 사용하여 청중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전달하는 공적 사건이어야 한다. 청중들이 공적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 듣는다는 것은, 청중들이 설교를 통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주제를 담은 메시지를 접하는 것이며, 이 메시지는 효과적이고 의사소통적인 구조를 통해 전달될 때 청중들에게 적용⁶⁾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설교에서 주제란⁷⁾ 설교를 위한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어떤 설교 형태⁸⁾를 막론하고 주제가 드러나지 않은 설교 형태는 없기 때문이다. 단지 차이

을시키는 수단이라고 하는데 저자는 이러한 전통자료들이 적용되는 가시적 형태가 주제라고 믿는 것이다.

- 4) 마틴 로이드 존스/정근두 옮김, 『설교와 설교자』(복 있는 사람, 2010), 121-124.
- 5) 현대는 읽고 쓰기를 가르치는 텍스트가 지닌 권위와 중요성을 후천적으로 습득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회이다.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학교에서 텍스트의 중요성을 배운다. 더 나아가 어떤 텍스트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규범을 배우고 있다. 현대 삶에서 읽고 쓰는 능력은 문화에서 핵심적 가치가 되었다. 따라서 구술의 문화 세계에서 글의 세계로의 전환은 실로 엄청난 사건이 된 것이다. 성경과 글에 대하여서는 윌리엄 슈니더윈드/박정연 옮김, 『성경은 어떻게 책이 되었을까』(에코리브르, 2006)을 더 참조 하여라.
- 6) 물론 성경을 적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관점이 제시되고 있지만, 특히 월터 카이저 외3인/윤석인 옮김, 『성경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부흥과 개혁사, 2011)을 참조하라.
- 7) 물론 어떤 설교자들은 설교가 주제가 아닌 복음의 내용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한다고 한다. 칼 바르트도 그의 책에서 설교주제가 만드는 설교형식의 무용론을 주장한 적이 있다. Karl Barth, *Homiletics*, trans. Geoffrey W. Bromiley and Donald E. Daniels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1991), 121. "(설교자는) 첫째, 둘째, 그리고 셋째로 무엇이 와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은 쓸데없는 것이다. 설교자는 단지 본문이 말하는 것을 따라서 하기만 하면 된다."
- 8) 여기서 설교 형태란 전통적으로 분류하는 Topical Sermon, Textual Sermon, Expository Sermon, Narrative Sermon, Visual Sermon으로 이해한다. 설교 형태에 관하여는 황종석의 논문 *The*

가 있다면 설교를 위한 생각(Idea)이 Text(성경)의 주해적 연구에서 오는가? 아니면 목회적 혹은 교회 절기나 청중의 Context(상황)의 필요나 신앙적 물음 등으로부터 오는가의 차이일 것이다.

설교를 위한 생각이 성경 본문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설교자가 성경을 주해하기 위해 연구하거나 묵상하면서 본문 속에서 주제를 발견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성경이 아닌 목회적 상황, 교회 절기 혹은 청중의 실제 삶의 문제들에서 설교를 위한 생각(Idea)이 시작되고 여기에서 주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설교 생각(Idea)으로부터 일정한 주제가 성경 본문 혹은 상황에서 나타나고 설교자는 이 주제를 성경 본문이 갖는 올바른 의미 전달을 위해 설교문 작성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로이드 존스는 이 설교문이 언제나 설교의 출발이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를 걸쳐 성령을 통해 높이기를 기뻐하셨던 설교는 위대한 설교문에 토대를 둔 설교였으며, 위대한 설교자들은 모두 위대한 설교문을 준비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다.⁹⁾

결국 이러한 설교문 작성안에는 일정한 구조를 통해 주제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교 구조에서 주제이해는 곧 설교 제목의 결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것은 로이드존스의 표현을 빌자면 설교는 뚜렷한 계획을 세우고 진행되어야 한다는 사실과도 연결된다.¹⁰⁾

그래서 설교문은 효과적이고 의사소통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곧 주제를 세분화 하여 상위, 하위단락들로 나누고 이러한 구조 나눔에서 한 단락은 그 다음 단락을 끌어낼 수 있는 논리적 구조로 연결되어야 한다.¹¹⁾

1. 효과적이고 의사소통적인 설교 작성에는 설득을 위한 논리적 구조가 있어야 한다.

주제가 설교문 작성을 위한 설교 구조에서 논리적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선 설교 구조가 논리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설교는 선포적 기능과 함께 설득적 기능도 있기 때문이다. 설교에 있어서 선포적 기능은 듣는 이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전해질 수 있다. 하지만 설교에 있어서 설득적 기능은 청중에게 들려지는 설

sermon form as a dimension of communication in the current worship context in South Korean Churches 를 참조하라. 2005. University of South Africa.

9) 로이드 존스/정근두 옮김, 『설교와 설교자』 (복 있는 사람, 2010), 122-124.

10) Ibid, 123.

11) Ibid, 118.

교가 된다는 것이다. 설교의 설득적 요소가 좀 더 강조될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많은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을 잃어버린 시대처럼 보인다. 그 어느 시대보다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진작 자신의 삶을 위한 주제를 잃어버린 채 목적 없이 떠돈다.

“지금 우리는 스마트한 지배에 예속되어 있다. 억압도, 저항도 없이 삶을 게시하고 공유하고 좋아하도록 지배당한다. 새롭고 자극적인 뉴스거리가 넘쳐나는 시대, 이슈에서 이슈로 빠르게 이동하는 사람들, 스스로 자기 존재를 정보로 전락시키는 사회에서 개인은 각자의 이야기, 즉 서사를 잃고 우연성에 휩싸인 채 폭풍우 한가운데서 부유한다”.¹²⁾

설교에 있어서 설득적 기능은 필연 논리적 구조를 통한 구성이 필요하다. 설교가 청중들에게 들리지 않을 땐 그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청중들에게 이해되는 논리적 구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설교자가 설교문을 작성하기 위한 설교 구조 이해에서 논리적 구성을 위해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첫째, 설교 제목과 설교 구조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의 설교에는 하나의 큰 주제가 나타나야 한다.¹³⁾

그리고 이 큰 주제는 설교 제목이 정해지는 근거가 되어야 한다. 설교가 제목을 가진다는 것은 청중의 입장에서 볼 때 설교가 설교 제목과 연관되어 어떤 메시지가 전달될 것이라는 예상을 가져다 준다. 곧 설교 제목의 역할은 설교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큰 주제로부터 나오는 것이어야 하며 설교의 본문에서 제시될 개별 내용들을 담은 단락 구성의 이유여야 한다.

그래서 설교가 전하는 메시지는 각 단락들 간의 유기적 연결 구조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교제목과 설교구조가 서로 이어지고 있을 때 성경의 메시지는 논리적이 되며 이것은 곧 청중들에게 설득되어 들리는 설교로서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설교제목과 설교 내용이 연결되지 못한다면 청중은 두 개의 다른 메시지를 한 설교에서 듣게 되는 것과 같다. 청중은 설교 제목과 설교 내용들의 직접적인 연결성속에서 말씀을 듣게 됨으로 한 설교안에서 하나의 큰 주제를 통한 메시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¹⁴⁾

12) 한병철 지음/최지수 옮김, 『서사의 위기』 (다산 북스, 2023), 6.

13) 이러한 설교에서 큰 주제 사용에 관하여는 해든 로빈슨의 Big Idea 개념을 참조하라. 키이스트 윌하이트 외/이용주 옮김, 『빅아이디어 설교』 (디모데, 2002).

14) 로이드 존스/ 정근두 옮김, 『설교와 설교자』 (복 있는 사람, 2010), 118-121.

둘째, 단락과 단락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설교문에서 단락이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장 덩어리라고 할 수 있다. 설교문을 작성하는 것도 일종의 글쓰기에 해당하기에 설교문에는 단락들로 이루어져 있는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므로 설교문은 이러한 문장 덩어리 단락들이 모여 한 편의 설교문이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좋은 설교작성은 구조적으로 단락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곧 상위 단락과 하위단락은 각자의 의미를 전달하는 두 편의 글이 아니라 한 편의 글을 설명하기 위한 논리적 분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각 단락에는 분명 중심 주제들이 있지만 그 주제들은 설교의 큰 한 주제를 설명해 주는 소 주제들이 담겨 있는 문장 덩어리라는 사실이다.

설교에서 단락의 표시는 대개 첫째, 둘째, 혹은 1,2,3과 같은 point로 나타난다. 이러한 단락들은 각자의 주제들이 각 단락 마다에서 등장하여 마치 세 편의 글을 보는 것 같으면 안된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큰 하나의 주제를 설명하는 소주제들로 단락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2. 효과적이고 의사소통적인 설교작성에는 주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한다.

설교자가 설교 구조를 작성한다고 할 때 모든 설교에서 공통으로 등장하는 주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주제는 곧 설교 제목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설교에는 본문과 더불어 설교의 제목이 있다. 설교가 설교를 위한 제목 없이 행하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많은 설교가 설교제목과 설교구조가 다른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설교에서 주제는 항상 청중이해와 올바른 본문 주해에서 나타나야 한다.

1) 성경의 올바른 주해를 통해 주제가 나타난다.

설교자가 설교를 위해 선택된 본문을 설교하고자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아마도 본문에 대한 해석일 것이다. 성경은 인간이 결코 이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쓰시는 듯한 언어로 기록되지 않았다. 우리가 이해 할 수 있는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성경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이해 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서 대개 설교자들은 단어연구나 문법적 특성 그리고 배경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본문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발견된 의미가 청중들에게 그대로 전달 된다면 청중들은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단지 정보라는 측면에서 듣고 멈출 수 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에도 여전히 청중들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청중들이 온전하여 저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

도록 한다.’(딤후3:16-17) 이것은 성경에는 듣는 이들의 삶에 적용되고 실천하도록 하는 메시지가 들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¹⁵⁾ 따라서 이 메시지는 설교에서 주제를 사용하여 청중들의 실제의 삶에 적용되도록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2) 청중 이해를 통해 주제가 나타난다.

각 시대마다 청중은 잘 들리는 방식을 다르게 가지고 있다. 전통적인 설교에서 청중들은 일방적인 주제 접근을 하여도 메시지를 듣는데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곧 전통적인 설교 형식으로 알려진 연역적 의사소통 방식으로 주제들을 진행해도 듣는데 문제를 느끼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의 청중은 그때의 청중이 아니다. 오늘의 청중은 과거와는 다르게 쌍방간의 소통방식에 익숙하여 듣는 사람들이다. 일방적인 방식의 전개는 오늘날의 청중들에게 소통 부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성경은 결코 시대 시대 마다 등장하고 있는 청중들의 잘 들리는 법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설교를 통해 말씀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각 시대마다 들려져야 할 최고의 방식으로 설교는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의 말씀은 text로서 변화지 않지만 context로서 청중은 변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청중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¹⁶⁾가 설교자들에게도 필요하다. 이러한 청중 이해를 통한 주제사용은 설교의 구조안에서 청중들에게 들리는 내용으로 적절한 녹아들게 되어야 하는 것이다.

3. 효과적이고 의사소통적인 설교 작성에는 새로운 언어사용이 있어야 한다.

목회데이터연구소의 ‘2023년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신앙 의식 조사’ 편에 의하면 한국교회의 목회자의 설교 횟수는 평균 5.9회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2012년 7.5회 그리고 2017년 6.7회라는 결과에 비하면 줄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설교 횟수가 많다고 목회자들은 생각하고 있다.¹⁷⁾

15) 월터 카이저는 그의 원리화 모델이라는 글에서도 성경 구절에서 나타나는 주제에 관한 이해를 분명히 말하고 있다. ‘성경의 특정 구절을 원리화하는 첫 단계는 그 구절이 초점을 맞추는 주제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일단 논제/주제가 확인되면, 다음에는 반복되거나 동일한 주제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사용된 핵심 단어나 중요한 어구의 일부를 이루는 용어를 바탕으로 강조점을 찾아야 한다’고 하면서 청중이 성경을 적용하는 것은 이러한 주제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게 한다. (성경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월터 카이저 외3, 윤석인 옮김, 부흥과 개혁사, 2011.p.30-31)

16) 국어교육에서 청자에 대한 분석의 중요성은 익히 알려져 있다. 청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이를 내용 구성에 적용하는 과정과, 표현과 전달 전략을 조정하는 과정까지는 이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청자에 대한 분석이란 표면적 저보를 파악하는 것이 최종의 목표가 아니라 파악한 정보를 말하기에 어떻게 적용하는가가 최종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국어교육을 위한 의사소통 이론』 (박재현, 사회평론아카데미, 2016, p.200-201)

17) http://mhdata.or.kr/mailling/Numbers210_231010_A_Part.pdf

평균 설교 횟수를 6회로 생각할 때 설교자가 일년 동안 한 교회에서 설교하는 횟수는 적어도 200번을 훨씬 넘는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설교 횟수가 많아져 갈 때 설교자는 자연스럽게 설교에서 반복되는 언어사용이 늘어나게 된다. 이런 경우가 그 교회에서 목회자가 은퇴시까지 반복되는 것이라면 청중들의 입장에서 가장 큰 고민은 설교자의 설교가 예측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설교자의 의도가 읽히는 설교는 청중들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이러한 설교상황에서 특히나 설교작성에 있어서 새로운 언어사용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설교자가 틀에 박힌 듯 반복되는 용어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설교자의 언어사용은 신학적언어나 남의 설교 언어에 더 의존적 태도를 취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지 않으면 진부한 언어가 반복될 뿐이다.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거나 기존언어를 다르게 사용하려는 노력은 없는데 토해내는 말이 점차 많아지니, 틀에 박힌 언어를 반복해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¹⁸⁾

설교자로서의 소명이 사실이라면 설교자는 자신만의 언어적 표현이 있어야 한다. 물론 자신만 알아들을 수 있는 신학적 언어로 무장한 표현이라는 말은 아니다. 설교의 언어는 신학적이고 교리적 언어에서 중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청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사용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 성경을 해석하고 난 뒤 청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재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설교자가 계속 어휘력을 늘려가는 시간을 계속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설교자가 어휘력이 부족해지면 그의 말이나 설교 문에는 많은 지체구간이 생기고 늘어진다. 표현하고 싶은 용어나 낱말이 떠오르지 않아 그것을 설명하느라 정작 하려던 말이나 글을 중단하고 결가지 서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해 질 수 있다. 그래서 새롭고 다양하게 정확하고 적합한 어휘를 구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¹⁹⁾

설교자는 새롭고 다양한 어휘 사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언어사용은 불굴의 노력 결과물이다. 이것은 설교자의 지능과는 무관한 꾸준한 노력이 묻어나야 하는 것이다.²⁰⁾ 이러한 설교는 청중들에게 들리는 설교이며 성경의 언어가 새롭고 신선한 언어로 재해석되어 청중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18) 유명만, 박용후, 『언어를 디자인 하라』 (쌤앤파크스, 2022), 125.

19) 유선경, 『어른의 어휘력』 (앤의서재, 2024), 26.

20) 로버트 루트번스타인, 정여울, 정관용, 표창원, 『상실의 시대』, (마이크임팩트북스, 2016), 21.

4. 효과적이고 의사소통적인 설교 작성에는 설교형식에 대한 다양한 접근 이해가 있어야 한다.

설교자는 이 설교의 구조 이해와 관련하여서는 설교의 형식(Form)이해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설교가 적절한 구조를 갖는다는 것은 설교문 작성을 위한 계획된 방법이라면 설교형식(Form)은 설교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구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담아내는 그릇 같은 주는 역할 곧 이 설교는 이러한 구성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한눈에 보여 주는 것이다. 그래서 좋은 설교형식은 반드시 의사소통적이며 효과적 전달을 위한 설교 구조가 동반되지만, 설교 구조는 설교형식에 대한 이해 없이도 작성할 수 있다. 하지만 설교형식에 대한 이해가 없이 설교의 구조가 작성되는 경우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설교에 있어서 주제에 대한 접근이 유기적이고 논리적 구조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설교형식은 설교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인데 설교자는 이것을 통해 설교 작성에 의사소통적이며 효과적인 구조를 수정할 수 있게 된다.

설교자는 효과적이고 의사소통적인 설교 작성을 위해 설교형식이해에 있어서 현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청중을 향한 소통적인 설교는 다양한 설교형식을 설교자가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할 것인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전통적인 설교 구조 예

Introduction: Main(Central) Sermon Idea

I. First Point - Subpoint

Sub-subpoint 1

Sub-subpoint 2

II. Second Point - Subpoint

Sub-subpoint 1

Sub-subpoint 2

III. Third Point - Subpoint

Sub-subpoint 1

Sub-subpoint 2

Conclusion:

유기적인 설교 구조의 예

Main(Central) Sermon Idea

- I. First Point - Subpoint
 - Sub-subpoint 1
 - Sub-subpoint 2
- I'. Second Point - Subpoint
 - Sub-subpoint 1'
 - Sub-subpoint 2'
- I". Third Point or Division
 - Sub-subpoint 1"
 - Sub-subpoint 2"

귀납적 설교 구조의 예

Life-related Illustration or Statistics

- Sub-subpoint 1
- Sub-subpoint 2
- I. First Point - Subpoint
 - Sub-subpoint 1
 - Sub-subpoint 2
- II. Second Point - Subpoint
- III. Third Point - Subpoint
- Conclusion: Main(central) Idea
- Incompleteness or A lack of exhaustiveness

발단의 구조를 가진 플롯 예

Life-related Illustration or Statistics

- I. First event - Beginning
- II. Second event - Conflict
- III. Third event - Change
- IV. Fourth event - Conclusion

갈등의 구조를 가진 플롯의 예

Life-related Illustration or Statistics

- I. First event - Conflict
- II. Second event - Simmer
- III. Third event - Solution
- IV. Fourth event - Conclusion

설교 작성을 위한 설교형식이해에 있어서 다양한 접근은 청중에 대한 고려와 본문에 대한 이해 때문에 다양한 모습으로 함께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성경의 저자들이 실제로 다양한 형식을 가지고 있었다.

성경의 저자들은 의도적으로 수사학적인 형식을 사용했고 특히 신약시대의 설교 말씀에는 복합적인 의사소통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회당설교를 기반으로 했다. 예를 들어 회당에서 많은 청중에게 행한 바울의 설교들은 분명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²¹⁾ 설교의 목적이 오늘날의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면 설교의 다양한 형식은 성경의 내용을 침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잘 전하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둘째, 청중은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각 시대마다 청중은 서로 다른 이해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전통적인 설교가 주로 사용되었던 때가 있었다. 보통 1958년 데이비스가 지은 Design for Preaching이 나오기 전까지 청중들은 전통적인 설교의 의사소통적인 방식으로 일방적 설교의 의사소통적 진행에 문제를 느끼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의 청중은 그때의 청중이 아니다. 오늘 의 청중은 전과는 다르게 듣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각 시대마다에 들려져야 할 최고의 방식으로 전해져야 한다. 말씀은 변화지 않지만 청중은 변한다.

5. 효과적이고 의사소통적인 설교 작성을 위한 설교구조 작성 예시

데니스 M. 캐힐은 그의 책 The shape of Preaching에서 설교의 형식의 다양성을 통합하여 설교 구조를 사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교회의 상황 속에서 설교자가 적절히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1) 제 1단계 - 설교의 목적과 핵심 주제로부터 시작하라.

설교의 출발은 항상 자신의 설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물어볼 때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설교는 설교의 핵심 주제와 설교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²²⁾

21) 사도행전 13장의 바울의 설교와 사도행전 17장의 바울의 설교는 서로 다른 청중을 고려하면서 접근 방식에 있어서 서로 다른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다르게 디자인되었을 뿐 아니라 두 설교 모두 디자인되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데니스 캐힐/ 이홍길, 김대혁 옮김, 『최신 설교디자인』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0), 65-66.

22) Haddon W. Robinson, Biblical Preaching: The Development and Delivery of Expository Messages, 6nd, ed., (Grand Rapids: Baker, 1988), 116-123.

(2) 제 2단계 - 선택된 본문을 주해하여 핵심 주제가 설교 구조를 통제하도록 한다. 선택된 본문을 심도 있게 주해하며 살펴보는 것은 설교 전반에 흐를 핵심 주제가 어떤 것인지를 찾는 과정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설교자는 본문을 주해할 때 다음과 같은 필수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

첫째, 본문 전체를 붙들고 있는 핵심 아이디어가 무엇인가?

둘째, 본문의 구조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셋째, 문단을 적절히 나누고 한 문장으로 각각의 문단을 요약할 수 있는가?

(3) 제 3단계 - 청중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이에 맞는 새로운 언어를 결정하라

이것은 청중을 설교로 초대하기 위한 과정이다. 설교자는 청중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본문과 주제에 대한 전개들을 청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여 청중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설교를 통해 나타나는 메시지가 청중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며 자신의 일상의 삶에서 진정으로 도움이 될 것임으로 집중하고 마음을 다해서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밝혀 주는 것이다.

(4) 제 4단계 - 본문의 의미를 가장 잘 전달 할 수 있는 설교 구조를 완성하라

설교자는 설교가 설교의 큰 주제와 설교 제목과 연결되어 설교 구조의 이루도록 해야 한다. 구조는 간 단락들이 주제와 연결되어 나타나도록 대지를 나누어야 한다. 곧 설교문의 시작이 되는 서론에서는 큰 주제와 그 주제에서 나뉘어질 하위 대지들에 대한 순서를 간단히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다음 설교 구조는 본론 부분에서 주제를 세분화한 하위 주제 단락들로 나누는데 이것은 청중들에게 설득적 요소가 되는 논리적 전개가 되도록 해주는 교리, 주장, 논거가 들어 있어야 한다. 23)

나가는 말

설교는 말하기 전에 글쓰기가 먼저 나타나야 하는 목회자의 중심 사역이다.²⁴⁾ 이러한 설교의 글쓰기는 설교문을 작성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설교문은 효과적이며 의사소통적인 구조를 가지고 구성되어야 한다. 물론 설교는 설교자의 이러한 노력으로만 될 수 있는 사역은 결코 아니다. 설교자의 노력으로 좋은 설교를 할 수는 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설교는 이러한 설교자의 인위적인 노력여부에 의해 나타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설교의 위대함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난다.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 있는 설교는 설교자의 인위적인 노력 여부에 달리지 않았지만 좋은 설교를 위

23) 로이드 존스는 이 부분 관련하여 계속 이렇게 말한다. “주제를 나누고 각 요소들을 살핀 후에는 어떻게나 이것을 배치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첫 번째 대지가 두 번째 대지를 이끌어 내고 두 번째 대지가 세 번째 대지를 이끌어 내도록 항목들을 배열해야 합니다. 각 대지는 다음 대지를 이끌어 내야 하며, 최종적으로 명확한 결론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정근두 옮김, 『설교와 설교자』 (복 있는 사람, 2010), 118-119.

24) 김도인, 『설교는 글쓰기다』 (CLC, 2019), 12.

한 설교자의 최선은 분명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설교로 이어질 수 있다. 설교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설교자가 최선의 설교 준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성령의 역사를 믿고 간절히 바라는 설교자는 최선의 설교 준비를 하는 자이다.

설교자가 효과적이며 의사소통적인 설교 구조를 이해하고 작성하려는 노력은 좋은 설교를 위한 최선의 설교를 준비하려는 설교자들에게 반드시 이해되어야 하는 개념이다. 특별히 설교자가 반복해서 사용하는 언어가 청중들에게 그 주제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자극하기 보다는 되려 진부함이나 소통부재의 원인 제공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설교를 위한 언어 사용이 신학적 용어를 통해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목회자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문장구조는 성경적이라는 범주내에서 극히 제한되고 반복되는 단어와 문장 구조에 익숙해져 있다. 지금의 청중들이 관심을 가질만하며 소통할 수 있는 단어나 문장으로의 번역에 거의 관심을 두지 못하는 실정이라 여겨진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목회자들의 모습이 인문학적 소양의 부족 혹은 그러한 훈련의 미비로 인한 글쓰기와 읽기의 부족이라고 지적하는 경우도 있다. 설교자의 문해력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들린다. 그뿐 아니라 설교의 횡수가 여전히 설교자에게 많은, 현 실정에서, 목회경력이 많아질수록 설교 작성의 완성도가 높아져 가기보다는 설교 작성의 간소화 내지는 요약이 더 익숙해지는 것은 아니지 우려되는 것이다. 물론 설교문을 작성하지 않으면 설교를 해서는 안된다는 접근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설교자는 성경과 설교를 이어주는 설교문 작성을 통해 효과적이며 의사소통적인 설교 구조를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한다.

(참고문헌)

- 김도인, 『설교는 글쓰기다』 (CLC, 2019)
- 김지찬, 『룻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생명의말씀사, 2018)
- 류응렬, “최근의 설교학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복음과 실천」11권 (2006년 봄호): 299-329.
- 박재현, 『국어교육을 위한 의사소통 이론』((주)사회평론아카데미, 2016)
- 백우진, 『글은 논리다』(한영문화사, 2011)
- 유선경, 『어른의 어휘력』(앤의서재, 2024)
- 유영만, 박용후, 『언어를 디자인하라』(쌤앤파커스, 2022)
- 이연길, 『이야기 설교학』 (쿰란출판사, 2003)
- 정인교 『청중의 눈과 귀를 열어주는 특수설교』 (두란노아카데미, 2007)
- 한병철 지음, 최지수 옮김, 『서사의 위기』 (다산 북스, 2023)
- 게르하르트 마이어, 송다니엘, 장해경 옮김, 『성경 해석학』 (영음사, 2014)
- 더글러스 스투어트, 박문재 옮김, 『구약 주석 방법론』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4)
- 로버트 루투번스타인, 정여울, 정관용, 표창원, 김정후, 서민, 이진우, 『상실의 시대』(마이크임 팩트북스, 2016)
- 윌터 카이저, 대니얼 도리아니, 케빈 밴후저, 윌리엄 웹 공저, 윤석인 옮김, 『성경 어떻게 적용 할 것인가』(부흥과 개혁사, 2011)
- 토마스 트러거 & 레오노라 텅스 티스테일, 최영현 옮김, 『귀에 들이는 설교』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18)
- Arthus, Jeffrey D. *Preaching with Variety*, 박현신 옮김, 『목사님 설교가 다양해졌어요』 (서울:베다니출판사, 2010)
- Beeke, Joel R. *Reformed Preaching*, 송동민 옮김, 『설교에 관하여』(서울: 도서출판 복있는 사람, 2019)
- Cahill, Dennis M. *The Shape of Preaching*, 이흥길, 김대혁 공역 『최신설교디자인』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 D. Martyn Lloyd-Jones. *Preaching and Preacher*, 정근두 옮김, 『설교와 설교자』(복 있는 사람, 2010)
- Edward W.Klink III and Darian R. Lockett, *Understanding Biblical Theort: A Comparision of Theory and Practice*, 신윤수 옮김, 『성경신학의 5가지 유형』(부흥과 개혁사, 2015)
- Piper, John. *Expository Exulatation: Christian Preaching as Worship*, 윤종석 옮김, 『강해설교의 희열』 (두란노서원, 2019)
- Quicke, Michael J. *360-degree Preaching*, 이승진 옮김, 『전방위 설교』(CLC, 2012)
- William M. Schniedewind, 박정연 옮김, 『성경은 어떻게 책이 되었을까』(에코리브르, 2006)

- Barth, Karl *Homiletics*, trans. Geoffrey W. Bromiley and Donald E. Daniels. (Louisville:Westminster/John Knox, 1991)
- Buttrick, David *Homiletic: Moves and Structure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7)
- Chapell, Bryan *Christ-Centered Preaching: Redeeming the Expository Sermon*, 2nd (ed.) (Grand Rapids: Baker, 2005)
- Craddock, Fred B. *As one Without Authority 3rd (ed.)* (Nashville: Abingdon, 1979)
- Davis, H. Grady *Design for Preaching*.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58)
- Duduit, Michael, ed., *Handbook of Contemporary Preaching*. (Nashville: Broadman Press, 1992)
- Eslinger, Richard L. *A new Hearing: Living Options in Homiletic Method*. (Nashville: Abingdon, 1987)
- Haddon W. Robinson, *Biblical Preaching: The Development and Delivery of Expository Messages*, 6nd, ed., (Grand Rapids: Baker, 1988)
- Hamilton, Donald L. *Homiletical Handbook*.(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2)
- Heyns, L.M & Pieterse, H.J.C. *A Primer in Practical Theology*. (Pretoria: Gnosis, 1990)
- Hwang, Jongseog, *Sermon Forms as a Dimension of Communication in the Current Worship Context in the South Korean Churches*. (Unpublished Ph.D. University of Pretoria)
- Keller, Timothy *Preaching: Communicating Faith in an Age of Skepticism*. (New York: Viking, 2015)
- Long, Thomas G. *The Witness of Preaching*.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89)
- Long, Thomas G. *"And How Shall They Hear? The Listener in Contemporary Preaching" in Listening to the Word*, ed. Gail R. O'Day and Thomas G. Long. (Nashville: Abindon, 1993)
- Lowry, Eugene L. *"The Revolution of Sermonic Shape," in Listening to the Word*, ed. Gail R. O'Day and Thomas G. Long. (Nashville: Abingdon, 1993)
- Lowry, Eugene L. *The Homiletical Plot: The sermon as narrative art form*. (Atlanta: John Knox Press,1980)
- Lowry, Eugene L. *The sermon: Dancing the Edge of Mystery*. (Nashville: Abingdon, 1997)
- Luccock, Halford. E *In the Minister's Workshop*. (Abingdon, 1944)
- Robinson, Haddon W. *Biblical Preaching: The Development and Delivery of*

Expository Messages 6nd (ed.) (Grand Rapids: Baker, 1988)

Wilson, Paul Scott *The Four Pages of the Sermon: A Guide to Biblical Preaching.*
(Nashville:Abingdon, 1999)

Willimom, William H. & Lischer, Richard (ed.) *Concise Encyclopedia of Preaching.*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5)

http://mhdata.or.kr/mailling/Numbers210_231010_A_Part.pdf

[논평]

황종석 교수의 논문,
**“설교자의 의사소통적이고 효과적인 설교를
위한 설교작성 방법연구”**에 관한 논평



주종훈 교수(총신대)

설교 연구의 주된 영역은 설교 작성과 전달 그리고 설교의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된 영역의 연구와 실천은 모두 성경 본문을 우리 시대의 상황과 삶에 연결하기 위한 노력과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황종석 박사께서는 이 연구 논문에서 성경 본문과 삶의 연결을 위한 설교의 과제 가운데, 본문의 주해로부터 주어지는 주제를 청중들에게 ‘효과적이고 의사소통적인 전달을 위한 설교 작성의 구조’를 실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설교의 작성과 구성이 성경 주해뿐 아니라 의사소통을 위한 구조를 반영할 때 청중들에게 들려지는 효과를 지닐 수 있다는 실천적 측면을 명확히 제시한다. 곧, 이 연구는 설교 작성과 전달이 구분된 영역이지만, 하나로 통합해서 이해하고 실천할 때, 효과적이고 의사소통적인 측면을 명확히 반영할 수 있다는 논지를 선명하게 풀어낸다.

이 연구는 설교 작성을 위한 구조가 효과적이고 의사소통적인 측면을 어떻게 반영하고 제시하는지를 논증적으로 풀어내면서 오늘날 설교자들을 향해 실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점을 제시해 준다. 이 논문이 지닌 가장 우선적인 기여는 ‘설교의 구조가 주제를 반영한다’는 전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본문 중심의 설교는 성경 주해와 주제 발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해에서 발견한 주제를 명확히 제시하기 위한 구조를 지배하는 것도 포함한다. 황종석 박사께서는 설교자들이 설교의 구조에 대한 이해 없이 설교의 주제를 담아낼 수 없다는 대 전제를 다시금 확인시켜 준다. 이것은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마셜 맥루한이 제시한 ‘방식이 메시지를 결정하고 제시한다’(medium is message)는 입장을 본문 중심의 설교에서도 수용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실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처럼 설교 구조의 이해에 기반을 둔 설교 작성에 대한 강조는 설교학 연구에서 본문 중심의 주해가 설교 전달을 위한 의사소통 이론의 수용과 적절하게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 연구 논문이 지난 또 다른 기여는 효과적이고 의사소통적인 설교 구조에 대한 실천적 제안을 담아낸 것이다. 황종석 박사께서 효과적이고 의사소통적인 설교 구조

를 위해서 제시한 ‘설득을 위한 논리적 구조’, ‘주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 ‘새로운 언어 사용’, ‘설교 형식의 다양한 접근 이해’는 설교 작성을 위한 구조 이해와 실제에서 간과할 수 없는 영역들이다. 특히 이 연구는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서론과 본론의 구성 그리고 결론의 제안’에 그치지 않고, 동시에 신 설교학(New Homiletics) 운동으로 알려진 현대 설교학의 주된 접근에서 강조하는 의사소통 방식의 강화를 통한 효과적인 전달만을 강조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유진 로우리(Eugene Rowry)나 프래드 크래독(Fred Craddock)과 같은 현대 설교학자들이 제시한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내려티브 설교와 귀납적 설교 구성과 방식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과 상황의 연결을 위한 설교자 자신의 창의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실천적 제안을 담아낸 것은 이 연구가 지닌 기여로 볼 수 있다.

이 연구가 효과적이고 의사소통적인 설교 구조를 이해하고 설교문을 작성하는데 좀 더 직접적인 유익을 제시하기 위해서 몇 가지 고려할 점들이 있다. 우선, 설교의 주제와 설교문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면서, 설교의 주제가 주해에서 주어질 수 있고, 성도의 필요나 목회적 상황에서 주어질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설교문이 언제나 출발이어야 한다”는 로이드 존스의 주장을 인용한다. 설교문을 토대로 설교가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설교문은 설교의 주제를 담아내는 구조이지, 설교의 주제보다 우위 또는 우선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좀 더 명확한 논의가 제시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효과적이고 의사소통적 구조를 위한 세부 논의 사항에서 ‘설득을 위한 논리적 구조’의 필요에 따라 ‘단락과 단락의 연결’이 1,2,3 포인트로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접근은 오히려 3대지 설교 구조와 구성과 유사한 것은 아닌지 구분해서 논의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성경 본문이 설교를 위한 주제와 구조의 구성을 지배한다면, 굳이 단락과 단락의 연결이 숫자로 나타나는 포인트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인지 적절한 근거를 좀 더 선명하게 제시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설교의 주제가 주해를 통해서 주어지거나 청중 이해를 통해서 주어질 수 있다고 논의하고 있는데, 청중 이해를 통해 주어진 주제가 설교 작성에 직접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면, 성경 본문 주해 없이도 설교 작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암시적 제안으로 읽혀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청중 이해를 통한 주제 이해가 본문 주해와 어떤 연결성을 지니는지 논의하면 훨씬 더 적실성 있는 설교학적 제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넷째, 새로운 언어 사용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설교 구조에서 중요하다는 점은 쉽게 동의하거나 수용할 수 있다. 그런데, ‘자신만의 언어적 표현’ 또는 ‘새로운 언어’에 대한 설교자의 연구와 실재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노력할 수 있는지, 자신의 만의 새로운 언어가 무엇을 의히하는지 좀 더 세분화된 논의를 제시하면 더욱 실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효과적이고 의사소통적인 설교 구조 이해를 위해 ‘설교 형식의 다양한 접근’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은 우리 시대 설교 구성과 실천을 위해서 중요한 내용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설교 ‘구조’의 예들 곧 전통적, 귀납적, 유기적, 발단 구조, 갈등의 구조의 예들은 한국어 표현으로 전환해서 설명하면 더욱 도움이 될 수 있고, 아울러 ‘구조’와 ‘형식’이라는 표현을 교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좀더 명확히 구분해서 표현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설교의 구조는 성경의 본문에서 주어지는 장르, 설교 본문을 위한 단위(unit)가 지닌 특성 곧 구체적인 전개 방식이 설교의 구조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해야 본문과 상황의 연결에 좀더 충실한 것이 아닌지 고려해 볼 수 있다.

설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실천의 과제이다. 이러한 실천의 과제에서 성경 본문과 상황을 하나로 연결해서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는 전달을 위한 설교 구조를 구성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역의 과제이다.

이러한 곤혹스러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설득을 이끌어내는 설교문 작성의 중요성을 다시 고찰하게 하고,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세부적으로 제시해주신 황종석 박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헤르만 바빙크의 『응변술』에 담긴 설교학적 함의



박태현 교수(총신대)

18세기 영국의 조오지 횃필드(George Whitefield, 1714-1770)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잡혀 여러번 대서양을 오가며 영국과 뉴잉글랜드에서 영적 대각성을 주도했던 위대한 부흥사이자 전도자였다.¹⁾ 한 번은 그가 필라델피아에서 설교할 때에 한 출판업자가 그의 설교문을 출판하고자 횃필드에게 요청했다. 그러자 횃필드는 “만일 당신이 설교문과 함께 천둥과 번개, 그리고 무지개를 글로 인쇄한다면, 나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²⁾ 여기서 우리는 횃필드가 설교행위(preaching) 자체와 메시지를 담은 설교문(sermon)을 뚜렷하게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다.³⁾ 즉, 설교에

- 1) 제임스 패커(James I. Packer)는 횃필드가 영국의 존 웨슬리와 뉴잉글랜드의 조나단 에드워즈보다 더 잘 알려진 부흥사요 전도자였다고 지적한다. 즉, 영국과 미국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18세기 위대한 부흥사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일반적으로 존 웨슬리와 조나단 에드워즈를 언급할 것이지만,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18세기 영국과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대한 부흥사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단연 조오지 횃필드를 꼽는다고 패커는 지적한다. James I. Packer, “The Reformational Revivalism of George Whitefield,” in *Honouring The People of God: The Collected Shorter Writings of J. I. Packer*. Vol. 4. (Carlisle: Paternoster Press, 1999), 39-40. 횃필드에 대한 표준적 전기들은 다음과 같다. L. Tyerman, *The Life of The Reverend George Whitefield*, 2 vols. (Azle: Need of The Times Publishers, 초판 1876-1877, 1995). Arnold Dallimore, *George Whitefield*, 2 vols (London: The Banner of Truth Trust, 1970, Edinburgh/Carlie: The Banner of Truth Trust, 1980). 한국 학자에 의한 학위 논문을 참조하려면 다음을 보라. Kwon-Ho, “The Foundations of George Whitefield’s Effective Oratory”,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Ph.D. (2011). Park, Tae-Hyeun, “The Whole World is My Parish: A Study of the Preaching of George Whitefield(1714-1770)”, Theologische Universiteit te Apeldoorn, Dcrtoraal Scriptie (1998). Ung Kyu Pak, “George Whitefield’s Preaching on the New Birth in American Evangelicalism”, 『성경과 신학』 35 (2004): 224-53. 박태현, ‘조오지 횃필드의 설교관: 성령의 사역의 관점에서’, 『성경과 신학』 72 (2014): 155 - 89.
- 2) L. Tyerman, *The Life of The Reverend George Whitefield*, I, vi. 횃필드는 자신의 일기에서, 설교 원고만 있다면, 1,000부를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출판업자에게 자신의 즉석 설교 원고 두 개를 주어 출판하도록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George Whitefield, *George Whitefield’s Journals* (Edinburgh/Carlie: The Banner of Truth Trust, 1960), 360.
- 3) 청교도 설교의 표준적 교재를 출판했던 윌리엄 퍼킨스(William Perkins, 1558-1602)는 설교를 ‘설교

는 설교문만 아니라 그것을 말로 전달하는 설교행위 자체가 따로 있다. 따라서 능력 있는 설교를 전하고자 하는 설교자는 누구나 항상 설교 전달행위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네덜란드 개혁파 신학자인 헤르만 바빙크(Herman Bavinck, 1854-1921)의 『웅변술』을 살펴보는 것은 설교학적으로 두 가지 면에서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첫째, 바빙크는 그의 생애의 최대의 걸작 『개혁교의학』(*De Gereformeerde Dogmatiek*)을 통해 일반적으로 교의학자로 알려져 있을지라도, 그의 관심은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적 삶을 향해 있었다.⁴⁾ 따라서 기독교 설교를 위한 웅변술은 탁월한 설교자⁵⁾였던 바빙크 자신이 늘 관심을 두던 주제 중 하나였다. 따라서 바빙크는 목회 현장에서 매주 설교해야 하는 미래의 설교자들인 신학생들을 위해 웅변술에 대해 강연했던 것이다. 바빙크의 제자였던 란트베어(J. H. Landwehr)는 자신이 신학생 때 바빙크가 그의 제자들과 종종 웅변술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회상한다.⁶⁾ 브렘머는 바빙크의 웅변술이 “웅변에 관한 아주 멋진 소책자”라고 평가한다.⁷⁾ 무엇보다도 바빙크가 설교 전달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강연한 『웅변술』은 지금까지 엄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⁸⁾ 『웅변술』에 대한 분석과 특징을 살피는 것은 설교학적 의의가 적지 않을 것이다. 둘째, 바빙크의 『웅변술』은 설교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바빙크가 19세기 말에 『웅변술』을 출판했다 할지라

문’(sermon)의 준비와 설교문을 반포하고 ‘말하는 것’(uttering), 두 부분으로 구분한다. William Perkins, *The Arte of prophesying, in The Works of that Famous and Worthy Minister of Christ in the Universities of Cambridge, Mr. William Perkins*, 1:650.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요 복음전도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역시 설교문과 설교 행위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David Martyn Lloyd-Jones, *Preaching and Preachers*, 40th Anniversary Edition (Grand Rapids: Zondervan, 2011), 67-68.

- 4) 바빙크의 박사학위 논문은 윤리적 삶에 초점을 맞추었다. H. Bavinck, *De ethiek van Ulrich Zwingli* (Kampen: G. Ph. Zalsman, 1880). 게다가 바빙크는 자신의 캠펀 신학교 교수직 취임 연설, ‘거룩한 신학의 학문’(De wetenschap der Heilige Godgeleerdheid, 1883)에서 “신학의 이 실천적 성격 때문에 신학의 주기(cyclus)는 비로소 실천신학에서 마무리되고 함께 연결됩니다. 실천신학은 신학의 면류관입니다(Practicale Theologie is de krone der Theologie)”라고 명백하게 지적한다. H. Bavinck, *De wetenschap der Heilige Godgeleerdheid* (Kampen: G. Ph. Zalsman, 1883), 42.
- 5) J. H. Landwehr, *In memoriam Prof. Dr. H. Bavinck* (Kampen: J. H. Kok, 1921), 30. “BAVINCK was een prediker bij uitnemendheid.” 바빙크는 거의 원고 없이 설교했던 즉흥 설교자였다. 그가 처음으로 즉흥설교를 했다고 기록으로 밝힌 것은 목사 임직후 다음 주일인 1881년 3월 20일이었다. R. H. Bremmer, *Herman Bavinck en zijn tijdgenoten* (Kampen: J. H. Kok, 1966), 38. James P. Eglinton, *Bavinck: A Critical Biography*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20), 119, 211. 그의 유일한 유고작인 설교문, 『세상을 정복하는 믿음의 능력(요일 5:4b)』(1901)은 설교 후에 기억을 더듬어 작성하여 출간된 것이다. 박태현, ‘헤르만 바빙크의 첫 번째 설교문이자 유일한 유작 설교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요일 5:4b)’, 『신학지남』 84(3) (2017): 139-173.
- 6) Landwehr, *In memoriam Prof. Dr. H. Bavinck*, 30.
- 7) Bremmer, *Herman Bavinck en zijn tijdgenoten*, 199.
- 8) 필자는 이미 ‘헤르만 바빙크의 설교 연구’에서 바빙크의 『웅변술』을 매우 개략적으로 소개한 바 있다. 박태현, ‘헤르만 바빙크의 설교 연구’, 『한국개혁신학』 71권 (2021), 196-206.

도, 그의 강연은 시대적 조류와 함께 사라져 가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웅변술과 관련된 항구적인 원리와 본질, 형식 전반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제임스 에글린턴 (James P. Eglinton)은 이 『웅변술』이 “설교자의 인격과 설교 행위 자체에 대한 신학적 고찰을 확장하여 기획한 것이며, 설교하는 방법과 설교자가 되는 법 모두에 대한 바빙크의 풍성한 신학적 관심에 대한 멋진 통찰을 제공한다”고 바르게 지적한다.⁹⁾ 이 점은 오늘날 연설과 전달 행위에 있어서 단지 전달 기술과 테크닉에 한정되고 치우친 경향성을 교정하고 균형잡힌 시각을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첫째, 바빙크의 『웅변술』 내용을 엄밀하게 분석하는 데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둘째, 필자는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웅변술』의 특징을 톺아보고, 웅변술이 설교에 대해 지닌 현대적 의미들을 정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바빙크의 『웅변술』이 한국교회 설교자들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들어가는 글

1. 『웅변술』의 서문

바빙크는 1889년 11월에 주로 캠펜 신학생들로 구성된 대중들에게 행한 『웅변술』을 1901년에 출판 시장에 내놓았다. 그는 소책자의 서문에서 자신이 웅변술에 대해 강연한 배경과 이유들을 명백하게 제시함으로써, 설교자들이 웅변술을 훈련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여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되기를 촉구한다. 바빙크가 『웅변술』을 출간한 배경에는 최소한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¹⁰⁾ 첫째, 출판을 원하는 독자들의 요청도 있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거룩한 웅변술이 이론과 실제에 있어서 기독교적 사역에서 대부분 미개척 분야에 속했기 때문이다. 즉, 당시에 네덜란드 설교 강단에는 웅변가는 말할 것도 없이 훌륭하고 능력 있는 설교자가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했고, 교회 밖에서 전개되는 풍요로운 삶에 비해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자들은 온 힘을 다해 말의 은사를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공공의 사회적인 삶에 있어서 말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이례적인 방식으로 증가하여 교회의 번영과 성도들의 교회 회집 참여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즉, 단지 신문만 아니라 각종 집회에서 말은 강력한 무기로써 그 능력을 발휘하여 많은 사람들을 교회 당에서 강연장으로 이끌어냈다. 셋째,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공적 모임보다 다양한 종류의 강연을 듣는 것이 더 가치 있고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세속화가 널리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새로운 상황에 대해, 바빙크는 교회의 회집이 갖는 그 독특성에 주목함으로써, 연설 혹은 웅변과 관련되어 교회 안에 침투한 세속적 정신과 교회에 대한 위협을 제

9) James P. Eglinton, Trans. & Ed., *Herman Bavinck on Preaching & Preachers*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2017), 13.

10) H. Bavinck, *De welsprekenheid* (Kampen: G. Ph. Zalsman, 1901), v-viii.

거한다. 즉, 교회의 회집은 그 내용과 형태에 있어서 다른 종류의 모임들보다 결코 열등한 것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것[교회의 회집]은 신적 기관이라는 그 성격 때문에 신앙생활의 중심점, 영적 능력의 원천, 각 사람이 주중에 이마에 땀을 흘리도록 부름 받은 노동에 대한 감화이며 그렇게 머물러야 한다. ... 오직 여기에서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언약의 인침에 대한 섬김이 있다. 여기서 그리스도 자신이 그 가운데 거하시며, 그의 성령으로 일하신다. 여기서 성도의 교제, 죄 사함, 그리고 영생의 원리를 맛볼 수 있다. 안식일은 최고이 날이며, 그와 같은 날은 없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만나시는 모임이다. 따라서 그 어떤 모임도 그 자리를 대체하거나 그 상실을 보상하지 못한다.¹¹⁾

이처럼 교회 회집의 독특성을 강조한 것처럼, 바빙크는 능력 있는 설교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신적 독특성도 강조한다. “만일 말씀의 사역자들이 사람들의 마음의 대가(meester)로 머물고자 한다면, 말씀의 대가(meester)로 머물도록 노력해야만 한다.”¹²⁾ 즉, 말씀의 설교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정통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한다. 동일한 맥락에서 이미 16-17세기 청교도들은 설교자들이 반드시 두 개의 책, 즉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책과 사람의 마음과 양심의 책을 마스터해야 한다고 가르쳤다.¹³⁾

더 나아가, 바빙크는 이처럼 성경 말씀의 독특성만 일방적으로 강조하지 않고, 인간 설교자가 능력 있는 설교를 위해 무엇보다도 말의 은사를 계발하고 훈련할 필요성을 지적한다. 즉,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가 참되고 아름답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운 말이나 장식이 필요 없지만, 복음을 그 모든 영광 가운데 제시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훈련, 지속적인 노력, 충성스런 헌신이 요구된다고 지적한다.¹⁴⁾ 이처럼 바빙크는 설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자의 말의 은사 사이의 적절하고도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11) H. Bavinck, *De welsprekenheid* (Kampen: G. Ph. Zalsman, 1901), viii-ix.

12) Bavinck, *De welsprekenheid*, ix, 그리고 11-12.

13) 리처드 시브스는 “그것들(성경과 사람의 마음)은 모두 거의 비슷해서 알기 어려운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성향이 지닌 거짓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해야 합니다.”라고 지적한다. Richard Sibbes, *The Works of Richard Sibbes*, Alexander B. Grosart, ed., 7 vols (1862-64. rep. Edinburgh/Carlisle: The Banner of Truth Trust, 1973), 2:87. 이런 맥락에서 존 칼뱅 역시 그의 『기독교강요』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의 상호 연관된다는 점에서 시작한다.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T. McNeill, Trans. & indexed by Ford Lewis Battles, Vols. XX & XXI,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35.

14) Bavinck, *De welsprekenheid*, ix-x.

2. 웅변술

2.1. 『웅변술』의 원리

바빙크는 만물의 원리와 본질을 섬 없는 활동(Thatigkeit)에서 추구하는 괴테의 범신론적 세계관을 배격하고, 만물을 말씀하심으로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시는 살아있고, 자의식적이며, 인격적인 말씀에 둔다.¹⁵⁾ 따라서 바로 이 말씀이 모든 피조물의 만아들이기 때문에, 바빙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사상, 언어와 음성, 소리와 어조가 있다고 지적한다. “창조 세계는 단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쓴 글도 아니고 말 없는 책도 아니며, 그 이상의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다.”¹⁶⁾

더 나아가, 바빙크는 사람이 피조 세계의 대표인 것처럼, 피조물이 하는 말은 사람의 언어에서 그 최상의 형태가 드러난다고 지적한다. “그[사람]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는 특히 그의 언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다. 언어 자체는 하나의 기적이다. 그 기원은 알 수 없고, 그 본질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 작용은 묘사할 수 없다.”¹⁷⁾ 바빙크에 따르면, 첫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그 형상 가운데 의와 거룩만 아니라 지식과 진리도 소유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아는 것을 말로 표현해야만 했다. 언어는 그의 영혼에서 태어났고, 그 언어는 시(詩)였다.¹⁸⁾ 그러나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내용에서 형태로, 본질에서 외양으로, 생명에서 죽음으로, 빛에서 어둠으로, 충만함에서 무(無)로 타락하였다. 그때 우리의 말은 생명과 빛이 없는 공허하고 텅 빈 것이 되었다.”¹⁹⁾ 따라서 바빙크에 의하면, 말이 다시금 신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고, 말이 다시금 **피조적 방식으로** 신적 존재 안에 있는 로고스, 즉 생명과 빛이 될 때, 사람은 웅변적이 되는 것이다.

말을 잘(wèl)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온전해야(wèl) 한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우리 자신의 형상과 모양이며, 우리 자신이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될 때, 우리의 말은 다시금 마땅히 그 본질이 된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말은 공허하지 않고, 헛되지 않고, 텅 빈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장 내면적인 것의 계시이며, 그의 영혼 중의 영혼, 그의 정신 중의 정신이 된다. 언어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참된 웅변의 근원 역시 추론하는 지성이 있지 아니하고, 또한 의지의 행위나 결정에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오히려 그 근원은 지성과 의지 배후에 있는 생명이 흘러나오는 그의 마음과 정서에 있다. 이것이 또한 웅변의 생명이기도 하다.²⁰⁾

15) Bavinck, *De welsprekenheid*, 14-15.

16) Bavinck, *De welsprekenheid*, 15.

17) Bavinck, *De welsprekenheid*, 16. 바빙크는 “말에는 놀라운 힘, 거의 신적인 힘이 있다”고 지적한다. 53.

18) Bavinck, *De welsprekenheid*, 18.

19) Bavinck, *De welsprekenheid*, 19.

20) Bavinck, *De welsprekenheid*, 22.

즉,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할 때 그 사람이 웅변가이며, 웅변의 비밀은 정서에 있기에 열정을 말로 표현할 때, 웅변이 태어나는 것이다.²¹⁾ 따라서 바빙크에 따르면, 참된 웅변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두 종류가 필요하다. 하나는 강력한 감정의 상태, 감동 받은 정서, 감명 받은 마음이며, 다른 하나는 이것을 표현하려는 억제할 수 없는 충동이다.²²⁾ 하지만 이 두 가지는 결국 하나이다.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도다[고후 4:13]. 확고하게 깊이 믿는 자는 침묵할 수 없다.”²³⁾ 따라서 이런 실례로서 바빙크는 성경의 인물들, 즉 예레미야, 아모스, 바울, 그리고 예수를 언급한다.

더 나아가, 바빙크는 우리를 감동케 하시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고상한 삶, 학문과 예술의 원천이며, 또한 참된 웅변술의 원리라고 지적한다.²⁴⁾ 따라서 바빙크에 의하면, 웅변술은 연습이나 심지어 준비도 없이 곧바로 여기서 발생하기에 수사학이 있기 전에 모든 민족들 가운데 웅변가들이 있었다. 즉, 삶이 기술보다 선행하는 것이다. 사도들은 웅변적이었지만 수사학자들은 아니었다. 그들은 플라톤, 키케로, 퀴틸리아누스의 수사학 교과서들을 알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세 있는 자들처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했던 웅변가였다.

그들은 웅변적이었는데, 이것은 자신들의 훈련이 아니라 신적 은사로 말미암은 것이며, 속고가 아니라 영감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인간적 부름이 아니라 ‘신적 권위(droit divin)’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들에게 웅변은 그 어떤 의도가 아니라 본성이었으며, 그 어떤 기술이 아니라 은사였다.²⁵⁾

하지만 바빙크는 하나님의 은사로서의 웅변술뿐만 아니라 기술로서의 웅변술 역시 인정한다. 왜냐하면 웅변술은 삶의 실제에서 웅변의 본질을 설명하는 요구들과 규칙들을 정함으로써 생겨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웅변술은 신적 은사와 재능을 대체하거나 무위로 돌리지 못한다. 왜냐하면 수사학이 그 누구도 웅변가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다.²⁶⁾ 바빙크는 은사와 기술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밝힌다.

은사 없는 기술은 세련된 표현과 온기 없는 불꽃놀이가 되고, 영혼 없는 초상화요 결코 살아 있는 그림과 같지 않다. 그러나 기술 없는 은사는 대중 연설가들이 증명해주듯이 너무도 자주 조잡한 진부함과 방해를 일삼는 사소함으로 전락하고 만다. 기술을 멸시하는 은사 역시 참된 은사가 아니다.²⁷⁾

21) Bavinck, *De welsprekenheid*, 22-23.

22) Bavinck, *De welsprekenheid*, 25.

23) Bavinck, *De welsprekenheid*, 25.

24) Bavinck, *De welsprekenheid*, 26.

25) Bavinck, *De welsprekenheid*, 27.

26) Bavinck, *De welsprekenheid*, 28.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은사가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기술을 요구한다.²⁸⁾ 즉, 참된 웅변은 모든 노력과 연습을 헛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필요한 것으로 여겼다. 결론적으로, 바빙크에게 있어서 “진정한 웅변술이 무엇이든, 은사든 기술이든 둘 다이든, 그 근원은 오직 사람의 마음에 있다. 여기에 그 기원이 놓여 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눅 6:45]. 웅변술은 ‘열정적 이성’(la raison passionnée)이라고 바르게 일컬어진다.”²⁹⁾

2.2. 웅변술의 본질

바빙크는 웅변술의 본질을 “말의 능력을 통해 사람들의 지성에 확신을 주고, 정서에 감동을 주며, 의지에 설득력 있게 영향을 끼치는 기술에 의해 연마된 은사”라고 정의한다.³⁰⁾ 따라서 바빙크에게 있어서 모든 웅변술은 본질적으로 세 가지, 즉 지정의(知情意)에 상응하는 논증, 묘사, 설득이다.³¹⁾ 바빙크는 여기서 논증과 연관된 지식, 즉 웅변술과 철학 또는 학문과 연계시킨다. 그리고 양심을 두드리기 위한 묘사와 연관된 웅변술은 시문학과 연계된다. 마지막으로 의지를 설득해야 하는 웅변술은 덕목과 연계된다. 그래서 바빙크는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다시 말하면, 말이 웅변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인(全人)으로부터 나와야 하며, 그의 형상과 모양을 지녀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의 전인, 즉 지성과 마음과 의지를 겨냥해야 한다.³²⁾ 바빙크는 이런 방식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방식을 **피조적 방식으로** 따르는 것이요, 오직 이런 식으로만 말이 그 목적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³³⁾ 따라서 바빙크는 웅변술의 본질인 지식, 마음(정서), 그리고 의지에 대해 하나씩 차례대로 설명한다.

첫째, 웅변술은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재료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요구한다.³⁴⁾ 바빙크는 철학적 지식이 결여된 궤변론자들의 일종의 말장난과 기술을 비난하면서,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말씀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풍유나 영해, 신비로운 의미, 더 깊은 의미, 진리 뒤에 있는 진리라는 명분으로 사람의 생각을 성경과 타협하는 오류를 지적한다.³⁵⁾ 그래서 바빙크는 이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약은 단 하나뿐인데, 그것은 바로 열심히 연구하고, 확고한 지식을 갖추며, 참된 학문을 배양하는 것이다.³⁶⁾

27) Bavinck, *De welsprekenheid*, 28.

28) Bavinck, *De welsprekenheid*, 29.

29) Bavinck, *De welsprekenheid*, 29-30.

30) Bavinck, *De welsprekenheid*, 30.

31) Bavinck, *De welsprekenheid*, 30.

32) Bavinck, *De welsprekenheid*, 31.

33) Bavinck, *De welsprekenheid*, 31.

34) Bavinck, *De welsprekenheid*, 31.

35) Bavinck, *De welsprekenheid*, 31-34.

바빙크에 의하면, 사실상 복음 설교자는 예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말해야 한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요 12:49). “오직 이것만이 강단에서 필수불가결한 권위를 제공하고, 이러한 권위 없이는 웅변이란 발생하지도 않으며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의 신성에 대한 확신이 없는 만큼, 우리의 설교는 영향력과 힘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³⁷⁾ 따라서 바빙크는 설교자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데,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어떤 견해들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며 근본적으로 불신앙이라고 지적한다.³⁸⁾

바빙크는 이처럼 온전한 지식이 진정한 웅변술의 근본적인 요소라 할지라도, 다른 극단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³⁹⁾ 즉, 웅변적 연설을 그저 학식의 무기고로 가득 채우지 말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설교단은 학교의 강단이 아니며, 교회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중들이 알지 못하는 고전어의 나열이나 지리학, 역사, 고고학을 나열함으로써 목회자의 학식을 경탄하게 만드는 것은 잘못이다. “사람들이나 여러분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학식을 자랑하는 설교는 결코 기술이 아니다. 하지만 성경과 마찬가지로 가장 심오한 사상을 일용 노동자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매우 단순하고도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이 탄탄한 설교를 위한 높은 이상이다.”⁴⁰⁾

둘째, 바빙크는 웅변에는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즉, 철학자는 논증하고 확신시키며 지성과 이해에만 집중하는 반면, 웅변가는 단순히 증명하거나 서술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권하며, 사람의 양심과 상상력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바빙크에 의하면, 웅변술은 시(詩)와 깊은 연관을 지니며, 시 예술은 심지어 웅변의 어머니였다.⁴¹⁾ 바빙크는 동양에서 웅변과 시가 함께 발전했다고 말하며, 그 예들로서 구약 선지자들의 조화로운 리듬의 언어, 예수의 비유들, 바울의 웅변인 동시에 사랑에 대한 찬가(고전 13장)를 언급한다.⁴²⁾ 그러나 웅변술과 시는 서서히 분리되어, 서양 사람들에게 상상력보다 지성이 더 강조되었기에, 그들은 반성과 고찰이 직관을 통제하는 추상의 세계에 살아간다고 지적한다.⁴³⁾

하지만 바빙크에 의하면, 웅변술과 시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어, 마치 가족처럼 혈연 관계를 맺는다. 그래서 이런 연관성은 웅변과 시의 공통적 묘사, 생생하고도 명료한 제시, 이미지와 상징의 사용, 어떤 대상을 잘 표현하기 위한 웅변과 시의 고유한 재능 가운데 나타난다.⁴⁴⁾

36) Bavinck, *De welsprekenheid*, 35.

37) Bavinck, *De welsprekenheid*, 35.

38) Bavinck, *De welsprekenheid*, 36.

39) Bavinck, *De welsprekenheid*, 36.

40) Bavinck, *De welsprekenheid*, 38.

41) Bavinck, *De welsprekenheid*, 38.

42) Bavinck, *De welsprekenheid*, 38-39.

43) Bavinck, *De welsprekenheid*, 39.

44) Bavinck, *De welsprekenheid*, 39.

옹변가는 그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해야 한다. 연설은 하나의 논증이지만, 동시에 하나의 연극, 하나의 드라마이다. 예를 들어, 옹변은 죄가 무엇인지 단정 교리적 용어로만 묘사하지 않는다. 그것은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죄의 파괴적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 옹변은 미덕과 종교에 대한 철학적 취급이 아니다. 도리어 옹변은 마치 살아 있는 몸을 통해 우리 눈앞에서 그것들을 시연해 준다.⁴⁵⁾

바빙크는 복음 설교자가 세상 옹변가들보다 더 나은 옹변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모든 것이 구체적이고, 명백하며, 인격적이기 때문에, 즉 기독교가 삼위일체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말씀의 종은 시민적, 법률적, 사회적 세계의 그 어떤 연설가보다 훨씬 우월하다.⁴⁶⁾ 왜냐하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장대한 역사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추상적인 추론이나 교리적 논증이 아니다. 성경에는 성찰하는 언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성경은 추론하는 대신 그림을 그린다. 성경은 설명하는 대신 이야기를 들려준다. 성경은 논증하지 않고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성경과 비견할 만한 다른 책은 이 세상에 없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 눈에 그려지고, 예술적이며, 구체적이고, 독창적이며, 근원에서 흘러나오는 맑은 물처럼 신선하다. 성경은 생명의 언어, 마음의 언어, 직접적인 언어, 영감의 언어로 말하기에,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모든 세대에 지속되며, 시간이 흘러도 결코 낡아지지 않는다. 따라서 성경은 아주 고유한 의미에서 최상의 고전이다.⁴⁷⁾

따라서 바빙크는 옹변술의 두 번째 요구, 즉 양심을 두드리는 묘사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연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주장한다.⁴⁸⁾ 이런 맥락에서 바빙크는 모든 것을 심지어 언어조차 추상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합리주의는 시(詩)의 죽음이라고 지적한다.⁴⁹⁾

참된 옹변술은 사상을 눈에 그려주는 반면, 합리주의는 명료한 역사를 차가운 개념으로 녹여버린다. 따라서 합리주의와 옹변술은 합리주의와 시가 싸우듯이 치열하게 서로 싸운다. 참된 옹변은 그림이다. 그 손 아래 추상적인 것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사상은 살과 피가 된다.⁵⁰⁾

45) Bavinck, *De welsprekenheid*, 39-40.

46) Bavinck, *De welsprekenheid*, 40.

47) Bavinck, *De welsprekenheid*, 40-41.

48) Bavinck, *De welsprekenheid*, 41.

49) Bavinck, *De welsprekenheid*, 42.

50) Bavinck, *De welsprekenheid*, 42.

바빙크는 양심에 호소하는 묘사라는 점에서 지나친 두 극단, 즉 반드시 시적 운율을 지녀야 한다는 것과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단조롭고 지루한 설교를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⁵¹⁾ 이런 점에서 바빙크는 균형을 큰 미덕으로 여긴다.

바빙크는 그림처럼 아름답고, 생동감 넘치고, 생생하게 표현하는 대중연설가들의 모든 인기 있는 웅변술의 비밀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웅변가는 한 순간도 그의 청중으로부터 고립되어서는 안 되고, 결코 차가운 독백을 해서도 안 된다. 반대로 그는 끊임없이 청중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말을 걸고, 질문하고, 의의를 제기하고,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 그는 잠시도 그들을 혼자 두어서는 안 되며, 바쁘게 움직이고 참여하게 하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거래해야 한다. 눈과 눈, 마음과 마음, 영혼과 영혼 사이에 교류, 소통, 거래가 있어야 한다. 연설은 하나의 극적인 행동이어야 한다.⁵²⁾

셋째, 바빙크는 웅변술이 단순히 우리 지성에만 호소하는 것도, 단순히 우리 마음을 자극하고 충격을 주는 것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성과 마음을 통해 인간의 의지를 꺾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연설가는 청중이 자신과 같이 생각하고, 자신과 같이 느끼고, 자신과 같이 행동할 때까지 만족할 수 없다. 말은 웅변에서 비로소 최고의 힘, 개혁적 힘, 재창조적 힘을 발휘하며, 우리 하나님 말씀의 본래적이고 절대적인 힘에 가장 가깝게 다가간다.”⁵³⁾ 따라서 바빙크는 진정한 웅변은 언어에 대한 통달 없이는 상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더 프리스(De Vries) 교수의 말을 빌어 언어의 통달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화자가 언어의 내용을 자신의 존재와 동일시 할 정도로 내면화했을 때, 언어 자체가 모든 보물을 한 눈에 볼 수 있을 정도로 재료와 정신에서 자신의 소유가 되었을 때, 그에게서 떠오르는 모든 생각, 그가 느끼는 모든 감각이 즉시 그 단어와 그것을 가장 생생하게 묘사하는 그 표현을 불러 일으킬 때, 배열과 연결, 부분들의 구부러짐과 접힘, 형태와 전환의 교대가 항상 가장 순수한 일치로 생각의 가장 미세한 뉘앙스를 동반하고, 항상 모든 느낌의 신경의 진동과 하나의 어조로 합쳐질 때, 마지막으로, 영혼이 언어의 거울에서 포착한 모든 이미지가 동일한 강렬함과 선명함으로, 그러나 신선한 안개처럼 독창적으로 살아있는 단어로 반영될 때, 그때 비로소 승리가 이루어지고 언어는 그 주인을 찾게 된다.⁵⁴⁾

51) Bavinck, *De welsprekenheid*, 43-44.

52) Bavinck, *De welsprekenheid*, 46.

53) Bavinck, *De welsprekenheid*, 48.

54) Bavinck, *De welsprekenheid*, 48-49.

바빙크는 언어에 대한 이러한 통달이 사람들의 양심만 아니라 의지에 대한 지배까지도 보장해 준다고 지적한다.⁵⁵⁾ 하지만 바빙크는 이 시점에서 복음 설교자가 그의 청중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도록[고후 5:20] **기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⁵⁶⁾ 왜냐하면 의지는 그저 이리저리 부는 바람에 따라 돌아가는 풍향계가 아니라, 도리어 인간 본성에 깊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이다.⁵⁷⁾ 따라서 바빙크에게 있어서, 웅변은 하나의 논증이요, 드라마이자 행동이며, 결국 이 모든 것을 다 합친 것 그 이상이다. 즉, 웅변은 투쟁이요 분투로서 설교자는 반드시 자신의 청중과 씨름해야 하며, 반드시 청중을 설득해야 한다.⁵⁸⁾ 바빙크는 인간의 의지는 사람의 웅변에 의해 꺾이지 않으며, 의지에 대한 지배권은 오직 하나님의 영에게만 있기 때문에, 이제 설교자는 기도함으로써 설득해야 할 웅변의 요구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말씀의 설교와 함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목사의 말은 오직 성령의 전능하신 손 안에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⁵⁹⁾

여기서 바빙크는 사람의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 고대의 많은 사람들이 웅변을 선과 미덕과 밀접하게 연관시켰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키케로와 퀸틸리아누스는 연설가가 되기 위해서는 유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소크라테스는 수사학자가 신(神)을 섬기고 오직 정의와 도덕을 수호하는 데에만 자신의 재능을 바쳐야 한다고 요구했다.⁶⁰⁾ 하지만 바빙크는 웅변은 하나의 재능으로서, 죄를 위해 그 재능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서도 발견된다고 지적한다.⁶¹⁾ 따라서 그는 유창한 거짓 설교자들과 언제나 강력한 웅변적 재능을 가진 거짓 예언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는지 설명한다. 즉, 자신의 재능을 신을 섬기는 데, 정의와 도덕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조차 웅변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옹호하는 진리의 요소들, 무엇보다도 그들 자신이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인 확고한 신념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신념이 없다면 인간에게 웅변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⁶²⁾ 하지만 바빙크는 웅변이 그 최고의 승리를 거두는 것은, 오직 웅변이 자유롭고 그 본성에 따라 진리와 거룩을 위해 섬길 때라고 한정짓는다.

2.3. 웅변술의 형식

55) 란트베어는 바빙크가 언어의 대가였다고 기록한다. Landwehr, *In memoriam Prof. Dr. H. Bavinck*, 32. "BAVINCK was meester van de taal."

56) 박태현, '헤르만 바빙크의 기도', in 안명준 편집, 『영적 거장들의 기도』 (남양주: 홀리북클럽, 2021): 471-482.

57) Bavinck, *De welsprekenheid*, 49.

58) Bavinck, *De welsprekenheid*, 49.

59) Bavinck, *De welsprekenheid*, 50-51.

60) Bavinck, *De welsprekenheid*, 51.

61) Bavinck, *De welsprekenheid*, 51.

62) Bavinck, *De welsprekenheid*, 52-53.

바빙크에게 있어서, 웅변술의 형식은 웅변술의 내용과 비교할 때 부차적인데, 왜냐하면 웅변술에서는 형식과 언어와 표현이 전적으로 내용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⁶³⁾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빙크는 웅변술의 내용뿐만 아니라 말하는 형식에도, 즉 전달에도 모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한다.⁶⁴⁾ 바빙크는 먼저 설교자를 포함한 모든 연사들은 전달과 제시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것들, 즉 기묘한 발성, 진기한 자세들, 학위 가운 등의 의상, 어울리지 않는 얼굴표정, 그리고 자연스럽지 않은 손과 발의 동작들과 싸워야만 한다고 지적한다.⁶⁵⁾ 바빙크는 이런 전달에 있어서 단 하나의 모델을 채택하기보다는 각 사람이 자신만의 고유한 웅변을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⁶⁶⁾ 여기서 바빙크는 좋은 전달이란 웅변가의 인격과 긴밀하게 연관된다고 예리하게 지적한다.

따라서 오직 우리 소유가 될 수 있는 좋은 전달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에게서 분리된 것이 어떤 것이 아니다. 거칠고 미개한 사람이 연설자로 나서서 훌륭하게 전달하리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 우리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영경귀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없다[마 7:16]는 것을 읽는다.⁶⁷⁾

따라서 바빙크는 웅변술에 관한 책들을 읽고 그 규칙들을 암기하거나 연습하기보다는 우리 정신을 보편적으로 형성하고 개화시키는 우리 세대의 최고의 사람들과 매우 광범하고도 친밀하게 교제할 것을 제안한다.⁶⁸⁾ 그것은 모두 네 가지인데, (1) 매일 성경을 읽으며, 선지자들과 사도들, 특히 주 예수와 교제하고, (2)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우리 문명의 발전과 기초를 형성했던 풍성한 문화를 소유한 고대 민족들과 교제하며, (3) 우리 민족과 주변 국가들의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정신들과 교제하고, (4)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의 영역에 속한 개화된 이들과 교제하고, 무엇보다도 보석 같은 아름다움과 은혜의 비밀을 맡은 남녀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바빙크는 전달이 단지 우리 몸의 한 부분, 음성이나 몸짓만 아니라 우리 전 존재와 연관된다고 지적한다. 전달의 정당성과 필연성은 육체와 영혼의 긴밀한 연합, 그리고 내면과 외면의 조화에 기초하기 때문이다.⁶⁹⁾ 바빙크에 의하면, 연설의 내용과 그 전달 사이에는 마치 시의 내용과 형식 사이의 조화처럼 친밀한 조화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영혼과 육체, 언어와 목소리, 말과 제스처, 말하는 내용과 말하는 방법 사이에 조화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온 영혼과 온 몸과

63) Bavinck, *De welsprekenheid*, 56.

64) Bavinck, *De welsprekenheid*, 60.

65) Bavinck, *De welsprekenheid*, 57-58.

66) Bavinck, *De welsprekenheid*, 60.

67) Bavinck, *De welsprekenheid*, 61.

68) Bavinck, *De welsprekenheid*, 62.

69) Bavinck, *De welsprekenheid*, 63.

온 힘을 다해 말해야 한다.”⁷⁰⁾ 바빙크에게 있어서, 웅변은 전인에서 나와 전인을 대상으로 한다.⁷¹⁾ 즉,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전달의 왕도이지만, 현재의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될 수 있는 모습과 자신이 되어야만 하는 모습을 내어주는 것이다. 한편, 바빙크는 웅변에서 청중을 무시하는 교만한 태도를 버리고 청중을 존중하라고 요청한다. 왜냐하면 말씀 사역자는 평범하고 저속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 앞과 주님의 기업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이다.⁷²⁾

바빙크는 전달에 있어서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지적한다. “좋은 목소리는 소중한 선물이다. 그것은 생각의 메아리이자 우리 성격의 표현이다. 진실로 언급될 수 있는 바, 사람은 다양한 모습에 따라 웃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신의 본성과 성격을 드러낼 수 있다.”⁷³⁾ 더 나아가, 바빙크는 사람이 훌륭한 악기인 목소리를 전적으로 철저하게 통제하고, 자신의 영혼 전체와 모든 감정과 심지어 각각의 감정의 색깔까지 그 목소리에 담아 표현하는 것이 최고의 예술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인간의 목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요, 가장 섬세한 음악으로서, 자연 전체에 인간의 목소리가 표현할 수 없는 음조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⁷⁴⁾

더 나아가, 바빙크는 전달에 있어서 비언어적 요소들인 “신체적 웅변”, 즉 설교자의 생각을 얼굴 표정, 태도, 몸짓, 용모, 의상 등을 통해 묘사하고 지지하고 입증하는 웅변을 소개한다. 즉, 우리 몸의 각 부분이 지닌 고유한 언어, 즉 입술의 언어, 눈의 언어, 손의 언어, 머리의 언어, 몸의 언어를 지적한다.⁷⁵⁾ 바빙크는 비언어적 전달의 요소 가운데 특히 눈의 언어를 강조하는데, 이는 영혼의 감정이 눈에 드러나기 때문이다.

머리와 손의 말보다 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것은 눈의 언어이다. 영혼의 모든 정서는 마치 거울처럼 눈에 비친다. 사랑과 증오, 경멸과 연민, 우정과 분노, 신뢰와 두려움, 그 밖의 모든 열정이 사람의 눈에서 번갈아 읽힐 수 있다. ... 눈빛은 천 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들리는 말조차 눈의 언어를 경쟁할 수 없다.⁷⁶⁾

따라서 바빙크는 웅변의 언어적, 비언어적 요소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룰 때 전달은 완성된다고 지적한다.

연설자가 전하는 말의 내용, 그의 목소리, 그의 눈빛, 그의 머리 위치, 그의

70) Bavinck, *De welsprekenheid*, 64.

71) Bavinck, *De welsprekenheid*, 65.

72) Bavinck, *De welsprekenheid*, 65.

73) Bavinck, *De welsprekenheid*, 66.

74) Bavinck, *De welsprekenheid*, 67.

75) Bavinck, *De welsprekenheid*, 68.

76) Bavinck, *De welsprekenheid*, 69.

몸의 자세, 손짓, 심지어 그의 의복의 색깔과 모양과 같은 동일한 언어를 말할 때, 그리고 영혼과 육체, 정신과 물질, 내면과 외면, 목소리와 어조, 언어와 몸짓의 모든 이원론이 완벽한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전달의 완성에 도달한다.⁷⁷⁾

결론적으로, 바빙크는 기독교가 웅변술과 전달에 대해서도 무언가를 기여하는데, 사람은 오직 생각과 말, 말과 몸짓의 완벽한 조화가 존재하는 기독교적 원리에 부합할 때만 웅변적이라고 주장한다.⁷⁸⁾ 왜냐하면 한편으로 이교도와 그리스인들은 이 심오한 조화를 놓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에는 놀라운 형태의 아름다움이 존재했을지라도, 이 모든 아름다운 형식들은 참된 실재를 담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⁷⁹⁾ 그리고 웅변술이 다양한 승리를 거두어 규칙들을 지닌 멋진 이론이 되었을지라도, 종종 내적 진리의 결핍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학적 수단들을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이다.⁸⁰⁾ 다른 한편, 기독교의 출현은 생동감 넘치고 매혹적인 아름다움으로 사상의 세계를 열어주었다. 예술에는 새로운 재료가, 생각에는 불멸의 대상이, 언어에는 영원한 내용이 다시 주어졌다.⁸¹⁾ 따라서 바빙크는 그리스와 로마가 우리를 위해 보존해 온 놀라운 형태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다고 지적하는데,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바울과 게바와 아볼로뿐만 아니라 호메루스와 호라티우스, 데모스테네스와 키케로까지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이다[고전 3:21-23].⁸²⁾ 게다가 기독교에서 진정한 화해, 즉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뿐만 아니라 이교도 세계에서 발견되는 모든 모순들의 화해가 처음으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중심점은 말씀의 성육신이며, 그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 정신과 물질, 내용과 형태, 이상과 현실, 영혼과 육체, 생각과 언어, 말과 몸짓의 화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⁸³⁾

3. 『웅변술』의 특징

교회의 설교와 관련하여 바빙크의 『웅변술』이 갖는 특징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바빙크의 『웅변술』은 철저하게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서술되고 전개된다. 그의 『웅변술』은 웅변의 원리, 웅변의 본질, 그리고 웅변의 형식을 취급하는데, 그 밑바탕에는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와 재창조(구속)의 사역이 주도적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바빙크는 오직 기독교만이 아름다운 형식에 실재를, 생각에 불멸의 대상을, 언어에 영원한 내용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즉, 말씀의 성육신으로 인해 하나님

77) Bavinck, *De welsprekenheid*, 69-70.

78) Bavinck, *De welsprekenheid*, 71.

79) Bavinck, *De welsprekenheid*, 72.

80) Bavinck, *De welsprekenheid*, 73.

81) Bavinck, *De welsprekenheid*, 73.

82) Bavinck, *De welsprekenheid*, 73.

83) Bavinck, *De welsprekenheid*, 74.

과 인간, 정신과 물질, 내용과 형태, 영혼과 육체, 생각과 언어, 말과 몸짓이 화해를 이루고 조화롭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의 목회자로서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되려면, 바빙크가 서문에서 밝히듯이, 최소한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첫째, 우리는 교회의 회집이 갖는 신적 독특성, 즉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만나시는 모임으로서 세상의 그 어떤 모임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둘째,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적 독특성을 기억함으로써 성경을 잘 아는 대가가 될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아는 대가가 되어야 한다. 셋째, 설교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하기 위해 말의 은사를 계발하고 훈련하여 언어에 통달해야 한다.

세째, 바빙크는 웅변술의 원리로서 만물과 피조세계의 근원이 하나님의 살아 있는 인격적 말씀이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피조세계의 대표자인 사람은 그 언어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데, 사람이 웅변적이 되기 위해서는 ‘온전해야’(wèl), 즉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마음과 정서를 지녀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할 때” 웅변적이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바빙크에게 있어서 참된 웅변은 하나님의 은사인 동시에 사람이 계발하고 훈련해야 할 기술이다. 바빙크가 올바르게 지적했듯이, “기술을 멸시하는 은사 역시 참된 은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넷째, 바빙크는 웅변술의 본질이 사람의 전인, 즉 지정의에 상응하는 바, 논증(지식), 묘사(정서), 설득(의지)라고 바르게 지적한다. 다시 말하면, 웅변은 설교자의 전인에서 나와 청중의 전인을 겨냥해야 한다는 것이다. 논증(지식)과 관련하여, 바빙크는 참된 설교와 웅변을 위해 설교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확신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묘사(정서)와 관련하여, 바빙크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림으로 보여주는 성경을 연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강조한다. 설득(의지)와 관련하여, 바빙크는 언어에 통달할 것을 요구하되, 반드시 기도할 것을 주장한다. 왜냐하면 인간 본성에 깊이 뿌리박힌 의지는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정복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웅변술의 형식, 즉 전달과 관련하여 바빙크는 좋은 전달이란 연설가의 인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지적한다. 그래서 참된 웅변을 위해 바빙크는 성경의 인물들과 역사 속 풍성한 문화를 형성했던 고대와 현대의 사람들, 그리고 경건한 성도들과 교제할 것을 제안한다. 게다가 바빙크는 전달의 언어적 요소로서 사람의 목소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영혼의 감정을 담아 표현하도록 권고한다. 그리고 전달의 비언어적 요소로서 바빙크는 목소리보다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인 눈의 언어를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바빙크는 전달의 언어적, 비언어적 요소들의 완벽한 조화가 전달을 완성한다고 지적한다.

III. 나가는 글

120여년 전 네덜란드에서 출간된 바빙크의 『웅변술』은 놀랍게도 오늘날 21세기 한국

교회 설교 갱신을 위해 여전히 설교적 함의와 시사점을 갖고 있다. 그의 강연은 단순히 설교 전달의 기술과 요령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웅변, 능력 있는 설교를 위한 개혁주의적 원리를 증거하기 때문이다.

첫째, 한국교회 설교자는 교회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하는 능력과 권위를 확신해야 한다.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딤후 3:15-17). 게다가 바빙크가 지적하듯이, 거짓 선지자들조차 웅변적이었던 까닭은 다름 아닌 거짓을 진리로 믿는 그들의 확신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둘째, 참된 웅변을 위해서는 ‘온전한’ 사람, 즉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어야 한다. 웅변이란 멧세지 전달의 기술이라기보다는 전하는 자가 자신을 온전히 내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웅변은 언제나 전인으로부터 나와 전인을 겨냥해야 한다.

셋째, 웅변은 하나님의 은사로서 설교자에게 각각 주어져 있기에, 다른 사람을 모방하고 흉내낼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존재가 되어야 하며, 동시에 자신의 은사를 계발하고 훈련해야 한다. 신적 은사와 사람의 기술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교자는 무엇보다도 언어의 통달을 위해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 설교자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의 대가가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또한 사람의 마음의 대가가 되어야 한다. 말의 은사를 계발하기 위해 성경보다 더 좋은 책은 없다.

넷째,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고자 하는 설교자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사람의 의지는 본성에 깊이 뿌리박혀 있기에 의지를 지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따라서 설교자는 바울의 본을 따라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되, 사람의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해야 한다(고전 2:1-5).

다섯째, 복음 설교자는 웅변의 형식적 요소들, 즉 언어적, 비언어적 요소들에 깊은 관심을 갖고 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목소리가 영혼의 정서를 반영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눈의 언어가 말보다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설교자는 언어적, 비언어적 요소들의 완벽한 조화를 이룰 때, 완벽한 전달이 성취된다.

참고문헌

- Bavinck, H. *De ethiek van Ulrich Zwingli*. Kampen: G. Ph. Zalsman, 1880.
- Bavinck, H. *De wetenschap der Heilige Godgeleerdheid*. Kampen: G. Ph. Zalsman, 1883.
- Bavinck, H. *De welsprekenheid*. Kampen: G. Ph. Zalsman, 1901.
- Bremmer, R. H. *Herman Bavinck en zijn tijdgenoten*. Kampen: J. H. Kok, 1966.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T. McNeill, Trans. & indexed by Ford Lewis Battles. Vols. XX & XXI.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 Dallimore, Arnold. *George Whitefield*. 2 vols. London: The Banner of Truth Trust, 1970, Edinburgh/Carlie: The Banner of Truth Trust, 1980.
- Eglinton, James P. Trans. & Ed. *Herman Bavinck on Preaching & Preachers*.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2017.
- Eglinton, James P. *Bavinck: A Critical Biography*.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20.
- Kwon-Ho, "The Foundations of George Whitefield's Effective Oratory."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Ph.D. (2011).
- Landwehr, J. H. *In memoriam Prof. Dr. H. Bavinck*. Kampen: J. H. Kok, 1921.
- Lloyd-Jones, David Martyn. *Preaching and Preachers*. 40th Anniversary Edition. Grand Rapids: Zondervan, 2011.
- Packer, James I. "The Reformational Revivalism of George Whitefield." in *Honouring The People of God: The Collected Shorter Writings of J. I. Packer*. Vol. 4. Carlisle: Paternoster Press, 1999: 39-40.
- Pak, Ung Kyu. "George Whitefield's Preaching on the New Birth in American Evangelicalism." 『성경과 신학』 35 (2004): 224-53.
- Park, Tae-Hyeun. "The Whole World is My Parish: A Study of the Preaching of George Whitefield(1714-1770)." Theologische Universiteit te Apeldoorn, Dcrtoraal Scriptie. (1998).
- Perkins, William. *The Arte of prophecyng*. in *The Works of that Famous and Worthy Minister of Christ in the Universities of Cambridge, Mr. William Perkins*. vol. 1.
- Sibbes, Richard. *The Works of Richard Sibbes*. Alexander B. Grosart. ed. 7 vols. 1862-64. rep. Edinburgh/Carlisle: The Banner of Truth Trust, 1973.
- Tyerman, L. *The Life of The Reverend George Whitefield*. 2 vols. Azle: Need of The Times Publishers, 초판 1876-1877, 1995.
- Whitefield, George. *George Whitefield's Journals*. Edinburgh/Carlie: The Banner of

Truth Trust, 1960.

박태현. '조오지 횃필드의 설교관: 성령의 사역의 관점에서.' 『성경과 신학』 72 (2014): 155-189.

박태현. '헤르만 바빙크의 설교 연구.' 『한국개혁신학』 71권 (2021):196-206.

박태현. '헤르만 바빙크의 기도.' in 안명준 편집. 『영적 거장들의 기도』. 남양주: 홀리북클럽, 2021: 471-482.

박태현. '헤르만 바빙크의 첫 번째 설교문이자 유일한 유작 설교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요일 5:4b).' 『신학지남』 84(3) (2017): 139-173.

[논평]

박태현 교수의
“헤르만 바빙크(Herman Bavinck)의
『웅변술』에 담긴 설교학적 함의”에 관한 논평



이승진 교수(합신대)

1. 연구 배경

발제자 박태현 교수는 한국의 신학계와 기독교계에 화란의 대표적인 개혁주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교의학 I-IV』을 번역 소개하였다.⁸⁴⁾ 뿐만 아니라 헤르만 바빙크의 설교학을 집중 분석하고 연구하여 소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⁸⁵⁾ 그러나 발제자에 의하면 헤르만 바빙크가 “설교 전달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강연한 『웅변술』은 지금까지 엄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바빙크의 『웅변술』에 담긴 설교학적인 함의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는 설교학적인 의의가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발제자는 바빙크의 『웅변술』 내용을 설교학의 관점에서 엄밀하게 분석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서, 『웅변술』의 특징을 분석하고 바빙크의 웅변술에 담긴 설교학적인 가치와 아울러 한국교회 설교자들에 제공하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연구논문의 본문, II장에서 발제자는 웅변술의 원리(2.1)와, 웅변술의 본질(2.2), 그리고 웅변술의 형식(2.3)을 깊이 탐구하였다. 이어서 끝으로 웅변술의 특징(3장)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2. 바빙크 웅변술의 본질과 현대적인 시사점

먼저 웅변술의 원리(2.1)와 관련하여 바빙크에 의하면, “참된 웅변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두 종류가 필요하다. 하나는 강력한 감정의 상태, 감동 받은 정서, 감명 받은 마음이며, 다른 하나는 이것을 표현하려는 억제할 수 없는 충동이다”. 발제자에 의하면 이 두 가지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 받은 마음과 이것을 표현하려는 억제할 수 없는 충동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한다. 바빙크에 의하면 우리를 감동케

84) 헤르만 바빙크, 박태현 역 『개혁교의학 I-IV』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1).

85) 박태현, ‘헤르만 바빙크의 설교 연구’, 『한국개혁신학』 71권 (2021), 196-206.

하시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모든 고상한 삶, 학문과 예술의 원천이며, 또한 참된 웅변술의 원리이다. 웅변술의 근본 원리가 설교자에게 공급된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나타남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바빙크는 하나님의 은사로서의 웅변술을 강조하지만 그와 동시에 기술로서의 웅변술 역시 인정한다.

둘째로 바빙크는 웅변술의 본질(2.2)을 “말의 능력을 통해 사람들의 지성에 확신을 주고, 정서에 감동을 주며, 의지에 설득력 있게 영향을 끼치는 기술에 의해 연마된 은사”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바빙크에게 있어서 모든 웅변술은 본질적으로 세 가지, 즉 지정의(知情意)에 상응하는 논증, 묘사, 설득으로 구성된다. 바빙크는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달리 말하자면, 설교자의 말이 청중에게 감동적인 하나님 말씀 선포의 웅변으로 들려지려면 반드시 설교자의 전인(全人)으로부터 나와야 하며, 그의 형상과 모양을 지녀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의 전인, 즉 지성과 마음과 의지를 거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웅변술의 형식(2.3)과 관련하여 바빙크는 단 하나의 모델을 채택하기보다는 각 사람이 자신만의 고유한 웅변을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또한 바빙크는 우리 정신을 보편적으로 형성하고 개화시키는 우리 세대의 최고의 사람들과 매우 광범하고도 친밀하게 교제할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① 매일 성경을 읽으며, 선지자들과 사도들, 특히 주 예수와 교제하고, ②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우리 문명의 발전과 기초를 형성했던 풍성한 문화를 소유한 고대 민족들과 교제하며, ③ 우리 민족과 주변 국가들의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정신들과 교제하고, ④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의 영역에 속한 개화된 이들과 교제하고, 무엇보다도 보석 같은 아름다움과 은혜의 비밀을 맡은 남녀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다.

발제자는 바빙크의 『웅변술』 특징을 다음 다섯 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 바빙크의 『웅변술』은 철저하게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서술되고 전개된다. 둘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의 목회자로서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되려면, 바빙크가 서문에서 밝히듯이, 최소한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① 우리는 교회의 회집이 갖는 신적 독특성, 즉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만나시는 모임으로서 세상의 그 어떤 모임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②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적 독특성을 기억함으로써 성경을 잘 아는 대가가 될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아는 대가가 되어야 한다. ③ 설교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하기 위해 말의 은사를 계발하고 훈련하여 언어에 통달해야 한다.

셋째, 바빙크는 웅변술의 원리로서 만물과 피조세계의 근원이 하나님의 살아 있는 인격적 말씀이라고 강조한다. 넷째, 바빙크는 웅변술의 본질이 사람의 전인, 즉 지정의에 상응하는 바, 논증(지식), 묘사(정서), 설득(의지)라고 바르게 지적한다. 다섯째,

웅변술의 형식, 즉 전달과 관련하여 바빙크는 좋은 전달이란 연설가의 인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지적한다.

발제자는 끝으로 바빙크의 『웅변술』로부터 오늘날 21세기 한국교회 설교 갱신을 위하여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설교적 함의와 시사점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① 한국교회 설교자는 교회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하는 능력과 권위를 확신해야 한다. ② 참된 웅변을 위해서는 ‘온전한’ 사람, 즉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어야 한다. ③ 웅변은 하나님의 은사로서 설교자에게 각각 주어져 있기에, 다른 사람을 모방하고 흉내낼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존재가 되어야 하며, 동시에 자신의 은사를 계발하고 훈련해야 한다. ④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고자 하는 설교자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⑤ 복음 설교자는 웅변의 형식적 요소들, 즉 언어적, 비언어적 요소들에 깊은 관심을 갖고 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목소리가 영혼의 정서를 반영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눈의 언어가 말보다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3. 후속 연구

헤르만 바빙크는 『개혁교의학』을 저술한 조직신학자답게 하나님 말씀 선포의 신적인 차원과 인간적인 차원을 신율적인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통합하였다. 그러나 바빙크의 웅변술에서 “설교 형식”에 관한 주제 부분에 좀 더 설교학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첫째는 전통적인 강해설교에 관한 연구가 장르별 강해설교로 발전하면서 성경 본문의 고유한 장르 형식을 (역동적 등가성을 확보한) 설교 형식으로 가져오려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본문의 유기적 영감 형식(교차 맺구법이나 대조-암시-모순의 틀 의미론)을 어떻게 설교 형식으로 되살려낼 것인가 하는 질문이다. 현대 강해설교의 고민 중의 하나는, 성경 본문의 내용과 형식의 역동성을 그대로 설교 내용과 설교 형식으로 선포하는 설교의 역동적 등가성(dynamic equivalence)에 관한 것이다. 토마스 롱 박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성경의 내용과 형식은 강해설교에서 단순히 내용으로만 들어올 부분이 아니라 그대로 설교 내용과 형식으로 역동적 등가성의 차원에서 전환해야 할 성경 본문 의미의 역동성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20세기 이후에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 실천신학과 설교학의 관점에서 바빙크의 설교 형식을 되짚어 볼 때 프레드 크래독의 귀납적 설교 형식이나 유진 로우리의 내러티브 설교 형식, 또는 데이빗 버트릭의 현상학적 설교 형식들을 어느 정도로 개혁주의 설교 형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21세기 북미권의 기독교 교회나 한국교회 설교 현장에서 개혁주의 신앙고백에서 벗어난 기복주의 설교, 심리적 평안을 위로하려는 설교, 실용주의 설교, 알미니안 설

교가 득세하고 있는 반면에, 성경 본문을 강해하는 설교, 2천년 개혁파 교회가 신앙 고백의 유산으로 물려준 교리를 성경 본문에 관한 엄밀한 주해를 통해서 선포하는 설교 메시지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

구원의 순서와 관련하여 바빙크는 다음과 같이 교훈하고 있다.

“기독교적 입장에서 은혜의 모든 유익들은 완전히 그리고 오로지 그리스도에 의해 획득되었고, 따라서 그 유익들은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교회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인간 편에서 아무것도 덧붙여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완수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유익들은 모두 언약의 유익들이며, 언약의 길에서 획득된 것이며, 또한 동일한 언약의 길에서 나뉘었기 때문에, 이 유익들에 참여하는 것은 오직 그 유익들을 언약의 중보자로서 획득하고 적용했던 그리스도의 인격과의 교제에 참여하는 길밖에 없다. 은혜언약, 신비적 연합, 그리스도의 자기 교회에 대한 전가와 교회의 그리스도에 대한 전가, 이 모든 것은 영원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시간 속에서 제일 먼저 객관적으로 자기 교회를 위해 그리고 그 교회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 지낸 바 되고, 부활하여 영화롭게 된 그리스도의 인격 가운데 실현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교회에 준 것은 이런 의미에서 또한 교회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수용하는 것보다 선행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에 의해 획득되고 그리스도의 소유인 성령, 중생의 은혜, 믿음의 은사를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밖에서 회개하거나 성령에 의하여 거듭나고 믿음을 받은 후,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그리스도의 의를 받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에 의해 의롭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⁸⁶⁾

논평자가 성경적인 강해설교를 목적으로 성경 본문을 주해하고 본문의 영적인 교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크게 깨달은 것이 있다. 첫째는 본문의 문학적 맥락이 성경의 감동 안에서 유기적인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본문의 유기적인 맥락이 설교 내용 뿐만 아니라 설교 형식으로 그대로 되살려지도록 설교의 형식과 구성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성경 본문을 주해한 다음에 그 본문의 영적 교훈을 도출하고 영적 원리로 전환할 때 도르트 신조의 5가지 항목을 기준삼아서 영적 원리로 전환하는 것(principalisation)이 매우 중요하다.

86) 헤르만 바빙크, 박태현 역 『개혁교의학 III』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1), 738.

중인 모티프로 본 요한계시록 설교를 위한 제언: 기독교론과 교회론을 중심으로



이우제 교수(백석대)

I. 들어가는 글

‘고정관념을 넘어서면 요한계시록이 보인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는 말인가? 이에 대하여 다양한 답이 제시 될 수 있겠지만, 본 논문의 주제에 한정하여 말한다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기존의 통념인 “종말론”으로만 접근하려는 태도라 할 수 있다. 요한계시록을 종말론으로만 보려는 편협한 태도가 그동안 요한계시록 해석과 설교가 올바른 궤도를 벗어나 탈선 하게 만든 주범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물론 요한계시록이 ‘음녀 바벨론’으로 대변되는 세상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승리를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종말론적 관점’으로 현실을 살아가게 한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종말과 관련이 있는 책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알고 싶은 종말에 대한 호기심에 대하여 속 시원하게 답해주거나,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사건과 징조들에 대한 일정표를 제시하는 있는 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 온 것처럼 ‘종말론’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오히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비전을 제시하는 책이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의 핵심을 포인트레스 (Vern Poytress)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비전을 제시하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를 완성하실 것이다.”¹⁾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비전을 말하는 책으로 고려되지 않은 채, 불건전한 종말론에 근거한 요한계시록의 해석과 설교로 인하여, 반쪽짜리 종말신앙을 양산케 한 것이 사실이다. 한국교회 안에 요한계시록을 통해 종말론이 강조될수록 진정한 종말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이다. 종말론 일변도의 요한계시록 접근은 말씀을 듣는 회중들을 두려움과 공포로 질질케 했다. 요

1) Vern Poytress, *The Returning King: A Guide of the Book of Revelation*, 유상섭 역, 『요한계시록 맥 잡기』 (경기: 크리스찬 출판사, 2002), 3.

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도를 지나쳐 ‘미신적 두려움’으로 나아가게 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미신적 두려움은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이 맺어야 하는 건강한 관계를 ‘역기능적인 관계’로 전락시키는 우를 범하게 만들었다. “건강한 신-인 관계는 사랑 혹은 존중에 의해 동기부여 되고, (관계가 갖는 본질에 따라) 순종 혹은 상호복종을 특징지어진다. 이와 반대로 역기능적인 신-인 관계는 두려움 혹은 필요에 의해 동기부여 되고, 무시 또는 기껏해야 무미건조한 임무수행으로 특징지어진다.”²⁾ 종말론에 근거한 이러한 미신적 두려움과 그로 인한 하나님과의 역기능적 관계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구해내야 할 사명이 설교자들에게 부여되어 있다. 우리가 가야 할 자리는 원래 요한 계시록이 담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의 관점을 통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다시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승리의 비전이 어떻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계 7:9)에게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에 먼저 참여하게 된 신앙공동체를 통하여서가 될 것이다.³⁾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성취해 가시는 방법은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신실한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을 통해서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으로 읽고 해석해야 할 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사역에 동참케 하는 “선교문서”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용성 교수는 요한계시록을 종말론의 틀에서 벗어나 “열방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선교문헌”으로 접근해야 할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요한계시록을 그저 “종말론으로 접근하는 해석은 계시록의 근본 메시지를 오도할 가능성이 크다.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 24:14)고 말씀하신다. 계시록은 교회로 하여금 예수님의 약속이 실현되도록 신실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촉구하는 책이다...계시록은 아브라함의 약속(창 12장)을 성취하고, 열방이 시온으로 순례하는 종말을 그리는 이사야의 예언(사 2:1-5:11:1-6)을 성취하려는 선교문헌이다.”⁴⁾정용성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나라의 완성을 위해 교회에 부여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언하는 사역에 동참 할

2) John Walton, *Old Testament Theology for Christians*, 왕희광 역, 『교회를 위한 구약성서 신학』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2), 105.

3) Walton은 영적인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예로서 영적 이스라엘인 신앙공동체인 교회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부르심과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아브람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데 동의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의 역할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셨기 때문은 아니다. 이 장면에서 구원을 핵심적인 요소가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하나님이 기획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조건에 따라 세워지는 관계이자 구약 성서의 맥락에서 실현가능한 형태의 관계)를 맺기 위해 선택받은 자들이며,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만방에 전파하기 위한 도구로서 선택받은 자들이다(“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 12:3)”, John Walton, 『교회를 위한 구약성서 신학』 195.

4) 정용성, 『요한계시록 강의: 선교와 저항』 (서울: 흥성사, 2018), 15.

것을 요청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성취하는 사역이 기독교론을 기반⁵⁾으로 한 교회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비전을 성취하시는 참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면에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승리를 드러내는 ‘기독교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해야 한다. 또한 예수님이 성취하셨고, 지금도 완성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수혜자이자 동시에 전달자로 부르심을 받은 대상자들은 바로 신앙공동체이다. 이렇게 볼 때, 요한계시록에서는 ‘기독교론’에 기초한 ‘교회론’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기독교론과 교회론 (혹은 ‘기독교적 교회론’)을 중심으로 증인 모티프를 살피고, 그에 따른 설교적인 함의와 제안들을 논의하는데 있다.⁶⁾

II. 펴는 글

1. 기독교론과 교회론으로 본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

이미 상술했듯이 요한계시록은 일반 선입견으로 인식해 온 종말론이 아니다. 설사 백보 양보해서 종말론이라고 해도 요한계시록 안에는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종말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말해 주고 있지 않다. 비록 요한계시록이 종말이라는 포장지에 싸여 있다고 해도 그 포장지를 뜯고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종말에 대한 치열한 논의 보다는 예수님과 그의 교회의 이야기가 핵심 골자를 이루고 있음을 알게 된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성취하고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이야기와 그 성취와 완성, 혹은 이미(already)와 아직(not yet)사이에서 증인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신앙공동체의 사명과 승리 이야기를 밝히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1) 예수님의 승리에 근거한 교회의 승리가 중심주제인 이유:

왜 예수님의 승리에 기초한 교회의 선교적 사명과 승리를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을까?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당대의 역사적 배경과 기록 시점과 연관된 자리⁷⁾가 무엇

5) 성경에 대한 기독교론적인 관점의 설교를 위해서는 이우제, “Sidney Greidanus의 설교 연구”,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복음과 실천신학』 제 27권(2013.5): 335-62 과 김대혁, “Timothy Keller의 설교를 위한 그리스도 중심적, 삼중적 관점의 해석학 연구”,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복음과 실천신학』, 제 34권 (2015.2): 9-50을 보라.

6) 여기서 분명히 밝혀 둘 것은 요한계시록을 선교적인 책으로 보려는 시도가 기존에 있는 선교적 성경 해석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선교적 교회 운동을 강력히 지지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모든 성경을 관통하는 해석학적 프리즘과 내용은 선교적이다. 그들은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중심 주제와 핵심이 선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필자는 선교가 성경 전체를 이끌고 가는 가장 강력한 핵심 주제라고 보다는 성경 (특히 요한계시록) 여러 주제들 가운데 하나로 보려고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이였는지를 알면 쉽게 이해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기록 연대가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 견해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⁸⁾ 하나는 전통적인 입장으로 요한계시록을 도미티안 황제의 통치하던 시기인 A.D 95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본다. 많은 학자들은 도미티안 통치시기에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이에 불 복종하는 것으로 교회에 엄청난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소위 말해서 “도미티안 가설”이다. 도미티안 가설에 대하여 스코트 루이스(Scott Lewis)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가 전해 받은 지식은 이 책이 도미티안(Domitian)의 통치 중, 주후 95년경에 기록되었다고 주장한다. 도미티안은 폭정, 괴상하고 잔인한 행동, 신성의 요구로 유명했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은 로마에게 혹독한 박해를 당하고 있는, 또 황제를 숭배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믿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하였다고 했다.”⁹⁾ 또 다른 입장은 도미티안 가설에 대한 반대 주장을 피력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을 초기 네로 재임 기간설로 이해하거나, 박해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를 위한 교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의문시되었다. 레오나드 톰슨(Leonard Thompson)과 다른 사람들의 연구는 요한계시록의 의도가 이 박해 받는 사람들을 격려하려는 것이었는가 아니면 현 상태에서 지나치게 편안하고 타협적인 사람들을 일깨우려는 것이었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했다...톰슨은 도미티안 및 그의 통치와 연관이 있는 로마의 역사 기술과 연설을 분석함으로써 오랫동안 인정받던 견해를 재평가했다. 그는 도미티안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들은 중립적인 관찰자들의 손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후의 황제들의 정치적이고 선전적인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또 그는 도미티안이 주와 하나님(dominus et deus)의 칭호를 주장했다는 것 또는 그가 신적인 명예를 얻는 데에 몰두한 미친 폭군이였다는 것을 의심한다.”¹⁰⁾

그렇다면 도미티안 가설에 대한 찬-반 양론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도미티안 가설도 완벽한 것일 수 없기에 반대 의견이 충분히 개진 될 수 있지만, 이 때 중요한 판단의 기준은 너무 빠른 말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이에 대하여 뭐라고 증언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의 내증이 제일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외증은 도미티안 시대에 박해가 있었다는 것과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함께 공존하고 있기에, 한쪽 편의 외증을 통하여 반대편의 주장을 틀린 것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여 성경 내증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성경이 도미티안 때 박해가 있었다고 직접적인 언급을 하고 있

7) 요한계시록이 선교적 자리를 알기 위해서는 이철규, “요한계시록의 증인에 대한 해석과 설교적 함의: 요한계시록 11:3-13절을 중심으로” 『신학과 사회』 33(3) 2019, 4-11을 보라.

8) 요한계시록의 저술 시기와 관련한 배경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한다면, Scott M. Lewis, *What Are They Saying about New Testament Apocalyptic*, 김병모 역, 『최근 신약 묵시 사상 연구 동향』 (서울: CLC, 2012), 85-102를 보라.

9) Scott M. Lewis, 『최근 신약 묵시 사상 연구 동향』, 85.

10) Scott M. Lewis, 『최근 신약 묵시 사상 연구 동향』, 85.

지 않다는 점이다. 단지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누구에 의해서 가해진 것인지를 몰라도, 어떤 거대한 박해가 있었다는 것만은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특히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저자 요한과 그의 신앙 공동체는 핍박과 박해의 상황 속에 있었다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밧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저술할 때, 밧모 섬에 있었다고 증언한다. 밧모 섬에 휴양삼아 방문하여 요한계시록을 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인하여 밧모 섬에 유배 중이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 요한만이 아니라, 그의 형제들로 대변되는 신앙공동체인 교회도 역시 환난의 자리에 처해 있다. 요한이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복음 증거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다면, 그것이 도미티안 때 있었던 박해인지를 확인할 수 없지만, 적어도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박해가 없다는 주장이 지지 될 근거는 더 희박해 보인다. 어차피 확정된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이라면, 그 다음으로 개연성이 높은 견해를 따를 필요가 있다. 도미티안 가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더 확실한 가설이 나오기 전까지 도미티안 가설을 지지하는 입장에 서는 것은 그리 어리석은 선택은 아닐 것이다. “계시의존 사색”¹¹⁾에 걸맞은 선택은 지금까지로서는 도미티안 가설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세운 교수는 요한계시록의 역사적 배경을 도미티안 가설 위에서 다음과 같이 개진하고 있다.

요한계시록은 주후 90년대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의 황제 숭배 강요와 핍박의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황화하여(contextualize)선포한 것입니다. 계시록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선 계시록의 신학이 굉장히 상황적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계시록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역시 당시 로마 제국의 상황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그 근거에는 로마 권력에 대한 비판의 정신이 깔려 있습니다. 당시 로마제국은 한편으로는 군사적인 정복으로 확립된 황제의 강력한 정치적 독재를,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풍요라는 Pax Romana(로마의 평화)를 통치 이데올로기의 두 기둥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두 중요한 상징들인 ‘짐승’과 ‘바벨론의 음녀’는 그러한 로마의 양면으로 묘사합니다.¹²⁾

번 포이트레스 교수도 역시 요한계시록의 내적 증거와 가장 어울리는 견해가 도미티안 가설임을 매우 단호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도미티안 시대에 박해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개연성이 있다. 이 시기는 계시록에 묘사된 상황과 가장 일치한다.”¹³⁾ 이들의 주장처럼, 도미티안 가설이 요한계시록의 올바른 배경이라면, 왜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승전가”¹⁴⁾를 부르는 것에

11) 이 표현을 박윤선 박사에게서 차용해 왔음을 밝혀둔다.

12) 김세운, 『신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성서 유니온, 2008), 202.

13) Vern Poythress, 『요한계시록 맥 잡기』, 54.

14) 여기 사용한 “하나님 백성의 승전가”라는 표현은 이상명, 민종기, 박일룡, 송병주, 『요한계시록, 하나

집중하고 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 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성도들의 직면하고 있는 삶의 자리는 로마의 서슬 푸른 칼날 앞에서 엄습해 오는 위협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기에, 예수그리스도 승리 안에서 교회가 이미 승리하였고, 마침내 최종적인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확인시킬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주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인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의 서두에서부터 강조되고 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1:1)로 시작하고 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표제이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한 계시인지, 예수를 그리스도를 내용으로 하는 계시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¹⁵⁾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풀어야 하는 책이라는 것만은 분명하다. 요한계시록을 오해하여 종말의 신비를 푸는 비밀문서처럼 취급하지 않도록 하려고 표제를 예수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못 박고 있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1장 서두에서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의 때와는 확연히 다르게 영광스럽게 높아지신 분으로 소개되어져 있다. 요한계시록 “1:13-15절은 부활 승천하시어 하늘에서 높은 자리에 앉으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의 모습을 묘사한다.”¹⁶⁾ 예수님이 승리하신 분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승리하신 예수님은 이어지는 1:16-20절의 말씀 속에서 교회의 주관자로 제시되고 있다. 승리하신 예수님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를 승리로 인도하시는 교회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이다. 이필찬의 설명처럼, “1:16-20은 교회론적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16절에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오른손에 ‘일곱 별’을 가지고 계시며 요한이 12절에서 보았던 ‘일곱 금 촛대’사이를 다니신다. 그리고 20절에서 일곱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며, 일곱 금 촛대는 일곱 교회를 가리킨다. 물론 일곱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를 가리키지만, 요한은 완전한 숫자로서 일곱을 채택함으로써 또 다른 의도를 갖는다. 그것은 이 일곱 교회를 통해 교회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¹⁷⁾

이러한 주장에 조금 더 첨언을 한다면, 승귀하신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은 온갖 시련과 박해 속에 있는 교회와 함께 하시어 교회를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세우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려는 목적지는 그들을 진정한 ‘일곱 교회’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일곱으로 상징되는 온전함의 자리로 인도하시려는 것이다. 사도바울의 설명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신부이신 교회를 예수님의 영광을 따라서 흠과 티가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려는 것이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엡

님 백성의 승전가』(서울: 성서 유니온, 2019)에서 가져온 것임을 밝혀 둔다.

15) Vern Poythress, 『요한계시록 맥 잡기』, 71.

16) 이필찬,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서울: 성서 유니온, 2019), 59.

17) 이필찬,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 61.

5:27).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전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 설정을 해주는 1장 서두에서부터 예수님의 승리로 교회를 승리케 하실 것을 증거 하시는 이유는 교회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박해적 상황을 상대화시키고, 예수님의 승리와 그 분 안에 있는 교회의 승리를 절대화시키려는데 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운명과 목표가 절대화 될 때, 교회는 박해적 상황에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그 현실을 넘어서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극심한 도미티안의 박해 속에서도 그렇게 승리하는 교회로 일어서야 하고, 반드시 일어설 수 있음을 확신시키는 것으로 위로와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물론 위로와 소망만을 주지는 않으신다. 그 승리에 대한 확신 속에서 증언의 사명을 다할 것을 권면하기도 하시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 챕터 (3장)에서 하게 될 것이다.

2) 요한계시록의 중심주제인 예수님의 승리 & 교회의 승리 (계 17: 14)

요한계시록 서두에서 제시한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교회를 지키시는 모습에 대한 가장 분명한 선포에 해당하는 말씀이 계 17:14절이 될 것이다. 이 구절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주제 성구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만큼 요한계시록을 중심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내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¹⁸⁾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양을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도다.”

이 본문에서 “그들”로 대변되는 짐승과 열 뿔의 세력인 그 당대의 전체적인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두 번에 걸쳐 이김에 선포하고 있다. 요한계시록이 다름 아닌 승리의 책인 것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다. 여기 두 번의 이김은 먼저 기독교론의 관점에서 어린양 예수의 이기심을, 다음으로 교회론의 관점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의 승리이다.

(1) 기독교론의 관점에서 본 어린양의 승리:

악의 세력과의 전투에서 먼저 승리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흥미로운 대목은 예수님을 어린양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이다. 요한계시록 안에서 예수님을 지칭하는 핵심적 칭호가 어린양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종말의 프로그램을 다루고 있는 책이기 보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어린양은 기본적으로 그 분의 속죄사역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은 복음이다. 성경의 나머지 65권이 복음이라고 66번째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도 복음이어야 한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경을 통해 복음을 강조하면서도 유독 66번째 책만은

18) 요한계시록의 중심주제로서 계 17:14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이우제, 『삶을 위한 요한계시록 강해 1』 (서울: 세상 바로 보기, 2021), 17-21을 보라.

복음의 영역에서 제외시키는 우를 범한 것이 사실이다. 요한계시록을 종말론 특강을 다루는 별책부록처럼 취급해 왔기에 요한계시록을 복음으로 보려는 시도조차도 하지 못하고 만 것이다. 그러나 성경의 통일성을 고려해 본다면, 요한계시록도 역시 복음이어야만 한다. 이우제의 주장처럼, “요한계시록은 나머지 65권의 성경과 다른 새로운 사상이나 개념이 아니다. 성경의 다른 책이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라면 계시록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메시지이다. 요한계시록을 종말론으로 풀어가는 것은 반쪽짜리 진리이다. 요한계시록은 복음으로 읽고 이해해야만 한다.”¹⁹⁾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인 것을 여실히 입증하는 것은 어린양 예수의 표현일 것이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어린양은 공관복음에서처럼 십자가를 묵묵히 지시는 연약한 존재가 아닌 영광스러운 어린양이다. 이러한 점이 17:14절에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그들(악의 세력)이 어린양과 전투를 벌이겠지만, 어린양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하는 분이 아니라,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다. 어린양의 이미지와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의 이미지는 모순되는 듯 보이지만 함께 멋진 공존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복음이 최소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요약될 수 있다면, 십자가는 어린양으로, 부활은 만왕의 왕/만주의 주와 연결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어린양)의 사역을 부활의 관점(만왕의 왕, 만주의 주)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부활의 관점에서 바라본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다. 오히려 진정한 승리로 나아가는 첫 관문으로 지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교회론의 관점에서 본 신앙 공동체의 승리:

계속해서 17:14절에서 악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신앙공동체의 승리를 선언한다. 승리하게 되는 신앙공동체인 교회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먼저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교회는 자신들의 의, 공로, 행함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이기는 자가 된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것은 모두 수동태를 쓰고 있다. 교회가 주님을 부르고 택한 것이 아니다. 주님에 의해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승리는 자질이나 자격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²⁰⁾

또 한 가지 승리하는 교회에 대한 설명은 진실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NIV 성경을 이것을 “faithful followers”(신실한 추종자들)라고 쓰고 있다. 또한 유진 피터슨도 메시지 성경에서 이에 대하여 “충성된 주님의 병사들로 승리할 것이다.”의역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 “진실한 자들도 승리하라”는 말씀은 그저 하나님의 베풀어주시는 은혜만이 아니라 은혜 안에 강한 자들로 서서 분투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앙 공동

19) 이우제, 『삶을 위한 요한계시록 강해 1』, 25.

20) 이우제, 『삶을 위한 요한계시록 강해 1』, 20.

체인 교회의 승리가 ‘자질’이나 ‘자격’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세’가 없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자질은 없어도 되지만 반드시 자세는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논리로 말해 보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롬 1:17). 여기 “믿음에서”라는 것은 전적인 은혜로 가능한 것이라면 한다면, “믿음에”라는 것은 은혜를 기반으로 한 행함을 포함하고 있다.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를 따라 분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한수는 설명에 따르면, 전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는 출발점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고, 후자는 하나님의 의가 베풀어지는 목표로서 사람이 반응하는 믿음이다.²¹⁾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을 입은 교회는 이제 신실함의 자세를 견지하며 끝까지 분투하는 것을 통하여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진실한 자로 이긴다는 것은 거짓된 “영광의 신학”을 거절하고, 끝까지 “십자가 신학”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어린양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것으로 승리 할 수 있고, 또한 승리 해야만 한다고 권면하는 것이다.

2. 기독교에 기초한 교회론을 중심으로 본 증인 모티프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안에서 기독교론과 교회론은 원인과 결과처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번 장의 논의의 중심 초점은 기독교론에 기초한 교회론으로 바라본 증인 모티프에 대하여 살펴보는데 있다. 이필찬에 따르면 요한계시록의 전체를 하나의 중심 관점으로 엮어 본다면, 일관된 흐름을 형성하는 주제는 단연코 “교회론”이다. 그런데 교회가 자생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회론의 토대는 기독교론이다. 교회론을 강조하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시종일관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²²⁾ 기독교론적인 사역을 통하여 교회의 탄생과 교회의 사역의 내용과 방향성이 제시되고 되고 있다. 그렇다면 기독교론적 사역을 통한 교회론적 사역의 골자는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신앙공동체인 교회가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요한계시록 안에 핵심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증인 혹은 증인모티프는 충성된 증인을 묘사하는 이름을 거명하고 있는 등장인물을 제시하는 것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충성된 증인이신 첫 번째 등장인물은 예수님 자신이다 (1:5; 참조. 3:14). 이 예수님을 따라서 충성된 증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바로

21) 이한수,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서울: 이레서원, 2008), 153.

22) 계시록 안에서 기독교론적 사역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1:5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와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와 같은 문구에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며, 5:6에서 예수님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양으로 묘사되고, 5:9-10에서는 어린양의 피로 사람들 들을 사신 대속 사역이 언급된다.” 이필찬,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 369.

‘요한’과 ‘안디바’이다. 요한은 충성된 증인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것으로 인하여 밧모에 유배되었다(1:9). 또한 버가모 교회에 관한 메시지 가운데 소개되어져 있는 안디바는 예수님에 의해 “내 충성된 증인”으로 불리고 있다 (2:13). 안디바가 요한계시록 안에 유일하게 이름이 기록된 순교자이지만, 실상 그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다. 그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순교의 길을 걸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제프리 와이마(Jeffrey A. D. Weima)의 말처럼, 여기 안디바라는 등장인물의 이름을 제시하는 이유는 그의 인간적인 행적이나 업적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안디바를 “내 충성된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것이다. 이 칭호가 이미 언급했듯이 예수님에게 붙여진 것으로, 안디바의 그리스도와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안디바도 역시 예수님처럼 “복음의 진리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신실하게 증언했다는 것이다.”²³⁾

이제 본 챕터에서는 먼저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님을 다룰 것이다. 이어서 충성된 증인인 요한과 안디바처럼 예수님의 신실한 증인의 길을 따라가려는 사람들의 증인공동체의 사명을 10-11:13절(두 번째 막간 혹은 삽입의 섹션)의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려고 한다.

1) 증언 모티프, 하나: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교회가 가야할 신실한 증인의 길을 앞서 걸어가신 분이시다. 요한계시록의 서두에 있는 인사말에서 예수님을 다름 아닌 충성된 증인이라는 호칭으로 부르고 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상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 1:4-6)

증인에 해당하는 단어 말투스(martus)가 후에 순교자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보아,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님은 다름 아닌 자신이 증거 하는 말이 참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그리고 자신이 성취해야 할 사명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 던질 수 있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²⁴⁾ 이러한 예수님의 충성된 모습은 요한계시록 안에서 13장 1-10절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인 바다짐승의 정체와 극명한 대조 점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적그리스도인 바다짐승의 정체는 ‘신실함’ 내지는 ‘충성됨’과는 거리가 먼 허풍 치는 자기 확대를 일삼는 존재이다. 거짓된 공약을 남발하고,

23) Jeffrey A. D. Weima, *The Sermons to the Seven Churches of Revelation*, 전성현 역, 『요한계시록에 가면』 (서울: 도서출판 학영, 2022), 178.

24) 이상웅, 『개혁파 종말론의 관점에서 본 요한계시록』, (서울: 목양, 2015), 43.

마치 자신에게 복종하면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것을 다 얻게 해 줄 것을 약속하는 거짓된 세력이다. 이에 반해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과장하거나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지 않는 신실한 증인이다.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메시지 가운데 계 3:14절에서는 예수님을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한 교훈에 유독 충성되고 신실한 증인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유에 대하여 스캇 듀발(J. S. Duvall)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실하지 못한 증인들과 대조를 이룬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이 세상의 가치와 시각에 동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뿐 아니라 그 진리를 전할 뿐 아니라 그 진리를 삶으로 보여준다.”²⁵⁾

요한계시록 가운데 이러한 충성된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은 그가 죽임을 당하는 자로 자신을 희생하는 장면에서이다.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조차도 아랑곳하지 않고 신실한 증인의 길을 걸어가는 장면은 5장에서 잘 소개되고 있다. 4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5장에서는 하늘 보좌의 광경을 설명하고 있다. 4장의 하늘 보좌에서 요한은 하나님과 천상의 무리들을 본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그의 눈에 포착되지 않는다. 예수님을 두리번거리며 찾고 있는 요한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이번에도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안팎으로 쓰여진 책이다. 그 때 절망적인 소리가 들린다. 그 책이 열릴 수 없다는 것이다. 책이 열릴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요한은 크게 슬퍼한다. 요한이 비통해 할 때, 이제는 너무도 기쁜 소식이 들린다. “장로 중의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5:5). 뿔 듯이 기쁜 소리를 듣고, 요한은 드디어 유대지파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 되신 예수님을 보고자 한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그의 눈에 들어온 예수님은 승리한 사자가 아니라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양이다. 왜 승리의 사자가 아니라 죽임을 당한 흔적이 있는 어린양이 서 계신 것인지 어안이 병병해 하던 요한은 고민 끝에 두 단어를 이렇게 연결하게 된다. “어린양의 길을 지나 사자로.”²⁶⁾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시는 대속적 희생을 통하여 부활의 승리로 나아가시는 것으로 자신에게 부여된 원대한 과업을 성취하셨음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으로 어린양의 길을 지나 사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힘과 권력을 통한 세속적인 방식으로 아니라, 지는 것으로 이기는 역설적인 방식으로 승리해야함을 분명히 말씀 하는 것이다.

2) 증언 모티프, 둘: 막간(10-11:13)에서 제시된 증인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사명:

요한계시록은 신실한 증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증인들의 공동체로서 교회

25) J. Scott Duvall, *The Heart of Revelation: Understanding the 10 Essential Themes of the Bible's Final Book*, 홍수연 역, 『요한계시록의 심장』 (서울: 새물결 플러스, 2020), 195.

26) 이우제, 『삶을 위한 요한계시록 강해 1』, 161.

의 선교적 사명을 강조하는 책이다. 특히 교회의 선교적 사명에 대하여 요한계시록의 그 어떤 다른 본문들보다도 10-11:13절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증인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사명을 논하는 10-11:13절은 구조적으로 보면, 요한계시록의 본론(6-16장)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일곱 재앙 시리즈 가운데 있는 ‘두 번째 막간’에 해당한다. 일곱 재앙 시리즈는 인 재앙, 나팔 재앙, 그리고 대접재앙이다. 그런데 인-나팔-대접의 일곱 재앙 시리즈는 단순히 세상에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만을 말하려는 의도로만 제시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과 함께 재앙과 진노의 시대 속에 있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⁷⁾ 첫 번째 막간은 6장의 여섯 가지 인 재앙들과 8장에서 시작되는 일곱 번째 인 재앙(8:1-5)에 있는 7장으로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안전’을 제시한다. 재앙의 시대에 교회가 박해와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코 그 진노와 심판의 대상은 결코 아님을 확신시키려는 의도에서 첫 번째 막간은 주로 인침 받은 144000의 보호(7:1-8)와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의 승리와 천상적 영광(7:9-17)의 메시지를 통하여 교회를 위로하고 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나팔 재앙(8-9장)과 대접 재앙(15-16장) 사이에 있는 두 번째 막간은 10-11:13절로서는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다루고 있다. 재앙의 시대 속에 첫 번째 막간을 통하여 ‘교회의 안전’을 확신했다면, 이제 두 번째 막간을 통해서도 교회의 사명을 분명히 제안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사명이란 두말 할 것도 없이 10장이 말하는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다시 나아가서, 11장에서 제시하는 두 증인의 사역을 펼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요한계시록의 핵심에 해당하는 본론(body)의 부분은 하나님의 진노가 인 재앙-나팔 재앙-대접 재앙의 형태로 세상에 철저히 쏟아 부어지는 있는 상황 가운데서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 받은 자들이라는 정체성을 굳건히 붙잡고 충성된 증인으로 신실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권면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구조적인(막간의)배치를 통하여 요한계시록이 무엇보다도 강조하는 것이 증인의 공동체를 통한 증인의 사역임을 확인케 하는 것이다.²⁸⁾

3) 증인 모티프, 셋: 증인의 정체와 사명 그리고 표지(특성)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10-11:13절의 막간에 해당하는 교회의 사명의 섹션을 통해 증인의 정체, 증인의 사명 그리고 증인의 표지 내지는 특성에 대해 논의해 보려고 한다.

(1) 증인의 정체:

증인의 정체는 11장에서 “두 증인”으로 소개되고 있다. 두 증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27) 목회와 신학 편집부, 『요한계시록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서울: 두란노, 2008), 325.

28) 요한계시록 10-11장의 막간에 대한 이해에 근거한 설교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Cornish R. Rogers & Joseph R. Jeter, *Preaching Thought Apocalypse: Sermons from Revelation* (St. Louis: Chalice Press, 1992), 106-118을 보라.

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를 피력한다. “역사상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던 두 명의 한 짝을 이루는 인물들, 예를 들면 모세와 엘리야, 베드로와 바울 같은 이들을 의미한다는 주장이 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두 요소, 예를 들어 율법과 복음, 구약과 신약 같은 것을 의미한다는 해석도 있다. 많은 세대주의자들은 두 증인을 마지막 때에 복음 증거를 위해 미래에 출현하는 두 사람을 이해한다.”²⁹⁾

그러나 두 증인은 말 그대로 말씀을 증언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교회를 상징한다면 왜 둘인가? 둘은 법정에서 어떤 증언을 채택하려고 할 때, 법적인 최소단위이기 때문이다.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 18:20). 11장 4절에서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한다. 먼저 ‘두 감람나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유대 총독인 스룹바벨이다. 이들은 성전에서 기름을 공급하는 사역을 담당하는 것으로 성령의 사역(성령의 부음)과 관련이 깊다. 또한 ‘두 촛대’는 세상에서 빛을 발해야 하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과 교회를 상징한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두 증인은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시대의 교회 공동체를 말한다.³⁰⁾ 요한계시록에서 성령은 “선교의 영(missional Spirit)이므로, 교회는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선교의 영을 충만하신 예수님께서도 충성된 증인이시다(행 10:38; 계 1:5; 3:14; 22:20 참조). 덧붙여 스가랴 4장에서 촛대는 하나뿐이지만, 계시록 11장에는 두 촛대가 등장하여 제사장 나라로 부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신약에서 더 확장됨을 강조한다.”³¹⁾

(2) 증인의 사명:

두 증인에게 부여된 사명은 10장11절에서 분명히 밝히듯이 다시 가서 예언하는 것이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의 뜻을 예측하며 말한다는 뜻의 ‘foretelling’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기신 말씀을 대언한다는 뜻의 ‘forth-telling’이라고 할 수 있다. 예언(豫言)이 아니라 예언(預言)을 말한다. 김상훈 교수의 설명처럼, “예언은 계시된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증언이라는 말과 호환하여 쓰일 수 있다. 계시록에서 증언과 예언은 같은 맥락의 말씀이다(19:10). 예언한다는 것은,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것을 의미한다. 요한의 역할을 증언하고 예언하는 것이다. 그가 듣고 본 계시의 말씀을 많은 이들에게 드러내는 것이다.”³²⁾ 증인으로 증언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로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나 또한 증인은 말로만이 아니라, 전 존재와 삶으

29) 목회와 신학 편집부, 『요한계시록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342.

30) 이상웅, 『개혁파 종말론의 관점에서 본 요한계시록』, 345.

31) 송영목, 『요한계시록 주석』 (서울:SFC 출판사, 2023), 354.

32) 김상훈, 『한국 신약 해설 주석 15B 요한계시록 7:1-22:21』 (서울: 감은사, 2022), 140-141.

로 증언하는 사람들이다. 11장에서 그려지고 있는 두 증인은 죽기까지 헌신하는 자리까지 자신을 내어주는 존재임을 알 수 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11:7). 짐승에 의하여 두 증인은 순교의 자리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두 증인이 자신들의 목숨을 바치는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나긴 시간 동안 일상의 자리에서 ‘생활 순교’를 해 왔기에 가능한 것이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증인의 사역에 대하여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그들의 사명의 자리는 꼭 대단한 사역을 펼치기 위해 해외 선교지나 복음의 오지로 나아가는 전문 선교사들의 일로 한정지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포기할 수 없는 삶의 일상적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포함해야만 한다. 요한계시록에서 권면하는 선교적 사명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 깊이 연결된 사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리처드 보컴(R. Bauckham)의 말을 들어보자. 그에 따르면, 두 증인은 “전형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지는 않지만,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지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증거 자체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³³⁾

또한 증인의 사역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을 살펴보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책을 먹고 가야만 한다(10:9-10). 책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내면화’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두 증인이 두루마리 책을 먹자 입에 꿀같이 달았지만, 배에는 몹시도 쓰게 되었다는 것은 말씀을 전하여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사역이 힘들기에 말씀의 단맛을 본 사람만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다. “문맥을 고려하면, 단 맛, 곧 구원은 두 증인의 증거와 순교(계11:7 참고)라는 쓴맛을 통하여 성취되며, 심판은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된 결과이다. 말씀의 단 맛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회복적 정의를 기대하면서 생명력 있게 말씀을 선포하고 교육하여 결실하게 된다.”³⁴⁾

책을 먹고 누리게 된 복음의 단맛과 함께 11장에서 두 증인 순교의 자리까지 신실하게 충성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시대의 교회가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3) 증인의 표지 (특성)

증인의 표지 내지는 특징은 이미 여러 번 밝힌 것처럼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1장의 두 증인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과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여

33) R. Bauckham, *The Theology of the Book of Revelation*, 요한계시록의 신학, 이필찬 역 (서울: 한들 출판사, 2000), 178.

34) 송영목, 『요한계시록 주석』, 338.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방치 되는데, 거기에 놀라운 오버랩 기법이 사용되어진다.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한 곳이 큰 성인데, 그곳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곳으로 연결 짓고 있다. 두 증인의 죽음이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님의 전형을 따르고 있음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다. 계속해서 죽임을 당한 두 증인이 삼일 반 만에 살아나는 것을 통해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십자가)의 길만이 아니라 부활과 승천의 길도 따르게 되는 것을 알게 한다.³⁵⁾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증인 공동체로서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저 선교 사역을 위해 분투하고 몸부림친다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이미 성취된 예수님의 승리(십자가 사역을 통한) 안에서, 최종적인 승리(부활과 승천으로 대변되는)를 확신하는 가운데, 충성된 증인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면에서 증인의 싸움은 ‘이기기 위한 싸움’만이 아니라 ‘이겨논 싸움’인 셈이다.³⁶⁾

4) 증언 모티프, 넷: 증인 사역의 결과

증인의 사역의 결과는 세상이 하늘의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 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십분의 일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은 칠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13절). 요한계시록 안에서 그 어떤 진노와 심판이 세상에 쏟아져도 세상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런데 두 증인의 희생과 죽음을 불사하고 나아가는 사역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광경을 목도하게 된다.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에 대하여 ‘진정한 회심’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이것을 진정한 회심이라고 보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대조적인 표현방식과 부합한다고 본다. 김상훈 교수의 설명에 귀 기울려 보자. 요한계시록 안에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음을 뜻하는 것이다 (9:20-21; 16:9). 이에 반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회심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³⁷⁾ 이러한 증언 사역의 결과가 주는 함의는 세상의 회개³⁸⁾를 위한 가장 강력한 방법이 선교임을 분명히 한다. 열매 맺는 복음 사역의 관건은 교회가 복음 증거 사역에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된 증인으로 설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35) 이필찬,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성서 유니온, 2019), 186-187.

36) J. Scott Duvall, 『요한계시록의 심장』, 196. 그는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인간의 능력이나 힘을 의지한다면-그것이 군사적인 것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정치적인 것이든, 종교적인 것이든 간에-우리는 처음부터 지면서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는 봉사, 희생, 기도, 용서,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기 등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세속적인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려는 시도를 경계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그 방법은 실패하고 만다.”고 주장한다.

37) 김상훈, 『한국 신약 해설 주석 15B 요한계시록 7:1-22:21』, 177.

38) 두 증인의 사역을 회개라는 관점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오우성, 『요한계시록 이야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3), 129-136을 보라. 오우성은 두 번째 막간 10-11:14절의 소제목을 “회개의 권고”로 잡고 있는 것이 흥미롭다.

두 증인의 이야기는...점점 악해지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신다는 것이다. 흔히 심판을 통해 벌하면 세상이 회개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앞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회개하지 않는다...그들이 두렵고 떨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죽을 각오로 오직 복음을 증거 하는 것뿐이다. 왜 그럴까? 세상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교회가 그토록 충성하며 헌신하는지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가능케 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 두려워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악한 세상에 통할 수 있는 가장 미련한(?) 방법이다.³⁹⁾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서 말하면, 교회의 복음증거 사역의 롤 모델은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따르는 증인의 사역을 밝히는 두 번째 막간(10-11:13절)에서는 증인들이 예수님처럼 고난과 죽음 길을 가지만, 끝내 이르게 되는 국면은 부활과 승천이다. 그 결과 내지는 열매로 세상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분명히 밝히신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을 관통하는 중심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패역한 세상의 회개를 위하여 교회여! 일어나라”는 권면으로 집약될 것이다.

3. 증언 모티프에 중점을 둔 요한계시록 설교를 위한 제언

요한계시록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제대로 설교하는 길에 절대적인 토대가 되는 것을 맞지만, 요한계시록에 바른 이해가 언제나 삶을 변화시키는 설교⁴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설교적인 방향성에 대한 모색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요한계시록이 증인의 책이라고 할 때, 어떻게 증언 모티프를 담아내는 설교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될 것이다.

1) 신실한 증인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증언 모티프 설교

증언 모티프에서 드러나듯이 우리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으로 승리하셨다. 그러기에 기독교론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이 승리를 부각시키는 설교가 요구되어진다. 통상 요한계시록하면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방향으로 제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 기존의 방식에 따른 요한계시록 설교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종말에 대한 모종의 두려움을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신실한 증인으로 승리하시어 쫓대 사이에 계시며 교회를 지키시고 신자들로 하여금 그 어떤 역경과 환난의 자리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의 희망과 그 분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 안전을 제시하는 설교가 시급하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의 증언 모티프에 근거한 요한계시록 설교가 값싼 은혜의 길을

39) 이필찬,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 195-6.

40) 삶을 변화시키는 요한계시록 설교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에 대하여, 이우제, “삶을 변화시키는 요한계시록 설교를 위한 고찰: 목회자, 신학자, 시인으로서의 설교자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복음과 실천신학』, 41집 (2016): 169-210과 조성현, “요한계시록 설교하기 이해와 실제,” *JSRT* 19 (2019): 142-171을 보라.

제시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값싼 승리”가 아니라 “값진 승리”를 이루신 분이시다.⁴¹⁾ 그 분이 충성된 증인으로 어린양의 길을 지나서 부활하시는 것으로 악의 세력을 이기셨다. 그렇게 값진 승리를 거두셨기에 그의 자녀들의 어려움을 아시고, 그들을 친히 도우실 수 있다. 이러한 예수님의 승리로 인하여 신자된 우리는 더 이상 ‘미래의 사건’에 집중하기 보다는 ‘미래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지’를 집중하는 것으로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위로를 얻을 수 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의 주권적인 손 안에 있는 미래라면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평안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이다.⁴²⁾

2) 신앙 공동체의 선교적 사명을 강조하는 증언 모티프 설교

신앙공동체인 교회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두말할 것도 없이 ‘선교적 사명’이다. 이러한 선교적 사명은 크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민족을 향한 언약의 성취라고 할 수 있다. 존 월튼 (J. Walton)은 영적인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선택과 사명의 핵심은 단지 구원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구원 그 이상을 위한 것이다. “이 장면에서 구원은 핵심적인 요소가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하나님이 기획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조건에 따라 세워지는 관계이자 구약성서의 맥락에서 실현가능한 형태의 관계)를 맺기 위해 선택 받은 자들이며,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만방에 전파하기 위한 도구로서 선택받은 자들이다(“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 12:3).”⁴³⁾

영적인 조상 아브라함의 후예로서 신앙 공동체에게 부여된 사명도 단지 개개인의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너무 협소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이다. 안용성은 한국 교회가 단지 영혼 구원에만 집중하는 것을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라고 명명하면서, 그 한계를 지적한다. 십자가 속죄의 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고작 미래에 있는 심판의 법정에서 무죄 판정을 받아 지옥의 형벌을 피하는 것이다. 천국 입성이 목표가 되는 것이다. 십자가 속죄의 복음의 한계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되심 속에서 살아가는 영역이 실종되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 속죄의 복음에 대한 대안으로 그가 제시하는 것은 “십자가 속량의 복음”인 것이다.⁴⁴⁾ 속량은 노예 시장의 그림을 상기 시키며, 속전을 주고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새 주인의 통치를 받게 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전의 주인 밑에서 살던 삶의 가치를 버리고 새로운 주인을 섬기며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야만 한다.⁴⁵⁾ 그 새로운 주인이 요구하는 삶의 질서 가운데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사역이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선교 공동체인 교회가 전하는 복음은 세상을

41) 이우제, 『삶을 위한 요한계시록 강해 1』, 20-21.

42) 이우제, 『삶을 위한 요한계시록 강해 1』, 24.

43) Walton, 『교회를 위한 구약성서 신학』, 144.

44) 안용성, 『로마서와 하나님 나라』 (서울: 새 물결플러스, 2019), 227-230을 보라.

45) 안용성은 이를 “파라오의 질서”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의 통치로 옮겨오는 것이라는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다. 안용성, 『로마서와 하나님 나라』, 324.

살리는 “대안적인 음성”(alternative voice)이다. 그 대안적 음성으로만 세상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기에 대안적 음성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인 교회를 다르게 말하면 “대안 공동체”(alternative community)라고 할 수 있다. 복음의 진정한 능력을 상실한 작금에 한국 교회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대안 공동체의 차별화된 존재와 사명을 전하는 설교가 절실히 요구되어진다.

더 나아가 대안공동체가 나아가는 여정은 안락하고 평탄한 길이 아니다. 증인들이 다시 가야하는 자리가 세상에 있는 패역한 백성, 나라, 방언 그리고 임금이기에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작업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11장에서 그것이 현실이 되었다. 두 증인이 무저갱에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다. 희생 없이 구원의 역사는 펼쳐질 수 없다. 그러나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과 승천이 두 증인의 궁극적인 운명이다. 그러기에 증언 모티프에 따른 요한계시록의 설교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승리(부활)의 관점에서 고난(십자가)을 바라보게 하는 설교가 되어야 할 것이다.

3) 교회의 차별화된 삶을 강조하는 증언 모티프 설교

교회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분명 예수에 관해 말하는 것이지만, 이는 또한 예수를 닮은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과 행동은 비행기의 두 날개와도 같다. 둘 다 필수적이란 말이다.”⁴⁶⁾같은 맥락에서 고먼(Gorman)도 역시 요한계시록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온 몸으로 실천하는 증인의 삶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요한계시록은 무엇보다 해부해야 할 책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야 할 책이다. 그것은 저항 문학의 본질이다. 그리스도인의 저항은 전쟁과도 같다, 이는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수동적인 저항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으로 하는 능동적 저항이다. 이런 저항은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맹세하는 공동체와 개인을 형성함으로써 이루어진다...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이가 어린 양을 따르는 것이요, 현재와 미래에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생명에 영원히 참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영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공동체는 복음을 전하기를, 즉 말과 행동으로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며(14:6) 다른 이들을 성도들의 사귄에 초대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선교적 영성을 제공한다.”⁴⁷⁾ 이렇게 한국교회 안에 회복되어야 할 증언 모티프를 중심으로 한 요한계시록 설교는 말만이 아니라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선교 공동체로서 교회는 대안 공동체 일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대항 문화적 공동체”(counter-cultural community)라고 할 수 있다. 대안 공동체가 세상에 유일한 희망의 답이 되는 공동체라는 의미를 부각시키는 것에 반해서, 대항 문화적 공동체라는 것은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더 강조

46) Duvall, 『요한계시록의 심장』, 210.

47) M. Gorman, *Reading Revelation Responsibly*, 박규태역, 『요한계시록 바르게 읽기』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4), 344-5.

하는 용어이다. 다르게 살아야 선교적 교회의 사명이 설득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세상이 교회를 거부해 하는 이유는 교회에 들어오는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서가 아니라, 교회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강력한 선교는 교회가 세상과는 다른 가치로, 다른 질서 속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드러낼 수 있을 때이다. 이에 대하여 마이클 고헨 (M. Goheen)은 하워드 패스킷과 비노스 라마찬드의 말을 인용하여, “선교는 본래 어디로 가는 것이나,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다. 선교는 존재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민족들 사이에서... 구별된 종류의 백성, 대항 문화적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라고 제대로 정곡을 찌르는 주장을 한다.⁴⁸⁾

4) 선교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하는 증언 모티프 설교

선교의 최종 목적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강조하는 두 번째 막간 (10-1:13)에서도 이 점을 13절에서 하이лай트로 제시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하여 끝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위하여 우리는 선교하고 또한 설교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 되어 따라와야 하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회개’이다. 요한계시록이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책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회개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라는 점이다. 이에 대한 증거로 예를 들면, 세상이 회개하지 않았다(9:20-21)는 것에 대한 내레이터의 진술이나, 인 나팔 대접의 재앙이 사분 일에서, 삼분의 일로, 그리고 전체적인 재앙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한꺼번에 몽땅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을 회개를 기다리시는 탕자의 아버지 같은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대목들에서 찾을 수 있다.

회개가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에게 회개가 없으면 나아가게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손쉽게 알게 된다. 회개가 없으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비워내지 못한다. 회개를 하지 않으면, 거짓된 포만감에 휩싸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극대화 시키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 그 때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짐승과 버리지의 형상으로 바꾸게 된다. 이에 반해서 회개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자기 자신의 정직한 민낯을 보게 된다. 올바른 자기 인식 가운데 자신의 심령적인 텅 빈을 발견하게 된다. 그 무엇으로도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없음을 인식하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구하는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이 유독 천상의 무리들의 경배와 찬송의 모습들을 곳곳에 배치하여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물론 그 예배는 공적 예배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를 포함하는 것이다. 암튼 회개를 통하

48) M. Goheen, “선교적 성경 읽기와 설교”, *Reading the Bible Missionally*, 백지운 역, 『선교적 성경 해석학』 (서울: IVP, 2016), 362.

여 이렇게 신실한 예배자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증언 모티프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설교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김추성 교수는 마리안 톰슨(Marianne M. Thompson)의 글을 인용하여 요한계시록의 중심주제로서 예배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신약 성경 중에서 요한계시록만큼 경배라는 주제를 뚜렷이 부각하는 책도 없을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어떤 책보다 경배에 관련된 용어와 이미지를 풍성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경배라는 주제는 요한계시록 전체의 목적과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보인다.”⁴⁹⁾ 회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예배와 같은 주제들을 계시록의 식단으로 짜서 제공해 준다면 그동안의 편식을 고치고, 균형 잡힌 영양이 공급되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III. 나가는 글

요한계시록이 종말과 관련이 있지만, 일반적인 종말론을 다루는 책이 아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이 주로 다루는 내용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에 관한 것이다. 그 이유는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아래 있는 교회를 향한 교훈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 때문일 것이다. 비록 환난과 핍박 속에 있지만,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교회의 승리가 확실한 이유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기반 위에서 있기 때문이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위에서 승리의 자리에 초대된 교회는 승리를 확신해야 하지만, 승리에 도취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교회의 승리는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를 위로하려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을 위한 것이다. 즉,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주님께 인도하는 신실한 증인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증인 공동체인 교회의 롤 모델도 역시 신실하신 증인(계 1:4-6)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따라 충성된 증인으로 교회는 예수님의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신앙공동체를 향한 선교 문서인 셈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한국교회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선교적 사명에 대한 선포를 간과한 한 것은 뼈아픈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바로 그동안 한국교회가 상실한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찾는 심정으로 기독교론과 교회론에 입각한 증언 모티프 설교의 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참된 증인 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10-11:13절의 막간을 중심으로 증인 공동체인 교회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또한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하여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요한계시록의 증언 모티프에 대한 설교의 방향성을 제시해보려고 시도하였다. 증언 모티프를 통한 요한계시록 설교의 진로와 방향성을 다

49) 김추성, 하나님의 어린양과 보좌 (서울: 이레서원, 2015), 72.

음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신실한 증인이신 예수님의 사역과 승리를 강조하는 설교, 증인 공동체인 교회의 사역을 부각시키는 설교, 증인의 삶을 강조하는 설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하는 설교이다.

아무쪼록 본 논문을 통하여 그동안 잘못된 오해되고 오용된 요한계시록 설교에 대한 새로운 연구에 작은 도화선이 마련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참고 문헌

- 김대혁. “Timothy Keller의 설교를 위한 그리스도 중심적, 삼중적 관점의 해석학 연구”,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복음과 실천신학』, 제 34권 (2015.2): 9-50.
- 김세운. 『신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성서 유니온, 2008.
- 김상훈. 『한국 신약 해설 주석 15B 요한계시록 7:1-22:21』. 서울: 감은사, 2022.
- 김추성. 하나님의 어린양과 보좌. 서울: 이레서원, 2015.
- 송영목. 『요한계시록 주석』. 서울:SFC 출판사, 2023.
- 정용성. 『요한계시록 강의: 선교와 저항』. 서울: 흥성사, 2018.
- 안용성. 『로마서와 하나님 나라』. 서울: 새 물결플러스, 2019.
- 이상웅. 『개혁과 종말론의 관점에서 본 요한계시록』. 서울: 목양, 2015.
- 이우제. “Sidney Greidanus의 설교 연구”,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복음과 실천신학』 제 27권 (2013.5): 335-62.
- 이우제. “삶을 변화시키는 요한계시록 설교를 위한 고찰: 목회자, 신학자, 시인으로서의 설교자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복음과 실천신학』, 41집 (2016): 169-210.
- 이우제. 『삶을 위한 요한계시록 강해 1』. 서울: 세상 바로 보기, 2021.
- 오우성. 『요한계시록 이야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3.
- 이철규. “요한계시록의 증인에 대한 해석과 설교적 함의: 요한계시록 11:3-13절을 중심으로” 『신학과 사회』 33(3) (2019): 4-11.
- 이필찬.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성서 유니온, 2019.
- Bauckham, R. The Theology of the Book of Revelation. 요한계시록의 신학. 이필찬 역. 서울: 한들출판사, 2000.
- Duvall, J. Scott. *The Heart of Revelation: Understanding the 10 Essential Themes of the Bible's Final Book*. 홍수연 역. 『요한계시록의 심장』. 서울: 새물결 플러스, 2020.
- Goheen, M. “선교적 성경 읽기와 설교”. *Reading the Bible Missionally*. 백지윤 역. 『선교적 성경해석학』. 서울: IVP, 2016.

- Gorman, M. *Reading Revelation Responsibly*. 박규태역. 『요한계시록 바르게 읽기』.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4.
- Lewis, Scott M. *What Are They Saying about New Testament Apocalyptic*. 김병모 역. 『최근 신약 묵시 사상 연구 동향』. 서울: CLC, 2012.
- Poythress, Vern. *The Returning King: A Guide of the Book of Revelation*. 유상섭 역. 『요한계시록 맥 잡기』. 경기: 크리스찬 출판사, 2002.
- Rogers, Cornish R. & Jeter, Joseph R. *Preaching Thought Apocalypse: Sermons from Revelation*. St. Louis: Chalice Press, 1992.
- Walton, John. *Old Testament Theology for Christians*. 왕희광 역. 『교회를 위한 구약성서 신학』.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2.
- Weima, Jeffrey A. D. *The Sermons to the Seven Churches of Revelation*. 전성현 역. 『요한계시록에 가면』. 서울: 도서 출판 학영, 2022.

[논평]

이우제 교수의

**“증인 모티프로 본 요한계시록 설교를 위한
제언: 기독교론과 교회론을 중심으로”**에 관한 논평



박성환 교수(성서대)

논평에 앞서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를 통해 귀한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오늘 이우제 박사께서 교회의 담임 사역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귀한 논문을 통해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자신의 설교학적 통찰력을 나눠주심에 감사드린다.

1. 논문의 내용

논문의 핵심 주제는 요한계시록을 일반적인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설교적 함의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론적 교회론을 중심으로 증인 모티브 관점에서 설교적 함의와 제안을 논하는데 있다. 물론, 논문은 전통적인 종말론적 관점에서의 요한계시록 해석을 무시하지 않는다. 단지 논문은 종말론적 관점보다 기독교론적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인 안목에서 이해할 때에 새로운 설교학적 통찰력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첫째, 논문은 종말론적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것이 한편으로 신학적 선입견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명과 승리 이야기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논문은 요한계시록의 역사적 배경에 관하여 간략히 기술한다. 그 후, 논문은 요한계시록의 역사적 배경에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예수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승리가 궁극적인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임을 주장하며 기독교론과 교회론적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분석한다.

둘째, 논문은 기독교론적 교회론을 중심으로 증인 모티브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그러면서 논문은 요한계시록에 증인 모티브로서,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증인 공동체로서의 교회, 두 증인으로 나타나는 증인의 정체성과 사명에 관하여 논한 후, 증인 사역의 결과로서 교회의 복음 증거 사역인 복음 전파에 있음을 강조한다.

셋째, 논문은 증인 모티브 중심으로 4 가지, '신실한 증인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증언 모티브 설교, 신앙 공동체의 선교적 사명을 강조하는 증언 모티브 설교, 교회의 차별화된 삶을 강조하는 증언 모티브 설교, 선교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하는 증언 모티브 설교를 요한계시록 설교를 위하여 제안한다.

논문은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는 선교적 사명을 간과한 채, 설교한 점을 지적하며, 요한계시록 설교에 관한 새로운 안목을 제안한다.

2. 논문의 공헌

1) 논문은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을 증언 모티브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한 후, 설교 방향성을 제시한 통찰력을 제시한다. 즉, 논문은 통상적인 종말론적 관점에서 벗어나 증인 모티브 관점에서 기독교적 교회론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공동체의 사명과 승리를 설교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2) 논문은 요한계시록을 실천신학적인 측면인 선교, 전도와 설교를 조화롭게 구성할 수 있는 적용가능한 설교를 제시한다.

3. 논문의 아쉬운 점, 질문

1) 논문의 아쉬운 점

(1) 논문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 라는 큰 주제 가운데 설교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그러나 논문은 설교적인 실재를 다룬 내용을 첨부해 준다면, 더 큰 실천신학적 유익이 될 것이다.

(2) 어떤 본문을 종말론적 관점에서 설교적 제안이 될 경우와, 논문이 제시하는 것처럼 기독교적 교회론적 관점에서 증인 모티브 중심으로 설교적 제안이 될 경우에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 샘플이 있으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2) 질문

(1)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경이다. 그런데 논문은 4 가지 증인 모티브 관점에서 설교할 것을 제안한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22장 전체가 모두 4가지 관점에서 설교된다면 설교 주제나 적용이 중복되지는 않을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을 4 가지 관점에서 모두 설교하는 것이 가능할까?

(2) 요한계시록 전체를 강해한다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

접이라는 상징적인 부분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내용상 종말론적 관점에서 중복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논문이 주장하는 바대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설교한다면, 새로운 주제와 적용이 가능할까?

(3) 논문이 증인 모티브 관점에서 설교적 제안을 했지만, 오히려 증인으로서의 설교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재해석하면 더 좋지 않을까?

4. 마무리

바쁜 교수 사역 가운데, 시간을 할애하여 자신의 통찰력을 깊이 있게 나눠주신 이우제 박사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리고 상반된 신학적 이견이나 기타 모든 부분들은 서로의 설교학적 통찰력을 성장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타로 카드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이해와 목회신학적 비평



김용민 교수(침신대)

I. 들어가는 글

타로카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문화현상 가운데 하나이다.¹⁾ 대중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타로카드에 노출되어 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타로카드를 체험하고 있다. 기독교인 역시 예외는 아니다. 직접 타로카드를 배워 영리행위를 하거나 타인을 돌보는 일을 하기도 하고 호기심으로, 재미로, 때로는 절박해서 타로카드 전문가를 찾아가기도 한다. 이런 상황은 상담영역에서도 다르지 않다. 상담사에 따라 타로카드를 금기시하기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상담에서 활용하기도 한다. 이런 사실은 목회신학자로서 단순히 타로카드를 금기시하거나 간과할 것이 아니라 타로카드에 대한 정당한 이해와 목회신학적 성찰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²⁾

타로카드를 금기시하는 이유는 주로 타로카드가 사용되는 방식 또는 영역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타로카드는 주로 점을 치거나 운세를 보는 등 무속인의 영역과 다르지 않다. 기독교인은 당연히 이런 타로카드에 대해 부정적일 수밖에 없으며,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자처하는 요즘 이러한 미신적 행위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타로카드는 인간의 불안한 심리를 타고 든다. 아무리 과학의 시대를 산다고 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불안은 제거될 수 없으며, 죽음이라는 현실을 넘어설 수는 없기 때문이다.

타로카드는 역사적으로 신비주의와 연결되어 있으며, 반대자들에 의해서 신빙성(타당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신비는 일반적으로 이성의 영역을 넘어서며 종교의 영역과 맞닿아 있다. 이러한 영역은 일반적으로 경험을 통해 증명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

1) 김만태, “타로 메이저 아르카나와 음양, 삼원의 상관성 고찰”, 『문화와 융합』, 제43권 4호 (2021): 916; 류정미, 박진희, “예술치료 개념을 도입한 한국형 타로카드의 개발”, 『문화와 예술연구』, 제9권 (2017): 173; 이현철, 진춘일, “타로카드의 이미지에 관한 지각원리 고찰: 게슈탈트의 지각원리를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2권 4호 (2020): 111.

2) ‘정당한 이해’는 타로카드에 대한 “단순한 이해나 선입견에서 벗어나” 타로카드를 “좀 더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을 가리킨다. 김용민, “교류분석에 대한 신학적 성찰”,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9권 (2010): 22.

은 일반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타로카드는 경험적으로 그 타당성을 인정 받고 있으며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 근거에는 심리학이 자리하고 있다. 타로카드는 단순히 신비주의의 산물이나 미신이 아니라 심리학적 현상이며, 심리학적 원리가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인간의 심리와 연결된 타로카드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타로카드에 대한 연구는 크게 네 가지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문학해석의 영역이다. 안중은과 최성우는 타로카드를 통해 T. S. 엘리엇(T. S. Eliot)의 『황무지』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고 있으며, 박인효는 장 니콜라스 아서 랭보(Jean Nicolas Arthur Rimbaud)의 『취한 배』에 대한 해석을 시도한다.³⁾ 둘째는 타로카드 해석 자체에 대한 것이다. 박희준은 예지의 측면에서 타로카드 해석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며, 김만태는 음양오행과 삼원을 통해서 타로해석에 접근하고 있다.⁴⁾ 셋째는 타로카드의 개발 및 디자인에 대한 것이다. 류정미와 박진희는 예술치료 개념을 도입해 한국형 타로카드를 개발했으며, 임두규와 임희경은 뷰티타로카드를 제작했고, 임두규는 뷰티타로카드의 만족도를 연구했다.⁵⁾ 또한 고설청과 오병근 그리고 최엘리사 등은 타로카드의 디자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⁶⁾ 넷째는 타로카드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이다. 이 영역에서는 성격유형과 타로카드에 대한 연구,⁷⁾ 심리학이론에 근거한 타로카드 해석 연구,⁸⁾ 투사적 심리검사로써 타로카드에 대한 연구⁹⁾ 등이 진행되었다. 현재 기독교 내에서 타로카드에 대한 연구는 진행된 바 없다.

-
- 3) 박인효, “랭보의 「취한 배」와 타로카드”, 『국제문화연구』, 제2-1집 (2009): 271-288; 안중은, “‘타로’카드: 『황무지』의 해석 기법”, 『영미어문학』, 제54호 (1998): 149-179; 최성우, “『황무지』 속 타로카드 해석과 한국어 번역”, 『T. S. 엘리엇 연구』, 제31권 3호 (2021): 199-231.
 - 4) 김만태, “타로 매이저 아르카나와 음양, 삼원의 상관성 고찰”, 『문화와 융합』, 제43권 4호 (2021): 915-942; 박희준, “미래예지와 「카모왕판 마르세이유 타로」”, 『한국정신과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제19권 (2003): 115-128; 박희준, “웰빙라이프와 ‘카모왕’ 타로카드”, 『한국정신과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제20권 (2004): 137-143.
 - 5) 류정미, 박진희, “예술치료 개념을 도입한 한국형 타로카드의 개발”, 『문화와 예술연구』, 제9권 (2017): 171-208; 임두규, 임희경, “매이저 타로카드 분석 및 뷰티타로카드 디자인제작 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9권 7호 (2018): 251-257; 임두규, “뷰티타로카드 관심과 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예술경영학회』, 제11권 4호 (2017): 39-52.
 - 6) 고설청, 오병근, “모던 타로카드 디자인의 기호분석”, 『한국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1권 (2022): 126-127; 최엘리사, 한양사이버 디자인 대학원, “시대적 변화에 따른 타로카드 디자인 재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리서치』, 1권 3호 (2016): 52-59.
 - 7) 박소현, 나혁진, “MBTI 성격유형과 타로 인물카드의 상관성 비교 연구”, 『산업진흥연구』, 8권 4호 (2023): 187-200; 정준범, “에니어그램의 성격유형과 타로카드의 성격유형에 대한 연구: 유니버설 웨이트 카로카드를 중심으로”, 『에니어그램연구』, 9권 2호 (2012): 159-188.
 - 8) 이현철, “타로카드에 대한 인식론적 연구: 라캉의 욕망이론을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제41권 6호 (2019): 1067-1098; 이현철, 진춘일, “타로카드의 이미지에 관한 지각원리 고찰: 게슈탈트의 지각원리를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2권 4호 (2020): 111-131; 최경희, “타로카드의 심리학적 적용에 대한 제언적 고찰”, 『인문사회21』, 제14권 1호 (2023): 3837-3848.
 - 9) 김운찬, “그림으로 이야기하기: 칼비노의 실험적 글쓰기”, 『외국문학연구』, 제44호 (2011): 9-28; 이현철, 진춘일, “‘상관적 사유’의 관점에서 본 타로의 ‘순서체계’에 관한 연구”, 『문화와 융합』, 제42권 10호 (2020): 999-1030.

본 연구의 목적은 타로카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토대로 타로카드의 해석과정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이해와 목회신학적 비평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타로카드의 기원과 역사, 구성, 해석방법을 살펴보고, 이어서 타로카드의 해석원리와 해석과정 그리고 해석방법을 분석심리학의 개념을 통해 다룬 후, 마지막으로 성서에 등장하는 제비뽑기와 목회현장에서 볼 수 있는 말씀카드뽑기 그리고 목회상담적 측면을 타로카드와의 관계 속에서 성찰하고자 한다.

II. 타로카드에 대한 이해

1. 기원과 역사

타로카드의 기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이 존재하지만 명확하게 규정되거나 검증된 것은 없다. 심지어 그 기원이 조작된 것이라고 밝혀지기도 했다.¹⁰⁾ 타로카드의 기원이 명확하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타로카드가 종이로 만들어진 소모품이고, 놀이나 점술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보존할만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지 못했기 때문이다.¹¹⁾

타로카드는 이집트 기원설, 인도 기원설, 유대교 기원설, 알비파 기원설이 대표적이다.¹²⁾ 이집트 기원설은 타로카드가 이집트 문명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십자가 원정 때 이집트에서 사용되던 점술용 힌트카드가 이집트 짐시들을 통해 유럽에 전파되었고, 이것이 타로카드의 원조가 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인도 기원설은 체스의 원조인 인도의 ‘차트랑가(chartranga)’가 타로카드의 원조라고 주장한다. 또한 시바(남신)와 샤크티(여신)가 합쳐진 ‘아르다나리(Ardhanari)’의 네 개의 팔이 지니고 있는 막대, 검, 링, 컵이 타로카드의 4원소의 상징으로 발전했다고 본다. 유대교 기원설은 토라(TORA)가 타로의 어원이라는 주장으로, 유대교 신비주의인 카발라의 생명의 나무(세피로트)를 반영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알비파 기원설은 12-13세기에 이원론과 영지주의를 바탕으로 프랑스에서 번성한 기독교이단인 알비파의 비침무니 문자가 타로카드의 기원이라는 주장이다. 이 가운데 가장 유력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이집트 기원설이다.¹³⁾

타로카드는 신탁용으로 왕에게만 전해지다가 귀족들에게 전파되어 놀이로 바뀌었으며 일반인들에게까지 이르렀다.¹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타로카드는 1392년에 프랑스의 왕 샤를 6세를 위해 자크맹 그랭고노(Jacquemin Gringonneur)가 만든 것이다.¹⁵⁾ 14-15세기 이탈리아의 비스콘티스포르자(Bisconti-Sforza) 카드는 “비스콘티

10) 김만태, “타로 메이저 아르카나와 음양, 삼원의 상관성 고찰”, 917.

11) 박희준, “미래예지와 ‘카모왕판 마르세이유 타로’”, 116.

12) 신종민, 『타로카드 비밀의 문』 (서울: 미래교육원, 2021), 12-14.

13) 안중은, “‘타로’ 카드: 『황무지』의 해석 기법”, 149-150.

14) 양경숙, 『타로분석심리학』 (서울: 지식과 감정, 2018), 13.

와 스프로자 가문의 혼인, 작위 수여식 등을 기념하기 위해” 총 60장의 텍으로 제작되었다.¹⁶⁾ 15세기의 마르세이유 카드는 본래 이탈리아의 타로카드이지만 프랑스의 이탈리아 침공 이후 프랑스로 유입되어 제작된 것이다.¹⁷⁾

타로카드가 점술용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후반 이후이다. 신비주의가 타로카드에 접목되면서 오컬트쪽으로 변형되었으며, 이로 인해 ‘악마의 도구’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¹⁸⁾ 이때 앙투안 쿠르 드 게블랭(Antoine Court de Gebelin)이 타로카드와 히브리문자의 일대일 대응관계를 처음으로 제시했고, 장바티스트 알리에트(Jean-Baptiste Alliette)는 주술적 목적으로 타로카드를 디자인해서 발행했다. 엘리파스 레비(Eliphas Levi)는 타로카드와 카발라와의 관계를 강조했다.¹⁹⁾

타로카드의 가장 완성된 형태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에 ‘황금새벽비밀교단(Hermetic Order of the Golden Dawn)’에 의해 제작되었다. 이들은 그때까지 흩어져 있던 타로카드에 대한 지식을 최대한 모아 라이더 웨이트(Rider-Waite) 카드와 토트(Thoth) 카드를 발행했다.²⁰⁾ 1909년 12월에 처음 발행된 라이더 웨이트 카드는 “가장 직관적이고 상징성이 풍부해서” 그 의미를 파악하기에 용이하고, 카발라적 사상을 견지하고 있으며, 주로 유대교와 기독교의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다.²¹⁾ 현재 타로카드는 웨이트 계열의 카드를 기준으로 정통카드와 현대카드로 구분한다.²²⁾ 라이더 웨이트 카드에 색깔을 입힌 것이 유니버설 웨이트 카드이며,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타로카드는 현재 8,000종이 넘는다. 계속해서 다른 형태의 타로카드가 만들어지고 있다.²³⁾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기이해와 변화를 위한 수단으로 변모하고 있다. 단순히 점을 치는 용도가 아니라 직관을 활용해 카드의 의미를 해석하고 자신이 처한 현재의 상황을 이해한다. 또한 결단을 통해 의미있는 행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²⁴⁾ 이 과정에서 타로카드는 자연스럽게 상담이나 코칭의 영역과 조우한다.

2. 구성

타로카드는 점성술, 카발라, 연금술, 수비학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점성술이 미친 영향은 미미하지만, 나머지는 비교적 크게 영향을 미쳤다.

15) 신종민, 『타로카드 비밀의 문』, 12.

16) 최옥환 외 11명, 『타로카드 상담전문가』 (서울: 해드림출판사, 2020), 13.

17) 최옥환 외 11명, 『타로카드 상담전문가』, 13.

18) Stefanie Caponi, 『가이드드 타로』, 손은혜 역 (서울: 페르아미카실렌타아루네, 2022), 13.

19) 김만태, “타로 메이저 아르카나와 음양, 삼원의 상관성 고찰”, 917-918.

20) 김만태, “타로 메이저 아르카나와 음양, 삼원의 상관성 고찰”, 918.

21) Caponi, 『가이드드 타로』, 13.

22) 최옥환 외 11명, 『타로카드 상담전문가』, 13-14.

23) 양경숙, 『타로분석심리학』, 15.

24) Caponi, 『가이드드 타로』, 10.

특히 수비학을 포함하고 있는 카발라는 라이더 웨이트 카드 이후 타로카드의 구성과 해석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다.

오늘날 대부분의 타로카드는 22장의 메이저 아르카나와 56장의 마이너 아르카나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아르카나(arcana)’는 라틴어 ‘arcanum(아르카눔)’의 복수형으로 ‘비밀’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타로카드 하나 하나는 각각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으며, 그러한 비밀이 타로카드의 “특유의 상징체계와 색채, 그림, 번호의 구성 등의 시각언어 속에” 감춰져 있다는 것이다.²⁵⁾ 그러나 라이더 웨이트 카드는 당시의 성차별적 요소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기도 한다.²⁶⁾

메이저 아르카나는 0번에서 21번으로 끝나는 22장의 트럼프 카드로 인생의 중요한 사건들을 발달적 측면에서 보여준다. 즉 인간의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그 안에 포괄하고 있다.²⁷⁾ 또한 메이저 아르카나는 기독교적 상징과 이교도적 상징을 포함하고 있다. 물론 여기서 기독교는 가톨릭적 요소를 주로 가리킨다. 어쨌든 이러한 사실은 타로카드가 기독교와 이교도적 요소를 결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²⁸⁾

마이너 아르카나는 인생의 중요한 장면보다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이나 상황을 보여준다. 마이너 아르카나는 펍(pip)카드와 궁정(court)카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펍 카드는 숫자카드, 궁정카드는 인물카드로 불리기도 한다. 펍카드는 컵(cups), 창(wands), 칼(swords), 동전(coins, pentangles, circles)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에서 10까지 번호가 매겨져 있다(40장). 흑자는 컵과 동전을 여근으로, 창과 칼을 남근으로 보기도 한다.²⁹⁾ 네 개의 펍카드마다 네 장의 코트카드가 있다. 코트카드는 시종(page), 기사(knight), 여왕(queen), 왕(king)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궁정에서의 서로 다른 신분을 보여준다(16장).³⁰⁾

타로카드는 각각의 카드를 통해 어떤 정보를 얻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각각의 카드는 키워드를 지니고 있고, 이 키워드를 알아야만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하나의 카드에 하나의 키워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³¹⁾ 또한 카드가 같아도 그림을 다르게 그리면 그 해석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타로카드는 구성도 중요하지만 그림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타로카드는 키워드와 그림이 해석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다.³²⁾

3. 해석방법과 과정

25) 박희준, “미래예지와 ‘카모왕판 마르세이유 타로’”, 118.

26) Caponi, 『가이드드 타로』, 11, 13.

27) 임두규, 임희경, “메이저 타로카드 분석 및 뷰티타로카드 디자인제작 연구”, 252.

28) 안중은, “‘타로’ 카드: 『황무지』의 해석 기법”, 151.

29) 안중은, “‘타로’ 카드: 『황무지』의 해석 기법”, 152.

30) Caponi, 『가이드드 타로』, 11.

31) 김동완, 『타로카드 완전정복』 (서울: 동학사, 2020), 11.

32) 김동완, 『타로카드 완전정복』, 11.

타로카드를 해석하는 방법과 과정은 다양하다. 이것은 상담자가 어떤 방식을 선택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그럼에도 일반적인 과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첫 번째 과정은 질문하기이다. 질문하기는 상담자가 질문하고 내담자가 답하는 일반적인 상담 과 달리 내담자가 질문하고 상담자가 답하는 형식이다.³³⁾ 그러나 상담자는 타로카드 라는 우회로를 통해서 내담자의 질문에 답하게 된다. 질문하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담 자의 질문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다.

두 번째 과정은 섞기와 커팅이다. 내담자의 질문이 끝나면, 상담자는 카드를 섞기 시작한다(shuffling). 이때 중요한 것은 내담자의 질문을 생각하면서 섞는 것이다.³⁴⁾ 카드를 충분히 섞었다면 이제 카드를 커팅(cutting)한다. 커팅은 충분히 섞은 카드를 두세 개의 더미로 나누어 내려놓고 다시 하나로 쌓아 올리는 과정을 가리킨다.³⁵⁾ 이 때 셔플링과 커팅은 상담자만의 작업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 내담자가 하기도 하고 상담자와 내담자가 함께 하기도 한다.

세 번째 과정은 뽑기와 배열이다(spread). 내담자는 상담자의 지시에 따라 카드를 뽑는다. 뽑기는 섞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커팅 후 부채꼴 모양으로 펼쳐 놓은 카드에서 뽑을 수도 있다.³⁶⁾ 뽑기에서 중요한 것은 오른손잡이는 왼손으로, 왼 손잡이는 오른손으로 카드를 뽑는 것이다. 그 이유는 평소 사용하지 않는 손을 사용 함으로써 직관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이다.³⁷⁾ 상담자는 내담자가 이렇게 뽑은 카 드를 이미 자신이 결정한 배열법에 따라 늘어놓는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내담 자가 카드를 보지 못하도록 뒤집어 놓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다음 카드를 뽑는데 내 담자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³⁸⁾

네 번째 과정은 뒤집기와 해석이다(reading). 상담자는 카드를 뒤집어 순서에 따라 해석한다. 이때 해석은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하나는 카드의 키워드를 통해 객관 적 해석을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림을 보며 직관적 해석하는 것이다.³⁹⁾ 이 가운데 많이 사용되는 방식은 첫 번째이다. 그러나 타로의 해석을 보다 풍성히 하기 위 해 후자도 함께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카드 이미지에 대한 내담자의 직관적 해석은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이상 두 가지 해석방법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스토리텔 링이다.⁴⁰⁾ 즉 객관적 해석이나 직관적 해석 모두 스토리텔링을 통해 해석의 줄거리를 구성하고 이해에 도달해야 한다.

다섯 번째 과정은 조언과 자기결정이다. 일반적으로 타로카드는 상담자가 주도권을 가진다. 그래서 상담자가 하는 조언은 내담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여

33) 최옥환 외 11명, 『타로카드 상담전문가』, 16-17.

34) 최옥환 외 11명, 『타로카드 상담전문가』, 17.

35) Caponi, 『가이드드 타로』, 20.

36) 최옥환 외 11명, 『타로카드 상담전문가』, 17.

37) Caponi, 『가이드드 타로』, 21.

38) Caponi, 『가이드드 타로』, 21.

39) Caponi, 『가이드드 타로』, 23.

40) 박민정, 『심리상담을 위한 타로카드 활용법』 (서울: 렛츠북, 2022), 35.

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상담자의 조언이 하향식이 아니며, 내담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형식으로 주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타로카드 해석의 마지막은 내담자의 자기결정이다. 최근 대부분의 타로카드 전문가들은 타로카드가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지 무엇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⁴¹⁾ 즉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내담자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⁴²⁾

III. 분석심리학적 이해

타로카드는 고유한 해석방법과 과정을 지니고 있지만, 그것이 왜 그런지,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런 해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단지 “전체에 부분이, 부분에 전체가 포함되어 있다”는 홀로그램이론, “부분이 전체와 닮은 자기 유사성 현상으로 타로카드 속에 우리 삶 전체가 녹아있다”는 프랙탈이론 그리고 융의 원형과 동시성이론 등을 근거로 삼고 있다고 말할 뿐이다.⁴³⁾ 여기서는 타로카드를 해석하는 과정과 원리를 분석심리학을 근거로 설명하고자 한다. 적용할 수 있는 분석심리학의 영역은 동시성이론, 원형과 무의식, 초월적 기능이다. 동시성이론은 타로카드를 해석하는 기본적인 과정과 원리를 설명할 수 있으며, 원형과 무의식은 타로카드 해석에 적용할 수 있고, 초월적 기능은 타로카드 해석의 마지막 단계인 내담자의 자기결정을 설명할 수 있다.

1. 동시성이론

동시성은 융(C. G. Jung)이 1930년 5월 10일 연설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동시성은 ‘비인과론적 일치현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융은 우연의 일치와 같은 현상을 동시성이론으로 설명하고자 했다.⁴⁴⁾ 융은 물질과 달리 정신은 시간적 공간적 한계가 없으며, 정신과 물질에는 의미있는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융은 정신현상과 물리현상 사이에 시간적 공간적 차이가 있음에도 의미있는 일치가 나타나는 사건들에 주목했다.⁴⁵⁾ 또한 융은 이것을 무의식의 작용으로 설명했다.⁴⁶⁾ 이러한 동시성이론은 이성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심리학적 시도라고 할 수 있으며, 목적론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1) 최옥환 외 11명, 『타로카드 상담전문가』, 18.

42) Caponi, 『가이드드 타로』, 23.

43) 최옥환 외 11명, 『타로카드 상담전문가』, 12.

44) 이부영, 『분석심리학: C. G. 융의 인간심성론』, 3판 (서울: 일조각, 2019), 338.

45) C. G. Jung, 『원형과 무의식』, 한국융연구원 C. 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역 (서울: 숲, 2003), 375, 381. 의미있는 일치는 투시나 텔레파시 등에도 나타나며, 동시성이론은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때 사용되기도한다.

46) 김성민, “C. G. 융의 동시성이론과 그 의미”, 『협성논총』, 3권 (1993): 58-59; 이부영, 『분석심리학』, 3판, 333.

동시성이론은 우연의 일치뿐만 아니라 미래예측을 설명하는 기능도 지니고 있다.⁴⁷⁾ 즉 동시성이론은 머리가 매우 아팠는데 알고보니 그 시간에 지인이 권총으로 자살을 했다거나 우연히 컵을 깬는데 시험에서 떨어졌다거나 하는 등의 현상을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증석에서 확인이 불가능하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사건이나 이에 대한 설명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흥미를 가지고 접근하기도 한다. 아마도 후자는 ‘현상’에 관심이 있으며, 이를 설명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응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응은 동시성현상을 세 가지 유형으로 제시했다. 첫째 유형은 관찰자의 정신상태나 내용이 ‘관찰자의 감지영역 안에서 동시에 일어난 외부사건과 일치’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일어난 사건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유형은 관찰자의 정신상태나 내용이 ‘관찰자의 감지영역 밖에서 동시에 일어난 외부사건과 일치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일어난 사건을 나중에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유형은 관찰자의 정신 상태나 내용에 상응하는 사건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나 ‘미래에 일어나는 일과 일치’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외부사건이 시간적으로 훨씬 거리를 두고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가 되어야 확인할 수 있다.⁴⁸⁾

위와 같은 동시성현상은 타로카드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내담자가 타로카드를 선택할 때 내담자의 심리상태와 선택한 카드가 일치하는 현상은 첫째 유형을 통해서 설명이 가능하다. 이 사건은 내담자의 감지영역 안에서 일어난다. 내담자가 선택한 카드와 현재 다른 곳에서 일어난 사건의 일치하는 둘째 유형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성사건이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확인은 불가능하다. 물론 오늘날은 다양한 도구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내담자가 선택한 카드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의 일치하는 셋째 유형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은 다른 현상과 달리 미래에만 확인이 가능하다.

2. 원형과 무의식

동시성이론이 타로카드를 해석하는 기본적인 과정과 원리는 설명할 수 있다면, 원형과 무의식은 타로카드 내용에 대한 해석 자체와 관련되어 있다. 타로카드는 다양한 상징과 그림을 통해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징과 그림을 해석하는데 원형과 무의식 개념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론 이것은 타로카드에 대한 본래적 해석이라기 보다는 후대에 이루어진 해석이지만, 타로카드를 상담에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처럼 등장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⁴⁹⁾

47) 동시성이론과 미래예측에 대한 연구는 다음을 보라. 이은봉, “주역과 동시성 이론” 『주역연구』, 1집(1996): 115-137; 신성수, “『주역』의 미래예측과 시공간 인식: 분석심리학의 동시성이론과 관련하여”, 『동방문화와 사상』, 1집(2016): 67-90.

48) Jung, 『원형과 무의식』, 375-376.

융이 말하는 원형은 “단순한 지적인 개념이 아니라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능력”이다.⁵⁰⁾ 원형은 ‘집단무의식을 구성’하고 있으며, 자아가 ‘통상적인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 또한 원형은 ‘태초로부터의 침전으로 이루어진 선형적 조건’으로 특정 민족이나 문화에 제한되지 않고 그 내용이 이미지로 나타난다.⁵¹⁾ 원형은 신화, 민담, 종교현상, 예술 등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타로에도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

융은 무의식을 개인무의식과 집단무의식으로 구분한다. 개인무의식은 한 사람이 태어나서 현재까지 겪은 일 가운데 기억나지 않는 것, 잊어버린 기억 모두를 가리킨다. 또한 개인무의식은 현실세계에 적합하지 않아 억압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인무의식은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가 말한 무의식의 영역이기는 하지만 성에 집중되기보다 더 폭넓은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융의 성격구조에서는 개인무의식은 주로 그림자를 가리킨다.⁵²⁾ 집단무의식은 인류의 경험과 지혜를 담고 있는 원형들로 구성되어 있다.⁵³⁾ 이러한 집단무의식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향하는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창조적 가능성을 열어준다.⁵⁴⁾ 집단무의식은 기본적으로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 이 자율성은 집단무의식이 억압될 때 보상작용을 통해 집단무의식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갑작스런 출현을 통해 개인에게 누미노제를 선사하기도 한다.⁵⁵⁾ 타로카드에는 이러한 집단무의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며, 보상작용을 일으켜 의식에 통합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타로카드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타로카드의 그림이나 상징이 융이 말하는 원형을 담지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타로카드를 통해 개인무의식과 집단무의식을 드러낼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심리적 투사이다. 타로카드가 원형을 담지하고 있고, 투사를 통해 개인무의식과 집단무의식을 드러내기 때문에 타로카드는 단순히 미래예측이 아닌 심리검사 도구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본다.⁵⁶⁾

3. 초월적 기능

동시성이론을 통해 타로카드 해석의 과정과 원리를 이해하고, 원형과 무의식을 통해 타로카드의 내용과 해석을 다루고, 이제 초월적 기능을 통해 타로카드 해석에서 내담자의 작용을 살펴볼 수 있다. 타로카드 해석에서 실제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49) 이와 관련해서 다음의 책을 참고하라. Atrhur Rosengarten, 『타로와 심리학: 가능성의 스펙트럼』, 이선화 역 (서울: 학지사, 2020); 양경숙, 『타로분석심리학』 (서울: 지식과 감성, 2018).

50) 이부영, 『분석심리학』, 3판, 114.

51) 이부영, 『분석심리학』, 3판, 114-118.

52) 이부영, 『분석심리학』, 3판, 83-84.

53) Jung, 『원형과 무의식』, 106.

54) 이부영, 『분석심리학』, 3판, 85.

55) 이부영, 『분석심리학』, 3판, 85.

56) 양경숙, 『타로분석심리학』, 18.

다. 내담자가 어떤 카드를 뽑았고, 상담자가 어떤 해석을 했는지도 중요하지만, 내담자가 이 해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결단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초월적 기능은 심리학적인 기능으로 무의식과 의식의 통합 또는 긴장을 통해 제3의 것을 형성하는 것을 가리킨다.⁵⁷⁾ 이것은 의식이 지니는 규정성과 정향성 그리고 더 나아가 일방성을 무의식이 보상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의식의 자아가 무의식의 내용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의 태도에서 제3의 다른 태도로 옮겨가는 것을 가리킨다.⁵⁸⁾ 융은 의미와 목적에 대한 질문이 초월적 기능의 기초가 된다고 주장한다.⁵⁹⁾ 자아는 초월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꿈이 아닌 다른 무의식적 자료가 필요하다.

초월적 기능은 무의식적 자료와 의식적 자료의 만남을 통해 시작된다.⁶⁰⁾ 이때 리비도의 특별한 내향화, 밤의 절대 정숙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며 비판적인 주의력은 차단되어야 한다(prefiguration). 다음 과정은 무의식의 내용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하거나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시도는 서로 다르지만 서로 보상한다. 예술적 형상화는 이해를, 이해는 예술적 형상화를 필요로 한다(configuration). 무의식을 내용을 형상화하고 형상화한 것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이제 자아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중요해진다. 이때가 바로 자아와 무의식의 만남이 이루어지며, 자아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이때 의식과 무의식의 차이, 관점의 대립이 긴장을 발생시키며 새로운 것을 탄생시킨다(defiguration/refiguration).⁶¹⁾

초월적 기능은 타로카드의 해석과정을 인도한다. 타로카드에 담긴 무의식의 내용을 해석과정을 통해 의식화하고, 이 과정에서 자아는 그것을 의식에 통합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3의 무엇(태도)을 만들어낸다. 특히 이 과정은 해석의 결과를 자기화하는 과정과 연결되어 있다. 해석의 결과를 의식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긴장을 경험하고 그 긴장 속에서 목적론적 질문을 통해 현재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은 리코르(Paul Ricoeur)의 삼중의 미메시스 개념과 유사하다.⁶²⁾

IV. 목회신학적 비평

타로카드는 지금까지 기술한 바와 같이 융의 동시성이론, 원형과 무의식 그리고 초월적 기능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타로카드가 이렇게 심리학적 설명이 가능하다고 해서 기독교적 긍정성을 얻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성서에 나타난 제비뽑기와 목회행위로서 말씀카드뽑기를 성찰할 수 있으며, 목회상담의 투사적 심리검

57) Jung, 『원형과 무의식』, 339.

58) Jung, 『원형과 무의식』, 339-345.

59) Jung, 『원형과 무의식』, 346. 목적론적 질문은 목적을 통해 현재를 보게 하고 결단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60) Jung, 『원형과 무의식』, 349.

61) Jung, 『원형과 무의식』, 356-365.

62) Paul Ricoeur, 『시간과 이야기 1』, 김한식, 이경래 역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5), 125-180.

사를 위한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다.

1. 제비뽑기

제비뽑기는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에 동시에 등장하는 중요한 행위 가운데 하나이다. 구약성서에서는 왕을 뽑는 수단(삼상 10:17-27), 범법자를 찾아내는 수단(수 7:1-26), 공동체의 동의를 위한 수단(삼상 23:1-5), 공동체의 질서를 위한 수단(삼상 14:24-46)으로 제비뽑기를 사용했다.⁶³⁾ 이것은 제비뽑기가 지닌 사회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신약성서에서는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기 위해서(눅 1:8-9),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갖기 위해서(마 27:35), 초대교회가 사도를 보충하기 위해서(행 1:21-22) 제비뽑기를 했다.⁶⁴⁾ 이 가운데 세 번째만이 교회에서 행한 유일한 역사적 사례이다.⁶⁵⁾

위의 사례에서 보면, 성서에서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개입, 공동체적 합의, 문제해결 기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민석은 제비뽑기를 ‘우연에의 의뢰’로 정의한다.⁶⁶⁾ 이때 제비를 뽑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전적인 믿음이 전제 된다.⁶⁷⁾ 이렇게 해서 우연에의 의뢰로서의 제비뽑기는 ‘신비한 것’이 되며, ‘신성이 개입되는 사건’이 된다.⁶⁸⁾ 박경미는 제비뽑기를 “신적인 평등이 구현되는 방식”으로 이해한다.⁶⁹⁾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정훈택은 사도행전의 제비뽑기가 ‘임시적 비상조치’였으며, 성령강림 이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전통으로 규정한다.⁷⁰⁾ 아미쉬는 목회자를 뽑기 위해 여전히 제비뽑기를 시행한다.⁷¹⁾ 그러나 교인 모두가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제비뽑기는 용이 말하는 동시성현상 가운데 하나이다. 뽑힌 제비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며, 다른 곳에서 일어난 일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반영한다. 제비뽑기는 그 자체로 하나의 원형이다. 제비뽑기는 신탁을 구하는 행위로서 성서 외에도 다양한 문화와 종교에서 발견된다. 제비뽑기는 인류의 집단무의식을 반영한다. 제비뽑기는 신탁을 구하기 위한 인류의 경험과 지혜가 축적된 집단무의식을 구성한다. 이것은 하나의 미신적 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지만, 집단무의식에 축적된 인류의 실천지(phronesis)

63) 박종수, “신탁의 사회학”, 『우원사상 논총』, 10권 (2001): 60-71.

64) 정훈택, “제비뽑기의 규범성”, 『신학지남』, 75권 2호 (2008): 185-186.

65) 정훈택, “제비뽑기의 규범성”, 181.

66) 기민석, “의회와 제비뽑기, 구약공동체의 갈등 중재 기제” 『구약논단』, 25권 4호 (2019): 97-98.

67) 권명중, “성경적 고찰을 통한 새로운 불확실성 측정방법에 대한 연구” 『OIKONOMOS』, 1권 2호 (2014): 16.

68) 기민석, “의회와 제비뽑기, 구약공동체의 갈등 중재 기제”, 97.

69) 박경미, “제비뽑기와 민주주의” 『기독교사상』, 701권 (2017): 153.

70) 정훈택, “제비뽑기의 규범성”, 189-193.

71) 이장형, “아미쉬 공동체의 윤리 분석: 기독교 종교성, 소비문화, 예배개신, 평화론 모색” 『기독교사회윤리』, 42집 (2018): 194.

이기도 하다. 또한 제비뽑기는 그 결과를 수용하는 방식을 통해 회중의 초월적 기능을 보여준다.

이상과 같이 제비뽑기는 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러한 사실은 제비뽑기를 단순히 미신적 행위로 간주하거나 금기시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목회신학적으로 제비뽑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러나 할 경우와 하지 않을 경우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만약 교회 공동체가 제비뽑기를 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결정을 우연에 맡기는 무책임한 행위가 되지 않도록 제비뽑기를 하나님의 신비와 개입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제비를 뽑는 것은 인간이지만 그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제로 행동해야 한다. 만약 교회공동체가 제비뽑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구성원은 모두 신자여야 하며, 모든 신자의 의견이 공정하게 반영되는 합리적인 절차가 있어야 하고, 모든 신자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성숙해야 한다.

2. 말씀카드뽑기

말씀카드뽑기는 송구영신예배를 기점으로 이루어지는 교회행습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말씀카드뽑기는 성서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굳이 찾았다면 제비뽑기와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다. 성서에서 제비를 뽑는 행위가 말씀카드를 뽑는 행위로 대체했다고 할 수 있다. 제비가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듯이 말씀카드가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비뽑기와 다른 점은 말씀카드뽑기가 연초에 1년의 운세를 보는 무속신앙의 점과 같은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즉 점을 보는 행위를 말씀카드를 뽑는 행위로 대체한 것이다. 말씀카드뽑기는 이렇게 성서의 제비뽑기와 무속신앙의 점을 결합해 놓은 형태를 지니고 있다.

제비뽑기와 마찬가지로 말씀카드뽑기도 분석심리학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말씀카드뽑기는 제비뽑기와 마찬가지로 뽑힌 말씀카드가 지금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며, 일년 동안 일어날 일을 반영한다. 또한 원형과 집단무의식을 반영하며, 초월적 기능을 요청한다. 특히 랜덤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카드뽑기 형식은 우연의 일치를 통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자신의 운명을 예측한다. 점도 분석심리학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⁷²⁾ 점 역시 제비뽑기나 말씀카드뽑기와 같이 현재 상태와 미래예측을 반영한다. 또한 원형과 집단무의식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초월적 기능을 요청한다.

말씀카드뽑기는 그 자체로는 무속적 형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목회신학적 가치

72) 이은봉, “주역과 동시성 이론” 『주역연구』, 1집 (1996): 115-137; 신성수, “『주역』의 미래예측과 시공간 인식: 분석심리학의 동시성이론과 관련하여”, 『동방문화와 사상』, 1집(2016): 67-90.

를 부여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미 여러 교회에서 중요한 목회행위 중 하나이기 때문에 목회해석학의 관점에서 목회신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목회해석학은 목회행위를 의미있는 행위로 간주하고 텍스트해석학에 근거하여 평가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분야로 다양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⁷³⁾ 특히 이미 실시되고 있는 목회행위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계속할 것인지 멈출 것인지 수정해서 진행할 것인지 결정하게 하는 기능도 지니고 있다.

말씀카드뽑기는 어떤 교회에서는 미신적 행위로 간주되어 터부시하기도 하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의미있는 행위로 간주하여 매년 실시하기도 한다. 말씀카드뽑기는 이미 많은 교회에서 연례행사로 실시하고 있다. 만약 교회에서 말씀카드뽑기를 한다면, 1년의 운세를 보듯이 무의식적 욕구를 충족시키기보다는 명확히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뽑힌 말씀카드의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취주고 한 해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그 말씀 앞에서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단하게 하는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물론 뽑힌 말씀카드에 대해 이 정도 확신이 없다면 하지 않는 것이 낫다.

3. 목회상담의 투사적 심리검사

투사적 심리검사는 일반상담의 영역뿐만 아니라 목회상담의 영역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투사적 심리검사의 유용성때문에, 목회상담의 영역에서도 투사적 심리검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일반상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다. 물론 성서그림검사와 같이 기독교적 기반을 지닌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타로카드는 이러한 목회상담의 현실에 투사적 심리검사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타로카드는 최근 미래예측이 아닌 심리상담적인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서 로젠가르텐(Arthur Rosengarten)은 그의 저서에서 타로카드를 유용한 투사적 심리검사로 제안하고 있다.⁷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제안이 이어지고 있다. 이현철과 진춘일, 최경희는 타로카드를 투사적 심리검사 중 하나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김운찬은 스토리텔링의 수단으로 타로카드를 제시한다.⁷⁵⁾ 김운찬은 타로카드를 TAT(주제통각검사)와 같이 스토리텔링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보며, 이러한 스토리텔링에 대한 분석은 내담자의 심리를 드러낸다.

목회상담에서 타로카드는 사용하는 것은 일부 내담자를 제외하고는 부정적 저항을

73) Donald Capps, 『목회돌봄과 해석학』, 김태형 역 (청주: MCI, 2018), 75-78.

74) Rosengarten, 『타로와 심리학』, 44-47.

75) 이현철, 진춘일, “‘상관적 사유’의 관점에서 본 타로의 ‘순서체계’에 관한 연구”, 『문화와 융합』, 제 42권 10호 (2020): 999-1030; 이현철, 진춘일, “타로카드의 이미지에 관한 지각원리 고찰: 계슈탈트의 지각원리를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제 42권 4호 (2020): 111-131; 최경희, “타로카드의 심리학적 적용에 대한 제언적 고찰”, 『인문사회21』, 제14권 1호 (2023): 3837-3848. 김운찬, “그림으로 이야기 하기: 칼비노의 실험적 글쓰기”, 『외국문학연구』, 제44호 (2011): 9-28;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타로카드의 기원이나 역사 그리고 타로카드의 구성과 해석방법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인들의 저항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타로카드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이해를 거치면서, 그리고 제비뽑기와 말씀카드뽑기에 대한 목회신학적 비평을 거치면서 분석심리학적 해석 원리나 방법에 대해서는 약간의 개연성을 엿볼 수 있었다.

물론 목회상담에서 타로카드는 직접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목회상담에 적합한 투사적 도구를 개발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원리나 방법에 분석심리학적 요소를 적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해 보인다. 즉 성서에서 기독교의 이미지를 발견하고, 이것을 그림을 통해 나타낸 후 내담자의 심리를 드러내는 투사적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이것은 TAT와 마찬가지로 내담자의 자연스러운 스토리텔링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내담자의 심리를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목회상담자는 이 도구가 목회상담의 영역을 넘어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V. 나가는 글

중요한 문화현상 가운데 하나인 타로카드는 목회신학 분야에서 간과하기보다는 정당하게 다루어야 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타로카드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이해와 목회신학적 비평을 수행했다. 타로카드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이해에서는 동시성이론, 원형과 무의식 그리고 초월적 기능을 다루었다. 타로카드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성서에 나타난 제비뽑기와 의미있는 목회행위 가운데 하나인 말씀카드뽑기에 대한 이해와 성찰을 도왔으며, 특히 목회상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독교적 투사적 심리검사의 가능성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후속연구로는 제비뽑기나 말씀카드뽑기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이해나 기독교적 투사적 심리검사 개발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다.

참고자료

- 고설청, 오병근. “모던 타로카드 디자인의 기호분석”. 『한국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1권 (2022): 126-127.
- 권명중. “성경적 고찰을 통한 새로운 불확실성 측정방법에 대한 연구”. 『OIKONOMOS』. 1권 2호 (2014): 1-26.
- 기민석. “의회와 제비뽑기, 구약공동체의 갈등 중재 기제”. 『구약논단』. 25권 4호 (2019): 84-107.
- 김동완. 『타로카드 완전정복』. 서울: 동학사, 2020.
- 김만태. “타로 메이저 아르카나와 음양, 삼원의 상관성 고찰”. 『문화와 융합』. 제43권 4호 (2021): 915-942

- 김성민. “C. G. 융의 동시성이론과 그 의미”. 『협성논총』, 3권 (1993): 53-64.
- 김용민. “교류분석에 대한 신학적 성찰”.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9권 (2010): 11-39.
- 김운찬. “그림으로 이야기하기: 칼비노의 실험적 글쓰기”. 『외국문학연구』, 제44호 (2011): 9-28.
- 류정미, 박진희. “예술치료 개념을 도입한 한국형 타로카드의 개발”. 『문화와 예술연구』, 제9권 (2017): 171-208.
- 박경미. “제비뽑기와 민주주의”. 『기독교사상』, 701권. (2017): 138-154.
- 박민정. 『심리상담을 위한 타로카드 활용법』. 서울: 렛츠북, 2022.
- 박인효. “랭보의 ‘취한 배’와 타로카드”. 『국제문화연구』, 제2-1집 (2009): 271-288.
- 박소현, 나혁진. “MBTI 성격유형과 타로 인물카드의 상관성 비교 연구”. 『산업진흥연구』, 8권 4호 (2023): 187-200.
- 박종수. “신점의 사회학”. 『우원사상 논총』, 10권 (2001): 51-76.
- 박희준. “미래예지와 ‘카모왕판 마르세이유 타로’”. 『한국정신과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제19권 (2003): 115-128.
- 박희준. “웰빙라이프와 ‘카모왕’ 타로카드”. 『한국정신과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제20권 (2004): 137-143.
- 신성수. “『주역』의 미래예측과 시공간 인식: 분석심리학의 동시성이론과 관련하여”. 『동방문화와 사상』, 1집 (2016): 67-90.
- 신종민. 『타로카드 비밀의 문』. 서울: 미래교육원, 2021.
- 안중은. “‘타로’ 카드: 『황무지』의 해석 기법”. 『영미어문학』, 제54호 (1998): 149-179.
- 양경숙. 『타로분석심리학』. 서울: 지식과 감성, 2018.
- 이부영. 『분석심리학: C. G. 융의 인간심성론』, 3판. 서울: 일조각, 2019.
- 이은봉. “주역과 동시성 이론”. 『주역연구』, 1집 (1996): 115-137.
- 이장형. “아미쉬 공동체의 윤리 분석: 기독교 종교성, 소비문화, 예배갱신, 평화론 모색”. 『기독교사회윤리』, 42집 (2018): 179-209.
- 이현철. “타로카드에 대한 인식론적 연구: 라캉의 욕망이론을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제41권 6호 (2019): 1067-1098.
- 이현철, 진춘일. “‘상관적 사유’의 관점에서 본 타로의 ‘순서체계’에 관한 연구”. 『문화와 융합』, 제42권 10호 (2020): 999-1030.
- 이현철, 진춘일. “타로카드의 이미지에 관한 지각원리 고찰: 게슈탈트의 지각원리를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2권 4호 (2020): 111-131.
- 임두규. “뷰티타로카드 관심과 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예술경영학회』, 제11권 4호 (2017): 39-52.
- 임두규, 임희경. “메이저 타로카드 분석 및 뷰티타로카드 디자인제작 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9권 7호 (2018): 251-257.
- 정준범. “에니어그램의 성격유형과 타로카드의 성격유형에 대한 연구: 유비버설 웨이트 카로카

- 드를 중심으로”. 『에니어그램연구』. 9권 2호 (2012): 159-188.
- 정훈택. “제비뽑기의 규범성”. 『신학지남』. 75권 2호 (2008): 179-203.
- 최경. “타로카드의 심리학적 적용에 대한 제언적 고찰”. 『인문사회21』. 제14권 1호 (2023): 3837-3848.
- 최성우. “『황무지』 속 타로카드 해석과 한국어 번역”. 『T. S. 엘리엇 연구』. 제31권 3호 (2021): 199-231.
- 최엘리사, 한양사이버 디자인 대학원. “시대적 변화에 따른 타로카드 디자인 재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리서치』. 1권 3호 (2016): 52-59.
- 최옥환 외 11명. 『타로카드 상담전문가』. 서울: 해드림출판사, 2020.
- Caponi, Stefanie. 『가이드드 타로』. 손은혜 역. 서울: 페르아미카실렌티아루네, 2022.
- Capps, Donald. 『목회돌봄과 해석학』. 김태형 역. 청주: MCI, 2018.
- Jung, C. G. 『원형과 무의식』. 한국융연구원 C. 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역. 서울: 솔, 2003.
- Ricoeur, Paul. 『시간과 이야기 1』. 김한식, 이경래 역.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5.
- Rosengarten, Atrhur. 『타로와 심리학: 가능성의 스펙트럼』. 이선화 역. 서울: 학지사, 2020.

[논평]

김용민 교수의
“타로 카드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이해와 목회신학적 비평”에 관한 논평



최승근 교수(장신대)

■ 논문 내용 요약

김용민 박사의 논문은 “타로카드”라는 매우 독특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김 박사는 타로카드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문화현상 가운데 하나이고, 많은 그리스도인도 타로카드를 접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에 이해와 목회 신학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용민 박사의 논문은 타로카드를 기원과 역사, 구성, 해석방법과 과정이라는 세 측면에서 연구함으로써, 타로카드와 그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해석 방법과 과정을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적 측면에서 설명하면서, 타로카드의 해석방법과 과정에 심리학적 요소가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에 따르면, 많은 이에게 타로카드는 단순히 점을 치는 행위가 아니라, 직관을 활용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사용한다.

그다음 김용민 박사는 타로카드의 해석방법과 과정을 융의 동시성 이론, 원형과 무의식, 초월적 기능의 개념을 사용하여 분석심리학적으로 연구한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교회의 사역과 연결하는 시도를 한다. 그는 타로에 관한 분석심리학적 연구가 성경에 기록된 제비뽑기와 오늘날 여러 교회에서 시행되는 말씀 카드 뽑기를 성찰하고 좀 더 의미 있게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조심스레 주장한다. 비록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않고, 다음 연구로 넘기기는 했지만, 타로카드에 관한 이러한 연구가 목회 상담에 적절한 투사적 도구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데 하나의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 기여

김용민 박사의 연구는 그가 말한 것처럼 기독교 학회에서 다뤄진 거의 최초의 타로카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개인적으로) 젊은이들의 놀이 중 하나로 여겨왔던 타로카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또한 타로카드의 해석방법과 과정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여긴다.

■ 제안 및 질문

김용민 박사는 기독교 내에서 타로카드에 관한 연구가 거의 진행된 바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연구에 의의를 두고 있는데, 기독교 내에서 이에 관한 연구가 없었던 이유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지 싶다. 따라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제공되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타로카드를 경험했는지를 수치나 통계로 보여주면 좋겠다.

김용민 박사는 타로카드가 중요한 문화현상이고, 많은 그리스도인도 경험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정당한 이해와 목회 신학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 (정당한 이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언급했듯이, 타로카드가 그렇게 중요한 문화현상인가, 하는 것에 대한 설득이 잘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다.

또한 조심스러운 견해를 분명히 밝히기는 하지만, 타로카드를 완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점이나 궁합, 사주풀이 같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외에, 다른 이해나 접근이 필요할까?

장르 이해를 적용한 시편 설교 방법



최광희 박사(행복한교회)

I. 들어가는 글

설교란 성경 본문에서 본문의 중심사상을 도출하여 그 메시지를 현시대를 사는 청중의 상황과 연관을 통해 의미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고, 적용을 시켜 줌으로 삶의 변화를 일으키도록 하는 행위이다.¹⁾ 이러한 설교의 목적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본문의 내용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장르에 따른 고유한 특징을 파악하고 그 장르의 특징을 설교에 드러낼 때 좀 더 본문의 의도에 부합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설교자가 본문의 내용뿐 아니라 그 본문이 담겨있는 문학의 장르까지 중요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성경이 기록될 때부터 그 본문에 장르의 특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께서는 성경의 메시지를 주실 때 내용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담을 형식까지도 선택하여 주셨다.²⁾ 또한, 성경을 기록한 인간 저자들 역시 그 메시지를 어떤 문학 형식에 담아서 전해주는 것이 효과적일지 고민해서 결정했다.³⁾

이처럼 영감(靈感)을 주신 성령과 기록한 인간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문학 형식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이를 무시하고 내용만 파악해서 전달해서는 성경의 고유한 맛을 느끼기 어렵다. 그러므로 본문의 맛을 제대로 파악하고 설교 전달 방식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성경 본문의 의미만이 아니라 장르에 민감하게 설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통적으로 설교자들은 삼대지 설교에 익숙하다. 주승중이 지적하듯이 그동안 설교자들은 시(詩)나 비유, 설화체 이야기나 비유까지 모든 종류의 본문을 삼대지 형식으

1) 권호, 『본문이 살아있는 설교』 (서울: 아가페, 2018), 34-36.

2) 권호, “현대 강해설교의 장르 이해와 적용”,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신학정론」 제36권 2호 (2018): 328.

3) Thomas G. Long, *Preaching and the literary forms of the Bible*, 박영미 옮김, 『성서의 문학유형과 설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25.

로 설교해 왔다.⁴⁾ Fred B. Craddock도 말하기를 “왜 성경 속의 다양한 문학 형식과 분위기와 회중의 필요들이 언제나 바뀔 줄 모르는 동일한 틀(mold)에 넣어 전해야만 하는가?”라고 도전한다.⁵⁾

설교자가 성경의 요점만 효과적인 어떤 방법에 담아 전달하는 것은 설교의 목표가 아니다. Steven W. Smith에 의하면 “설교의 목표는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을 다시 전달하는 (Recapturing) 것이다. 이를 위해 설교는 본문 안에 이미 존재하는 형태를 다시 전달해야 한다.”⁶⁾ 결국, 성경적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각 본문의 장르에 부합되도록 다양성을 잘 반영하도록 설교하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권호 교수가 옳게 말한 것처럼 “설교 형식이 획일적 지루함과 세속적 혼란함에서 빠져나와 다양함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길은 본문의 장르를 만나는 것이다.”⁷⁾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문학 장르 인식의 중요성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차원과 본문 해석이라는 차원에서 살펴보고, 이어 문학 장르 인식의 중요성을 시편 설교에 적용하기 위한 설교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시편은 여러 문학 유형 가운데서도 독특해서 시편 설교 방법을 살펴보는 것은 성경 문학 유형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가장 빠른 길이 되기 때문이다.

II. 펴는 글

1. 문학 장르 인식의 중요성

1) 문학 장르 인식과 커뮤니케이션

Thomas G. Long에 의하면 사람이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은 일정한 규칙을 따라서 하는 게임(game)이다.⁸⁾ 사람이 어떤 종류의 게임을 할 때는 반드시 해당 게임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축구는 공을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되며 농구는 공을 발로 차면 반칙이다. 이처럼 다른 사람이 쓴 문장을 읽을 때도 저자가 사용한 커뮤니케이션 규칙을 따라야 그 내용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독자는 저자가 사용한 문학 장르 규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Kevin J. Vanhoozer는 문학 장르를 ‘커뮤니케이션의 관행’으로 이해하라고 제안한다. Vanhoozer가 말하는

4) 주승중, 『성경적 설교의 원리와 실제』 (서울: 예배와설교아카데미, 2006), 123.

5) Fred B. Craddock, *As One without Authority*. 김운용 옮김, 『권위 없는 자처럼』 (서울 :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3), 237-38.

6) Steven W. Smith, *Recapturing the voice of God :shaping sermons like scripture*. 김대혁·임도균 옮김, 『(본문이 이끄는) 장르별 설교 : 하나님의 음성 되살리기』 (서울 : 아가페북스, 2016), 32.

7) 권호, “현대 강해설교의 장르 이해와 적용”: 340-41.

8) Long, 『성서의 문학유형과 설교』, 29.

관행이란 “복잡하면서도 내적으로 정합성이 있고 어떤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사회적으로 확립된 협동적인 인간 활동의 형태”를 일컫는다.⁹⁾

사람이 어떤 글을 대할 때는 본능적으로 그 글이 어떤 형식의 글인지 먼저 생각한다. 그러므로 같은 글을 읽더라도 그것의 장르에 따라 규칙도 달라지고 내용 이해도 달라진다. 내용 파악에서 형식이 중요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Long은 두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한다. 먼저 다음 문장을 보자.

“나는 그를 쏘아 죽였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는 나의 원수였기 때문이다.”

이 문장을 읽을 때 우리는 글쓴이가 문장 규칙을 어겼다고 느낀다. 문장 중간에 ‘왜냐하면’이 두 번 들어간 것은 불필요하고 어색하다. 그러나 이 문장이 시(詩)의 한 소절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문장은 실제로 Thomas Hardy가 쓴 시(詩)의 한 부분이다.¹⁰⁾ 이것이 시(詩)라고 인식할 때 독자는 다른 규칙을 적용하므로 ‘왜냐하면’을 반복해서 쓴 것이 실수가 아님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일반적으로 시는 다음과 같이 행을 바꾸어 쓴다.

나는 그를 쏘아 죽였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는 나의 원수였기 때문이다.

커뮤니케이션의 관행을 설명하기 위해서 롱(Long)은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옛날에 희귀하고 아름다운 시계를 수집하는 취미를 가진 한 사람이 있었다. 그가 가진 시계 중에는 특히 아름다운 천사 시계라는 것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그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다른 것은 다 두고 오직 한 가지만을 가지고 나갔는데 바로 ‘천사 시계’였다. 끝.¹¹⁾

독자는 문단의 마지막에 있는 ‘끝’이라는 말에 저항감을 느낀다. 이 이야기의 서두에 있는 ‘옛날에’를 통해 독자는 이것을 동화(童話)라고 인식하는데 동화라면 동화다운 기승전결의 구조에 맞게 이야기를 끝맺어 주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이 글이 만일 ‘옛날에’ 대신 ‘지난 해 12월 24일 밤’처럼 시간을 밝히고, 또 희귀 시계를 수집하던 그 사람의 이름과 사건이 발생한 장소까지 밝혀 주었다면 독자는 이런 끝맺음에 불평하지 않을 것이다. 독자들은 이 글을 신문 기사라고 판단할 것이며 그 때는 신문 기사의 규칙을 적용하고 읽기 때문이다. 이처럼 본문과 독자 사이에는 규칙에 대한 일정한 협조가 있어야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9) Kevin J. Vanhoozer, *Is there a meaning in this text? : the Bible, the reader, and the morality of literary knowledge*, 김재영 옮김, 『이 텍스트에 의미가 있는가?』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3), 547.

10) Long, 『성서의 문학유형과 설교』, 30-31.

11) Long, 『성서의 문학유형과 설교』, 34-35.

커뮤니케이션 규칙을 생각할 때 저자의 손을 떠난 텍스트와 독자 사이에서 텍스트가 말하려는 의도는 기록된 형식을 따라 이해하게 된다. 텍스트와 독자의 상호 작용은 Wolfgang Iser가 말하듯이 독자가 텍스트의 통제를 받아야만 텍스트와 독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성공할 수 있다.¹²⁾ 이런 사실에 대해 Vanhoozer 역시 “저자가 놓고 있는 문학 게임의 규칙에 독자가 따라갈 수 있어야만 저자가 기록한 텍스트와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다.”라고 설명한다.¹³⁾ 장르에 대한 이해가 텍스트 이해의 필수 조건이라는 사실에 관해 Grant R. Osborne도 “장르는 본문과 독자 사이에 가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¹⁴⁾ 그렇다면 이러한 장르에 대한 이해가 성경 해석과 설교에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설교에서는 어떻게 장르가 살아있도록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2) 문학 장르 인식과 본문의 의미 파악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학은 형식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야 한다. 그렇다면 성경도 문학 형식을 띠고 있으므로 성경 해석에서 장르적인 특징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설교자들이 본문의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르에 주목해야 한다. 성경의 장르를 무시하고 핵심 내용만 뽑아내어 설교하는 관행에 대해 Long은 성경을 해석이라는 압축기로 짜서 어떤 착상을 뽑아내어 청중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만한 설교의 기교를 부리는 것이라고 지적한다.¹⁵⁾ 이는 마치 과일이나 채소를 즙으로 짜서 제공할 때 먹는 사람은 그 과일 혹은 채소의 본연의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다.

본문의 형식을 버리고 어떤 명제만 뽑아 설교하는 것을 두고 Craddock은 ‘물은 끓여서 날려 버리고 밑바닥에 있는 찌꺼기를 조금 설교하는 것’이라고 혹평한다. 그런 설교를 두고 Craddock은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 때 아버지가 동화를 들려주는 대신 “오늘 너에게 이야기하는 요점(要點)은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에 비유한다. 그런 요점을 들은 아이는 틀림없이 잠이 확 달아나거나 울상을 짓게 될 것이다.¹⁶⁾

내용은 형식이라는 그릇에 담겨있다. Smith의 말처럼 “각 장르는 그것이 전달하는 단어들의 의미에 영향을 준다.”¹⁷⁾ 그래서 내용과 형식의 관계에 대해서 Long은 내용과 형식을 하나로 묶어 ‘내용의 형식(form of the content)’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

12) Wolfgang Iser, “Interaction between Text and Reader,” in *The reader in the text*, ed., Susan R. Suleiman and Inge Crosma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0), 110.

13) Vanhoozer, 『이 텍스트에 의미가 있는가?』, 552-53.

14) Grant R. Osborne, *Hermeneutical spiral : a comprehensive introduction to biblical interpretation*, 임요한 옮김, 『성경 해석학 총론』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7), 247.

15) Long, 『성서의 문학유형과 설교』, 25-26.

16) Fred B. Craddock, *Preaching*, 이우제 옮김, 『크래독의 설교 레슨』 (서울: 도서출판대서, 2009), 201-202.

17) Smith, 『본문이 이끄는 장르별 설교』, 15.

확한 표현이라고 주장한다.¹⁸⁾ 그러므로 성경을 해석할 때 내용적 통일성만이 아니라 본문의 장르까지 포함해서 본문이 주는 전체적인 효과를 발견해야 진정한 Tota Scriptura(전체 성경)적 관점의 성경 해석이라 할 수 있다.¹⁹⁾

Hershael W. York가 인용한 Call Sandburg의 시에서 ‘안개는 작은 고양이 걸음으로 다가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안개가 정말로 발을 가졌다고 생각하기보다 시인이 안개가 소리 없이 다가오는 것을 연상시키려는 수사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²⁰⁾ 성경에서 이러한 이해를 찾아보려면 요한복음 21장과 시편 50편의 숫자를 비교해보면 된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는 152마리나 154마리가 아닌 정확히 153마리이다. 아마도 요한은 그 숫자에 어떤 의미를 담았을 것이다. 반면에 시편 50:10에서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라고 할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산이 정확히 1000개라는 뜻이 아니다.²¹⁾ 이는 모든 산을 뜻하는 수사적인 의미로 보아야 한다.²²⁾

2. 문학 장르 인식과 본문 읽기

1) 성경의 장르별 구분

성경의 장르를 인식하고 그 장르의 수사적인 기능, 장르의 수사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사용한 문학적 방법 등을 연구하기 위해 먼저 성경에는 어떤 문학 장르가 사용되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성경에 사용된 문학 장르의 구분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은 서로서로 다르다. 오래전 Martin Luther는 성경의 기본적인 양식을 역사, 예언, 시, 내러티브 정도로 인식했다. 그러다가 성서의 문학 유형에 따른 설교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진 학자는 Thomos G. Long이다.²³⁾ Long은 성경 안에 있는 문학 유형을 이야기, 예언서, 잠언, 시편, 비유, 서간문의 6종류로 분류해서 각각의 유형에 대한 설교 방법을 제시했다.²⁴⁾ Jeffrey D. Arthurs 역시 성경을 시편, 내러티브, 비유, 잠언, 서신서, 묵시 문학의 6종류로 분류함으로 Long과 비슷하게 구분했다.²⁵⁾

18) Long, 『성서의 문학유형과 설교』, 26.

19) Tota Scriptura 적인 성경해석에 관해서는 다음을 보라. 이승진, “Tota Scriptura에 근거한 성경적인 설교를 위한 상호본문성” 『신학정론』 34/1 (2016/05): 323-54.

20) Hershael W. York & Bert Decker, *Preaching with Bold Assurance*, 신성욱 옮김, 『확신 있는 설교』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8), 89.

21) 한글 성경에 ‘뭇’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엘레프(אֵלֶפֶס)인데 숫자 1000을 뜻한다.

22) York, 『확신 있는 설교』, 90.

23) 유윤중, “잠언이라는 장르와 설교: 지혜설교를 지향하며” 평택대학교 피어선기념성경연구원, 『복음과 신학』 10 (2008/12): 50.

24) Long, 『성서의 문학유형과 설교』, 75. Long은 성경의 분류에는 ‘예언서’를 넣었으나 제 II 부에서는 ‘예언에 관한 설교’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25) Jeffrey D. Arthurs, *Preaching with variety : How to re-create the dynamics of biblical*

그러나 Grant R. Osborne은 성경을 구약 율법, 내러티브, 시, 지혜, 예언, 묵시, 비유, 서신서의 8가지 장르로 분석하였고²⁶⁾ Craddock은 성경을 시, 영웅담(saga), 역사적 내러티브, 잠언, 찬송, 일기, 전기, 비유, 개인적인 서신, 드라마, 신화, 대화, 복음 등 무려 13가지 장르로 분류했다.²⁷⁾ 이렇듯 학자들의 성경 장르 분류가 일치하지도 않을뿐더러 성경을 이렇게 복잡하게 구분한다면 성경 장르를 파악하는 것이 설교자들에게 새로운 과제가 된다.

다행스럽게도 Steven W. Smith는 성경의 장르들을 세 개의 거시적 장르로 구분하고 그 아래에 세부적 장르와 하부 장르를 포함시켰는데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²⁸⁾ Smith의 기본 장르 구분법을 설교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야기는 본문의 ‘플롯’이 설교에 나타나게 하고, 시편은 본문에 나타난 ‘감정’과 ‘이미지’를 반영해서 설교를 만들면 된다. 그리고 서신서는 본문에 나타난 배경과 내용이 전개되는 ‘논리’를 반영해 설교를 작성해야 한다. 요약하면 이야기, 시, 서신의 견인차는 각각 플롯, 감정과 이미지, 논리라고 할 수 있다.²⁹⁾

기본 장르	이야기	시	서신
세부 장르	구약 내러티브	시편	서신서
	율법	선지서	요한계시록
	복음서와 사도행전	지혜서	
하부 구조	비유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	

<표 1 >

2) 장르 구별에 따른 본문 접근법

앞에서 본문의 장르에 따라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이 달라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보았는데 장르에 따른 본문 접근법으로 Long의 제안을 살펴보자. Long은 본문의 수사학적 특성을 살리기 위해 본문을 읽을 때 다음의 다섯 가지 질문을 따라 접근하기를 제안한다.³⁰⁾

(1) 본문의 장르는 무엇인가? 성경은 여러 장르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 본문에 나타난 특정 패턴을 확인하고 그 패턴에 장르의 이름을 붙여야 한다.

genres, 박현신 옮김, 『목사님 설교가 다양해졌어요』 (서울: 베다니출판사, 2010), 4. Contents를 참고하라.

26) Osborne, 『성경 해석학 총론』, 245.

27) Craddock, 『권위 없는 자처럼』, 237.

28) Smith, 『본문이 이끄는 장르별 설교』, 61-62.

29) 권호, “현대 강해설교의 장르 이해와 적용”, 344.

30) Long, 『성서의 문학유형과 설교』, 46.

(2) 이 장르의 수사적인 기능은 무엇인가? 본문의 문학적 특징은 독자의 마음속에 수사적인 동력을 창조한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시의 수사적 기능은 무엇인가? Laurence Perrine은 시를 해먹(hammock)에 누워서 읽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시의 목적은 마음을 달래 주거나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일깨워서 삶에 자극을 주고 사람에게 생기가 있게 하여 주는 것이다.”³¹⁾ 이처럼 시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심오한 상상력이다 섬세한 조율을 함으로써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변하게 한다.

(3) 이 장르는 수사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어떤 문학적 방법을 사용하는가? 두 번째 질문이 본문이 독자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며, 또 독자에게 어떤 일을 하는가를 물었다면, 세 번째 질문은 본문은 본문이 하는 일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본문의 수사적인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본문에 나타난 문학적 특성들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자는 것이다.

시편의 경우에 사용하는 문학적 방법은 음성, 이미지, 단어, 리듬, 구문 구조, 주제, 아이디어 등으로 연쇄된 시스템으로 작용한다. 일반적인 시와는 달리 히브리 시는 parallelism(평행법 혹은 대구법)이라는 독특한 문학적 방법을 사용한다. 평행법 전략이란 시인이 행의 A열을 먼저 말하고 그 A와 관련이 있는 B열을 말하는 것이다. James Kugel(제임스 쿠겔)에 의하면 평행법에서 A열과 B열 사이에 어떤 발전이 있다. 즉 B는 A를 전진하게 하거나 완성하거나 넘어가게도 한다. 예를 들어 “나의 아들을 13살이다. 그는 10대 소년이다.”라고 했을 때 10대 소년이라는 말은 사춘기 소년의 언어와 세계관 등을 암시해 준다.³²⁾

물론 시편을 본문으로 한 설교에서 이러한 평행법을 반드시 설교문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시편의 저자가 평행법을 사용해서 전해 준 아이디어를 설교의 청중들에게 흡사한 상상력과 효과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4) 본문 안에 있는 문학적 배경을 고찰하여 볼 때, 본문은 위의 세 가지 질문으로 서술한 본문의 특성과 동력을 어떻게 구체화하는가? 한 본문이 어떤 장르의 패턴에 맞으면서도 나름의 독특함을 어떻게 지닐 수 있는가? 예를 들어 <마태복음 1:1~17>의 장르는 족보이며 수사적 기능은 족보에 오른 사람들은 누구인지 넓고 깊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족보에서 아는 이름이 나오면 연결된 기억이 떠오른다. 이 경우 문학적 동력은 가족의 관계와 순서를 알게 한다.

(5) 본문을 쓴 상황 안에서 본문이 말하고 기능하던 바가 현대의 새로운 상황 안에

31) Long, 『성서의 문학유형과 설교』, 82.

32) Long, 『성서의 문학유형과 설교』, 91.

서 하는 설교문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기능을 할 수 있는가? 설교문의 임무는 본문이 지닌 효과의 한 부분을 현대의 청중이 설교를 듣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상황에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는 잘못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 설교문을 본문과 같은 문학 형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형식 근본주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렵고도 비실용적인 일이다. 설교문의 형식은 본문과는 다른 또 하나의 장르이다.

둘째, 해석의 과정을 생략해버리는 것은 본문과 설교의 상황이 다름을 무시하는 것이다. 설교는, 현대의 해석자가 매우 세밀하게 본문에 주의를 기울이며, 그 본문이 신앙 공동체의 현재 생활에 주장하는 바를 분별하며, 그런 분별을 통해 얻은 발견을 선포하는 것이다.

Thomas G. Long은 4번과 5번 질문을 묶어서 시편 1편을 살펴보는 것으로 답을 찾으려고 시도한다. 시편 1편은 표면적으로는 의인과 악인의 삶이 간결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복잡한 시적 언어가 흐르고 있다.³³⁾ 시편 1:1에서 의인은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묘사되는 반면에 악인은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겨를 묘사한 것보다 나무를 묘사하는데 더 많은 공간을 할애하였다. 그 결과 우리는 나무를 바라보는데 충분한 시적인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겨는 우리가 보자마자 금방 무(無)의 세계로 사라져 버린다. 그리고 그 겨는 수동적으로 움직일 뿐 자기 주관대로는 움직일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이 시의 수사적인 효과는 독자의 의식 속에 대조적인 행동 영역을 창조하는 것이다. 한 영역은 열광적이며 무모하고 방향이 없는 움직임으로 금방 폭 꺼지고 마는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영역은 현명한 사람이 Torah(תורה)에 비추어 은밀하면서도 힘 있게 하는 행동으로 안정성이 있으며 평온하며 풍성한 것이다. 이 시를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설교문은 이러한 대조를 잘 묘사할 뿐 아니라, 이 대조가 청중의 눈에 보일 정도로 생생하면서도 풍부한 감정의 효과를 나타내도록 새롭게 재창조해내어야 한다.

3. 시편의 특징과 주제

1) 시편의 특징

지금까지 살펴본 성경 본문의 문학특징 가운데 시편은 가장 독특한 장르이다. 시편은 여타의 성경 문학장르와도 다르고 현재의 시들과도 다른데 시편의 해석과 설교에서 어떻게 문학적 특징을 살린 설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 시편 설교와

33) Long, 『성서의 문학유형과 설교』, 93-96.

복음서 설교가 다른 것은 내용이 다를 뿐만 아니라 표현 형식 즉 장르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히브리 시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여러 가지의 특징 가운데 두드러지는 네 가지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1) 평행법/ 시편을 포함한 히브리 시의 특징은 소절과 소절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가진 사상의 흐름이 있는데 이 관계를 parallelism(평행 혹은 대구)이라고 부른다.³⁴⁾ 평행의 핵심은 상응인데 상응에는 문법적 상응과 의미적 상응이 있다. 의미적 상응의 경우에는 각 소절 사이에 의미상의 상응만 있으나 문법적 상응의 경우 각 소절의 문법이 정확히 일치한다.

평행법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동의어적 평행법(synonymous parallelism)의 경우 둘째 행이 첫째 행을 재진술한다. 대조적 평행법(antithetic parallelism)은 둘째 행이 첫째 행과 반대된다. 마지막으로 종합적 평행법(synthetic parallelism)은 둘째 행이 첫째 행을 완성한다. 시편에서 사용된 평행법(parallelism)의 효과는 독자에게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도록 유도하면서 독자와 청취를 통한 경험을 강화해주는 것이다.³⁵⁾

(2) 구조적 패턴/ 히브리 시는 평행법 외에도 구조적 패턴을 사용하는데 평행 구조(parallelism pattern)는 주로 A, B, C, A', B', C' 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대칭 구조(symmetrical pattern) 혹은 동심형 구조(concentric pattern)의 경우 좀 더 집중해야 발견할 수 있으며 특히 히브리어 본문이 아닌 번역본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대칭 구조는 A, B, C, C', B', A'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김창대는 대부분의 시편이 동심원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 있다.³⁶⁾

(3) 이미지/ 평행법(parallelism)과 함께 시편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이미지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시편은 말하기보다는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특징이다. 시편에서 이미지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 Smith는 '그 이미지들은 큰 개념들에 대한 작은 그림'이라고 설명한다. 시편의 이미지들은 또한 예화를 떠오르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지가 보여주는 진리가 아닌, 이미지에 대한 예화 자체를 설교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지만, 이것은 청중이 본문에서 멀어지게 하는 실수를 하는 것이다.³⁷⁾

이미지 사용의 효과에 대해 Arthurs는 a. 상상력을 자극하고 b. 동일화를 증진시

34) Arthurs, 『목사님 설교가 다양해졌어요』, 65. 여기서 박현신은 parallelism을 '대구법'으로 표현했다.

35) Mark D. Futato, *Interpreting the Psalms : An exegetical handbook*, 류근상·류호준 옮김, 『시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고양 : 크리스찬, 2008), 29-33.

36) 김창대, 『한권으로 꿰뚫는 시편』(서울: IVP, 2015).

37) Smith, 『본문이 이끄는 장르별 설교』, 232.

키며 c. 기억을 돕는 것을 돕는다.³⁸⁾ 한편, Futato는 이미지의 기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네 가지를 나열한다. a. 이미지는 감정을 자극하고 마음을 움직인다. b. 이미지는 구체적인 행동이나 사물의 영상이다. c. 이미지는 연상을 창조한다. d. 이미지는 다중의 의미를 가진다.³⁹⁾ 그러므로 설교자가 시편을 대할 때는 먼저 이미지를 찾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4)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의 고백/ 시편은 어떤 개인의 기도이다. 시편의 많은 시가 개인적 비탄, 좌절, 슬픔, 감사, 기쁨 등을 표현하는데 절반 정도가 불평으로 채워져 있다. 그러나 이런 비탄과 좌절, 심지어 불평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당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위로가 된다.

시편은 어떤 개인의 기도문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 성경에 포함된 기도는 하나님에 의해 기록되었으며 이 기도를 포함시킨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 시를 통해 하나님께 무엇이든 고백하고 간구할 수 있음을 배운다. 뜻밖에도 시편에 불평이 있음은 우리에게 희망적이다. 왜냐하면, 그 불평은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에게 올려드렸다는 면에서 그것은 찬양이 된다.⁴⁰⁾

2) 시편의 주제와 목적

시편은 주제에 따른 목적과 그에 따른 카테고리가 있다. 우선 목적에는 교훈을 주는 목적과 메시아를 고대하는 목적이 있다.

(1) 교훈을 위한 목적/ Futato에 의하면 시편은 교훈서 내지는 축복의 길에 대한 안내서이다. 시편 1편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와 율법 즉 Torah를 즐기는데 Torah의 일반적인 의미는 교훈이나 가르침이다.⁴¹⁾ 시편이 주는 교훈은 크게 행복에 대한 교훈과 거룩에 대한 교훈, 그리고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교훈이다. 시편에서 행복은 멸망과 반대이며 만족, 기쁨, 즐거움이다. 그러므로 시편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위한 교훈서이다.⁴²⁾

참된 행복의 삶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행복은 거룩함을 통해 확보된다. 거룩한 삶이란 Torah를 따라 사는 소박한 삶인데 그것은 말씀을 연구하는 일과 함께 시작된다. 결론적으로 Torah를 묵상하거나 연구하는 것은 이를 통해 배우는 실천적 삶이 뒤따른다. 결국, 거룩한 사람은 율

38) Arthurs, 『목사님 설교가 다양해졌어요』, 71.

39) Futato, 『시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38-45.

40) Smith, 『본문이 이끄는 장르별 설교』, 238-240.

41) Futato, 『시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59.

42) Futato, 『시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67.

법적인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다.⁴³⁾

시편이 주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은 모든 환란에서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여호와께 피하라는 것이다. 시편이 말하는 피난처란 안전한 장소와 보호막을 제공하는 은신처인데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이유는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책임지는 보호자이기 때문이다.⁴⁴⁾

(2) 메시아를 고대하게 함/ 시편에서는 여러 곳에서 한 왕 즉 '마쉬아흐(מָשִׁיחַ)'를 고대하는 것을 보여준다. 시인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자로 언급함으로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한다. 하나님이 자신의 보좌에서 다스리는 모습은 시편 전체에서 나타난다. 시편 2편은 왕이신 하나님이 '기름부음 받은 자(מָשִׁיחַ)'를 통해 통치하신다고 말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역사적 현실의 일치는 다윗 왕조를 통해 성취되지 않았다. 이것은 당시의 상황이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를 부정하고 그것과 어긋난다는 의미에서 종말적이다. 역사의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하마쉬아흐'에 의해 이 땅 위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 시편 전반에 흐르는 소망이다.

고대 이스라엘 신앙을 떠받치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은 성전과 다윗 왕조였다. 그 왕 다윗을 계승한 왕은 평화의 왕 솔로몬이다. 왕은 공의로 다스리며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돌보는 존재여야 하는데 <시 72:2>에서 솔로몬은 약한 자를 돌보는 왕으로 묘사된다. 시편 72편에서 솔로몬의 통치는 1편에서 결실하는 나무의 이미지로 등장하며 (7, 16절) 시편 2편이 제시한 지상의 나라들을 다스리는 위대한 군주로 묘사된다 (8-11, 15절).

이처럼 시편은 왕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완성할 것이라는 소망을 주는데 그 소망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 예수에게서 성취되었다(요 12:13, 마 23:39). 그래서 시편은 신약의 기초가 된다. 시편은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거나 언급된 구약의 책이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마 5:5>은 <시 37:11>의 인용이다.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시편은 110편으로서 신약에서 총 14회 인용되었으며 그 외의 여러 시편이 신약에서 사용됨으로 신약 전체가 시편을 참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⁴⁵⁾ 이런 면에서 시편은 메시아를 고대하게 하는 책이며 신약의 신학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3) 주제에 따른 시편의 카테고리/ 시편은 그 주제에 따라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학자별로 카테고리의 분류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여기서는 Futato의 기준으로 분류법을 알아보자.⁴⁶⁾

43) Futato, 『시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67-71.

44) Futato, 『시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99-106.

45) Smith, 『본문이 이끄는 장르별 설교』, 241.

46) Futato, 『시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153-182.

a. 찬양시/ 찬양시는 모든 것이 형통할 때를 위하여 지은 시이다. 찬양시는 우리 모두를 찬양의 장으로 초청한다. 때로 찬양시는 하늘의 천사들과 지상의 생물과 무생물을 불러 찬양하게 한다.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 말하는데 대부분의 찬양시는 찬양해야 할 이유를 풍성히 제공한다. 그 가운데 창조 찬양시는 종종 창조의 질서에 대해 찬양한다(104편).

b. 탄식시/ 탄식시 즉 애가는 혼란할 때를 위한 시이다. 애가의 지배적인 분위기는 슬프이지만 마지막에는 전형적으로 낙관적인 분위기로 바뀐다. 탄식은 자신의 무죄에 대한 항변일 수도 있다. 탄식시에는 때로 불평이 나오지만 이는 광야에서와 같은 반역적 불평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고통에 대해 전능자에게 간구하는 것이다. 시인은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겪게 해 달라고 매달린다. 그래서 탄식시의 마지막 부분에는 기도에 응답하신 후 성전에서 감사와 제사를 드리겠다는 약속과 찬양이 포함되기도 한다.

c. 감사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와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를 구하여 주시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감사시는 이러한 구원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시이다. 감사시도 구원을 찬양하는데 그 구원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개인적 구원에 국한한다. 감사시는 하나님의 개입에 대한 감사의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중심 부분에서 탄식의 내용이 제시된다. 그리고 감사시는 다른 사람들을 불러 함께 감사에 동참하도록 촉구하기도 한다.

d. 신뢰시/ 애가와 감사시의 중간에 있는 것이 신뢰시이다. 애가와 마찬가지로 신뢰시도 종종 일종의 개인적 문제를 호소한다. 신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확신을 표현한다. 그런 면에서 신뢰시는 엄청난 도전을 가져다준다.

e. 제왕시(왕권시)/ Futat는 신뢰시와 마찬가지로 제왕시에도 공통된 구조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이 카테고리의 영역은 신뢰시의 경우처럼 다소 애매하다. 제왕시는 이스라엘 왕에 대한 찬양이지만 이는 결국 메시아를 나타내는 시로 승화된다. 그래서 시편 중에서도 특히 제왕시가 신약의 신학을 제공하며 그리스도 중심 설교의 기초가 된다.

f. 지혜시/ 지혜시는 모든 카테고리 가운데 가장 감지하기 어렵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카테고리의 존재를 부정하지만 시편 중에는 전도서나 욥기의 일부로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시 49:10). 그 외에도 시편에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시 34:12)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여러 시들이 있다.

4. 효과적인 시편 설교법 제안

지금까지 살펴본 시편의 특징을 살려 본문을 이해하고 설교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방법이 필요한가? 시편의 본문 읽기는 산물과는 다른 독특함이 요구된다. 시편의 이미지와 감정을 살린 설교문 작성, 그리고 전달을 위해서도 시인의 감수성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다음의 단계에 따른 시편 설교법을 제안한다.

1) 본문 읽기

모든 설교 준비에서 본문 읽기로 시작되지만, 시편을 본문으로 한 설교에서는 특히 본문 읽기가 중요하다. 효과적인 시편 본문 읽기를 위해 다음의 다섯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1) 본문을 소리내어 반복해서 읽어라. 어떤 본문이든지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은 전혀 다른 차이를 느낄 수 있다. 특히 시편은 예배에 사용된 찬양 가사라는 면에서 노래를 부르는 마음으로 소리를 내어 읽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시편을 묵상한다고 할 때 그 말은 고요히 명상하는 것이 아니다. 히브리어로 하가(הָגָה)는 낮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의미이다.

(2) 낭송을 들어보라. 본문을 소리내어 반복해서 읽어보았다면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듣는 방법에는 성우가 녹음한 드라마 바이블을 구해서 듣는 것도 좋지만 본인이 의미를 생각하며 읽은 후에 그것을 녹음해서 들어보는 것도 본문의 감정을 느끼는데 도움이 된다.

(3) 다양한 역본으로 읽어라. 어떤 본문이든지 설교하기 전에 여러 번 읽어야 하지만 특히 시의 경우 여러 번 읽어야 느낌을 살릴 수 있다. 시를 읽을 때 여러 번역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현대의 여러 한글 번역들이 시편을 보다 시답게 표현하였다. 현대인의성경, 우리말성경, 공동번역, 쉬운성경, 현대어성경 등 다양한 번역을 읽다 보면 시의 느낌이 와닿는다. 또 영어나 외국어 번역 성경도 함께 읽고 히브리어에서 직접 사역(私譯)을 해 보는 것이 좋다.

(4) 앞뒤 문맥(앞 뒤의 시편) 상황을 비교하며 읽어라. 시편은 한편씩 독립적이면서도 전체적인 구성을 염두에 두고 편집한 시 모음집이다. 히브리 전통에서는 제목에 저자가 명기되지 않은 시는 그 앞의 시에 명기된 저자가 이후 시의 저자로 본다. 이런 사실을 참고하면 앞뒤의 시편들은 지금 읽는 시의 전후 문맥에 해당한다.

김창대는 150편의 시편들은 아무렇게나 배열된 것이 아니라 최종 배열자의 의도 속에서 통일적 메시지를 위해 배열되었고, 그래서 시편의 시들이 주위의 시편들과 단

락을 이루고 있으며 단락 사이에도 구조가 있다고 주장한다.⁴⁷⁾

Futato는 시편 26편을 25장과 27장을 연결하여 읽으면 이 기도는 ‘자기 의’에 가득 찬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무고한 고소를 당한 시인이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는 호소로 이해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⁴⁸⁾

2) 질문에 답하기

시편을 읽으면서 다음 다섯 가지 질문에 충실하게 답을 하다 보면 어느새 시편 연구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1) 이 시의 카테고리는 무엇인가? Futato에 의하면 카테고리는 우리의 기대심을 유발하며 상황을 제공한다. 그리고 그 상황은 해석에 필수적이며 의미를 결정한다.⁴⁹⁾ 그러므로 시편을 해석하기 전에 먼저 카테고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이 시에 사용된 이미지는 무엇인가? Thomas G. Long에 의하면 시편은 말하기보다는 보여주려고 한다. 시편은 하나의 이미지로서 세상의 모든 것을 보는 우리의 지각을 변화시키며 모든 고정관념이나 생각을 바꾸어 놓는다.⁵⁰⁾ 또 Smith는 시인이 제공하는 이미지를 일컬어 “더 큰 개념들에 대한 작은 그림”이라고 표현한다.⁵¹⁾ 그러므로 이미지를 발견하는 것은 시편 해석의 키워드를 붙잡는 것이다.

(3) 이 시의 패턴은 무엇인가? 시의 구조를 분석하고 특히 평행법을 찾는 것은 시의 핵심 사상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시인이 평행법을 통해 생각을 전개하며⁵²⁾ 평행법을 통해 움직임의 담고 있다는 면에서 시편은 구조 속에 의미를 담아 놓았다고 할 수 있다.

(4) 이 시가 신약에 제공하는 신학은 무엇인가? 시편은 메시아를 고대하게 하는 책이며 신약의 신학적인 기초가 된다. 그러므로 시편을 연구할 때는 신약 저자에 의해 인용된 곳은 어디인지, 이 시의 내용이 메시아와 관련되거나 메시아 예언에 해당되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파악함으로써 시편을 통해 구속사적 설교를 할 수 있게 한다.

(5) 이 시의 의미는 무엇인가? 다양한 패턴과 이미지를 사용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것이다. 메시지를 찾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본문의 중심 사상(CMT: Central Message of Text)를 찾는 것이다. 중심 메시지(CMT)를 찾을 때는 권호 교수가 제시하는 ‘중심 메시지 발견을 위한 네 단계’에 따라 훈련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⁵³⁾

47) 김창대, 『한권으로 꿰뚫는 시편』, 12.

48) Futato, 『시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199.

49) Futato, 『시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149, 151.

50) Long, 『성서의 문학유형과 설교』, 88.

51) Smith, 『본문이 이끄는 장르별 설교』, 232.

52) Smith, 『본문이 이끄는 장르별 설교』, 228, 230.

3) 설교문 작성하기

여기까지 해석 과정을 마쳤다면 이제 설교문을 작성으로 들어갈 단계이다. 설교문은 다음 네 단계를 통해 개요를 작성할 수 있다.

(1) 연관성을 놓아라. 설교를 한다는 것은 본문에서 도출된 중심 메시지(CMT)를 현대의 청중에게 연관(Relevance)을 통해 의미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고, 적용(Application)을 통해 구체적 삶의 변화를 일으키도록 하는 행위이다. 중심사상으로부터 연관성을 놓는 데는 권호 교수가 제안하는 연관 도구(SSQ)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⁵⁴⁾ 여기서 연관성(Relevancy)을 정창균 교수는 적실성(validity)이라고 표현하는데 적실성은 설교의 메시지가 청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청중의 삶에 연결되어야 한다는 느낌이 강한 표현이라 하겠다.⁵⁵⁾

Paul Scott Wilson은 성경적인 설교란 성경에 나타난 문제와 오늘날 세상에 나타난 문제를 연결시켜 주고, 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오늘날의 문제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행동으로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네 페이지”로 설교할 것을 제안한다.⁵⁶⁾ 이처럼 성경의 모든 상황이 현재 청중의 삶에 구체적으로 중첩되는 것을 찾아내어 연결해 줄 때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2) 적용점을 찾으라. “Bible is not for information, but for transformation.” 이는 D.L. Moody의 말이다. Moody의 말을 의역하면 “성경은 알라고 주신 책이 아니라 살라고 주신 책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청중이 성경의 진리를 스스로의 삶에 적용하게 해주려면 설교자가 구체적인 적용을 제시해야 한다. 이 설교를 들은 청중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줄여서 말하면 “그래서 어쩌라는 말인가?”에 대하여 청중에게 숙제를 던지지 말고 설교자가 답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설교자가 청중에게 제공하는 적용에는 일반적인 적용(General Application)과 구체적인 적용(Specific Application)이 있는데 청중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결정해야 한다. 매번 일반적 적용만 제공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 율법적인 신자를 양산할 수가 있다. 한편으로 매번 구체적인 적용을 제공하면 그 적용을 지킬 수 없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 청중이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다.⁵⁷⁾

53) 권호, 『본문이 살아있는 설교』, 86-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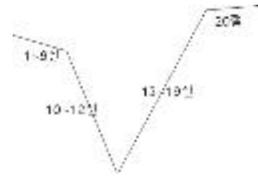
54) 권호, 『본문이 살아있는 설교』, 134-137.

55) 정창균, 『설교학 강좌』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2017년 1학기 강의안), 216.

56) Paul Scott Wilson, *(The) Four pages of the sermon*, 주승중 옮김, 『네 페이지 설교』 (서울: 배와설교아카데미, 2006), 26.

57) 권호, 『본문이 살아있는 설교』, 145-149.

(3) 감정적인 아웃 라인을 창조하라. Jeffrey D. Arthurs는 David Larsen의 말을 인용하면서 시편 설교에서는 감정적인 아웃 라인을 창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⁵⁸⁾ 감정적 아웃 라인이란 시편 설교에서 골짜기 모양의 감정적인 V계곡을 통과함으로써 청중이 감정적으로 설교에 집중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시편 77편은 1-9절은 평온함, 10-12절은 하강, 13-19절은 더 높은 상승, 20절은 회복된 평온함이다(그림 1 참고).



<그림 1>

(4) 설교의 개요를 작성하라. 시편 설교의 개요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Futato가 좋은 모델을 제공한다. Futato에 의하면 개요 작성 방법에는 본문의 순서대로 흐름을 쫓아가는 ‘분석적 접근’과 본문의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본문의 사상을 재조직하는 ‘주제적 접근’ 방식이 있다. 주제적 접근을 위해서는 반복되는 단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논리적 개요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Futato의 개요 작성법을 다시 참고하는 것이 좋다.

4) 전달을 준비하기

(1) 추상적인 용어를 구체적인 언어로 바꾸라. Arthurs는 시편 설교에서는 구체적인 언어를 사용하기를 제안한다. 어떤 설교에서나 구체적 언어를 쓰는 것이 좋겠지만 그림처럼 보여주는 시편을 설교할 때는 구체적인 언어 사용이 더욱 필요하다. 구체적 언어에 대해 예를 들면 배(boat) 대신에 잠수함, 요트, 예인선, 카누 등으로 표현하고 ‘차량’보다는 토요타(Toyota), ‘피곤한 증거’보다는 ‘충혈된 눈’이 더 구체적이다.

(2) 대구법을 개발하라. 역시 Arthurs가 제안하는 시편 설교법인데, Lockridge(락릿지) 박사가 1981년 무디 기념교회에서 했던 설교가 좋은 샘플이다.⁵⁹⁾ 대구법 사용을 연습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우선 설교의 핵심 포인트를 적은 다음 그것을 재진술하고 보다 강력한 표현으로 점점 발전시키고 다시 새로운 문장으로 만들어 가면 된다.

(3) 음악적 요소를 가미하라. 시편은 원래 성전 제사에서 찬양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가능하면 시편 찬송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김병훈 교수가 목회하는 나그네교회는 예배 시간에 시편으로 만든 시편 찬송집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현대의 음

58) Arthurs, 『목사님 설교가 다양해졌어요』, 82.

59) Arthurs, 『목사님 설교가 다양해졌어요』, 85-88.

악가들 가운데 시편을 가사로 삼아 만든 CCM도 많이 보급하고 있다. 또 시편을 가사로 삼지 않아도 시편의 주제를 잘 표현하는 찬송가의 찬송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런 노래를 잘 선택하면 시편에서 받은 감동을 오래 지속시킬 수 있다. 한편, 주제를 담은 노래도 효과가 있지만, 본문과 어울리는 음악을 깔고 설교하는 것도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4) 목소리와 제스처를 사용하라. Mashall McLuhan(마셜 맥루한)은 “매체가 메시지다(Media is Massage)”라는 유명한 말을 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말하느냐보다는 누가 말하느냐, 어떤 상황에서 말하느냐, 어떤 표정과 말투로 말하느냐 하는 것이 훨씬 강한 전달력을 가진다. 예일대학교의 연구 조사에 의하면 말로만 전한 것은 7%가 전달되고 어조까지 동원하면 35%, 제스처까지 동원하였을 때 55%가 전달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모든 설교가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시편 설교에서는 어조와 제스처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5) 많이 기도하라. 한편의 설교를 준비하는데 본문을 읽고, 원고를 작성하고, 청중에게 전달하는데,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시편의 경우 논리나 이야기가 아닌 감정을 전달해야 한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성령님의 일이고 그래서 시편 설교를 위해서는 더욱 많이 기도해야 한다. 설교 시간 내 내 냉랭한 분위기가 흐른다면 시편 설교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시편으로 설교의 준비과정 특히 전달에서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III. 나가는 글

지금까지 우리는 시편 설교 방법론을 알아보기 위해 문학 장르 인식이 왜 중요하며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는 것에서 시작하여 문학 장르 인식과 본문 읽기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확인된 것은 문학 작품은 그 장르가 무엇인가에 따라 그 텍스트의 의미까지 달라지는데 성경도 문학 형식을 띠고 있기에 먼저 장르를 파악한 후에 해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제 문학 장르의 특징 가운데 시편을 중심으로 시편의 구조적 특징과 주제적 특징도 살펴보았다. 시편은 평행법, 평행 구조, 이미지 및 감정 전달 등의 특징을 가지는데 이를 먼저 발견해내는 것이 시편 해석의 첩경이다.

시편의 주제적 특징 가운데 두드러지는 것은 시편은 메시아를 고대하게 하는 것인데 그런 이유로 시편은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언급된 구약의 책이 되었다. 시편은 여러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주제에 따라 대략 여섯 개 정도의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시편에는 찬양시, 탄식시, 감사시, 신뢰시, 제왕시, 그리고 지혜시

가 있다.

설교자가 시편을 잘 설교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문을 반복해서, 소리를 내어 읽고 역본을 비교하며 읽는 등 다양한 방식의 본문 읽기가 중요하다. 이어서 시편을 해석하는 과정에서는 다섯 개의 질문을 던지고 이에 진지하게 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해서 해석 과정을 마치면 설교문을 작성하고 그 설교를 전달해야 하는데 설교 준비란 전달이 끝나기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여타의 설교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시편 설교는 전달하는 순간의 분위기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추상적 언어는 구체적으로 바꾸고 대구법도 개발하며 음악적 요소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시편은 가슴을 전달하는 일이기에 시편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이다. 모든 설교에 기도가 중요한 것과 비교하여 특별히 시편 설교는 준비부터 전달하는 그 순간까지, 설교자 본인과 청중과 예배당의 분위기, 심지어 그날 날씨까지, 설교하기에 가장 좋은 상황이 되도록 정말 많이 기도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권 호. “현대 강해설교의 장르 이해와 적용”.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신학정론」 36/2 (2018): 327-51.
- _____. 『본문이 살아있는 설교』. 서울: 아가페, 2018.
- 김창대. 『한권으로 꿰뚫는 시편』. 서울: IVP, 2015.
- 유윤종. “잠언이라는 장르와 설교: 지혜설교를 지향하며”. 평택대학교 피어선기념성경연구원. 「복음과 신학」 10 (2008/12): 50-70.
- 이승진. 『교회를 세우는 설교목회』. 서울: CLC, 2013.
- _____. “Tota Scriptura에 근거한 성경적인 설교를 위한 상호본문성”.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신학정론」 34/1 (2016/05): 323-54.
- 정창균. 『설교학 강좌』.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2017년 1학기 강의안, 216.
- 주승중. 『성경적 설교의 원리와 실제』. 서울: 예배와설교아카데미, 2006.
- Arthurs, Jeffrey D. *Preaching with variety : How to re-create the dynamics of biblical genres*. 박현신 옮김. 『목사님 설교가 다양해졌어요』. 서울: 베다니출판사, 2010.
- Craddock, Fred B. *As One without Authority*. 김운용 옮김. 『권위 없는 자처럼』. 서울 :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3.
- _____, Fred B. *Preaching*. 이우제 옮김. 『크래독의 설교 레슨』. 서울: 도서출판대서, 2009).
- Futato, Mark D. *Interpreting the Psalms : An exegetical handbook*. 류근상·류호준 옮김. 『시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고양 : 크리스찬, 2008.
- Iser, Wolfgang. “Interaction between Text and Reader.” in *The reader in the text*. ed., Susan R. Suleiman and Inge Crosma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0.
- Long, Thomas G. *Preaching and the literary forms of the Bible*. 박영미 옮김. 『성서의 문학유형과 설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 Osborne, Grant R. *Hermeneutical spiral : a comprehensive introduction to biblical interpretation*. 임요한 옮김. 『성경 해석학 총론』.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7.
- Smith, Steven W. *Recapturing the voice of God :shaping sermons like scripture*. 김대혁·임도균 옮김. 『(본문이 이끄는) 장르별 설교 : 하나님의 음성 되살리기』. 서울 : 아가페북스, 2016.
- Vanhoozer, Kevin J. *Is there a meaning in this text? : the Bible, the reader, and the morality of literary knowledge*. 김재영 옮김. 『이 텍스트에 의미

- 가 있는가?』.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3.
- Wilson, Paul Scott. *(The) Four pages of the sermon*. 주승중 옮김. 『네 페이지 설교』. 서울: 예배와설교아카데미, 2006).
- York & Bert Decker, Hershael W. *Preaching with Bold Assurance*. 신성욱 옮김. 『확신 있는 설교』.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8.

[논평]

최광희 박사의
“**장르 이해를 적용한 시편 설교 방법**”
에 관한 논평



이재형 교수(침신대)

1. 본 논문의 공헌

설교의 목적은 성경적 주해 과정을 통해 본문의 중심 메시지를 이해하고, 이를 현대 기독교인들의 상황에 맞게 신학적으로 재구성하여, 청중이 자신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를 이루는 데에 있다. 또한, 설교의 이러한 목적이 올바르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설교자가 본문의 내용 뿐 아니라 본문이 가진 장르의 특징을 설교에 반영할 때 본문에 담긴 신학적 의도까지 전달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최광희 박사의 논문 “성경의 장르 이해를 적용한 시편 설교 방법”은 장르적 특징을 고려한 시편 설교의 좋은 예를 제공한다. 먼저, 연구자는 ‘시’가 가진 일반적인 문학적 특징(음성, 이미지, 단어, 리듬, 구문 구조, 주제, 아이디어)을 소개하며 이러한 특징의 연쇄 시스템이 히브리 시가 가진 “평행법(parallelism)”을 통해 구현된다는 사실을 밝힌다.

다음으로 연구자는 설교자가 시편이 가진 문학적인 특징에 집중하여 본문을 연구할 수 있는 방법 네 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설교자는 히브리 시의 소절과 소절 사이에 나타나는 다양한 평행적 관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시편의 평행법은 독자로 하여금 천천히 따라 읽도록 유도함으로써 시가 강조하는 부분을 찾도록 돕는다. 둘째, 대부분의 시는 동심형 구조 (concentric pattern)로 되어있음을 밝힌다. 셋째, 시편의 구조적 특징과 함께 시편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미지이다. 이미지는 독자

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시편 기자와 같은 입장에서 묵상하도록 돕는다. 마지막으로 시편이 개인의 신앙 고백임에도 공동체를 위한 설교의 본문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시편을 성경에 포함시키셨기 때문이다. 연구자가 제시한 네 가지 방법들은 설교자가 시편에 담긴 신학적 의미를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좋은 안내자가 될 것이다.

또한, 연구자는 시편이 교훈적이고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이 다양한 카테고리 (찬양시, 탄식시, 감사시, 신뢰시, 제왕시, 지혜시)를 통해 구현된다고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히브리 시가 가진 문학적인 특징을 살린 설교를 위해 시의 카테고리, 이미지, 패턴, 신학에 기초한 주해와 시에 담긴 감정적인 아웃라인이 설교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올바른 시편 설교를 위한 효과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2. 발전을 위한 제언

1) 시편의 구조적 패턴에 대해 대칭구조 (symmetrical pattern)과 동심형 구조 (concentric pattern) 두 가지 만을 소개했는데, 다른 형태의 구조(교차 대구적 구조 등)에 대한 소개가 포함 되면 좋겠다.

2) 시편의 장르적 문학 분석 방법을 특정 시편을 예로 들어 설명해 주면 좋겠다.

3. 질문

1) 다양한 문학적 특징 (구조적 패턴, 이미지의 사용)이 시편의 신학적 의미 전달에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질문을 드린다.